

찬불가 작곡 20년 작곡가 김동환
부처님 노래 만들 땐 부처님 생각만 합니다
대행 스님 법어 10여편 찬불가 작곡하며 불교 인연

A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11월 21일) · 주간

제921호 2013년 1월 2일 수요일

베푸는 것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베풀었다고 교만함을 가져선 안되며
은혜를 갚을 것으로 기대해선 안된다.
「열반경」



2013 희망의 해 뜬다

다시 두근거리는 새해

2013년, 또 새해다. '새 것'이라는 말은 어디에 붙어도 좋은 것 같다. 설레게 하고 두근거리게 해서 좋다. 늘 흐르는 시간 속에서 또 한 번 설레고 두근거릴 수 있는 시간이다. 늘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오늘은 새로운 태양이다. 바다 위에 반야용선처럼 떠있는 간월암 위에도 새로운 태양이 떴다. 무학 대사가 창건해 무학사로 부르던 것을 만공 스님이 중건하고 간월암이라 부른지 100년이 되었다. 무명의 중생을 피안으로 실어 나를 간월암 위로 새해 첫 눈이 내린다. 다시 두근거리는 새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 o@hyunbul.com

불자 의식 개혁 위한 공개 좌담회 열린다

8~10일 범어사서 고우, 무비 스님 등 나서

2013년 새해를 맞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위한 자성과 쇄신 결사가 불자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운동으로 확대된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1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부산 범어사에서 의식개혁 결사 첫 번째 운동으로 '바람직한 불교관과 실천론 확립을 위한 제1차 열린 좌담회'를 개최한다.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내 '사부대중 의식개혁을 위한 소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좌담회에는 그동안 교계에서 제기됐던 '진정한 쇄신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뿐 아니라 종단 사부대중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한 것이다.

좌담회에는 선, 교, 율, 종무 등 네 분야를 대표해 원로의원 고우 스님, 무비 스님, 도법 스님 지안 스님, 영축총림 율주 혜남 스님, 계단위원 성우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참여하며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날인 8일에는 고우 스님이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 기조발제에서 승가의식 개혁에 대해 역설할 예정이며, 9일에는 도법 스님이 '대승불교인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 기조발제를 통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불자의식의 변화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조발제 이후에는 자문위원과 참석 대중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진다.

도법 스님은 "진정한 결사는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종도들이 모두 함께 대승보살의 실천자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순천 선암사 종합정비사업 추진

문화재청과 공동, 2017년까지 진행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사적 제507호 '순천 선암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순천시(시장 조충훈)와 협의해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구랍 26일 밝혔다.

종합정비계획에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선암사 건물과 시설물 정비, 동선체계 개선, 탐방로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 사업 중요도와 예산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할 정비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청은 "순천 선암사는 사찰 고유의 배치와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고 선원, 강원, 율원을 갖추고 있는 사찰로서 고유 공간의 기능을 유지하고 역사성을 고취하고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며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선암사가 승려의 참선수행 전문도량으로서의 진정성을 회복함으로써 품격 높은 관광자원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암사는 신라시대 아도화상의 '비로암' 창건설과 도선국사 창건설을 가진 사찰로서,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 스님에 의해 중창됐다. 경내에는 대각국사 부도로 추정되는 보물 제1117호 '순천 선암사 대각암 승탑(大覺庵 僧塔)' 등 보물 14점을 비롯해 다수의 중요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역사적 · 학술적으로 가치가 크다.

신중일 기자

사 령

2013년 1월 2일

박 재 완 취재부 부장 대우
신 중 일 취재부 차장
김 경 숙 관리부 차장

한국불교 '신행 · 포교 지도' 바뀐다

地圖



신년기획

마음산업

지난 한해는 불교를 중심으로 한 '힐링 열풍'이 한국 사회를 휩쓸었다. 그만큼 각박한 현대인들이 마음을 치유받고자 하는 욕구가 비할 수 없이 늘었다는 반증이다.

이 같은 '힐링 열풍'에 대한 관심은 마음 산업의 수요로 이어졌다. 특히 뇌과학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전문 서적부터 멘토 스님들의 치유 에세이까지 마음치유에 대한 출판물은 특수를 누렸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스트레스 치유 프로그램 MBSR의 창시자 존 카밧진 박사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승려와 철학자〉의 저자 마티외 리카르 스님과 미국 담마수카명상센터를 이끄는 위말라람시 스님 등이 잇달아 방한하기도 했다. 당장 올 1월에는 아잔 브라흐만 스님과 5월에는 틱낫한 스님도 한국을 찾는다.

이 같은 대중들의 욕구는 불교계 내부에서도 변화를 이끌었다. 서울 조계사(주지 도문)에는 지난해 초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이 설립됐다.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에는 알아차림 명상을 이용한 마인드케어 지도사 과정과 명상체조, 마음힐링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이다. 또한 조계사 불교대학 내에도 '명상과 행복, 뇌과학을 넘어서'와 실전 호흡 수행과 같은 마음 관련 강좌들이 신설돼 많은 호응을 받았다.

최근에는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도 이를 벤치마킹해 지역민들을 위한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을 설립해 1월 17일부터 개강한다.

통도사 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 학장 명본 스님은 "국민건강과 국가행복지수 상승을 주도할 마인드케어 전문지도사를 양성해 '불교적 마음산업' 선도를 목표로 한다"며 "미래 핵심산업의 한 분야인 마인드 테크놀로지(Mind-Technology)산업의 조기진출로 불교명상의 사회화, 산업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불교계 내부 변화는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일반 대중까지 선도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요가와 스파, 테라피, 단전호흡 등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참선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단월드의 경우 1985년 전신인 단학선원을 개원한 이래 1991년 미국에 진출했고 현재는 200만 명의 수련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팽창하는

조계사 등 평생교육원 개원

'마음' 주제 강좌 대거 늘어

불교는 힐링 콘텐츠의 보고

禪 대중화 위한 접근 필요

마음관련 산업에서 불교계의 역할과 나아갈 길은 가히 무궁무진하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이고 마음에 대한 다양한 수행법과 역사를 갖고 있는 콘텐츠의 보고(寶庫)이기 때문이다. 일반 대중의 호응도가 높은 마음산업이 일선 사찰에 도입될 경우 한국불교의 신행지도를 재편할 수 있다.

이태호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 기획이사는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는 현대인은 끊임없는 치유를 요구받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참선은 '자기 치유'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매뉴얼화된 참선은 대중들에게 접근이 용이하다. 불교는 마음수행의 원천인 만큼 이를 대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특집 B1 · 2 · 3 · 4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종정 진제 법원

원로회의의장 밀 운 총무원장 자 승
중앙종회의장 향 적 교육원장 현 응
호 계 원 장 일 면 포교원장 지 원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2013년 신년 특집호 INDEX

A 종합 2 · 3
월서 스님 신년 휘호
조계종 문화사업단 행복지수 분석
조계종 노동위 10만배 회향

특집 · 동북아 평화 위한 한중일 불교 역할 4 · 5
각 종단 신년 법어 · 신년사 7~9

신년대담 · 종교인 시대 공감 11
삼포시대 – 희망멘토 메시지 12 · 13

한국불교 변화의 주역, 2013을 말하다 28

B 특집 · 마음산업 & 불교 1~4
불교 '마음 산업' 어디까지 왔나
국내 마음 산업 현황
서구 마음 산업 이끄는 사람들
한국불교, 마음산업에 나서자

대만 불광산사 성운 스님 휘호 8
사찰 신재생에너지 도입 10
2013 세계 물의 해 – 불교와 물 11

경전 속 뱀 이야기 14
뱀띠 사부대중의 서원 15

자비광명이 충만한 한 해 되십시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성한 가르침에 헌신해야 하리니,
띵리 사람들이여, 그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리라.

원인과 결과의 끊임없는 과정을 통해, 당신의 행위와 말과 생각은 나중에 겪게 될 행복이나 고통을 결정짓습니다.
만약 당신의 행동이 부정적인 것에 치우치게 된다면, 당신은 윤회계의 낮은 존재 상태에서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쪽에 기울어 있다면, 당신은 윤회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 질 수 있고, 한 생에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자명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피하고 행복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간으로 태어나 불교가 번창한 곳에 살고 성취한 스승을 만났다면, 스승의 가르침을 닦아나가고, 이생이나 미래생에서 헤아릴 수 없는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초점이 세간사에 있고, 그에 집하는 것이 이 윤회계의 수감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고픈 마음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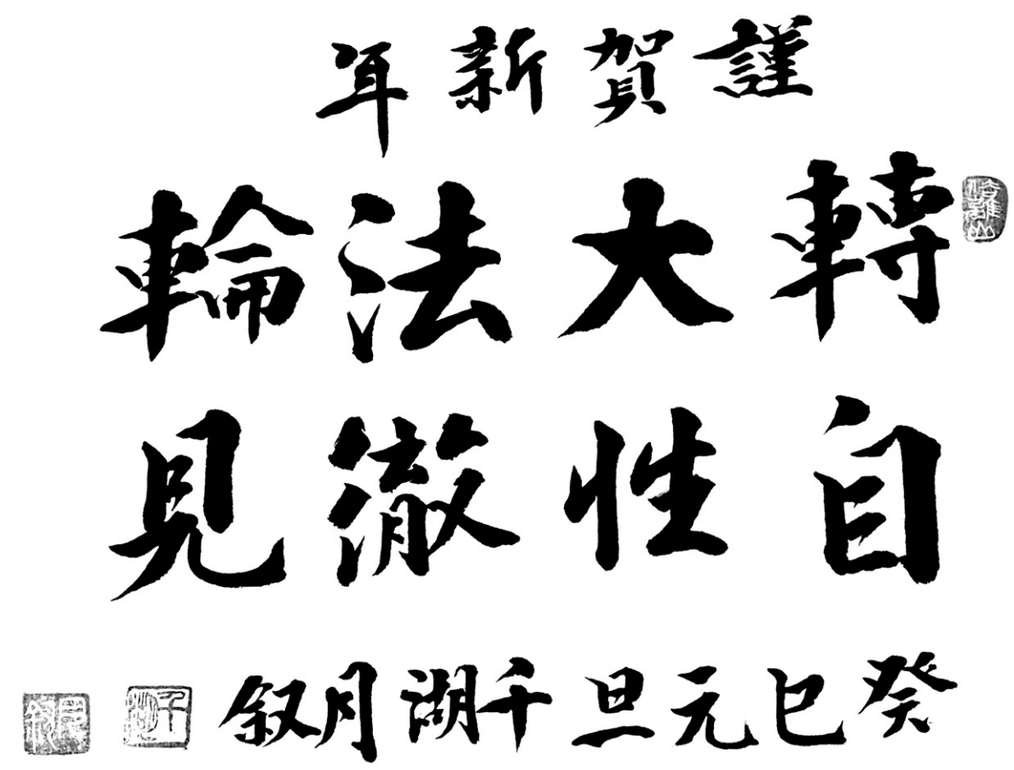
바로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한쪽 길은 해탈로 이끄는 길이고 다른 한쪽 길은 윤회계로 가는 길입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육신은 당신을 해탈의 물으로 이끌어 주는 배(船)요,
육신은 윤회계의 심연으로 가라앉히는 돌(石)이요.
육신은 악업과 선업의 시종이라네.

투명한 수정이 주변의 색을 반사시키듯,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의도에 따라 악업도 짓고 선업도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길을 택하고 올바른 행동 · 언어 · 생각이 다르마를 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필수 사항입니다.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없애는 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에 브라만이었던 '우파굽타'는 본인의 수행의 진전을 측정하기 위해 매일 저녁 두 부류의 돌무더기를 가져다 놓고 검은 돌은 나쁜 생각이나 행동을, 하얀 독은 좋은 일을 했을 때 쌓아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검은 돌 무더기가 높았으나, 점차 하얀 돌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자신의 성품을 보라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 스님이 불기2557년(2013년)계사년을 맞아 신년 휘호를 본지에 보내왔다. 스님은 휘호의 뜻에 대해 "법륜을 크게 굴려서 자성(자기성품)을 보아라. 높은 곳에 오르니 비로서 건곤이 크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도를 깨달으니 마침내 일월이 밝음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대한국민 국민 5%만 "내 삶은 행복해"

불교문화사업단, 5천명 자아행복지수 분석 발표

멘토 스님들의 '힐링'으로 지난해 국민들은 적지 않는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스님들의 노력에도 각박한 현대인들은 큰 행복감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이 구랍 27일 발표한 SQ(자아행복지수)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일상에 만족감을 느끼는 행복한 상태의 국민은 5%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약 3개월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10주년을 기념해 자체 개발한 SQ(자아행복지수)에 참여한 10대~60대 국민 5,011명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이다.

또한 국민 대다수인 85%는 열심히 살고 있으나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해 정작 자신의 행복에는 소홀한 상태였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자칫 우울증이나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 받은 응답자도 12%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 젊은 세대들의 취업난 등 개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피로도가 이번 자아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령대 별로는 10대들의 자아행복지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응답자 중 스트레스 해소가 시급한 C타입과 D타입 비중이 16.9%로 20대 이상 응답자의 9.8%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는 구랍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회조사와 유사한 결과로, 10대들이 성적이나 진학문제, 친구간의 불화와 따돌림 등으로 전 연령 중 자살충동을 느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SQ(Self-Happiness Quotient, 자아행복지수)란 간단한 문답을 통해 자아행복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으로 마음, 건강, 대인관계, 직장생활(학교생활) 등 4가지 영역을 아우르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SQ테스트의 결과는 △평온한 자아를 가진 행복한 상태인 A타입 △열심히 살고 있지만 자신의 행복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B타입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C타입 △답답하고 불편한 삶 속에서 마음을 여는 연습이 필요한 C타입 등 총 4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등묵 스님은 "보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자아 행복감이 중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문화사업단은 2013년에도 템플스테이와 같은 행복하고 건강한 습관을 보급하는데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SQ지수는 홈페이지(sq.templestay.com)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SQ지수 전체 결과표

내 용	응답자수	퍼센트
A타입 – 평온한 자아를 가진 행복한 당신	238	4.7%
B타입 – 열심히 사는 당신, 이제 행복을 찾으세요!	4,278	85.3%
C타입 –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잠시 쉬었다 가셔도 좋습니다	432	8.6%
D타입 –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73	1.5%
합계	5,011	100%

대다수 과도한 책임감에 부담
우울증 우려도 12%에 달해
"이제는 국민 행복감이 중요"

보우대사 업적 기리는 학술논문 공모한다

봉은사, 1월 25일 접수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가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현응)과 공동으로 허응당 보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학술논문을 공모한다.

봉은사는 "보우대사의 순교 448주년을 앞두고 조선시대 꺼져가던 부처님의 법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다 순교한 보우대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학술논문을 공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응모 자격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연구자이며 주제는 보우대사의 사상 및 업적 전반이다. 응모자는 오는 1월 25일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후 2차로 2월 28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조계종 총무원장상 1명에게는 상금 500만원, 조계종 교육원장상 1명에게는 상금 300만원, 봉은사 주지상 2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접수 양식은 봉은사 홈페이지(www.bongeunsa.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당선된 논문은 오는 10월 10일 열리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다.

한편 봉은사는 올해 부처님오신날 경보우대사 동상 제막식을, 10월 5일 개산대재에서는 보우대사 탑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02)3218-4836

노덕현 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佛紀 2557年 癸巳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본회는 1995년 창립 사단법인으로써 한국불교는 물론 세계불교 발전을 위하여 종단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면서 회원종단 행사는 물론 애경사시 종정스님 전원이 동참하여 법석을 장엄하게 하며 화환 및 조화를 모두 보내주고 특히 회원(종정)열반시 100만원 상당의 위로금과 회원(종정) 전원이 동참하며 조화를 모두 보내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 4천평 부지에 복지회관과 대웅전을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미가입 종단 종정스님께서는 필히 입회 하시여 본회에서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문 : 석인왕 대종사 (재)한국불교 여래종 종정
석무찰 대종사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3세종정

원로의원 : 석동산 대종사 대선불교 조계종 종정
석정암 대종사 (사)한국불교 조계종 종정
석혜지 대종사 (사)대한불교 해인종 종정
석동원 대종사 대한불교 연화종 종정
석양명 대종사 한국선불교 대불종 종정
석법광 대종사 세계불교법륜종 종정
석석봉 대종사 대승불교 삼론종 종정
석혜봉 대종사 (사)대한불교 해동종 종정
석혜우 대종사 한국불교일광종 종정
석보광 대종사 (전)중앙불교 조계종 종정
석덕산 대종사 대한불교천지종 종정

회 장 : 석월인 대종사 (사)대한불교 승가종 종정
이사장 : 석지산 대종사 (사)한국불교 정토종 이사장
상임이사 : 석대응 대종사 선불교조계종 종정
상임부회장 : 석영월 대종사 대한불교 법사종종정
부회장 : 석혜륜 대종사 (사)한국호국불교 조계종 종정
부회장 : 석청봉 대종사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감 사 : 석룡담 대종사 대한선불교 조계종 종정
재 무 : 석청원 대종사 대한불교원각조계종 종정

이 사 : 석진공 대종사 대한불교광명 조계종 종정
이 사 : 석법홍 대종사 (재)세계불교 미륵대종 종정
이 사 : 석일강 대종사 대한신불교천우종 종정
이 사 : 석일암 대종사 한국불교 근본 해동종 종정
이 사 : 석법정 대종사 조선불교대선종 종정
이 사 : 석은산 대종사 한국불교법화종 종정
이 사 : 석도우 대종사 대한불교반야선종 종정 대행
이 사 : 석현불 대종사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이 사 : 석청암 대종사 충남불교조계종 종정
이 사 : 석법정 대종사 대각불교조계종 종정
이 사 : 석정안 대종사 한국불교환인종 종정

사무총장 : 이붕 서병열 일붕신문사 대표
기획실장 : 건진 전성배
사 무 장 : 배상광

대전회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동부상가맨션2층 216-1호 전화 : (042) 285 - 1227
사무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6-17호 혜명빌딩 6층 전관 전화:(02) 756 - 1227 팩스:774-1487 홈페이지 : http://www.jongjeong.com

1배마다 노동인권 떠올리며 10만배 회향

노동위 구랍 26일 회향식 개최, 국민관심 호소

구랍 26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 종호 스님의 몸에서는 추운 겨울을 잊게하는 뜨거운 김이 피어 올랐다.

조계종 노동위원장인 그는 이날 '쌍용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10만배 기도' 회향식에 참여해 108배를 올렸다. 10월 17일 시작된 10만배 기도는 25일까지 조계종 노동위원들과 시민단체, 각계 근로자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하루 1000배씩 100일 동안 진행했다.

기도에 참여한 이들만 200명에 달한다. 대한문 앞에 괘불을 걸고 1000배 기도를 하는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사람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었다. 특히 밤새도록 3000배 철야기도를 할 때는 따뜻한 음료를 주는 등 쌍용차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 동참자들의 노력에 대해 마음 속으로 큰 지지를 보내주었다.

이날 10만배 회향식은 조계종 노동위원회 위원인 도철 스님의 집전으로 10만배 회향법회로 진행됐다.

절을 마친 뒤 종호 스님은 "100일간 기도를 계속하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종호 스님은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쌍용차측과 23명의 희생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또 4명의 노동자들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새 정부에서는 노동인권이 자리잡는 새로운 분위기가 싹트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쌍용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5대종단이 함께 구성한 33인 원탁회의에서 정치권과 사측으로부터 국정조사와 노사대화 등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히면서 "대선이 끝났으니 정치권이 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고에 노동자 23명 목숨 포기
총 200명 하루 1000배 릴레이
사회적 약자 노동자 보듬기 나서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은 "4명의 죽음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는 특히 더 무겁게 다가온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민생정치와 국민행복시대 공약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정치권과 박 당선인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조계종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종교계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회향식에서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정치권과 기업주, 노동자들을 향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을 통해 노동위는 "노동 현안은 최근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라고 강조하며 "노동문제의 해결은 화합, 평화, 상생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10만배 기도 정진에서 참가자들이 쌍용차 문제해결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다.

노동위는 또 정치권을 향해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려지는 데에는 노동현장을 외면해 온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호소문은 정치권이 "진심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루라도 빨리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주들에 대해서도 "회사의 이익을 따지기에 앞서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달라"고 요구했다. 호소문은 "노동자 없이는 회사도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노동자들을 향해서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노동위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곧 우리 모두의 고통으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많은 사람이 함께 하고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노동위는 끝으로 "결코 국민은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이날 25일 故이호일 한국외대 노조지부장에 대한 애도문을 발표했다. 故이 지부장은 한국외대 불교학생회장을 지낸 바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아름다운 동행, 기부 행렬 잇달아 '훈훈'

바자회 수익금, 목도리, 쌀 등 전달… 이웃 사랑 실천

연말을 맞아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따뜻한 이웃들의 손길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구랍 26일은 성동구립 연꽃어린이집(원장 정명자)에서 아동들이 직접 뜬 목도리와 기금전달식을 했다. 전달식에는 해오름반(7세 아동) 약 20명의 아이들이 직접 뜬 목도리 60개와 어린이집에서 진행된 바자회 판매 수익금 20만원을 전달했다.

어린이집 정명자 원장은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받는 이들에게 잘 전해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같은날 NH농협은행 종로지점(오두희 지점장)은 사랑의 쌀 200포대(10kg)를 동행에 전달했다. 기증한 쌀은 저소득가정에 나눠진다. NH농협은행은 아름다운동행에 매년 쌀을 기부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 배상문 PGA프로골퍼는 구랍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비나눔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배 씨는 2008년 아름다운동행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포교원 불교입문 영상교재 무료 보급

'불교입문', '불교개론' 등 PPT와 동영상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신도교육 조직화를 위해 영상교재 보급에 나섰다. 교육원은 '불교입문', '불교개론', '부처님생애' PPT 3종과 '초심자를 위한 입교안내' 동영상 DVD를 제작해 상반기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파워포인트 교재는 각 강좌별로 강의 핵심내용과 함께 사진, 일러스트로 이해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초심자를 위한 입교안내' 동영상DVD에는 불교에 처음 입문한 신도들이 종무소에서 안내를 받고 법당에서 예의를 갖추는 과정이 설명돼있다. 포교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영상자료는 종단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무료보급할 예정"이라며 "통일된 교육교재를 활용함으로서 신도교육의 체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화사업단 신임단장에 정산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신임단장에 중앙종회의원 정산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구랍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정산 스님에게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양익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정산 스님은 1981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범어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범어사 금어선원서 수행정진했다. 중앙승가대 동문회 사무국장과 기획실장, 범어사 사회국장과 기획국장, 개운사·황련사·모은암·동명불원 주지 등을 역임했다. 14~15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며 현재 종립학교관리위원이다.



노덕현 기자

박지연 대불련 51년차 중앙회장 선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51년차 중앙회장에 박지연(법명 보명화·단국대 2학년)씨가 선출됐다. 신임 박지연 회장은 구랍 23일 서울 국제선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42표 중 35표를 얻어 신임회장에 당선됐다. 박 회장은 2012년 천안지부 단국대 불교학생회장을 역임했다.

박 회장은 대불련 운영기조로 '주체적인 대학생 불자' '소통하는 대학생 불자'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대불련의 미래비전을 통해 50주년을 맞아 새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서민 기름값 낮추기 종교계가 나섰다

국민석유회사 설립에 봉은사 등 불교계 참여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민석유회사 설립운동에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가 적극 참여한다.

이태복 국민석유회사 설립준비위원회 상임대표와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구랍 26일 봉은사 성불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교계를 중심으로 국민석유회사 설립을 위한 1인 1주 갖기운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태복 상임대표는 "지금보다 20% 싼 값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국민주 방식의 사회적 기업인 국민석유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고통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종교계가 국민석유회사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석유 설립준비위원회는 이를 위해 산하에 종교위원회를 구성했다.

불교계 인사로는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과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석유회사준비위는 또 지난 6월부터 인터넷 약정운동을 벌인 결과 지금까지 953억원을 모금해 약정 목표액인 천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국민석유회사'의 설립취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며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설립운동에 종교계의 동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복 대표는 "국내 정유4사가 비싼 중동산 원유를 수입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국민석유회사가 앞으로 시베리아 등의 값싼 저유황 원유를 도입해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국산 촉매제 개발로 중소기업 육성과 5천 5백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명상상담과 함께 하는 청소년 진로캠프

스트레스 해소, 진로 탐색 프로그램 눈길

마인드힐링 명상상담센터는 겨울방학을 맞아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청소년 명상진로캠프'를 2일간 진행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반과 중학생반, 고등학생반으로 이뤄지며 각 반은 5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는 28만원으로 검사비 및 교재, 식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캠프 내용으로는 △꿈을 찾아서 △who am I? △아듀! 스트레스 △소통하기 △명상상담 △진로탐색 △나의 꿀, 나의 길 △비전세우기 등이 진행된다. (032)322-6122

노덕현 기자

동국대 정시 모집 학생 대거 몰려

전체 1386명 모집에 7953명 지원…연극학부 34대 1

3년 연속 대학평가에서 순위가 상승한 동국대에 신입생들이 대거 몰렸다.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동국대 서울캠퍼스 2013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12월 26일, 최종 경쟁률이 5.74대 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 1386명을 선발하는 정시 모집 전형에 7953명이 지원한 것. 가장 높은 경쟁을 기록한 곳은 가군 연극학부로 16명 모집에 545명이 지원해 3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주 지 성 타

관 장 종상 재 무 종천
학 장 덕민 사 회 종민
선원장 종우 포 교 성요
총 무 종천 호 법 각천
기 획 정문 사 서 정빈
교 무 정수 회 계 성명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1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佛流'로 동북아 갈등·위기 극복 나서야

동북아 평화위한 한중일 불교 역할 – 전문가에게 듣는다

지난해 한중일 삼국의 지도자는 전부 교체됐다. 한국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일본은 아베 총리가 다시 집권했으며, 중국은 시진핑이 정권을 잡았다. 한중일 정권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동북아 정세도 새 판에 놓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무쌍한 동북아 정세에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스님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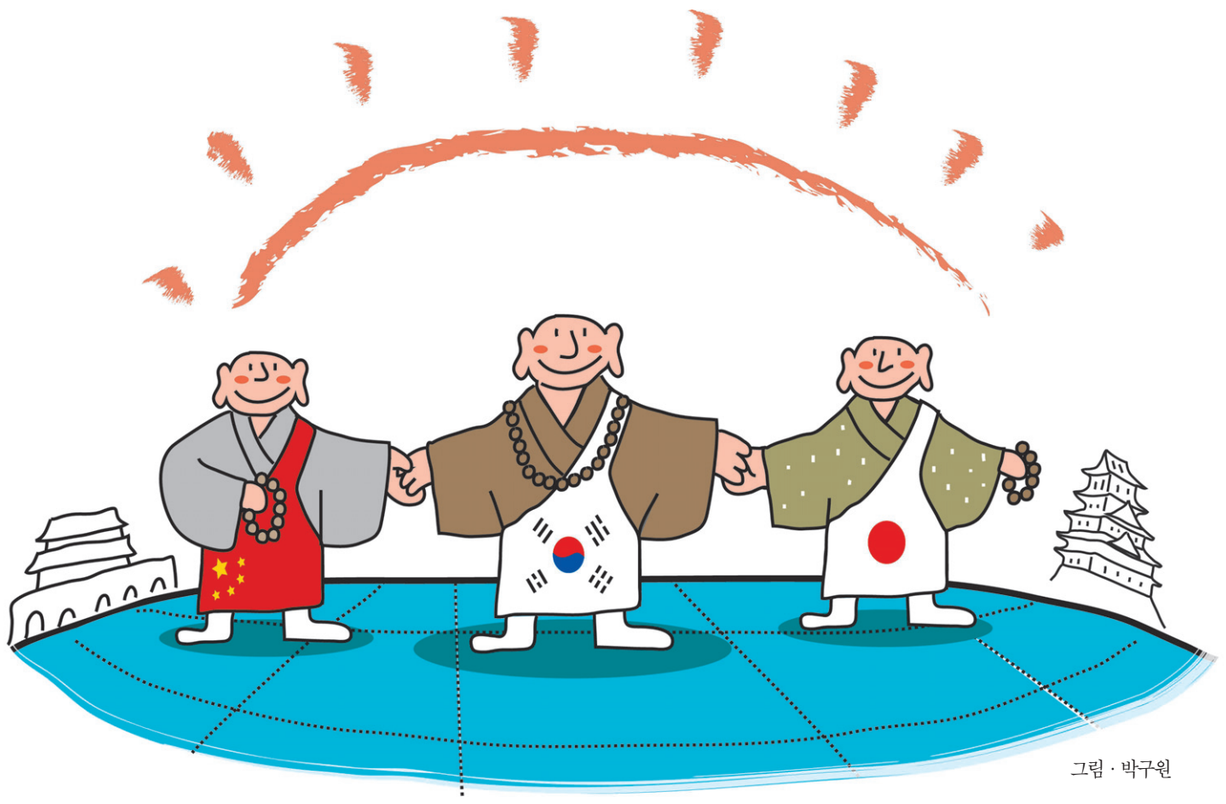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새 지도자 선출로 화해 · 갈등 기로

불교사 공동 저술 필요하지만

실효성 · 저술주체 찾기는 난항 예상

한국도 세계불교 선도할 기구 필요

동북아 지역의 한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대립관계에 있다. 한국은 대미?대북관계, 중국은 대만과의 관계에 종속돼 있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다.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론과 부정론이 동시에 존재했다. 한중일 불교 우호의 산증인인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한중일 지도자는 모두 전후 세대로 교체됐다. 이들은 전쟁이라는 힘든 시절을 겪어본 인물들이 아니다"라며 "새 지도자들이 들어선 만큼 동북아 정세의 긍정적 새 판이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문화 등을 교류 협력이 증가되면 불교의 역할도 증가될 것"라고 밝혔다.

일본불교와 적극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현재 세계 패러다임은 국경의 의미가 없어졌지만, 일본만은 한국의 독도, 중국의 센카쿠 열도 등을 가지고 영토 분쟁에 불을 지폈다"며 "현재 일본 언론들은 이웃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온건한 외교 정책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불교 전문가인 김호성 동국대 교수는 "중국은 국가 주도로 불교가 부흥되는데 국가입장이 주로 반영될 것이며, 일본 또한 사회가 우경화되며 불교계 또한 국민여론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불교의 영향력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삼국 불교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의심스럽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독도문제를 예로 들며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일로를 걸을 때, 국민감정에 맞서서 '중요한 것은 일본과 공존 공생해야 한다' 고 말하기 어렵다. 이는 일본이나 중국의 불교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16년을 맞은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에 대해서는 3국의 불교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선언적 행사가 아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교류 행사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홍파 스님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유대 관계는 역사적으로 긴밀했다. 1995년 북경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는 16회를 이어오며 외연적인 성공을 거뒀다"며 "대회 내용이 다소 선언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1회 대회에서 고인이 된 중국 조박초 회장의 '황금유대' 정신은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이끌고 있는 정신"이라고 평가했다.

종걸 스님도 '황금유대' 정신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하지만 이에 맞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그동안 '3국 황금유대정신' 을 모토로 3국이 매년 돌아가면서 수많은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지속적인 교류도 했다"며 "이제 실질적인 '3국 황금유대정신' 을 꽃피우려면 가시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치란 WFB 태국본부 집행위원은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 집행위원은 "그동안 동북아 황금연대론은 정치적 이유로 중국불교의 우월성과 세력강화의 도구로 이용돼왔다"며 "WFB 차기대회를 개최하는 중국 측이 보다 순수한 의도에서 세계불교도의 우의증진과 교류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파 스님



종걸 스님



김호성 교수



이치란 집행위원

이어 "WFB 역시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62년 동안 불기 통일, 세계불교기 사용, 화합과 일체의 연대 구축 등의 많은 업적을 남겼다"며 "한국불교는 동북아 3국 중심의 불교대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계불교기구에 참여해 공동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불교는 최근 급속히 국가에 종속되고 있는 상황. 국가에 종속되면서 표면화되고 있는 중국불교의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모두 우려를 표했다.

홍파 스님은 "지난해 WFB 대회에서 티베트 망명정부 참석을 이유로 대회를 보이콧한 것은 세계불교인의 잔치상에 재를 뿌린 것"이라며 "중국불교는 2010년 열린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에서도 한국의 역사를 폄하하는 '기자조선론' 을 들고 나와 공분을 샀다. 그들의 논리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강력히 항의했지만, 중국불교는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밝혔다.

종걸 스님은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불교포럼은 침체된 중국불교를 '세계 '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중국 중심으로 개편해서 불교 주도권을 잡아 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며 "오랜 역사를 지닌 WFB 세계불교대회에는 재를 뿌리면서 세계불교포럼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에서는 철저한 민족사상에 근거한 이론서를 발행 보급하면서, 초중고 교과서에 이를 반영시켜 교육해야한다"며 "불교계에서는 그들을 초청하여 독창적인 우리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동국사에 참사문비를 세우는 등의 일본불교의 전향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종걸 스님은 "지난 9월 군산 동국사에 세워진 일본 조동종의 〈참사문〉 비석이 바로 국제교류의 결실"이라며 "〈참사문〉비에는 불교적 참회사상이 전제돼 있다. 양국 정치인들도 조금씩 마음을 연다면 분명 가시적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파 스님도 "동국사뿐만 아니라 일본불교는 전쟁 당시 한국인들의 유골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번번이 정치적 이유로 좌절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 간 대승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호성 교수는 완벽한 역사의 화해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2012년을 돌아보면 동국사에 일본 조동종 참사비가 건립되는 등 의미있는 한해였다"면서 "하지만 참사비 건립도 일본 조동종 차원이 아니었으며 이후 조동종이 저작권 침해로 석비 반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존의 철학이 아직도 한중일 국가에 자리잡고 있지 못했음을 실감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현안에 대해 3국 종교계가 앞장서기보다 협한증 개선 등 국민의식을 바꾸는 일에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적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제기된 주장이 2010년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에서 나온 〈한중일 불교사〉 공동 집필이다. 3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실제적인 사업으로 추진돼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종걸 스님은 3국 불교가 꼭 풀어야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3국은 동북아시아 문화권이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서로의 차별된 문화를 꽃피우면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을 견지해왔다"며 "현재 동북아는 동일한 문화시장으로 묶이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불교도 웃나라를 마음껏 넘나들면서 공동문화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파 스님은 취지는 좋지만, 이상론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홍파 스님은 "한중일의 역사학계가 나서서 공동 교과서를 집필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며 "서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틀리고 이해와 정서가 다르다. 집필 주체를 설정하기도 어렵다. 공동 역사서 집필은 사실상 이상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동북아 평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김호성 교수는 "3국 불교계가 단순한 연대 강화보다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한중일 불교는 각국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놓여 있어 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치란 집행위원은 동북아의 평화실현을 위해 삼국불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가장 먼저 한국불교가 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리더쉽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불교는 관제불교의 틀을 벗어나 자율성을 갖고, 일본불교는 세속화된 재가불교화로부터 승가정신 회복과 국수주의적 태도를 반성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며 "상시적으로 동북아 정세를 논의할 수 있는 '동북아 불교평화포럼' 같은 상설기구 창설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파 스님도 동북아 불교를 이끌 수 있도록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원의 국제기구 창설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은 "중국은 세계불교포럼이, 태국은 세계불교도우의회가, 일본은 세계평화종교회의 같은 국제 종교기구가 있다"며 "한국불교도 이미 이들과 버금가는 역량을 가졌다. 이제 범종단 차원의 국제불교기구 창립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걸 스님은 연기적 불교문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성숙된 정견을 표출하는 것이 한국불교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동북아 3국을 통합하는 힘은 '불류(佛流)' 에 있다. 기존의 의례적이고 관례화된 행사는 지양하고 '동북아 불류시대' 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며 "이제는 교류의 양이 아닌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중일 · 노덕현 기자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율종)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역경원장 : 혜산법종 율 원 장 : 혜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종 회 의 장 : 백공
사서실장 : 대산 중앙선원장 : 도일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원 로 원 : 법종, 성민, 혜일, 혜정, 백공,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총무원

부 원 장 : 동안, 도불
총무부장 : 천산
재무부장 : 혜만
교무부장 : 혜일
사회부장 : 정덕
문화부장 : 지운
총무국장 : 남산
재무국장 : 묘현
교무국장 : 지성
사회국장 : 법일
문화국장 : 해인
문화재관리국장 : 진각
교육원장 : 원광
교육부원장 : 광덕
의식원장 : 보운
교육국장 : 진산
포교원장 : 정산
포교부장 : 법진
포교국장 : 무량
국제포교원장 : 중산청목
기획원장 : 진성
기획실장 : 노사나
호계원장 : 천불
호계부장 : 태산
규정부장 : 월성
규정국장 : 영암
호법부장 : 성산, 지호
호법국장 : 서산
감찰원장 : 상산
감찰부장 : 백산지견
감찰국장 : 수산
감찰1국장 : 무아
감찰2국장 : 인산
감찰3국장 : 봉산
비구니 회장 : 지성
부장 : 묘현
총무 : 정해
부회장 : 해월, 혜산, 월산
재무 : 도은, 향인
교무 : 현타, 수정
교육 : 법신, 성담
문화 : 남산, 보현
포교 : 보명, 홍산
강원 : 덕산, 원산
복지 : 정해, 보현
감찰 : 본각, 련성
불화 : 혜담, 인산, 진화
의식 : 영산, 지해, 수옥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정산
서울남부종무원장: 보덕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덕산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남종무원장: 혜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경남종무원장: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중부종무원장: 정오
부산북구종무원장: 수산
전남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울산종무원장: 혜공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중국청도종무원장: 중산청목

▣조계종 삼화불교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편집기자: 조덕연 문화국장: 용산
사회부기자: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법산
이사 : 혜원, 정산, 보운, 각원, 덕산, 향인, 관불, 해인, 묘현,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노사나
불교조계종
좋은상조: 김호철
H&G: 이영호

▣전국신도회

고문: 김윤주
회장: 설주성
사무처장: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청년신도회

회장: 손영진
홍보처장: 박영실
총무계장: 조일
기획실장: 심원일

◇ 학교법인 삼화학원 ◇

▣삼화불교대학림

학 장 : 법종 부학장 : 일봉
교 수 : 법종, 백공,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원광, 묘현, 지성

▣삼화불교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법종,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정오, 남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손영진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묘현,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135-887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조계종삼화불교신문 (02)3445-7375~6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조계종삼화불교.kr (www.shbuddhism.or.kr)
삼화불교신문: www.jogaejong.or.kr
삼화불교학림: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

佛紀 2557年 癸巳年 謹賀新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A6 전면광고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배는 스스로를 비하한다. 이기고 지는 마음 모두 떠나 다투지 않으면 저절로 편해진다.

韓國佛教 太古宗

宗正 慧草

宗正禮敬室長 道覺

僧正院 院長 南坡
副院長 法藏

元老會議 議長 雪峰
副議長 大雲
副議長 錦龍

中央宗會 議長 島山
副議長 慧空
副議長 圓潭

總務院長 印空
副院長 靑峰
總務部長 能解
敎務部長 太應
財務部長 慧山
文社部長 智虛
糾正部長 端峯

護法院長 芸谷
副院長 一雲

종도일동

■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 TEL 02)739-3450 FAX 02)739-3470

大韓佛教 天台宗

종정 김도용 대종사

종정사서실장 정장호

총무원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부이사장 전운덕

총무원장 장도정
총무부장 김월도
교무부장 정도웅
교육부장 김갈수
재무부장 정월중
사회부장 이보광
규정부장 이갈지

감사원

감사원장 변춘광
감사위원 조용문

종의회

종의회부의장 정명구 · 최인규

참의원장 권영철
중앙신도회장 김학송
금강대학교 총장 정병조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 권기종

■ 충북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 TEL 043)423-7100 FAX 043)420-7399 www.cheontae.org

생활불교 실천불교 진각종

진언향기 가득한 참 세상 구현되길 서원합니다.

총인 성초
사서실장 덕정

통리원장 혜정
총무부장 무외
총무국장 일경
기획국장 상명
전산국장 재당
재무/건설부장 수성
관재국장 대원
건설국장 원혜
포교부장 상제
포교국장 수각
문화사회부장/국제불교연구소장 덕정
문화사회국장 정법

교육원장 경정
교법부장 지정
교법국장 법경
교육부장 관천

종의회 의장 혜명
부의장 일석
부의장 경일
사무처장 관명

사감원장 증광
사감부장 혜언

진각대학원장 수성
교학처장 혜덕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136-130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17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http://www.jingak.or.kr



"法華一味의 一佛乘法"
大韓佛教觀音宗이 追求하는 길입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관음종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3 / T : 02)763-0054 / F : 02)763-5851 www.kwanum.kr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宗正 靈山 一空

總務院長 원정 성관

원로원장 성인
원로원 선명. 신수. 정각. 법성
승정원원장 평신

중앙종의회 의장 송운
총무원부원장 승덕 총무부장 정안 감찰원장 해주 종정예경실장 대천

교육원장 도현 문화원장 혜광 포교원장 담원 중앙비구니회장 선덕
중앙비구니회부회장 진월 사업부장 태상 국제포교부장 도우. 체상

부산종무원장 해운 전라종무원장 혜천 충청종무원장 의성 경상도종무원장 우담
경북종무원장 성군 경기종무원장 정안 강원종무원장 보원 제주종무원장 원각

■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 전화 02)853-0531~2 팩스 02)853-0533

大韓佛教 佛入宗

宗正 勉哲

元老院長 正觀
總務院長 鏡岩

호법원장 인수 교육원장 지학 종회의장 법진 종회부의장 상운 포교원장 혜련

총무부장 보성 역경부장 혜광 재무부장 묘훈 사회부장 봉산
감찰부장 송광 호법부장 선률 포교부장 서희

서울경기종무원장 지철
법화불교 교육대학 학장 혜광
영남범음범패 교육대학 학장 대원

부산경남종무원장 대원
법화사상연구소 소장 혜광

■ 총본산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길 125 전화 043)653-4800 / 팩스 043)653-5858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30 안길4 전화 043)653-4848 / 팩스 043)643-5858

“서로가 고마움 느끼면 절로 행복 찾아와”

“금털사자의 적자 문답처 알아”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비었음이나 신령(神靈)하고.
공(空)함이나 묘(妙)함이라.
일단광명(一段光明)이 생불(生佛)의 요긴한 기틀이요,
확철시방(廓徹十方)이 범성(凡聖)의 주처(住處)로다.
계사년 새 아침에 온 국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우리 강산에 무궁화가 만발하소서. 인생을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요, 말이 여위면 털이 길다.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또 의심할지어다.
옛날에 종심(從諗) 沙彌僧(사미승)이 출가하여 남전(南泉) 도인을 친견하니 선사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어디서 왔는고?”
“서상원(瑞祥院)에서 왔습니다.”
“서상원에서 왔으면 상서스러운 상(相)을 보았는가?”
“상서스러운 상은 보지 못했으나, 누워계신 부처님은 보았습니다.”
“네가 주인 있는 사미승인가? 주인 없는 사미승인가?”
“선사님, 정월달이 매우 추우니 귀하신 법체 유의하옵소서.”
사미승의 대답이 이와 같으니, 남전 선사께서 원주를 불러 사미승을 깨끗한 방에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온 국민 여러분, 이 두 분의 문답처를 아시겠습니까?
약시금모사자자(若是金毛獅子子)인댄
삼천리외지문답처(三千里外知問答處)리라.
만약 금털사자의 적자(嫡子)라면 삼천리 밖에서 문답처를 알리라.

“비움과 나눔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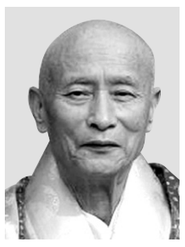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계사년 하늘에 밝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희망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모두가 함께 누릴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생명생태의 파괴, 양극화 문제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나눌 때 화해하며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고마운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나눌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남을 해치고 불편하게 하지 않는 일,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 따뜻한 손길과 넉넉한 위로와 미소를 보내는 일, 우리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눔은 부족해도 나누고 많아도 나눌 수 있는 보살행입니다.
계사년 새해,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바로 내 이웃 생명이 있습니다. 벗들이여! 비움과 나눔으로 자유로우소서 평화로우소서 행복하소서.

“종교의 사회적 기능회복에 노력할 것”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불자여러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국민과 불자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고 국가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의 확산은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을 크게 위축시켰고 국내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국민 생활이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우리 불교계도 변화와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화합과 소통을 화두로 인간존중과 중심의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 원융정신을 바탕으로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여 종교적 평화와 공존 그리고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종교인들, 외로운 이들과 함께 하자”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올해는 뱀의 해입니다.
뱀은 그 외양(外樣)의 흉측함 속에 영생(永生)과 의술(醫術)의 신(神)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 이 또한 길흉(吉凶)이 둘이 아닌 불이법문(不二法門)이라 하겠습니다.
일체가 둘이 아님을 사무쳐 알고 만물이 내 몸에 계합(契合)해 있음을 절실히 이해하면, 장삼이사(張三李四)가 한 솥밥을 먹고 토끼와 범이 한 굴에 머물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세상을 가꾸어 갑시다.
많은 어려움이 도래하고 큰 난관이 막아설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문수보살의 맑은 지혜로 헤치고 나아갑시다.
일체가 둘이 아닌 그 진리 속에서 행복의 태양은 빛나고 있으니 오늘도 길일(吉日)이요 내일도 축일(祝日)입니다.

“남쪽바다엔 무저선이 노 젓네”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계사년 새해를 알리는 찬란한 태양이 장엄하게 솟아오릅니다.
이 상서롭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 아래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새롭게 나아가는 주인공이 됩시다.
동방인의 힘찬 발걸음은 현해탄의 거센 파도 눌렀으며 태평양과 인도양을 넘어서서 이제 창공을 향해 힘찬 날개를 펼쳐 새로운 보배(寶貝)를 찾아 나아갑시다.
세상은 본디 피아(彼我)와 주객(主客)이 따로 없고 상하와 빈부귀천(貧富貴賤)이 따로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그대들이며 이 세상의 모든 보배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닫혀있던 마음속의 대문빗장을 활짝 열고 손에 손을 마주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오대양(五大洋)과 육대주(六大洲)를 뛰어 넘고 보적산(寶積山)에 올라가서 분수 따라 가슴 가득 보배 담아 고향으로 돌아갈 때 모두 함께 하나되어 태평가를 부릅시다.

높이 세운 깃발 아래 무공저(無孔笛)가 울리고
비파(琵琶) 타는 아낙들과 장고(長鼓) 치는 남정네들
취타(吹打)소리 장엄하게 온 세상에 들려오네.
동해어부(東海漁夫) 가슴에는 용광로(鎔鑛爐)를 품어 안고
서해바다 상공에는 무개차(無蓋車)가 비상(飛翔)하며
남쪽바다 너른 곳엔 무저선(無底船)이 노를 젓네!

“정진하여 관자재를 이루어라”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실천하는 그 자리에 새해가 찾아오니

일념보관무량겁(一念普觀無量劫)
무거무래역무주(無去無來亦無住)
여시요지삼세사(如是了知三世事)
초제방편성십력(超諸方便成十力)

끝없는 세월은 강물같이 흐르나니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며 그대로 머무는 것도 아니니라.
인생사 모든 일이 끝없이 일어나니 꿈에서 깨어나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한줄기 깨달음의 길이 훤히 열리리라.
청정한 연꽃이 진흙에서 솟아나듯 고통과 번뇌 속에 깨달음의 싹이 튼다. 보리의 싹은 눈 속에도 푸르고 깊은 샘의 물줄기는 쉬지 않고 흘러간다.
실천하는 그 자리에 새해가 찾아오니 정진하고 정진하여 관자재를 이루어라.

“자비 희사에 불교 미래 있어”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새해를 맞아 세우는 우리들의 서원은 비움과 채움, 그리고 나눔으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세속의 어리석은 집착을 참회로 비우고, 불제자의 삶을 수행으로 채우며, 수승한 공덕을 자비와 희사로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서원성취의 길이자 생명력 넘치는 불교의 미래입니다.
불자 여러분. 올 한해도 세계 경제와 정치는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탐진치(貪瞋痴)를 비우고 지비용(智悲勇)을 채우며 상생(相生)의 나눔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 공감하는 불교의 미래를 밝혀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처님이 남기신 실천의 삶을 계승하고 전하는 신행으로 한해를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행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 바로 복(福)과 지혜 가득한 행복임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부조(扶助)하고 예경하는 세상을”

성초 정사
진각종 총인



대일(大日)의 광명이 계사년의 새아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새해 새아침의 상서로운 기운이 천지에 감돌아서 지상의 모든 중생들이 안락한 새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심인진리의 종문(宗門)이 처음 법기(法旗)를 세우고 자주정신이 국민의 심전(心田)에 보금자리를 틀더니 국운융성의 큰 물결이 반도(半島)의 지평을 넘어서 세계의 방방곡곡에 한류(韓流)등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진각정법(眞覺正法)의 으뜸자리 총인원에 진각문화전승관(眞覺文化傳承館)을 건립하니 심인공부의 천년 역사를 이어갈 터전으로 삼고 불자들의 신행(信行)에 정도(正道)가 굳게 서니
평화세상이 영속(永續)하여 정토(淨土)가 건설됩니다. 중생의 분별심이 세간을 혼탁하게 만들어 네 것 내 것 다투면서 사회를 어지럽혀도 심인(心印)을 밝혀 묘관찰지(妙觀察智)를 열면 온 누리가 상호 부조(扶助)하고 예경(禮敬)하는 이원전문(二元專門)의 조화로운 세상이 됩니다.
새해의 햇살이 천년의 어둠도 순간에 밝히듯이 자성(自性)의 찬연한 광명이 중생의 미혹을 밝히면 세간의 미오(迷汚)가 정화되고 정로(正路)를 열어서 이웃이 함께 웃음 가득한 생활로 만들어 갑시다.

“고난 시대, 불심으로 이겨내길”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그 어느 때보다도 혹심했던 경제난과 대통령 선거의 와중 속에서 지난 한 해를 보내고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여 밝아야 할 우리의 마음은 웬지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올해도 세계적 불황 속에 우리나라의 경제도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서민 생활 또한 고달픔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부처님의 정법에 의지하여 가식과 위선을 과감히 걷어내고 진실한 자세로서 나를 살피고 이웃을 돌아볼 때 참된 행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중중제망의 공업(共業) 중생이 이기적 욕망만을 추구한다고 그것이 쉽사리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려운 시대를 헤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자비의 힘 뿐입니다. 가진 자의 자비와 아량으로 이웃과 더불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때에 만이 이 사회는 정이 넘치고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자비를 바탕으로 함께 나누는 마음이 없이 사회의 화합을 부르짖는 것은 가진 자의 위선이고 기만입니다.
무연대자 동체대비(無緣大慈 同體大悲)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씩씩하게 헤쳐 나갑시다.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제불보살의 가지(加持)가 두루하시기를 지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귀의해야”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불자님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묘법연화경에서 말씀하시길,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커서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그 지혜에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무한하여 헤아릴 수 없고 더욱 인간사의 삶은 온갖 번뇌와 망상으로 혼돈되어 있으니 우리들은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세상을 슬기롭게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묘법연화경을 통하여 믿는 마음이 굳건한 자에게는 그 지혜를 열어 보여 주시고 알게 하여 깨달음으로 어려운 일이 내 앞을 가린다 하여도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면 이 세상을 헤쳐 나가는 지혜와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계사년 새해 우리 모두는 진솔한 마음으로 귀의하여, 지혜의 문이 열리도록 정진합시다.

“자비의 삶이 펼쳐지는 한해 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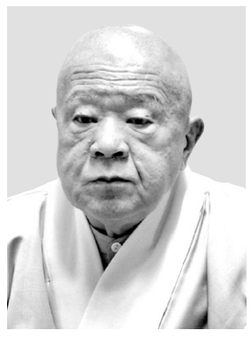
총지종 통리원장 지성 정사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쳐서 부처님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시다. 깨침을 통해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사년 한 해도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나’ 자신을 정화하고 그러한 정화를 바탕으로 사회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선도하는 대승적인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중제망의 이 세계는 나 한 사람의 마음가짐으로부터 전개되는 것입니다. 아집과 이기심의 껍질을 벗고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보살정신을 구현할 때에 비로소 나의 행복과 내 가정의 안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들이 불보살님의 가지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변함없이 건강하시며, 더욱 청정한 삶을 영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모두가 융화하는 한해로”

일공 스님
원융종 종정



계사년은 원통융화(圓通融和)한 사회(人間社會)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가정으로부터 사회, 국가 내지 전 세계에 이르기 까지 원통융화(圓通融和)돼야 합니다. 원통(圓通)은 조금도 간격이 없이 둥글게 통한다는 뜻입니다.
한 가정에 있어서 부부가 서로 간격이 있으면 파탄이 올 것이며, 부모 자식에게 간격이 있으면 천륜지천(天倫地天)이 끊어지고 현제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입술 없는 이가 되며 친척, 친지, 친구, 이웃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스스로 담을 헐고 도둑을 맞이 하는 것입니다. 원통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도와주는 인도(人道)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게 통하는 곳에 만복이 따르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 모략 중생하는 곳에 백가지 재앙이 뒤쫓는 것입니다.
융화는 서로 단합하고 천선하며 서로 도와서 공존(共存), 공영(共營)하는 공동생활의 규범인것입니다.
정치에도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 노사 간에 있어서도 서로 조금씩 다가서 이해하고 간격이 없이 융화한다면 이사회는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 평화롭고 밝고 안락한 이상사회가 될 것입니다.

“새 시대 여는 참불자가 됩시다”

“부귀공명은 한 자락의 꿈”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무시 무종(無始 無終)으로 세월이 흘러 계사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네 가지를 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요.

둘째, 아무리 부귀하더라도 가난하고 천해질수 있으며.

셋째, 어떠한 것이든 모이면 흩어지기 마련이고.

넷째, 건강한 육신을 가진 사람도 때가되면 반듯이 죽는 일이란 것입니다.

모든 부귀공명은 한자락 꿈인 것을 서역에는 싸움질, 북녘에는 불꽃도래질, 물 건너는 땅따먹기질인 세상입니다. 모든 고통은 욕심과 집착에서 비롯되니 부처님 가르침 되새기며 지난 한 해의 그릇된 잘못들을 참회하시길 바랍니다. 해가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민대통합으로 새 시대를 열어 밝아오는 새해에는 국운이 번창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길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참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목탁



얼었던 대지를 녹여주는 따뜻한 기운이 중생들 곁에 다가 오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됨을 자각하고 참회하는 참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때입니다.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남은 자연의 묘리이며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만생명은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 나름의 목소리와 표정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자기만이 아니라 둘레의 모든 것들도 환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승가 모두가 자중하고 참회하는 큰 원이 존재할 때 불교의 진리는 물 흐르듯, 꽃이 피어나듯 자유자재할 것입니다. 그 때야 말로 넉넉하고 가득하게 불법이 이 세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만생명과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교법의 수레는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서서히 제 모습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자는 불타 본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계사년 새해 옷깃을 여미며 부처님을 닮아 기쁨을 주는 중생의 꽃이 됩시다.

“우리 이웃이 모두 부처”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새해에는 우리 모두 벽을 허물고 살아갑시다.

내니 너니, 싫다 좋다하며 죽음과 삶의 벽을 넘나드는 중생들이 가여워서 부처님은 자비를 베풀어 직접 깨달음을 보이셨습니다.

대장경의 가르침 가운데 〈법화경〉에는 ‘아역위세부 구제고환자(我亦爲世父 救諸苦患者)’라는 말을 전합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아버지이니 고통 속에 사는 모든 중생을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나와 너의 상을 없애면 우리 모두가 부처이듯, 우리네 중생을 건지는 부처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이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해하며 실천해서 모두가 성불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가여운 우리들을 함께 보살핍시다.

“오늘따라 푸른 하늘은 구름 몇 장 띄워놓고 말없이 성불의 의미를 전하고 있네.”

“우주 법연의 주인공 되자”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전국일붕문도중앙회 회장
(재)한국근본불교조계종 이사 의륜



계사년 새해가 밝아 부처님 자비광명의 향기가 온 누리에 가득합니다. 계사년 새해 새날 아침에 선행만을 행하고 악행을 멀리하여 청정한 마음 항상 지닐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원합시다.

지나간 힘든 일들은 털어 버리고 화합의 마음으로 함께 할 때만이 밝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며 다투지 말아야 한다. 물과 젖처럼 화합할 것이요, 물위에 기름처럼 겉돌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부처님 제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마음을 부처삼아 열심히 정진하여 우주 법연의 주인공이 됩시다. 올 한해 맑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다 함께 정진해 나아갑시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존중과 배려의 새해 맞자”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통합과 화합의 실천은 2013 계사년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파사(破邪)가 현정(顯正)이듯 삿됨을 과감히 깨트릴 때 바름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파사는 존중하고 배려하는데서 시작됩니다.

물이라는 것도 얼핏 보면 물이지만 자세히 보면 수소와 산소가 일정한 비율로 어우러져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화합이란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은 선조 영령들의 진혼(鎭魂)이 시작되는 올해를 기점으로 힘차게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옥불탁불성기(玉不琢不成器)라. 아무리 귀한 옥도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듯이 무시하고 배척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다가올 희망찬 새누리를 맞이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자비를”

(사)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지명



승언수회종(承言須會宗)
물자입친구(物自立親矩)
독자불회도(獨自不會道)
운족언지로(運足焉知路)

언어를 통해 종지를 얻어야지 말이나 규범만 따르지 마라.

눈으로 보고도 도를 모른다면 걸음이 어찌 목적지를 알겠는가.

국가의 경영이 바로가고 온 국민이 편안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한 알의 씨앗이 복 밭에 떨어져 만 알의 곡식을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 하였습니다. 불법에 따라 중생을 위하여 보시하고 나누는 것은 성불의 전당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쉼 없이 이어질 때 그 인연의 공덕으로 다생겁의 가피가 내려질 것입니다.

새해에는 소외받고 어두운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도록 노력합시다. 나무석가모니불.

“용서하고 포용합시다”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용합시다.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우리의 삶은 오늘 내일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해가 지면 다시 떠온 세상을 비추듯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 더 화합과 상생으로 서로를 치유하고 다독여 가야 합니다.

매년 새해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그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불가에서는 발심한 마음이 곧 깨달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갑시다. 온 세상 모두가 동체대비심으로 뭉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삶이 멀진 않습니다. 그 행복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 하나 마음씀을 바꿔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정진 합시다.

“끊임없이 철저히 정진하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경원



약유불자(若有佛子)
수종종행(修種種行)
구무상혜(求無上慧)
필득정각(必得正覺)
만약 어떤 불자(佛子)가 있어
가지가지 행(行)을 닦아
위없는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정각(正覺)을 이루리라.

우리들은 이미 부처의 품성(品性)을 갖추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다만 불행(佛行)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세세생생 억겁의 전생에서 선행과 수행을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끊임없는 정진으로 금생이 아니더라도 내생에는 부처가 되겠는 원을 세워야 합니다. 올해는 부처님의 신행(信行)으로 빛나는 불자(佛子)가 됩시다.

“참세상 위해서는 수행 필요”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종정 정각



정각일일 송미륵(正覺日日 頌彌勒)
처처온풍 전법음(處處溫風 傳法音)
야야산창 금월색(夜夜山窓 昤月色)
조조선양 청송음(朝朝禪陽 聽訟音)
정각이 매일매일 미륵보살을 정성껏 모시니
곳곳마다 따뜻한 바람이 나의 설법 전해주네
달빛 비치는 산창에서 밤마다 시를 읊으니
소나무 밑 좌선(坐禪)에서 솔바람 소리 듣노라.

계사년 벽두에 자욱한 안개 삼계(三界)를 덮어 놓았으니 감로의 법우(法雨)를 중생에게 자욱이 내려주소서. 진실을 알아 진실로 생각하고, 거짓을 보아 거짓을 알면 이야말로 정당한 소견이라 그는 반듯이 참 이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여실히 보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새해 소나무 밑에서 선정에 들어봄이 어떠한지요.

“고난서도 배우는 자세 갖자”

(사)한국불교정토종 종정 각호



다사다난했던 임진년이 가고 계사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새해 밝은 희망도 있지만 닥쳐올 어려움도 감지됩니다. 아만과 편견, 대립을 버리고 화합과 상생으로 다가올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고난에서 배우는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화합합시다.

불교는 내가 개인적으로 잘먹고 잘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대중을 함께 이끌고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몸소 보이신 것은 스스로의 수행을 넘어 당시 그 사회를 밝혀 나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으로 무엇이 정업인지 아는 것입니다. 눈을 새로이 뜨고 새해 아침 부처님의 법으로 바르게 업을 닦아 정진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계사년 새해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한마음 된다면 갈등 해결 쉬워”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대행 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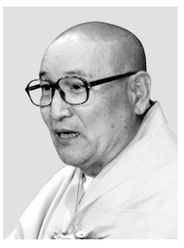


계사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지나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보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대승보살의 정신이요, 세상의 온갖 얼룩진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불자여러분! 새해에는 걸림이 없는 자비행의 원력을 세우고 인류가 공생하고 세계가 하나돼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기를 기원합시다. 지금의 세계는 다양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하나 모인다면 갈등이 해결되고 평화로운 세상은 멀지 않습니다. 각자가 이러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면 계사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따사롭고 행복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성불합시다.

“만족하면 매사가 즐거워져”

(사)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지족자 빈천역락(知足者 貧賤亦樂)
부지족자 부귀역우(不知足者 富貴亦憂)
범사 유인정(凡事 留人情)
후래 호상견(後來 好相見)
만족할 줄 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해도 즐겁게 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고 귀해도 근심하며 산다.
매사에 후한 인정을 베풀면 후일 좋은 얼굴로 만날 수 있게 된다.

〈증일아함경〉에는 사람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욕정, 술, 잠입니다.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본래 마음이란 형상이 없으므로 만족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만족해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허전해 집니다. 차라리 그 탐내는 열정을 주변 사람에게 인정으로 베푸는 것으로 푸는 것은 어떨까요.

“선행 베풀고 덕 많이 쌓자”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원악이선배사종정(遠惡邇善背邪從正)
회망념위증득보리(廻妄念爲證得菩提)
악은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며, 삿된 것은 등지고 바른길로 좇아서, 망령된 생각을 돌이켜서 보리증득을 하라.

계사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경제적인 불황과 정치적 불안,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계속 이어졌으며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도 많았다고 봅니다.

바른길을 좇아서, 망령된 생각을 잘 돌이켜서 지혜롭게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마음속 깊이 포용하는 것이야 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선행을 베풀고 덕을 많이 쌓아서 우리 모두가 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풍요로 국운 융창을”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다사다난했던 임진년이 가고 계사년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계사년은 뱀의 해입니다. 뱀은 십이지 동물 중 상상의 동물인 용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털과 발이 없는 동물입니다.

이러한 뱀을 우리 민속(民俗)에서 영혼, 불사, 재생, 영생, 간교한 지혜와 애욕,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뱀은 관자재보살로서 무지(無智)한 인간들을 일깨워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고 가르쳐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보살을 의미합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나로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중이 다 함께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요 실천인 것입니다.

뱀이 지닌 의미인 ‘지혜’와 ‘풍요’를 잘 살려 국운이 융창하고 모든 국민이 하고자 하는 일이 원만히 이뤄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무명 걷어내고 선연 잇자”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불멸등혜장명등(不滅燈兮長明燈)
인인개개인인등(人人皆皆人人燈)
장명등혜불멸등(長明燈兮不滅燈)
청징사해만인락(淸澄四海萬人樂)
세세년년세세등(世世年年世世燈)
실원성취다복년(悉願成就多福年)

언제까지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여
사람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등불일세
기리기리 밝아 꺼지지 않는 등불로
사해 청정하고 만인이 즐거우며
세세년년 밝게 비치니 영원의 등불이어라
원하는 바 모두 이루어 행복한 한해가 되소서

계사년 새해에 뜨는 해는 불보살님의 큰 뜻이고 힘찬 기운입니다. 무명 걷어내고 대승보살도의 선연을 이읍시다.

“이기심 버리면 행복해져”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새날, 새해는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매일 매일이 새날이요 매일 매일이 묵은 날인 것을 어디 새해 새날이 있겠습니까?

새해는 새로운 한 해(年)의 뜻도 되지만, 새로운 해(태양)라는 뜻도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는 일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새로운 해는 날마다 떠오릅니다. 태양은 날마다, 순간마다 변화하고 새로운 해입니다. 우리네 삶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시간, 같은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변화무쌍하고 덧없기 때문에 제행무상(諸行無常)입니다.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감동과 존경,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면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집과 이기심의 마음을 비우고 참회의 삶을 산다면 부처님의 크신 광명이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서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계사년 한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각자의 성품을 보면 그 자리가 부처”

“부처님 공덕은 헤아릴수 없어”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



천산천하 무여불(天上天下 無如佛)
시방세계 역무비(十方世界 亦無比)
세간소유 아진견(世間所有 我盡見)
일체무유 여불자(一切無有 如佛者)

천상천하 부처님 같은 분 없으니 시방세계에 비교 할데 없네
세상천지를 내가 다 보아도 도무지 부처님 같은 분이 없네

찰진심념 가수지(剎塵心念 可數知)
대해중수 가음진(大海中水 可飮盡)
허공가량 풍가계(虛空可量 風可繫)
무능진설 불공덕(無能盡說 佛功德)

세계에 티끌은 다 헤아려 알아도 허공을 헤아리고 바람을 붙들어 맬수 있어도 부처님 공덕은 다 말할수 없네

“자리이타는 불교의 목적”

대한불교대승종 종정 천광



자기 자신을 바로하고 나서 남을 제도해야 하는 것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리수 나무 아래서 들었던 선정,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성찰이었습니다. 수많은 욕심과 욕망이 밀어 닥쳐도 부처님은 그때 그때 자신을 돌아보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 부처님은 그 깨달음을 여러 대중과 함께 나누길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불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여 모든 대중이 함께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며 실천입니다.

나의 마음이 곧 나의 행위가 되는 것처럼 계사년 한해를 맞이하여 수행 정진으로 복과 지혜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2013년 계사년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희망과 화합을 여는 한해가 되기를 다함께 발원합시다.

“육바라밀 실천하는 한해 되길”

(사)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계사년도 지행운통
(癸巳年度 智行運通)

출가대승 재가불자 함께하는
사부대중 승단으로
계사신년 새해에는
문수보살 무수히도 출현하여
지혜력의 심검도를 휘둘러서
외도무리 막아내고
앉고서는 곳곳마다
육바라밀 작용으로
신근력을 발휘하여
이나라꽃 불국토의 적멸궁에 도달하세!

“구하는 마음에 부처 있어”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계사년 새해가 밝아오니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지혜와 자비의 빛이 충만한 부처님 세상입니다. 중생 마음은 구하는 마음이요, 부처님 마음은 베푸는 마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무언가 기대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이 생할 때 괴로움이 시작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구하는 마음에 부처가 같이 있다’ 간절히 염하면 어느새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부처님 마음이 솟아 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내면에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기에 내면의 마음에 의지하면 괴로움이 절로 풀립니다. 그 마음에 의지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며 베푸는 마음도 저절로 나와 주변이 모두 행복해 질 것입니다.

모두를 부처님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베푸는 마음을 써나가온 세상이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도록 합시다.

“이기심 버리면 모두가 극락”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사)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계사년 새해는 모두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합시다.

새해 아침에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청정한 기운으로 가슴을 열어 서로의 따뜻함을 끌어안읍시다. 한 생각 탐욕심이 끝없는 욕망을 만들고, 한 생각 화내는 마음이 악을 만들고, 한 생각 어리석음이 이기심을 키웁니다.

중중제망의 이 세계는 나 한 사람의 마음가짐으로부터 전개되는 것입니다. 아집과 이기심의 껍질을 벗고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보살정신을 구현할 때에 비로소 나의 행복과 내 가정의 안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할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것은 평화와 공존을 깨뜨리는 것이니 이기적 분별심을 버리면 모두 극락세계요 좋은 날입니다.

“불자로서 자부심 지니자”

대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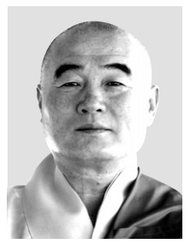


계사년 새해에는 이렇게 가보자. 군자는 남과 쉽게 동화하지 않되 내 주장을 강요하지 않고 남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조화를 이루려한다. 소인은 무조건 남과 같아지려고 한다. 서로가 다름이 없다면 창조란 있을 수 없는 것이 세상. 다양함이 없다면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존재 할 수 없다.

우리네 자랑스러운 팔만대장경과 금속활자, 고려청자와 금속공예, 다양한 불화를 비롯한 불교문화도 이러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배경 속에 탄생했다. 그 이면을 보면 세계 교역 등의 흐름에서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자부심이 있었다. 이에 기반해 다른 문화를 융섭한 것이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모습, 그 이면에 불자로서의 굳건한 정체성을 지녀야 할 때다. 이런 불자들이 국가와 사회, 가정이 모두 조화로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나무석가모니불

“인과법 깨우쳐 실천하자”

(사)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회장 무산



심외무불의 도리와 마음을 깨치자
성품을 본다면 부처를 찾는 것이다.

희망찬 계사년 새해는 우리 모두 마음을 찾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은 한번 퍼지면 법계에 두루하고 움츠리면 바늘 끝도 용납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구하려면 마음으로 알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불자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아 자기의 마음이 부처인 줄 안다면 마음밖에서 부처를 찾아서야 되겠습니까? 만일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품을 보아야 곧 부처일 것이요. 성품을 보지 못한 채 염불을 하거나 경을 읽거나 재계를 지키거나 계를 지킨다면 아무런 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인과의 이치를 깨치는 법을 알아서 실천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퇴전 마음으로 삼독 없애자”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 불자님들의 가정마다 희망차고 평화로운 기운이 항상 가득차, 하시는 모든 일 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심이 만들어 내는 끊임없는 욕망, 화내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진심, 어리석음으로 가득찬 치심, 이 세 가지의 삼독심이 모든 고통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삼계도사 사생자부(三界導師 四生慈父)이신 부처님께서는 이 삼독을 없애는 것이 성불의 길로 바로 가는 도리라고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불퇴전의 마음으로 삼독을 없애도록 정진, 또 정진 합시다.

또한 모든 아상과 아집과 편견과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이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밝히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진정한 불자로 생활해 나갑시다.

“여여불변의 정신으로 새해를”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정허 신풍



시절일참이(時節日撕異)
유년서불유(流年逝不留)
명일비금일(明日非今日)
흑두장백두(黑頭將白頭)

시절은 날마다 달라지고 흐르는 세월 멈추지 않나니
내일이면 어느새 오늘이 아닌지라 검은머리는 흰 머리로 바뀌었네.

사람은 누구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변화무상한 세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심입니다. 불심과 함께 열어가는 인생사에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해주는 것이 크다 하겠습니다.

매일 매일 새날을 맞이하고 또 오늘을 보냅니다. 그래서 시불산승은 항시 여여불변(恒時 如如不變)의 정신으로 늘 살아가자고 역설 하였습니다.

“구름따라 절따라 한소식”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홍산 현불



승백백운래(僧白白雲來)
환향청수거(還向淸水去)
각하사방로(脚下四方路)
소암노파심(燒庵老婆心)

구름따라 왔던 스님
물 따라 돌아 가네
발 걸음 사방 길
암자를 불태운 한소식!

“부처님 자비 광명 충만하길”

(사)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임제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밖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한 생각 마음 속의 청정한 빛은 바로 그대 집속의 법신불(法身佛)이며 한 생각 마음 속의 분별없는 빛은 그대 집속의 보신불(報身佛)이며 한 생각 마음 속의 차별없는 빛은 그대 집속의 화신불(化身佛)입니다.

이 세 부처는 바로 그대들이니 곧 지금 눈앞에서 법을 듣는 그대들 자신인 것입니다.

임제선사는 불성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 움직이고 지각하고 인식하는 우리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임제 의현 선사의 가풍과 설법은 지암 선사의 가풍이라. 임제의 할은 후학을 살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계사년 한해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분별없으면 시비도 없어”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종정 운봉



일념청정(一念淸淨)
예적상영(禮寂常靈)
시영시적(是靈是寂)
시영비적(是靈非寂)
시비질생(是非迭生)
범과무극(犯過無極)

한 생각 청정하면, 그 육체가 깨끗하고 신령스럽나니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다고 분별하다 보면, 갖가지 시비가 생겨 그 논쟁과 의문은 끝이 없도다.

새해에는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서로 다투지 말고, 양보하면서 살면 어떠한 시비도 없을 것입니다.

계사년 새해는 국가와 사회, 나아가 각 가정에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모두 정진합시다.

“하심하며 우리 모두 화합을”

(사)호국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유심



계사년 새해 새날 수행자의 한 마음으로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은대로 받는다는 불교의 인과법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실천한다면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잘못된 과거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스스로 진실되게 반성해야 합니다.

불교의 기본 가르침은 하심(下心)입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 남을 존중할 줄 알며, 존중할 줄 아는 이는 존중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을 존중할 줄 모르면 존중 받을 수 없기에 하심은 그만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하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실천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불제자의 참된 길을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계사년 한해 진일보 하는 소중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날이 즐거움만 넘치길”

대한불교선종 총무원장 정관



새해 불자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음이 맑아 명경지수와 같으면 독한 마음들이 저절로 녹아 행복한 마음이 유지됩니다.

어떠한 번뇌와 유혹이 일어나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과 수행에 따라 계사년에는 정진 합시다.

새해에는 항상 희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대 긍정의 마음입니다. 불교는 고통에 대한 자각을 통해 고통을 극복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의 연기설은 불교가 희망과 긍정의 종교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긍정의 생활 속에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일들만 만들어 나갑시다. 서로의 잘잘못을 떠나 화합하는 큰 마음으로 계사년 소원성불 합장 기원합니다.

“부처님 마음은 대자비의 마음”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음은 우리의 마음이 밝고 맑아지고 있음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를 세우는 것입니다. 욕망의 불꽃을 끄고 아름다운 마음자리를 닦아 자비심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각오를 세우는 것을 소망으로 삼읍시다.

또한 대선정국으로 얼룩진 이념과 주장을 대승의 정신으로 융화 하고 대화합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갑시다. 이러한 마음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대자비의 마음이요, 자리이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 지면 세상이 행복해 집니다. 세상이 행복해지면 눈물도 슬픔도 사라집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바램입니다.

계사년 새해에는 모두 행복을 누려서 가정이 화목하고 이웃간에 온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형상만 쫓으면 공덕이 없어”

종교세계신문사 발행인 윤기순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께 예배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불상이 곧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곧 불상이어서 둘이 아닌 이치를 깨쳐야 합니다. 반드시 자기의 마음에다 예배해야 곧 마음 가운데서 성취되는 큰 공덕이 됩니다.

마음이란 형상도 없고 부피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에다 절을 하라는가 하겠지만 참선하는 선각자가 화두를 드는 의정 중에서 예배하면 그것이 곧 마음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절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조사님들께서는 “눈앞에 나타난 형상만 따라 착하여 절을 한다면 공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악도에 떨어질 인(因)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상에 예배할 때 그 불상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먼저 바르게 아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 시대 여는 참불자가 됩시다”

“부귀공명은 한 자락의 꿈”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무시 무종(無始 無終)으로 세월이 흘러 계사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네 가지를 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요.

둘째, 아무리 부귀하더라도 가난하고 천해질수 있으며.

셋째, 어떠한 것이든 모이면 흩어지기 마련이고.

넷째, 건강한 육신을 가진 사람도 때가되면 반듯이 죽는 일이란 것입니다.

모든 부귀공명은 한자락 꿈인 것을 서역에는 싸움질, 북녘에는 불꽃도래질, 물 건너는 땅따먹기질인 세상입니다. 모든 고통은 욕심과 집착에서 비롯되니 부처님 가르침 되새기며 지난 한 해의 그릇된 잘못들을 참회하시길 바랍니다. 해가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민대통합으로 새 시대를 열어 밝아오는 새해에는 국운이 번창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길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참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목탁



얼었던 대지를 녹여주는 따뜻한 기운이 중생들 곁에 다가 오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됨을 자각하고 참회하는 참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때입니다.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남은 자연의 묘리이며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만생명은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 나름의 목소리와 표정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자기만이 아니라 둘레의 모든 것들도 환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승가 모두가 자중하고 참회하는 큰 원이 존재할 때 불교의 진리는 물 흐르듯, 꽃이 피어나듯 자유자재할 것입니다. 그 때야 말로 넉넉하고 가득하게 불법이 이 세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만생명과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교법의 수레는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서서히 제 모습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자는 불타 본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계사년 새해 옷깃을 여미며 부처님을 닮아 기쁨을 주는 중생의 꽃이 됩시다.

“우리 이웃이 모두 부처”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새해에는 우리 모두 벽을 허물고 살아갑시다.

내니 너니, 싫다 좋다하며 죽음과 삶의 벽을 넘나드는 중생들이 가여워서 부처님은 자비를 베풀어 직접 깨달음을 보이셨습니다.

대장경의 가르침 가운데 〈법화경〉에는 ‘아역위세부 구제고환자(我亦爲世父 救諸苦患者)’라는 말을 전합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아버지이니 고통 속에 사는 모든 중생을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나와 너의 상을 없애면 우리 모두가 부처이듯, 우리네 중생을 건지는 부처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이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해하며 실천해서 모두가 성불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가여운 우리들을 함께 보살핍시다.

“오늘따라 푸른 하늘은 구름 몇 장 띄워놓고 말없이 성불의 의미를 전하고 있네.”

“우주 법연의 주인공 되자”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전국일붕문도중앙회 회장
(재)한국근본불교조계종 이사 의륜



계사년 새해가 밝아 부처님 자비광명의 향기가 온 누리에 가득합니다. 계사년 새해 새날 아침에 선행만을 행하고 악행을 멀리하여 청정한 마음 항상 지닐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원합시다.

지나간 힘든 일들은 털어 버리고 화합의 마음으로 함께 할 때만이 밝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며 다투지 말아야 한다. 물과 젖처럼 화합할 것이요, 물위에 기름처럼 겉돌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부처님 제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마음을 부처삼아 열심히 정진하여 우주 법연의 주인공이 됩시다. 올 한해 맑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다 함께 정진해 나아갑시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존중과 배려의 새해 맞자”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통합과 화합의 실천은 2013 계사년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파사(破邪)가 현정(顯正)이듯 삿됨을 과감히 깨트릴 때 바름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파사는 존중하고 배려하는데서 시작됩니다.

물이라는 것도 얼핏 보면 물이지만 자세히 보면 수소와 산소가 일정한 비율로 어우러져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화합이란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은 선조 영령들의 진혼(鎭魂)이 시작되는 올해를 기점으로 힘차게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옥불탁불성기(玉不琢不成器)라. 아무리 귀한 옥도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듯이 무시하고 배척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다가올 희망찬 새누리를 맞이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자비를”

(사)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지명



승언수회종(承言須會宗)
물자입친구(物自立親矩)
독자불회도(獨自不會道)
운족언지로(運足焉知路)

언어를 통해 종지를 얻어야지 말이나 규범만 따르지 마라.

눈으로 보고도 도를 모른다면 걸음이 어찌 목적지를 알겠는가.

국가의 경영이 바로가고 온 국민이 편안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한 알의 씨앗이 복 밭에 떨어져 만 알의 곡식을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 하였습니다. 불법에 따라 중생을 위하여 보시하고 나누는 것은 성불의 전당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쉼 없이 이어질 때 그 인연의 공덕으로 다생겁의 가피가 내려질 것입니다.

새해에는 소외받고 어두운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도록 노력합시다. 나무석가모니불.

“용서하고 포용합시다”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용합시다.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우리의 삶은 오늘 내일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해가 지면 다시 떠온 세상을 비추듯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 더 화합과 상생으로 서로를 치유하고 다독여 가야 합니다.

매년 새해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그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불가에서는 발심한 마음이 곧 깨달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갑시다. 온 세상 모두가 동체대비심으로 뭉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삶이 멀진 않습니다. 그 행복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 하나 마음씀을 바꿔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정진 합시다.

“끊임없이 철저히 정진하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경원



약유불자(若有佛子)
수종종행(修種種行)
구무상혜(求無上慧)
필득정각(必得正覺)
만약 어떤 불자(佛子)가 있어
가지가지 행(行)을 닦아
위없는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정각(正覺)을 이루리라.

우리들은 이미 부처의 품성(品性)을 갖추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다만 불행(佛行)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세세생생 억겁의 전생에서 선행과 수행을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끊임없는 정진으로 금생이 아니더라도 내생에는 부처가 되겠는 원을 세워야 합니다. 올해는 부처님의 신행(信行)으로 빛나는 불자(佛子)가 됩시다.

“참세상 위해서는 수행 필요”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종정 정각



정각일일 송미륵(正覺日日 頌彌勒)
처처온풍 전법음(處處溫風 傳法音)
야야산창 금월색(夜夜山窓 昤月色)
조조선양 청송음(朝朝禪陽 聽訟音)
정각이 매일매일 미륵보살을 정성껏 모시니
곳곳마다 따뜻한 바람이 나의 설법 전해주네
달빛 비치는 산창에서 밤마다 시를 읊으니
소나무 밑 좌선(坐禪)에서 솔바람 소리 듣노라.

계사년 벽두에 자욱한 안개 삼계(三界)를 덮어 놓았으니 감로의 법우(法雨)를 중생에게 자욱이 내려주소서. 진실을 알아 진실로 생각하고, 거짓을 보아 거짓을 알면 이야말로 정당한 소견이라 그는 반듯이 참 이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여실히 보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새해 소나무 밑에서 선정에 들어봄이 어떠한지요.

“고난서도 배우는 자세 갖자”

(사)한국불교정토종 종정 각호



다사다난했던 임진년이 가고 계사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새해 밝은 희망도 있지만 닥쳐올 어려움도 감지됩니다. 아만과 편견, 대립을 버리고 화합과 상생으로 다가올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고난에서 배우는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화합합시다.

불교는 내가 개인적으로 잘먹고 잘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대중을 함께 이끌고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몸소 보이신 것은 스스로의 수행을 넘어 당시 그 사회를 밝혀 나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으로 무엇이 정업인지 아는 것입니다. 눈을 새로이 뜨고 새해 아침 부처님의 법으로 바르게 업을 닦아 정진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계사년 새해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한마음 된다면 갈등 해결 쉬워”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대행 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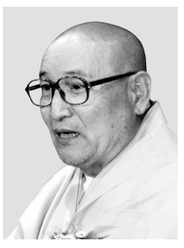


계사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지나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보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대승보살의 정신이요, 세상의 온갖 얼룩진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불자여러분! 새해에는 걸림이 없는 자비행의 원력을 세우고 인류가 공생하고 세계가 하나돼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기를 기원합시다. 지금의 세계는 다양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하나 모인다면 갈등이 해결되고 평화로운 세상은 멀지 않습니다. 각자가 이러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면 계사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따사롭고 행복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성불합시다.

“만족하면 매사가 즐거워져”

(사)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지족자 빈천역락(知足者 貧賤亦樂)
부지족자 부귀역우(不知足者 富貴亦憂)
범사 유인정(凡事 留人情)
후래 호상견(後來 好相見)
만족할 줄 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해도 즐겁게 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고 귀해도 근심하며 산다.
매사에 후한 인정을 베풀면 후일 좋은 얼굴로 만날 수 있게 된다.

〈증일아함경〉에는 사람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욕정, 술, 잠입니다.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본래 마음이란 형상이 없으므로 만족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만족해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허전해 집니다. 차라리 그 탐내는 열정을 주변 사람에게 인정으로 베푸는 것으로 푸는 것은 어떨까요.

“선행 베풀고 덕 많이 쌓자”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원악이선배사종정(遠惡邇善背邪從正)
회망념위증득보리(廻妄念爲證得菩提)
악은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며, 삿된 것은 등지고 바른길로 좇아서, 망령된 생각을 돌이켜서 보리증득을 하라.

계사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경제적인 불황과 정치적 불안,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계속 이어졌으며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도 많았다고 봅니다.

바른길을 좇아서, 망령된 생각을 잘 돌이켜서 지혜롭게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마음속 깊이 포용하는 것이야 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선행을 베풀고 덕을 많이 쌓아서 우리 모두가 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풍요로 국운 융창을”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다사다난했던 임진년이 가고 계사년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계사년은 뱀의 해입니다. 뱀은 십이지 동물 중 상상의 동물인 용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털과 발이 없는 동물입니다.

이러한 뱀을 우리 민속(民俗)에서 영혼, 불사, 재생, 영생, 간교한 지혜와 애욕,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뱀은 관자재보살로서 무지(無智)한 인간들을 일깨워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고 가르쳐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보살을 의미합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나로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중이 다 함께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요 실천인 것입니다.

뱀이 지닌 의미인 ‘지혜’와 ‘풍요’를 잘 살려 국운이 융창하고 모든 국민이 하고자 하는 일이 원만히 이뤄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무명 걷어내고 선연 잇자”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불멸등혜장명등(不滅燈兮長明燈)
인인개개인인등(人人皆皆人人燈)
장명등혜불멸등(長明燈兮不滅燈)
청징사해만인락(淸澄四海萬人樂)
세세년년세세등(世世年年世世燈)
실원성취다복년(悉願成就多福年)

언제까지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여
사람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등불일세
기리기리 밝아 꺼지지 않는 등불로
사해 청정하고 만인이 즐거우며
세세년년 밝게 비치니 영원의 등불이어라
원하는 바 모두 이루어 행복한 한해가 되소서

계사년 새해에 뜨는 해는 불보살님의 큰 뜻이고 힘찬 기운입니다. 무명 걷어내고 대승보살도의 선연을 이읍시다.

“이기심 버리면 행복해져”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새날, 새해는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매일 매일이 새날이요 매일 매일이 묵은 날인 것을 어디 새해 새날이 있겠습니까?

새해는 새로운 한 해(年)의 뜻도 되지만, 새로운 해(태양)라는 뜻도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는 일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새로운 해는 날마다 떠오릅니다. 태양은 날마다, 순간마다 변화하고 새로운 해입니다. 우리네 삶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시간, 같은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변화무쌍하고 덧없기 때문에 제행무상(諸行無常)입니다.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감동과 존경,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면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집과 이기심의 마음을 비우고 참회의 삶을 산다면 부처님의 크신 광명이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서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계사년 한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각자의 성품을 보면 그 자리가 부처”

“부처님 공덕은 헤아릴수 없어”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



천산천하 무여불(天上天下 無如佛)
시방세계 역무비(十方世界 亦無比)
세간소유 아진견(世間所有 我盡見)
일체무유 여불자(一切無有 如佛者)

천상천하 부처님 같은 분 없으니 시방세계에 비교 할데 없네
세상천지를 내가 다 보아도 도무지 부처님 같은 분이 없네

찰진심념 가수지(剎塵心念 可數知)
대해중수 가음진(大海中水 可飮盡)
허공가량 풍가계(虛空可量 風可繫)
무능진설 불공덕(無能盡說 佛功德)

세계에 티끌은 다 헤아려 알아도 허공을 헤아리고 바람을 붙들어 맬수 있어도 부처님 공덕은 다 말할수 없네

“자리이타는 불교의 목적”

대한불교대승종 종정 천광



자기 자신을 바로하고 나서 남을 제도해야 하는 것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리수 나무 아래서 들었던 선정,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성찰이었습니다. 수많은 욕심과 욕망이 밀어 닥쳐도 부처님은 그때 그때 자신을 돌아보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 부처님은 그 깨달음을 여러 대중과 함께 나누길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불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여 모든 대중이 함께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며 실천입니다.

나의 마음이 곧 나의 행위가 되는 것처럼 계사년 한해를 맞이하여 수행 정진으로 복과 지혜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2013년 계사년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희망과 화합을 여는 한해가 되기를 다함께 발원합시다.

“육바라밀 실천하는 한해 되길”

(사)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계사년도 지행운통
(癸巳年度 智行運通)

출가대승 재가불자 함께하는
사부대중 승단으로
계사신년 새해에는
문수보살 무수히도 출현하여
지혜력의 심검도를 휘둘러서
외도무리 막아내고
앉고서는 곳곳마다
육바라밀 작용으로
신근력을 발휘하여
이나라꽃 불국토의 적멸궁에 도달하세!

“구하는 마음에 부처 있어”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계사년 새해가 밝아오니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지혜와 자비의 빛이 충만한 부처님 세상입니다. 중생 마음은 구하는 마음이요, 부처님 마음은 베푸는 마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무언가 기대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이 생할 때 괴로움이 시작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구하는 마음에 부처가 같이 있다’ 간절히 염하면 어느새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부처님 마음이 솟아 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내면에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기에 내면의 마음에 의지하면 괴로움이 절로 풀립니다. 그 마음에 의지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며 베푸는 마음도 저절로 나와 주변이 모두 행복해 질 것입니다.

모두를 부처님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베푸는 마음을 써나가온 세상이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도록 합시다.

“이기심 버리면 모두가 극락”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사)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계사년 새해는 모두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합시다.

새해 아침에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청정한 기운으로 가슴을 열어 서로의 따뜻함을 끌어안읍시다. 한 생각 탐욕심이 끝없는 욕망을 만들고, 한 생각 화내는 마음이 악을 만들고, 한 생각 어리석음이 이기심을 키웁니다.

중중제망의 이 세계는 나 한 사람의 마음가짐으로부터 전개되는 것입니다. 아집과 이기심의 껍질을 벗고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보살정신을 구현할 때에 비로소 나의 행복과 내 가정의 안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할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것은 평화와 공존을 깨뜨리는 것이니 이기적 분별심을 버리면 모두 극락세계요 좋은 날입니다.

“불자로서 자부심 지니자”

대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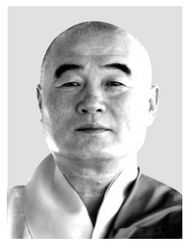


계사년 새해에는 이렇게 가보자. 군자는 남과 쉽게 동화하지 않되 내 주장을 강요하지 않고 남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조화를 이루려한다. 소인은 무조건 남과 같아지려고 한다. 서로가 다름이 없다면 창조란 있을 수 없는 것이 세상. 다양함이 없다면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존재 할 수 없다.

우리네 자랑스러운 팔만대장경과 금속활자, 고려청자와 금속공예, 다양한 불화를 비롯한 불교문화도 이러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배경 속에 탄생했다. 그 이면을 보면 세계 교역 등의 흐름에서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자부심이 있었다. 이에 기반해 다른 문화를 융섭한 것이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모습, 그 이면에 불자로서의 굳건한 정체성을 지녀야 할 때다. 이런 불자들이 국가와 사회, 가정이 모두 조화로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나무석가모니불

“인과법 깨우쳐 실천하자”

(사)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회장 무산



심외무불의 도리와 마음을 깨치자
성품을 본다면 부처를 찾는 것이다.

희망찬 계사년 새해는 우리 모두 마음을 찾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은 한번 퍼지면 법계에 두루하고 움츠리면 바늘 끝도 용납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구하려면 마음으로 알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불자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아 자기의 마음이 부처인 줄 안다면 마음밖에서 부처를 찾아서야 되겠습니까? 만일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품을 보아야 곧 부처일 것이요. 성품을 보지 못한 채 염불을 하거나 경을 읽거나 재계를 지키거나 계를 지킨다면 아무런 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인과의 이치를 깨치는 법을 알아서 실천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퇴전 마음으로 삼독 없애자”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 불자님들의 가정마다 희망차고 평화로운 기운이 항상 가득차, 하시는 모든 일 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심이 만들어 내는 끊임없는 욕망, 화내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진심, 어리석음으로 가득찬 치심, 이 세 가지의 삼독심이 모든 고통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삼계도사 사생자부(三界導師 四生慈父)이신 부처님께서는 이 삼독을 없애는 것이 성불의 길로 바로 가는 도리라고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불퇴전의 마음으로 삼독을 없애도록 정진, 또 정진 합시다.

또한 모든 아상과 아집과 편견과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이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밝히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진정한 불자로 생활해 나갑시다.

“여여불변의 정신으로 새해를”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정허 신풍



시절일참이(時節日撕異)
유년서불유(流年逝不留)
명일비금일(明日非今日)
흑두장백두(黑頭將白頭)

시절은 날마다 달라지고 흐르는 세월 멈추지 않나니
내일이면 어느새 오늘이 아닌지라 검은머리는 흰 머리로 바뀌었네.

사람은 누구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변화무상한 세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심입니다. 불심과 함께 열어가는 인생사에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해주는 것이 크다 하겠습니다.

매일 매일 새날을 맞이하고 또 오늘을 보냅니다. 그래서 시불산승은 항시 여여불변(恒時 如如不變)의 정신으로 늘 살아가자고 역설 하였습니다.

“구름따라 절따라 한소식”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홍산 현불



승백백운래(僧白白雲來)
환향청수거(還向淸水去)
각하사방로(脚下四方路)
소암노파심(燒庵老婆心)

구름따라 왔던 스님
물 따라 돌아 가네
발 걸음 사방 길
암자를 불태운 한소식!

“부처님 자비 광명 충만하길”

(사)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임제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밖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한 생각 마음 속의 청정한 빛은 바로 그대 집속의 법신불(法身佛)이며 한 생각 마음 속의 분별없는 빛은 그대 집속의 보신불(報身佛)이며 한 생각 마음 속의 차별없는 빛은 그대 집속의 화신불(化身佛)입니다.

이 세 부처는 바로 그대들이니 곧 지금 눈앞에서 법을 듣는 그대들 자신인 것입니다.

임제선사는 불성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 움직이고 지각하고 인식하는 우리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임제 의현 선사의 가풍과 설법은 지암 선사의 가풍이라. 임제의 할은 후학을 살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계사년 한해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분별없으면 시비도 없어”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종정 운봉



일념청정(一念淸淨)
예적상영(禮寂常靈)
시영시적(是靈是寂)
시영비적(是靈非寂)
시비질생(是非迭生)
범과무극(犯過無極)

한 생각 청정하면, 그 육체가 깨끗하고 신령스럽나니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다고 분별하다 보면, 갖가지 시비가 생겨 그 논쟁과 의문은 끝이 없도다.

새해에는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서로 다투지 말고, 양보하면서 살면 어떠한 시비도 없을 것입니다.

계사년 새해는 국가와 사회, 나아가 각 가정에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모두 정진합시다.

“하심하며 우리 모두 화합을”

(사)호국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유심



계사년 새해 새날 수행자의 한 마음으로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은대로 받는다는 불교의 인과법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실천한다면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잘못된 과거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스스로 진실되게 반성해야 합니다.

불교의 기본 가르침은 하심(下心)입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 남을 존중할 줄 알며, 존중할 줄 아는 이는 존중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을 존중할 줄 모르면 존중 받을 수 없기에 하심은 그만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하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실천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불제자의 참된 길을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계사년 한해 진일보 하는 소중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날이 즐거움만 넘치길”

대한불교선종 총무원장 정관



새해 불자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음이 맑아 명경지수와 같으면 독한 마음들이 저절로 녹아 행복한 마음이 유지됩니다.

어떠한 번뇌와 유혹이 일어나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과 수행에 따라 계사년에는 정진 합시다.

새해에는 항상 희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대 긍정의 마음입니다. 불교는 고통에 대한 자각을 통해 고통을 극복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의 연기설은 불교가 희망과 긍정의 종교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긍정의 생활 속에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일들만 만들어 나갑시다. 서로의 잘잘못을 떠나 화합하는 큰 마음으로 계사년 소원성불 합장 기원합니다.

“부처님 마음은 대자비의 마음”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음은 우리의 마음이 밝고 맑아지고 있음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를 세우는 것입니다. 욕망의 불꽃을 끄고 아름다운 마음자리를 닦아 자비심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각오를 세우는 것을 소망으로 삼읍시다.

또한 대선정국으로 얼룩진 이념과 주장을 대승의 정신으로 융화 하고 대화합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갑시다. 이러한 마음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대자비의 마음이요, 자리이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 지면 세상이 행복해 집니다. 세상이 행복해지면 눈물도 슬픔도 사라집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바램입니다.

계사년 새해에는 모두 행복을 누려서 가정이 화목하고 이웃간에 온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형상만 쫓으면 공덕이 없어”

종교세계신문사 발행인 윤기순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께 예배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불상이 곧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곧 불상이어서 둘이 아닌 이치를 깨쳐야 합니다. 반드시 자기의 마음에다 예배해야 곧 마음 가운데서 성취되는 큰 공덕이 됩니다.

마음이란 형상도 없고 부피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에다 절을 하라는가 하겠지만 참선하는 선각자가 화두를 드는 의정 중에서 예배하면 그것이 곧 마음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절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조사님들께서는 “눈앞에 나타난 형상만 따라 착하여 절을 한다면 공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악도에 떨어질 인(因)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상에 예배할 때 그 불상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먼저 바르게 아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佛紀 2557年 癸巳年 謹賀新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A10 전면광고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자손과 재산과 토지를 바라지 말라.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되기를 바라지 말라. 덕행과 지혜로서 떳떳한 사람이 되라.

사단법인 대한불교 무량종

종 정 정혜안

원로원장 양지은

사서실장 보인
기획실장 보광

총무원장 보공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보문 포교원장 지관

중앙종회의장 법우 부 의 장 법장. 보월 사무총장 보성

고시위원장 현장 상벌위원장 법안 호계위원장 범일 경호국장 정목

총무부장 보아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정운 포교부장 무진 사회부장 지일
총무국장 정향 재무국장 자운 교무국장 보선 포교국장 보정 사회국장 지향

■ 총 림 :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314-7 은암천불정사 / 전화 051)292-4586 팩스 292-4586
■ 총본산총무원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 팩스 883-7796

종기 42년
불기 2557년

謹賀新年

불교총지종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종령 효 강 대종사

통리원장 지 성

중앙종의회 의장	대 원	중앙교육원장	화 령
사감원장	법상인	동해중학교 이사장	지 성
총무부장	인 선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법 등
재무부장	시 정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지 공
교정부장	수 현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수 현
사회부장	우 인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법 우

중앙종의회 의원	법장원	총지종보 및 종보통신원
총지종 유지재단	밀교 연구소	(주) 이지스상조
전당건설 위원회	(재) 사회복지재단	만다라요양원 · 바라밀 공부방 · 초록어린이집
통리원 임직원	각 사원 주교 및 스승	각 교구 신정회 일동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Tel. 02)552-1080~1083 | Fax. 02)552-1082 | www.chongji.or.kr

---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정권한대행 경 원

재단이사장 경원	원로의장 지공	종회의장 법선	총무원장 경원
재단부이사장 일명	원로부의장 혜천	호계원장 법성	총무원부원장 용운
상임이사 혜광	원로의원 혜운	교육원장 법해	총 무 부 장 동청
이 사 혜운	도기	포교원장 도안	규 정 부 장 만성
도기	수암	감사원장 석성	
경담	원각	고시위원장 덕봉	
자명	무찰	선거관리위원장 지언	
	해월	종회사무처장 고봉	
감 사 혜천	혜성	종회의원 도정. 도혜. 지연. 일명. 청호	
	혜운	현암. 혜일. 자명. 제법. 경담	

강원동부 보해	경기북부 도허	대구교구 만성	제주교구 현오
강원서부 동청	경남교구 승원	전북교구 석성	충남교구 호암
경기남부 대각	대전교구 경담	인천교구 용운	부산교구 령산

■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440-27, 엄지빌딩 3층 / 전화 02)991-8175, 8904 전송 991-8176
www. ilbung. org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김혜승

부 종 정 이인봉

승 정 혜공. 향운. 은곡. 지운. 진봉. 지심. 명산. 해불. 성희. 명재

총무원장 진봉

총무부장 혜관	재무부장 성우	교무부장 해산
규정부장 혜암	사회부장 남륜	
종회의장 지경	종회부의장 혜송	
사정원장 지운	사정부원장 지법	
교육원장 해불	교육부원장 지학	
포교원장 명재	포교부원장 지화	
문화원장 지향	문화부원장 도희	
수선원장 성희		
기획원장 명산	기획부원장 보명	

종 도 일 동

■ 총본산 : 충북 충주시 대가미 15길 11 우암정사 (2층) / 전화 0502)321-3333 / 팩스 043)847-0118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동종

종 정 : 덕찬당 지명 부종정 : 덕룡당 법공 승정원장 : 덕담당 심월

총무원장 : 덕우당 대은 중앙감찰원장 : 행성당 덕성 중앙종회의장 : 행봉당 해륜

승정위원 : 원봉	선 원 장 : 원봉	남해종무원장 : 청운	교무부장 : 월광
승정위원 : 혜공	중앙호법원장 : 혜천	경북종무원장 : 혜법	포교부장 : 청정
승정위원 : 법광	중앙문화원장 : 보경	경남종무원장 : 무일	문화부장 : 송담
중앙종회부의장 : 운성	중앙교육원장 : 광혜	영동종무원장 : 혜공	규정부장 : 소담
중앙종회부의장 : 혜광	중앙율원장 : 우담	강원종무원장 : 혜각	총무국장 : 시권
	중앙포교원장 : 해권	경기1종무원장 : 법화	사회국장 : 법문
	부 원 장 : 법화	경기2종무원장 : 혜광	
	부산종무원장 : 정민	총 무 부 장 : 고우	
	영남종무원장 : 혜오		

종 도 일 동

계사년 신년사

지난해 물질적인 세상 안에서 권력과 부 그리고 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집착으로 살아도 행복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떠오르는 계사년 태양을 바라보며 지난해의 반대로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실천하는 봉사로 늘 깨어있는 자비의 수행자로 삽시다.

총무원장 덕 우

■ 총무원 :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154번지 도선사 전화 : 02)2091-0408

(사) 대한불교 금강종

종 정 무학 송천

총무원장 법산 영봉
사정원장 법천 지산

원로원장 월서 승정원장 무상

총무원부원장 동인

중앙종회 의장 법화 중앙종회 부의장 정인. 정암 중앙종회 사무총장 현우

포교원장 정산	부 원 장 정무	문화원장 덕일	부 원 장 법지
고시원장 법일	복지원장 법영	수선원장 도공	
비구니원장 지명	부 원 장 정연		

서울교구원장 반야지(서원암)	부산교구원장 송원(산천사)	대구교구원장 정산(범룡사)
울산교구원장 덕일(도성암)	대전교구원장 정연(대림정사)	강원교구원장 지명(지명정사)
경기교구원장 정안(금강정사)	충북교구원장 도명(대륜사)	충남교구원장 무상(천본사)
전북교구원장 월서(삼불사)	전남교구원장 혜신(남해사)	경북교구원장 정암(정암사)
경남교구원장 덕산(광천사)	미주교구원장 정화(신화사)	

■ 총본산 (총무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94-4 일성사
전화 042)524-2149, 935-2279 / 팩스 042)526-2149

동체대비 '나눔'… 양극화 넘어 세상을 아름답게

4대 종교인들이 말하는 시대공감

그 어느 때보다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한다. 고실업 저성장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엿볼 수는 없는 것일까? 2013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제 새해를 맞은 우리는 새 정부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4대 종교의 성직자들이 모여 우리 시대의 양극화를 넘어 나눔을 펼치는 방안을 모색했다. KTV의 멘토링토크에서 자리를 같이한 네 종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정리=정혜숙 기자 · 사진제공=KTV



4대종교 성직자들은 KTV멘토링토크를 통해 시대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풀어냈다.

진 행
개신교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대 담
불교 마가스님
(자비명상 대표)
가톨릭 김용해 신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원불교 권도갑 교무
(행복가족캠프 운영)


새해를 맞아 4대 종교 성직자들은 우리 시대의 양극화 해법과 나눔을 실천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 왼쪽부터 최일도 목사, 김용해 신부, 권도갑 교무, 마가 스님.

양극화 넘어 더불어 사는 세상

진행자: '당신이 느끼는 양극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5%가 경제적 양극화라 답했습니다. 소득과 소비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말일 텐데요. 우리 사회 양극화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김용해 신부: 최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고소득층의 수입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액만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빚지고 결혼하고 빚지고 아이 키우는 가정이 많아요. 결국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 스님: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중산층 가계의 월수입이 35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해요. 문제는 이 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수입은 적은데 쓸 곳은 많고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가정파괴, 이혼, 자살 등의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양극화의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해 신부: 과도한 경쟁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기업 간 경쟁은 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게 하고 개인 간의 경쟁은 더 많은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면서 서로간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이는 경쟁에서 뒤지는 개인이나 기업, 집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양극화는 경쟁의 결과지만 개인 불행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이 경제적 양극화를 경계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김용해 신부: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자본가는 도덕적 회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다수의 몫을 가진 자들은 빚에 허덕이고 근로의욕을 상실하기 쉽고 사회가 불안정해져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게 되기도 하죠. 사회공동체가 붕괴되고 공동선, 민주주의, 사회적 기본 설비가 후퇴하게 되고, 소비가 위축되어 산업발전의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권도갑 교무: 교육에 있어서도 상위 소득의 자녀들이 외고나 명문대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빈부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중앙과 지방의 소득 격차도 큽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경제적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양극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진행자: 그렇습니다.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김용해 신부: 일단 개인의 자유의지, 선택, 동기부여를 존중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시장의 공정성도 유지해야겠죠. 특히 우리나라에 힘이 집중돼 있는 곳은 소수 재벌이고, 이 힘은 입법 ·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의 관료까지 금력으로 포위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론조차도 재벌의 포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입니다. 재벌개혁을 통해 정상적인 시장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가 스님: 우리 대기업들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일거리를 뺏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400년간 부를 이어온 경주의 최부자집은 흉년이 들었을 때 땅을 사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땅으로 부를 늘리지 말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대기업들도 이를 본받아야 해요. 적어도 가난한 집 밥그릇 뺏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권도갑 교무: 결국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현해 중산층을 복원하고 늘리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우리 국민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높은 정신적인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뿐 아니라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개개인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과도한 경쟁… 양극화 심화
병리현상 확산, 사회통합 저해
정부 · 기업은 일자리 만들고
국민은 희망 잃지 말아야
삼륜청정 · 무재칠시 '행복씨앗'

권도갑 교무: 한 조사에 따르면 '10년 후 우리사회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라는 의식조사에서 고령자층은 '지금보다 나빠질 것' 이라고 했고, 2030세대들은 현재 숱한 문제점이 있어도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려움을 절망으로 이어가지 않고 극복해보려는 의지가 엿보였어요. 여러 나라 역사를 돌아보아도, 우리처럼 불과 몇십년 사이에 이만큼의 경제적 성장을 한 국가는 찾기 어렵잖아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저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가 스님: 우리 사회에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동체대비란 일체중생의 몸과 자신을 한 몸으로 보고 중생에게 행복을 베풀며, 고통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고통을 함께 하자는 것이죠. 타인의 가난과 고통이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되고 거기서 양극화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나눔' 으로 이웃을 행복하게

진행자: 네에 불교에서 말하는 동체 대비의 정신, 이는 나눔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진정한 나눔이란 무엇일까요?

김용해 신부: 나눔과 섬김은 곧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세상과 타인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자기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고 자아를 실현하는 존재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것을 나눌 때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삶, 사랑, 사람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들이라 합니다.

마가 스님: 불교에서는 삼륜청정(三輪淸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를 할 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고받는 물건, 이 세 가지를 삼륜이라 합니다. 이는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으며 주고받는 물건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가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한다' 는 뜻이죠. 마음을 비우고 하는 나눔이 참나눔이라고 봅니다. 삼륜청정의 보시를 하면 무량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드러내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 나눔과 봉사에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권도갑 교무: 나눔과 봉사가 인색한 것은 아직도 자기 사랑이 부족한 결과라고 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면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구걸하게 됩니다. 스스로 배가 고프므로 누군가가 나의 배를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나누기도 힘들어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나눔에 보답이 없으면 속상해 하죠. 나누고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자연히 나눔과 봉사에 인색하고 정신 물질로 보답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진행자: 불교에서도 나눔을 보시라고 부르며 타인에게 베풀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마가 스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베풀라는 말인가요?

마가 스님: 〈잡보장경〉에 무재칠시(無財七施)란 말씀이 있는데 이는 재물 없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웃는 얼굴, 고운 눈매, 고운 말씨, 따뜻한 마음, 공손한 대답, 자리 양보, 하룻밤 쉴자리를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사랑방을 두어 객이 묵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보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도움, 나의 재물을 덜어서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고 또 시간을 나누어 얘기상대도 되어주는 일도 중요하죠. 요즘 또 재능나눔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행위는 복의 씨앗이 되어 그 복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행자: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눔은 '끝나지 않는 꼬리말 잇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며 그 감사한 마음으로 누군가에 또 도움을 주면서 꼬리말 잇기처럼 계속되는 거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나눔이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佛紀 2557年 癸巳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 발기 협의회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추대(종사, 대종사 급만 동참 가능)
*법하께서도 추진위원회 발기인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모든 스님 누구나 동참 자격이 있습니다.

종단불문, 법납, 속납까지 불문하여
세계불교 고승 및 원로로 모시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보십시요
한평생 부처님의 은덕으로 수행해온 큰스님들께서 앞장서
후학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신다면
불교사에 새로운 역사와 기운이 샘솟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 鐸 - 慧 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733-5671

경제난, 취업난으로 청년들은 힘들어하고 있다. 스펙은 점점 높아지지만 취업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결혼 자금 모으기는 이미 포기한지 오래다. 취업 준비하느라 연애는 해본지 오래됐고, 내 인생에도 해뜰 날이 있을까 싶다.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은 서로의 조건과 스펙을 따지느라 바쁘고, 페이스북, 카카오톡 스토리를 볼 때면 남들은 화려하고 재밌게 사는데 나만 점점 도태되고 초라해지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이럴 때 일수록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남들과 비교 하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법문으로 불자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스님들을 만나 삼포세대 청년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를 들어보자.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젊은 불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스님들이 2030청년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왼쪽부터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 법인 스님(청년출가학교장 •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혜민 스님(美 햄프셔대 교수), 정목 스님(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 진행자)

"힘듭니까? 그것은 잘 돼가고 있기 때문이죠"

삼포세대 고민타파, 멘토 스님의 희망메시지

"안 되는 과정 반복 연습하면 곧 되는 방법 터득할 수 있어"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법륜 스님은 불안과 고민을 안고 사는 청년들에게 "많은 고민을 해도 어떠한 선택을 해도 좋다고 한다. 다만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임의식 없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고민만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괴로워 한다는 것이다.

"자전거에서 넘어졌을 때 '나는 왜 넘어졌을까, 왜 안될까?' 하며 주저앉아 있다면 이것이 곧 좌절이며 절망입니다. 좌절과 절망은 연습하지도 않고 저절로 능숙해지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죠. 안 되고 넘어져도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힐 이유는 없습니다. 안 되는게 곧 되는 것이거든요. 안 되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하고 연습하면서 곧 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및 임용고시와 각종 고시 등을 준비한다. 하지만 100% 합격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

법륜 스님은 "시험에 한두 번 도전해서 실패했으면 다른 직업이나 길에 도전하는 것도 좋다"며 "제가 학생 때는 화공학과가 가장 인기 높은 학과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 내가 뭘 하든지 한 10년 정도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늘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미래를 저절로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만들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따지며 상대방을 의식하고 삶을 비교하며 살아간다. 법륜 스님은 "남들만큼 비슷하게 따라가려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한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소망하는 일을 이루려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법륜 스님은 세상에 굴림당하지 말고 세상을 굴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인간은 늘 남을 쳐다보고 남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스스로 세상을 굴리는 자가 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잣대가 어떻든 세상이 어떻게 흐르든 나만의 관점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눈을 기르세요."

법륜 스님은 삶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길게 보는 안목으로 자기 것이 되는 공부를 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회문제든 국제 정세든 우리 주변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야 할 과제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십 대 청춘에 걸맞게 연구해 나가야지 스펙만 갖췄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영어 시험 점수가 조금 높다고, 바로 취직이 잘되나요? 영어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영어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두 발로 딛고 두 눈으로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이든 학문이든 자기 것이 돼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타인 시선에서 벗어나야"

청년출가학교장 법인 스님

"'어떻게 성공해서 안정적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어느 새 부터인가 청년들의 화두가 돼 버렸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꿈이 뭔지 몰라 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만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하고 왜 사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청년출가학교장 법인 스님(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은 20~30대 청년들이 직업과 타인에게 보여지는 삶을 꿈으로 갖는 생각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대 청년들이 겪는 고민과 괴로움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겪었던 것과 같다. 법인 스님은 "부처님 당시에도 권력다툼, 전쟁, 물질적 욕구가 만연한 시대였다. 부처님은 출가를 해서 자신의 길을 찾았다. 우리 청년들도 사회 경쟁 구조와 물질중심주의의 삶에서 탈피해 행복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이 말하는 행복이란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기쁨을 느끼려면 타인으로부터의 시선과 평가, 사회 통념에서 해방돼야 한다.

"상담을 해보면 요즘 청년들이 사회 통념과 부모에게 짓눌려 있음을 느낍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들, 즉 아파트 평수, 스펙 등에 끄달려 있어요. 또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삶을 살다보니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 괴로워하죠. 사회적 통념을 거부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해야 온전히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회와 기성세대의 강요를 거역하는 삶을 불교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떤 것일까. 법인 스님은 "수처작주(隨處作主)하라 했다. 어디서나 어떠한 경우에도 얽매이지 않아 주체적이고 자유 자재하라는 것"이라며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도 마찬가지다. 마땅히 해야 할 옳고 바른 일은 어떠한 이해관계나 체면이나 감정 따위를 따지거나 개입시키지 말고 '무심하게' 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 스님은 삶을 감동적으로 살기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책을 많이 읽고 과소비하지 않는 것이다.

"당장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축적 없는 소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 때뿐이에요. 이런 관심을 책으로 돌려보세요. 다양한 독서를 통해 많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상상하세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탐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불안한 요소를 노트에 적어라. 의외로 많지 않다"

힐링 멘토 혜민 스님

'힐링 멘토'로 떠오른 美 햄프셔대 교수 혜민 스님은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스님은 청년들이 자신만의 빛깔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기 빛깔이 남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빛깔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빛깔을 찾아서 당당히 여기세요. 누구처럼 되려고 하지말고 남들처럼 따라하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빛깔을 찾아서 그것을 한번 스스로 당당하게 여기고 사랑하세요."

혜민 스님은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불안해하면 자신만 힘들어진다. 그럴 때 자신의 불안을 종이에다 써보자.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써놓으면 의외로 많지 않다"며 "그리고 써놓은 것을 스스로 인지하면서 해결방법을 차근차근 찾아본다.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길들이 하나 둘씩 보인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생각만 하니까 불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불안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스님은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받아들여라. 저항하면 할수록 나를 괴롭힌다"며 "수행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마음을 과거나 미래에 머물게 해 불안해하지 않고 현재에 있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혜민 스님은 무한경쟁과 비교하는 삶에 지친 청년들에게 잠을 한 시간씩 일찍 자라고 귀띔했다.

"인터넷 한 시간 덜 하는 대신 한 시간 일찍 취침에 들어보세요. 건강에도 좋고 아침에 일할 때 능률도 오릅니다. 기도 · 산책 · 독서 등을 하면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 정리도 되고 고민하던게 '탁' 하면서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꼭 해보세요."

"세상은 그 자리에 있을 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BBS 불교방송 진행자 정목 스님

살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놈의 세상!' 하고 세상을 원망할 때가 많다.

BBS 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 진행자 정목 스님은 "잘못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세상은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 '잘됐다. 잘못됐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로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고 강조한다.

스님은 "내가 어떠하든 세상은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세상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세상이 악순환되고 있지만 그 속으로 쳇바퀴 돌듯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 종속되지 않는 균형잡힌 삶을 살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정목 스님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이 주는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세상은 더 많은 친구와 후원자로 그 사람을 돕는다"며 "위기의 상황을 지나서 가만히 살펴보면 적이라 여겼던 그 상대도 내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佛紀 2557年 癸巳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ASSOCIATION KOREA Buddhism JOGYE OADER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2-43호 / 설립허가일 2012.4.9)
대법원등기등록번호 : 110321-0039311, 등기번호 : 003931

총무원장 직무대행 경 담 각 성

종책원장 무산 각운
종회의장 성대 무공
원로의장 능인 혜암
국제문화원장 성 해
기획조정실장 양범수
감 찰 원 장 운 산
종 무 위 원 상운 경본

종도일동

□ (사)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 사회복지법인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재단법인세계불교평화연맹유지재단
□ 사단법인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사단법인한국토속문화진흥협회 □ 종교세계신문사 □ 무교신문사

(사)한국불교조계종 총 무 원
■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파빌리온 412, 317, 378호 전화 02)2198-5022-4 팩스 02)2198-5025
■ 홈페이지 : www.kntga.or.kr / 이메일 jonggyo119@hanmail.net

“불교공부로 마음 치유… 그 에너지 사회에 환원”

청년 신행활동으로 삼포 스트레스 날려요!

88만원 세대, 모태솔로, 등골브레이커, 삼포세대, 고시원 인생, 삼각김밥인생, 친척들 만나기 싫어, 이번 인생은 무효다, 무한경쟁…. 요즘 2030세대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각박하고 숨막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현실과 사회가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럴 때 숨 한번 크게 쉬고 주위를 살펴보자. 의외로 고민을 나누고 수행도 하고 취미활동도 즐기는 젊은 청년 불자들이 많다. 이들과 함께한다면 불안하고 막막한 미래 따위는 두렵지 않을 것이다. 〈편집자주〉

수행 통한 적극적 사회 참여 모토

정토회 청년부

지난 2012년 청년정토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빴던 한해다. 스펙쌓기와 취업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을 위로하기 위해 청년 정토는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는 수행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목표로 하는 정토회의 모토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특히 개인의 수행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일과 수행의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청년 정토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 청년정토회 팀장 이효상 씨(32)는 “불교가 보통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다. 하지만 정토회는 개인의 수행에만 머물지 않고 청년들이 사회적인 이슈를 함께 공감하고 이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수행공동체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 경쟁 없는 삶, 가슴 뛰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청년 정토회”라고 설명했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김제동이 어깨동무합니다’이다.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방송인 김제동 씨의 재능보시로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의 40개 대학을 돌며 강연을 했다. 3만 3182명이 참여했으며 자원봉사자만도 1440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다. 이 팀장은 “개그맨 김제동 씨가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공감하는 토크쇼 형식의 무대였다. 경쟁위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웃음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달해주고자 했다”며 활동사항을 전했다.

전국적으로 청년 정토회를 확대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동안 서울과 대구에만 있던 정토회를 대전 청주 포항 울산 등으로 확대시켰고 2013년에는 부산 인천 수원 등에도 이를 확산 시킬 예정이다.

2005년도에 시작돼 청년들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동북아역사대장정도 주목할 만하다. 동북아 답사 기행을 통해 청년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통일의식을 심어준다는 면에서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부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방황해도 괜찮아’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매회 40여 명의 자원 봉사 청년들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 의미가 깊다. 지난 2012년에도 전국 9개 도시에서 개최해 한 회 강연 때마다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책으로도 출간될 만큼 인기를 모으고 있다”며 뿌듯해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정토회 청년부는 600여 명에 이른다. 불자 청년이 부족하다고 하는 시기에 이렇게 청년부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 팀장은 “그 어느 곳보다 역동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곳이 정토회 청년부다. 불교를 통해 스스로 마음 치유를 하고 이 에너지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청년들을 배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설명했다. **정혜숙 기자**

“내 중심이 서야 사회생활 잘해요”

한마음선원 본원 청년회

해마다 열리는 연등축제의 연등행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체가 있다. 바로 한마음선원 신도단체다. 이들이 선보이는 연희단의 무용과 율동, 그리고 장엄등을 볼 때면 ‘전문인을 고용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문적이며 훌륭하다.

한마음선원은 어린이 · 학생회 · 청년회 · 거사 · 보살 등 모두가 자발적으로 연등축제 준비에 참여하지만 이들의 중심축에는 안양본원 청년회가 있다.

청년회 법우들은 나뉘어 매년 연등회에 참가하기 3~5개월 전부터 맹연습을 한다. 이들은 모두 학생 · 직장인 · 취업준비생 등으로 구성돼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개인시간을 따로 내어 법회와 연습에 참여한다. 그 결과 매년 봉축위원회가 시상하는 연등축제 시상식에서 한마음선원 신도단체는 10여 회 넘게 상을 받을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 청년회 법우들은 바쁜 일상 중에도 신행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일까.

이승재 한마음선원 청년회장(33)은 “예전에는 성공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살아있는 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가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회에 오면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잘 알게 되고 혼자서 공부할 때는 느낄 수 없던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청년회는 매주 토요일 100~150여 청년법우들이 모여 법사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열고 있다.

청년회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으라는 대행 스님의 뜻을 이어 법사 스님의 지도 아래 도반들과 담선(談禪)을 통해 함께 정진하고 있다. 또한 합창단과 풍물패, 미디어팀 등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동아리에 참여해 친목을 도모한다.

청년회 법우들은 이런 신행 · 취미활동을 개인적 만족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로 환원한다.

지난 12월 30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소재 제1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장병 위문공연을 위해 열린 ‘한마음 음악제’가 그렇다. 법우들은 어린이회와 함께 밴드공연, 댄스, 합창 등 다양한 공연들을 선보였다. 12월 19일 선거날에도 투표를 마치고 안양 불교문화회관에 모여 연습을 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었다.

국인호 청년회 부회장(29)은 “예전에는 물질만 추구하는 사회와 친구도 경쟁자가 되는 현실이 한스러웠다”며 “하지만 절에 오면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 다양한 분야의 선후배들이 있어 진로고민을 나누고 서로 멘토가 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회에서는 내 중심을 똑바로 세워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된다. 내가 똑바로 서야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부처님 품에서 마음 열기 배워요”

젊은 불자 모임 ‘영 108’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젊은 불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2011년 2월, 100여 명에 이르는 직장인과 대학생 불자들이 나눔을 실천하고 마음을 화두로 삼아 공부하는 젊은 불자 네트워크를 창립했다. 바로 ‘영108(YOUNG 108)’이다.

‘영108’은 20~40세에 이르는 젊은 직장인과 대학생 불자들이 불교여성개발원의 도움을 받아 결성한 모임이다. 이들은 젊은 불자들간의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인재로서 활약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다.

현재 회원 수는 100여 명. 회원 자격은 불교적인 철학을 공유하면서 수행과 만남, 나눔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영108’ 회원들은 수행, 만남, 나눔을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삼고 있다. 수행에 있어서는 여러 지도 법사와 자문위원들에게 불교 교리 공부와 명상 등에 대한 지도를 받고 있다. 회원들은 2011년 11월 ‘법륜 스님과 함께 하는 신혼여행(신나게 혼나는 여행)’을 열어 법륜 스님에게 고민을 말하고 해답을 듣는 즉문즉설 형식의 법회를 진행했으며, 최근 11월에는 장휘옥 오곡도수련원장을 초청해 간화선을 주제로 한 법문을 들었다.

또한 젊은 세대답게 이태원, 압구정 등에서 불교식 클럽파티를 열어 획기적이라는 반응을 얻었다. 2011년 이태원에서 열린 ‘제1회 BIP 옴 파티’에는 힙합 가수 MC스나이퍼 등이 초청됐고 댄스 타임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불교뿐 아니라 이웃종교 젊은이들도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지난 10월에 열린 두 번째 행사에서는 ‘레인보우 옴파티’라는 주제로 한국 젊은 불자들이 다문화 불자가족과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밖에 ‘영108’ 회원들은 수행프로그램을 개발, 소모임을 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템플스테이, 사찰음식체험, 소외아동과 함께 하는 나눔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다.

영108 회원인 김민지(29) 씨는 “사회에서는 서로를 경쟁상대로 생각해 무의식적으로 경계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영108은 불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교류를 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도반으로 느껴져 편하고 진실되게 교류할 수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자기 삶을 살려는 청년들이 영108에 모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해 도움도 되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회원인 서용근(29) 씨는 “같은 불자들이 모여 깊이 고민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된다. 사회에서는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는 편인데 이곳에서 서로 마음수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공유하니 위로가 된다”며 “또 실생활에서 수행을 해나가니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김제동이 어깨동무합니다’를 진행한 정토회 청년부가 홍보활동을 펼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토회 청년부는 전국적으로 청년부 활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사진은 포항 청년정토회 창립식 장면.


안양 한마음선원 청년회가 2011년 11월 ‘한마음음악제’에서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한 장면을 선보였다.


지난 연말 군장병 위문공연을 위해 공연연습을 하고 있던 한마음선원 청년회 법우들.


영108 회원들이 용인 청소년의 집 어린이들과 에버랜드로 나들이를 나간 모습.


2011년 이태원에서 열린 ‘제1회 BIP 옴 파티’에서 여흥을 즐기는 영108 회원들.

세해 복 많이 받으세요
佛紀 2557年 癸巳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 총무원 070-4187-4747 /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대자비 보살(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의 장 석무겸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현종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운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사무총장 석법오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문화예술위원장 조치원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dwbk.net

부산 제2 총무원 청사개원
총무원 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식물원 39길 24-7)

대원불교조계종 종립교육원 행자모집 중
종 무 소 051)893-3346
학 장(直) 010-3564-6604 현우 법오
부산 진구 당감1동 232-3 현우정사(백양대로 50-1호)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佛紀 2557年 癸巳年 謹賀新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A14 전면광고

그릇된 믿음 없이 절대를 깨달아 윤회의 줄을 끊어버리고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욕망을 버린 사람 그는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신 년 사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총 무 원 장 화엄

모두가 어려웠던 임진년은 추억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지나가고 불기 2557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화합과 단결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평화 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이 세상 모두가 아름답고 장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새로운 한해 를 시작하는 우리 중생들의 생각은 각자 다르지만 모든 사부대중이 원만하고 행복한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온 누리에 충만할 수 있도록 모두가 평상심을 가지고 공동체의 일환으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한다면 화합과 단결, 행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혼탁하고 공허한 사회분위기를 경계하고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두가 화합하여 자연과 함께 평등하게 어우러져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종 정 정각

원로부의장 명종 원로간사 법운
원 로 위 원 청송. 지공. 도기. 법헌

총 무 원 장 화엄 총무부원장 상원
총무원고문 동봉

종 회 의 장 삼주 종회부의장 보각 사 무 처 장 성각
경기남부종회의원 도원 경기북부종회의원 지산 경북종회의원 법연. 일운 전남종회의원 자각. 지산 충청종회의원 도천. 법승 인천종회의원 완경
제주종회의원 자광 부산종회의원 재성 전북종회의원 성각 대전종회의원 정원 울산종회의원 청호 대구종회의원 보각

호 계 원 장 용암 포 교 원 장 진공 감 사 원 장 해동 교 육 원 장 보월
총 무 부 장 광은 교 무 부 장 법광 재 무 부 장 동해 규 정 부 장 정원 포 교 부 장 지현 홍 보 부 장 일성

자비실천나눔회장 광명심 봉사위원장 청정심 조직위원장 문상철 사 업 부 장 김유광 사 회 국 장 보성

경기남부종무원장 일성 경기북부종무원장 지산 경북교구종무원장 해동 전남교구종무원장 지현 전북교구종무원장 성각 충청교구종무원장 상원
제주교구종무원장 대성 대전교구종무원장 정원 부산교구종무원장 정일 울산교구종무원장 지운 대구교구종무원장 보각 인천교구종무원장 완경

종정원 : 부산 영도구 동삼1동 323-194 미룡사 / 전화 051)404-4300
총무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세종로 4928번지 (2층) / 전화 041)566-2277. 566-2278 전송 041)566-6141

사단법인 대한불교본조계종

원로의원 용담. 혜암. 지연. 법우
종 정 회암 사서실장 헌화

총 무 원 장 융호 수석부원장 산수
고 시 원 장 혜산 법 규 원 장 혜공 중앙선원장 보륜 문 화 원 장 법성
법 사 원 장 마생 복 지 원 장 진묵 호 법 원 장 청암 교 육 원 장 대안
감 사 원 장 효현 포 교 원 장 진성 감 찰 원 장 법전

중앙종회의장 대호 부의장 청오
중앙종회의원 묘건. 대공. 혜철. 중무. 혜운. 법묵. 현덕. 정주. 법향. 무진. 불광 고운. 지현. 천묵. 여진. 지환. 인덕. 도명

총 무 부 장 성공 재 무 부 장 고운 교 무 부 장 경덕 사 회 부 장 도문
복 지 부 장 덕화 문 화 부 장 자은 조 직 부 장 무진 규 정 부 장 법장
조 사 부 장 광덕 호 법 부 장 보광 포 교 부 장 지성 교 육 부 장 자운

서울교구원장 자운 경기교구원장 법묵 대전교구원장 혜철 강원교구원장 보륜
부산교구원장 도관 대구교구원장 중무 경북교구원장 무진 전남교구원장 법성
충남교구원장 여진 경남교구원장 경덕 전북교구원장 보명

고 문 변 호 사 이종일.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 사장 산수스님

종 도 일 동

■ 서울 중랑구 상봉동 서울중랑우체국 사서함 제76호 전화 02)3436-0796-7 팩스 02)2201-1163

사단법인 대승불교 본원종

종 정 범해당 대화
부종정 동광. 법용 종정사서 경산

총무원장 만혁
원로원장 대원
원 로 원 관곤. 보명. 대봉. 대심. 대월

교육원장 무공 감찰원장 대능 연수원장 현담
문화원장 송담 복지원장 대천 염불원장 대황

종회의장 대운 종회부의장 혜공. 지명
종회의원 법훈. 자광. 원각. 감로. 용담. 월광. 광덕. 부용. 지선. 진묘. 대광. 자관. 현공. 혜은. 지호. 성각. 중정. 지명. 혜원. 용우. 법천. 대원. 관공. 지혜장. 법천. 청련행.

전국신도회장 대광 부회장 성덕화. 청연행

총 무 부 장 법성 재 무 부 장 성문 교 무 부 장 혜원 감 찰 부 장 만공
조 직 부 장 도광 사 회 부 장 정오 포 교 부 장 자관 복 지 부 장 지연

부산경남종무원장 동광 경북종무원장 자광 충남대전종무원장 지천 충북종무원장 대월 강원종무원장 진묘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3 전화 02)391-4376 / 팩스 02)379-2746

"아미타사상으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열어가는"

사단법인 한국불교 정 토 종

이사장 지산 종정 각 호

원로의장 법보 원로의원 보 덕

총무원장 설 진

종회의장 혜명 종회부의장 해조 교육원장 초암
경기교구원장 법천 경기북부교구원장 자운 경남교구원장 설봉
경남북부교구원장 정각 전남교구원장 정조

포교원장 해조 사서실장 설현 감찰부장 자명
재무부장 법성 법사단장 도암 법사부단장 대암

저희 종단과 함께 하실 종도 모집합니다

■ 총무원 : 인천 남구 학익동 25-12 석목빌딩 701호 / 전화 032)867-2694, 543-2693
팩스 032)868-2694 http://www.jungtojong.org

허가번호 2008-1-56-호. 등록번호 13467-0002921호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총 재 혜 정 (사단법인 대한불교일승종 종정)
총 재 혜 정 (사단법인 대한불교일승종 종정)
부 총 재 혜 안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무 송 (사단법인 대한불교화엄선종 종정)
우 담 (중앙조계종 종정)
회 장 송 산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부 회 장 정 림 (사단법인 수미산문조동정종 총무원장)
마 정 (임제선학원종무총리)
사무총장 법 봉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前총무원장)

이 사 법인 ((사)대승불교육조조계종 총무원장) 무각 ((사)한국불교정토종 前총무원장)
향운 (대한불교법보조계종 종정대행) 정일 (한국불교근본해동종 총무원장)
법천 (대한불교정토조계종 총무원장) 대일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법성 (국제불교선덕종 총무원장) 본자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총무원장)
일초 (사)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덕진 (한국불교원각종 종회의장)
대명 ((사)대민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고 (대한불교법사종 종회의장)

회 원 일 동

■ 총무원 : 경기도 안산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 / 전화 : 사무실 031)676-3960.
031)262-1577 FAX 031)262-1353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수선화 향기 편지 끝에 묻어 보내

추사가 다시 좌부승지에 오른 것은 1835년 8월 23일이다. 이 해에 소치 허련(1809~1893)은 진도에서 대흥사로 초의 스님을 찾는다. 초의의 배려로 대흥사 한산전에 머물며 불화를 익혔던 그는 공재 윤두서의 화첩을 두루 섭렵하여 화안(畵眼)을 높였는데, 이러한 인연은 공재의 후손인 윤종열(1792~?), 윤종심(1793~?) 등이 대부분 다산의 다신계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후일 추사는 소치의 괄목할 만한 재주를 한눈에 알아보고 자신의 슬하에 머물게 하였다. 조선 후기 걸출한 남종화의 대가, 소치는 추사와 초의의 깊은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 두 스승과의 사제(師弟) 인연을 소중히 여겼던 그는 한양과 제주도, 해남을 오가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전했던 아름다운 전령(傳令)이었다. 《완당전집》 〈여초의〉 6신과 〈벽해타운첩〉에 실린 추사의 편지에는 초의와 이별한지 두 해가 되었지만 소식이 두절됨을 안타까워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행간에 가득하다.



도판은 〈벽해타운첩〉이다.

그대를 보낸 지도 이미 두 해가 지났는데 갈라지듯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토와 범계의 나누어짐은 마치 은하수와 같아서 사다리로는 닿기가 어려운 듯, 편지가 도착했으련만 답장이 없으시군요. 나는 마음이 좁아서인지 대 원융의 경지에서 보더라도 서운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속세를 단절하고, 솔바람과 물에 비친 달을 벗 삼아 거듭 훌륭한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겠지요. 어수선한 속세에서 목을 빼고 바라보지만 진실로 생각에 끌려서 한가함을 다 즐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사이 임금의 은혜를 입어 옛 집으로 돌아왔고, 다시 벼슬에 나아가게 되었으니 임금님의 은혜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수미산으로 먹을 삼는다한들 이 마음을 다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철선 스님과 오랜 인연이 있는 분들도 모두 평안하시고 자재하신지요. 따로 편지를 쓰지 않았으나 나의 간곡한 마음이 전해지게 너그럽게 돌려보십시오. 아울러 전번에 말한 것을 거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거듭 바랍니다. 나머지는 편지로 다하기 어렵군요. 이만 줄입니다. 을미(1835)년 선달 오경.

내가 편지를 쓸 때, 수선화가 만개하여 맑은 향기가 벼루 위에 뜨고 종이에 스며들었다

自丞瓶錫 已經兩臘而叡然無間 淨土凡界判 若銀漢 理難梯接 至於有書亦無答 俗人自是關窄 不能無感於大圓融之地 斷絶世誼 松風水月 必有更增精彩 區區塵寰中 引領瞻望 寔不勝牽想遙誦 居士 間蒙恩飭還處舊第 重理舊緣 感言襟褓 雖須彌爲芥 無以盡此 錢禪諸名宿 具吉祥自在否 無以另具 須轉及此款款之私 俾回慈覽 並仲前言 以副翹企 爲望爲望 餘歎草不式 乙未臘五夜 居士書時水仙盛開 清香泛研沁紙

추사가 초의와 이별한 지 두 해가 되도록 내왕이 단절된 듯, 두 번째 상경이 후 대흥사로 돌아간 초의는 추사의 거듭된 소식에도 회신이 없었나보다. 추사는 '(초의가)속세를 단절하고 솔바람과 물에 비친 달을 벗 삼아 거듭 훌륭한 모습으로 발전해 가기에' 답신이 없는 것인가 반문하였다. 또 그가 다시 벼슬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임금의 은혜, '수미산으로 먹을 삼는다한들 이 마음을 다 드러낼 수는 없다'는 그의 충정을 어디에서 샘솟은 것일까. 수미산과 먹, 그 비유가 참으로 장대하다. 돌이켜 보면 이 시기는 추사의 전성기이다. 이듬해 그는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고, 이어 7월 병조참판에 낙점되었으나 경사가 이어진 것. 추사의 생애에서 가장 빛났던 출사(出仕)의 시기였다. 한편 추사가 거듭 초의에게 안부를 전했던 철선(鐵船1791~1858)은 수룡(袖龍1777~?)의 제자이며, 수룡은 아암(1792~1811)의 제자이다. 철(銕)은 철(鐵)의 고자(古字)이니 바로 철선을 말한다. 그는 다산의 전등계 제자였고 글씨에 능했던 인물로, 특히 추사가 아꼈던 승려였다. 한편 추사의 편지 말미에 '내가 편지를 쓸 때 수선화가 만개하여 맑은 향기가 벼루 위에 뜨고 종이에 스며들었다' 고 하였다. 오아(五夜: 12시경)와 수선화는 아름답고 심오한 대칭, 유독 수선화를 사랑했던 추사, 편지 끝에 묻어 보낸 수선화의 맑디맑은 향기는 오래도록 초의의 마음에 남아 있었으리라.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작곡가 **김동환**은 … 1937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다. 연세대 음대에서 작곡을 전공했다. 1972년부터 1982년까지 계명대 음대 교수로 재직했고, 미국 유학 후 1982년부터 2002년까지 중앙대 음대 교수로 재직했다. 1992년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과의 인연으로 찬불가 작곡을 시작했고, 1995년에는 그 해 창단된 불교방송의 가릉빈가 합창단의 지휘를 2년간 맡아 대한민국종교음악제 참가하는 등 불법 홍포에 기여했다. 2002년 정년퇴임 후 창작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부처님 노래 만들 땐 부처님 생각만 합니다

찬불가 작곡 20년 **김동환** (작곡가 · 前 가릉빈가합창단 지휘자)

"최소아과 앞에서 전화하세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기자가 들고 있는 사진 속 얼굴과 잘 연결되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찾아낸 그의 자료사진은 그의 젊었을 때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멀리 골목 앞에 서있는 한 남자가 조금 전 전화기에서 들려오던 목소리의 주인인 것 같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얼굴이 확실하게 들어왔다. 그랬다. 청춘은 어디로 갔을까. 사진 속에서 보았던 얼굴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그의 한창 때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작곡가 김동환(75세 · 남)이다. 구랍 24일 그를 만났다. "내가 뭘 했다고… 쓸 게 없을 텐데. 더구나 '불교' 신문에서. 내가 찬불가 좀 썼다고 독실한 불자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렇다면 더욱 쓸 게 없을 텐데." 그는 빙긋이 웃으며 기자를 적정했다. 커피를 받아들고 그의 작업실을 겸한 집으로 향했다.

널찍한 거실 한 쪽에는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검정색 피아노 끄트머리엔 분홍빛 연꽃등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이어폰 시대에 오랜만에 보는 큼직한 우퍼와 오디오. 방 하나에 수북이 쌓인 그가 좋아하는 음악들. 책장 가득 꽂인 악보들. 그가 만든 음악들. 오래된 공연 포스터와 안내 책자들. 흑백의 사진들.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의 청춘은 거기 있었다.

–선생님은 가곡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불가는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그는 오디오에 음반을 한 장 얹었다.

"울 때도 빈손 잘 때도 빈손, 합천 한 손 그대로 두루 쓰는 손. 울 때도 빈발 잘 때도 빈 발 합천 한 발 딛고 그대로 두루두루 걷는 발. 이 세상 올 때도 흙에서 오고 갈 때도 흙으로 가는 합천 한 몸. 한 몸 젊은 가운데서 정에 들어 죽은 몸 들어 쉬고 배워는 승낭중은 영원해. 청산에 흐르는 물은 강을 이루고 강을 이룬 한 방울은 세상을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음을 음지양지 없는 나무 만 가지 꽃이 피나 향기 두루 그윽하여 만 가지 맛을 불분이로다."

대행 스님 작사, 김동환 작곡 찬불가 '빈손' 이다.

"제가 처음 만든 찬불가예요. 얼마 전 열반하신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말씀에 곡을 붙였습니다. 1992년 즘인 것 같습니다. 아내가 대행 스님이 계시는 한마음선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한테 좋은 일 한 번 해보겠냐면서 대행 스님 말씀 가지고 노래 하나 지어 보라고 해서 곡을 하나 써서 드리게 됐죠. 그 때 처음 '찬불가' 라는 걸 썼어요. 그리고 그 후로 계속 대행 스님의 곡을 많이 쓰게 됐죠." 그는 '지계의 노래', '무상게송', '임의 소식' 등 이후로도 10 여 편의 대행 스님 법문으로 곡을 쓰게 된다. 그의 불교와의 인연은 그렇게 그의 아내로부터, 대행 스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그는 그해 불교방송이 주관하는 '찬불가 보급사업' 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1995년 불교방송에서 창단한 어머니합창단 가릉빈가 합창단의 지휘를 맞게 된다. 그는 2년 동안 합창단을 맞게 되는데, 그가 만든 찬불가의 대부분은 그 때 만들어진다. 그는 지금까지 500여 편의 찬불가를 작곡 발표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부처님 이르시네', '한마음 있음이여', '길을 갑니다' 등이 있다.

–불교와의 인연은 부인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개체가 찬불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때까지 본인의 종교는 없었나요?

"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션스쿨인 연세대 음대를 나왔습니다. 그 때 연세대에 입학하기 위해선 목사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종교도 함께 졸업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에게는 종교도 '다니는' 것 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내가 먼저 절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아내가 절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저 때문입니다. 제가 절에 다니라고 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불자'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교리도 잘 모르고, 공부한 것이 없어서 불자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아는 스님도 없고 다니는 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절에 다니게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데 다는 것보다 절에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라고 했지요. 그리고 한마음선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는 미션스쿨인 연세대에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

대행 스님 법어 10여 편 찬불가 작곡
불교방송 합창단 2년 지휘
'한마음 있음이여' 등 50편 발표
찬불가 대중화보다 질적 향상 중요

듯 교회도 다녔다고 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서 종교도 졸업한 것이다. 그는 "불자라고 말하지 못합니다."고 했지만, 그 '못합니다' 라는 말이 그는 이미 불자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기자는 생각했다. '못합니다' 란 말에는 말과 다른 신뢰가 있었다.

–선생님에게 '찬불가' 는 어떤 의미인가요? 불교와의 인연이 시작된 곳인데, 작곡가로서 찬불가를 만드실 때, 다른 장르의 곡들과는 다른 마음가짐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곡이든 찬불가든 저에겐 모두 '음악' 입니다. 작곡가에게 '음악' 인 거죠. '일반곡' 과 '찬불가' 라는 구분부터 저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에겐 다를 수 있겠지만 만드는 저에겐 한가지 음악입니다. 여러 주제와 소재 중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을 노래한 곡이 있고, 자연을 노래한 곡이 있고, 부처님을 노래한 곡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해야 할 땐 사랑을 생각하면서 곡을 쓰는 것이고, 자연을 이야기해야 할 땐 자연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이야기해야 할 땐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곡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불교방송 합창단의 지휘자로 선임되시고 그 이후로 많은 곡(찬불가)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창단을 맡고 보니 곡이 필요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곡, 부를 곡이 없었습니다. 당장 이듬해 종교음악제에 나가야 하는데 레퍼터리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찬불가들이 있었지만 그는 좀 더 다양한 찬불가를 만들어 음악제에 나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과감한 투자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찬불가가 많이 나오기 위해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며 그 때를 회상했다. 그는 2년 동안 합창단을 이끌면서 2권의 합창곡집과 음반을 냈고 불교방송, 평화방송, 기독교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종교음악제' 에 그의 칸타타 곡 '사바의 바다' 를 가지고 참가해 불교의 위상을 높였다.

–좋은 찬불가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 포교 차원에서 찬불가의 대중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불가의 대중화라는 말보다는 보급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말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급의 차원도 단순히 양적인 기회가 아니라 질적인 향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종교의 음악도 마찬가지겠지만, 찬불가가 가요나 팝송처럼 대중화 되기란 힘들다고 봅니다. 성격과 정체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대중화보다는 양적, 질적인 '향상' 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합창단을 맡고 찬불가를 쓰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종교 안에서 질적으로 향상되고 양적으로 점할 기회가 많아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준 높은 곡, 수준 높은 편곡, 수준 높은 합창단, 수준 높은 발표의 장, 그렇게 해서 새로운 찬불가들이 늘어간다면 그것이 찬불가의 대중화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찬불가는 1920년 용성 스님에 의해서 시작된 후 곡의 수는 현 여곡에 이르고 있지만 대중의 입에 머무는 곡은 많지 않다. 그는 많은 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불리는 곡이 적은 것은 보급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기존의 찬불가들은 성악곡이나 합창곡으로 작곡돼 일반이 부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새롭게 편곡해 부르기 쉽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급의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 보급의 문제가 대중화의 문제라고 말했다.

–2002년까지 강단에 계셨는데, 정년퇴임 후에 생활의 변화가 있다면?

"퇴임하고 난 후에 곡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그 동안 쓴 가곡이 180곡 정도 되는데, 거의 퇴임하고 썼습니다. 재임 중엔 기악곡을 많이 썼습니다." 그는 오디오에 그의 대표 가곡 '그리운 마음' 을 얹었다. "바람은 불어불어 청산을 가고, 냇물은 흘러 천리를 가네. 냇물 따라가고 싶은 나의 마음은 추억의 꽃잎을 따라 가며 가는 마음…"

곡이 끝나갈 때쯤 그는 책꽂이에서 그의 가곡집 '김동환 가곡집 내 마음의 노래' 한 권과 '가릉빈가의 합창' 음반 씨디를 하나 건넸다. '삼보의 노래', 'ㅇ 공양 받으소서', '부처님은 이르시네' 등 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는 찬불가를 그의 작품세계에서 따로 떼어 이야기 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자신을 '불자' 라고 따로 붙여 놓지도 않았다. 음악인으로서 음악을 할 뿐이고, 부처님 노래 만들때는 부처님 생각만을 할 뿐이다. 그래야 찬불가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부처님은 그런 존재이고 그런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플레이어에 음반을 하나 얹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나옹 선사의 '청산은 나를 보고' 에 곡을 붙인 그의 곡이다. 그의 가곡집에 수록되어 있었다.

–선생님 새해 소망하시는 것 있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그냥 소중할 뿐이죠. 하루 종일 음악만 들을 수 있어도 더 이상 좋을 게 없고, 어쩌다 부처님 생각해야 할 일 하게 되면 그 이상 좋을 게 없지요. 굳이 소망이라면 새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 소망이죠."

문을 나서면서 진정한 불자란 무엇일까. 생각했다.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교리 공부 많이 한 사람? 스님 많이 아는 사람? 보시 많이 한 사람? 그 날 만큼은 '부처님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이 아닐까 생각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불교방송이 창단한 가릉빈가합창단의 초대 지휘자로 있는 동안 그는 2권의 찬불가 합창곡집을 냈다.

전법일기

"시골 절에 젊은 불자가 많네요"

첫 말사 주지 부임기

10여 년 전 처음으로 말사주지를 맡아 인수를 받을 때, 전임 주지스님께 들은 기도법회와 신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초하루 법회를 비롯한 정기법회와 기도는 없고, 연중 정초와 초파일, 철석과 동지기도불공을 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초하루 기도법회를 정기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전임 주지스님이 말씀하시길 "아마도 세 명 정도가 오거나 아무도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설마 하는 생각으로 그 다음 달 초하루를 맞이하면서 그 말이 사실임을 실감하였다. 정말 세 분의 불자님들만이 초하루에 절에 오셨기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 절의 든든한 중심이 되어주고 있는 인보살님과 명보살님 그리고 수미보살님이 그 분들이다.

도량주변은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했고 법당 안으로 쥐님들이 줄기를 뻗어가고 있었다.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인데도 주지로 들어가서 한 달이 지나도록 사람이라고는 10명도 오지 않았다. 이런 열악한 사정 때문이었을까. 전임 스님은 고시생을 들이고 학원소를 키워서 절 살림을 충당했었다고 하였다.

임명장을 받고 4개월여 쉼 없이 건물을 청소하고 도량주변을 정리한 다음 가까운 도반들을 청해 조촐한 취임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에 왔던 몇몇 도반들은 부적이나 궁벽한 산사에 주지를 살려고 하는 나에게 혀를 끌끌 차면서 질책과 위로의 말을 하기도 했다.

"왜 이렇게 볼품없고 어려운 절에 주지를 맡느냐, 제정신이냐?" "살림은 힘들겠지만 큰 스님들이 사시던 곳이고, 도량이 좋아 보이니 잘 살아 봐라."

그나마 몇 달간 애를 써서 사찰의 분위기를 많이 바꾸었는데도 그 정도였으니, 처음 절의 상태를 보았으면 무슨 혐한 말이 나왔을까 등줄기가 서늘하였다.

"왜 이렇게 불쌍하고 어려운 절에 주지를 맡느냐 라는 말 급해지지 않을 만큼 신심과 열성으로 살았더니 신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한 푼의 시주금도 헛되이 쓰지 않고 건물을 보수하고 신축하여 템플스테이를 시작하였다. 누구든 인연이 닿는 사람은 함께 살도록 하였더니 절에서 상주하는 대중도 10여명으로 늘었고 사찰에는 늘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다. 때때로 큰 절의 어른스님들께서 다녀가시고는 칭찬을 하기도 하셨는데 고맙고 큰 힘이 되었다.

수년 전부터는 여름 · 겨울철 안거 때마다 신도들 20여명이 함께 본사 선원에 대중공양을 가는데 그 때마다 방장스님께서는 따뜻한 덕담을 해주시곤 한다. "하허, 부석사 신도들이 우리 말사 신도들 중에 제일 젊고 고운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며 좋은 인연을 지으세요. 그리고 부처님 인연을 귀하게 지니도록 하세요."

벌써 10년째 진행한 산사음악회는 서산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문화행사로 자리를 잡았고, 절에 법회와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한 사람들은 시골절의 신도들이 젊고 활기찬 것에 놀라곤 한다. "아니, 시골 절에 젊은 신도들이 왜 이렇게 많지요? 도시 절보다 많은 것 같네요."

처음 며느리와 딸을 절에 데려오라고 했을 때 노보살님들이 흔쾌해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거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것 같다.

노소가 잘 화합하지만 때로 노보살들이 자신들의 며느리나 딸들에게 샘을 내고 질투를 하기도 한다. "주지스님이 너무 젊은 불자들만 위하면 안돼요"라는 투정이 재미있고 즐겁다.



그림 · 박구원

한달 지나도록 신도 10명도 안와
첫 임기동안 시주금 아껴 도량 정비
이제는 지역 문화도량 '자리매김'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주지)

우리는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행을 선택한다!

심리학자가 들려주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정직한 행복학 강의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춰야 한다는 생각.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하고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 생각들……
이 생각들 속에 행복이 있을까?

우리에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이 있다.
가만히 내게 귀 기울이면 들리는 것이 있다.
그 속에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있다.

최신간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즐거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생각의 습관과
홀가분하게 이별하기

심리학자 김정호 지음 | 224쪽 | 13,000원

심리학의 눈으로 새롭게 풀이한 불교 핵심 교리

치유하는
불교읽기



원래 의학에서 '치유(healing)'라는 말은 손상된 조직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하는 불교읽기'가 우리가 바르게 인생관·마음을 회복하는 마음 자유 과정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그러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 〈머는 글〉 중에서

서문 스님 지음
288쪽 | 14,000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힘

반야 참회



'반야 참회'란
전통적인 불교의 번뇌론과 신정 수행론을 기존 참회에 적용해 수행 차원으로 체계화시킨 새로운 참회 수행법이다.
반야 참회는 불교 입문자들이 단식간 내에 수행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일상의 피로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수행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해룡 스님 지음
288쪽 | 13,000원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주)에스컷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토호텔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3년도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나.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다. 강 주 : 석법운 스님, 월봉 스님
2. 수업일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무원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佛紀 2557年 癸巳年 謹賀新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A18 전면광고

하늘이 칠보(七寶)를 비처럼 내려 주어도 욕심은 오히려 싫증을 낼 줄 모르나니, 즐거움은 잠깐이요, 괴로움이 많음을 깨닫는 사람이 슬기로운 자이니라.





佛紀 2557年 癸巳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

고 문 단

수석고문 대한불교 조계선종 **만옹** 석도일 종정큰스님
고 문 (사)대한불교 태종사 **명공** 이도성 조실큰스님
(사)한국불교정토종 **김노** 이사장 큰스님
(사)한국불교삼론종 **석봉** 전석파 종정큰스님
(사)대한불교선종 **효담** 박호영 이사장큰스님
(사)민족불교조계종 **대곡,법보** 정가우 종정큰스님
대한불교임제종 **용화** 나인식 종정큰스님
대선불교조계종 **동산** 문용호 종정큰스님
대한불교천지종 **일공** 정정수 종정큰스님
대한불교달마선종 **현광** 김용익 종정큰스님
대한불교교화선종 **혜명** 석혜명 종정큰스님
세계불교법륜종 **법광** 강영수 종정큰스님
한국불교원각종 **혜철** 이병출 종정큰스님
한국불교일광종 **혜우** 원종택 종정큰스님
한국불교조계종 **정암** 박우렬 종정큰스님
현대불교조계종 **만공** 김연수 종정큰스님
도솔천유마종 **무해** 김길수 종정큰스님
교단용화불교 **천강** 김범열 종정큰스님
한국호국불교조계종 **혜륜** 이윤식 종정큰스님
(사)대한불교해동종 **해붕** 최정웅 종정큰스님
대한불교광명조계종 **진공** 김완길 종정큰스님
대한불교아미타여래종 **의천** 최상복 종정큰스님
한국불교태고종 **원묵** 박종숙 큰스님
(사)대한불교해인종 **혜지** 천해원 종정큰스님
(사)대한불교승가종 **월일** 강습득 종정큰스님
부산승가총연합회 **법민** 안상수 회장큰스님

총 재 단

명예총재
(재)한국대승불교여래종 **인왕** 신판석 종정 큰스님
한국불교태고종 **인공** 박인공 총무원장 큰스님

총 재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의륜** 서주범 본회이사장 큰스님

부 총 재 대한불교대원종 **정허, 안신풍** 종정 큰스님
대승불교조계종 **법각,지오** 장무송 창종주 큰스님
임제불교조계종 **적진,지암** 김영홍 종정 큰스님
대한불교해탈조계종 **대광** 문진열 종정 큰스님
(사)한국불교조계종 **대봉** 이종수 총무원장 큰스님
대한불교불광 **청원** 박수웅 종정 큰스님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청파** 안종억 (종정대행) 큰스님
국제선불교조계종 **목탁,혜은** 상경찬 종정 큰스님
세계불교평화종 **고명** 김춘석 종정 큰스님
대한선불교조계종 **용담** 김무홍 종정 큰스님
대한불교조계선종 **혜원** 김창관 종회의장 큰스님
한국불교미륵선종 **혜일** 윤중희 종정 큰스님
대한불교위앙종 **청해** 박인혜 종정 큰스님
대한불교해동종 **송산** 이종완 총무원장 큰스님
대한불교무량종 **혜안** 정동식 종정 큰스님
선불교조계종 **석대응** 종정 큰스님
대한불교대각종 **만청** 종정 큰스님

회 장 단

회 장 (사)대한불교원각조계종 **청운** 박청운 종정 대종사
상임부회장 (재)한국근본불교조계종 **용주** 권용원 종정 대종사
수석부회장 한국불교대불종 **만주** 조성수 총무원장 대종사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청학** 송원진 총무원장 대종사
대한불교선각종 **정암** 마승이 총무원장 대종사
충남불교조계종 **청암** 도한수 종정 대종사
(재)한국불교조계종 **보현** 서만득 총무원장 대종사
부 회 장 한국불교자비종 **해광** 전충열 총무원장 대종사
한국불교대승법사종 **지일** 박상갑 종정 대종사
한국불교반야종 **지법** 한재환 총무원장 대종사
호국불교호예종 **법진** 신승도 총무원장 대종사
한국불교구산선문회 **법장** 최재호 총무원장 대종사
회천법계천일종 **법혜** 박수종 총무원장 대종사
한국불교전법조계종 **일웅** 김철우 총무원장 대종사
불교단체극락선원 **도천** 박갑수 선원장 대종사
대한불교법계종 **청산** 김규섭 총무원장 대종사
한국건강진흥원 **범부** 운담 종정 대종사
(사)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정종 **정림** 석정림 총무원장 대종사
공동의장 한국불교법안조계종 **본좌** 이운우 종정 대종사
실무의장 국제불교조계종 **법천** 유일수 총무원장 대종사
총무이사 대한불교총연합회 **혜철** 이상진 법사
사무총장 대한불교선종 진공 **대명** 정하웅 선원장
사무실장 한국근본불교조계종 **해안** 조현종 스님
법인이사회이사장 **의륜** 서주범 대종사
이 사 **청운** 박청운 대종사 **만주** 조성수 대종사
현오 성부경 대종사 **무일** 금숙희 스님
총괄이사 **이봉** 서병렬
기획이사 **금촌** 조월생
감 사 **도광** 천명섭 이사
상임이사 **혜천** 이상진 이사

공 동 의 장

관연 큰스님 일강 큰스님 연화 큰스님 영공 큰스님
다정 큰스님 법일 큰스님 법일 큰스님 현성 큰스님
만득,무학 큰스님 조연 큰스님 억조 큰스님 호월,화엄 큰스님
해관 큰스님 택봉 큰스님 은곡 큰스님 청산 큰스님
죽암 큰스님 정산 큰스님 관행 큰스님 박학열 대표
법정 큰스님 한불 큰스님 법정 큰스님 혜민 큰스님
태함 큰스님 송정 큰스님 혜광 큰스님 영월 큰스님
성허 큰스님 법천 큰스님 대성 큰스님 법왕자 대표
정일 큰스님 조윤심 큰스님 원공 큰스님 수원 큰스님
법각 큰스님 도암 큰스님 혜륜 큰스님 동관 큰스님
천강 큰스님 일오 큰스님 혜봉 큰스님 무일 큰스님
철산 큰스님 청암 큰스님 덕정 큰스님 법상 큰스님
왕인 큰스님 법룡 큰스님 청담 큰스님 지공 큰스님
일웅 큰스님 김재연 큰스님 법정,덕암 큰스님 보관,월천 큰스님
법득 큰스님 황정 큰스님 지법 큰스님 혜원 큰스님
보리,현광 큰스님 목탁,혜은 큰스님 석봉 큰스님 이형호 대표
혜일 큰스님 각화 큰스님 호연 큰스님 김정안 대표
원각 큰스님 고석 큰스님 해원 큰스님 혜성 큰스님
향덕 큰스님 경원 큰스님 연화 큰스님 법휴 큰스님
유화 큰스님 법안 큰스님 고경 큰스님 현불 큰스님
경암 큰스님 정오 큰스님 청산 큰스님 명산 큰스님
만청 큰스님 혜안 큰스님 효봉 큰스님 보현 큰스님
불광 큰스님 동원 큰스님 전인 큰스님 설송 큰스님
대천 큰스님 월단 큰스님 도룡 큰스님 문수 큰스님
성운 큰스님 대원 큰스님 법홍 큰스님 혜지 큰스님
법우 큰스님 대하 큰스님 회광 큰스님 월인 큰스님
한울 큰스님 성인 큰스님 구암 큰스님 (무순)
원담 큰스님 법안 큰스님 해광 큰스님

〈〈 본회 가입안내 〉〉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는 창회24주년을 맞이하여 본회 창회전문에 의한 단일교단의 사명과 완성을 위하여 현재 가입하지 않은 종단의 가입을 권장합니다. 단일교단으로서 연합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단체 가입시 각종 회의와 연합법회의 참가 자격이 부여되며 종단 가입증명서와 대표자 추대장,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 358- 6642 FAX : 02) 358-6643
• 총재 의륜 : 011-352-7751 회장 청운 : 011-726-9325
• 실무의장 법천 : 010-9015-9954 사무총장 진공 : 011-277-9724
• 인 터 넷 주 소 : http://kbta.cafe24.com

대불교 조계종 종도스님들 새해에는 행복합시다.

대불교 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 해

원 로 의 원 **해우 무상**
종 회 의 장 **오봉** 종회부의장 **미산**

교 육 원 장 **진성** 포 교 원 장 **성산** 사 정 원 장 **해능** 호 계 원 장 **무문**
율 원 장 **법산** 중앙선원장 **해진** 강원원장(불교대학장) **탄석** 홍 법 원 장 **혜원**
사회복지원장 **혜광** 비 구 니 원 장 **보성** 비구니부원장 **보현** 법 사 원 장 **청허**
대체의학원장 **고산** 염 불 원 장 **진각** 의 전 원 장 **청원** 사 서 실 장 **진산**

총 무 부 장 **향천** 재 무 부 장 **담교** 교 무 부 장 **천호** 사 회 부 장 **혜안**
조 직 부 장 **태은** 감 찰 부 장 **무공** 조 사 부 장 **대원** 봉 사 부 장 **향천**
포 교 부 장 **묘광** 사 회 부 장 **법산** 기 획 실 장 **진법** 규 정 부 장 **수광**
경북지역법사원장 **능각**

서울서부종무원장 **무상** 인천남부종무원장 **태은** 경기남부종무원장 **청허**
경기서부종무원장 **진각** 대전중부종무원장 **향천** 대전동부종무원장 **보성**
대전서부종무원장 **진산** 충남서부종무원장 **혜안** 충남남부종무원장 **진우**
충 북 종 무 원 장 **오봉** 광주전남종무원장 **성산** 전 북 종 무 원 장 **천호**
경 북 종 무 원 장 **해능** 강 원 종 무 원 장 **고경**

■ 총무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138-12 (옛농고길 8길 11호) 전화 041)551-5537 팩스 041)621-5537
총본산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백자리 산 50번지 만경사

대한불교대승종

종 정 법청 천광

총무원장 **법인 운남** 종회의장 **효안 일봉**
원로원장 **법해 도림** 감찰원장 **법성 정산**
고시원장 **법전 법현** 연수원장 **법신 노정**
교육원장 **여여 무여**

총무부장 **진공** 사회부장 **진성**

서울종무원장 **경심** 강원종무원장 **탄해** 경기종무원장 **무상**
충청종무원장 **혜능** 전라종무원장 **덕운** 경북종무원장 **탄영**
경남동종무원장 **진공** 경남서종무원장 **일봉**

■ 총무원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1동 산 30-4번지 천연암
전화 055)253-1074 팩스 055)253-1079

(사)임제불교조계종

종 정 적진 지암

부 종 정 적공 자은

원 로 원 장 **석진도** 원 로 위 원 **석지언. 석법성**
총 무 원 장 **법산** 호 법 원 장 **법철** 문 화 원 장 **지훈** 총무부원장 **제현**
사 회 원 장 **지오** 복 지 원 장 **보원** 조 직 부 장 **묘화** 총 무 부 장 **덕화**

서울종무원장 **재현** 경북종무원장 **법인** 충북종무원장 **지오**
경기남부종무원장 **보국** 경남종무원장 **자범** 충남종무원장 **보공**
경기북부종무원장 **도광** 전남종무원장 **혜관** 강원종무원장 **금화**

중앙신도회장 **최유성**(대경) 지역신도회장 **강지원**(인경)
지역신도부회장 **윤종일**(대안) 사회복지원장 **박봉근**(해산)
건설사회원장 **김동만**(성덕)

■ 총본산 :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1길 26번지 청암사
■ 총무원 : 경남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25-1번지 삼정사

(사) 현 대 불 교 조 계 종

종 정 덕현 벽운
부종정 성주 회천

원로원장 **효덕** 규정원장 **혜원** 총무원장 **동화** 종회의장 **성해**
포교원장 **해인** 교육원장 **화원** 포교사단장 **원각**

◇ **총무원 임원, 각교구장, 종회의원**
법성 성해 성문 법진 연담 법인 지밀 천봉 도선 금산 고암 성광 혜원 시광 정철 보운 고천 광운 해초 해원 흥덕 종현 고암 덕행 상락 해일 자현 청정 금화 혜선 효정 정혜 원욱 화진 고산 성진 혜광 월산 해광 원각 진공 자행 혜초 자명 명안 자산 수경 성안 도헌 성수 진광 현공 진산 해인 화원 이착 무상 성일 현광 보현행 보리심 천모성월 선각 동해 진각 외 종도일동

본 종단 입종을 적극 환영합니다

▣ **총무원장** 동화 (동국대 불교학과 졸 1979년, 불교대학원 졸 1기)
행정실장 선각 010-7122-1369

■ 총무원 : 대전 동구 가오동 293-1 보광사 / 총무원장 · 주지 동화
전화 042)283-5896 / 011-769-0300

佛紀 2557年 癸巳年 謹賀新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A19 전면광고

한 번 앉거나 눕고 행함에 있어 방탕함이 없이 오직 몸을 바르게 가지면 숲 속에 있는 것같이 마음이 즐겁다.

非營利宗教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종 정 정허당 신풍 총무원장 **대광**

원로원장 정봉 부원장 청량 범왕
원로위원 수암 지성 수인
연수원장 혜도 부원장 범수
감찰원장 정법 부원장 법조
포교원장 경덕 부원장 원효
호법원장 법경 부원장 대광
중앙종회의장 대오 부의장 법조
불교예술원원장 소연 부원장 도이
비구니회장 대광 비구니부회장 연아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학장 정법 대광
사무처장 성원 종정사서실장 법수 종정큰스님시봉 법수 소원

부산교구종무원장 정법 경북교구종무원장 혜정
대구교구종무원장 대각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경덕
포항교구종무원장 조향 목포교구종무원장 법주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법정 인천교구종무원장 지운
거제교구종무원장 도언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충남교구종무원장 혜도 경남서부교구부원장 원효
창녕지회장 연아
대원종전국신도회장 신우연 법사
신풍사 신도회장 이정민(청암)법사

총무부장 대오 규정부장 혜정 교육부장 정법
재무부장 연아 사회부장 도하 홍보부장 도언
기획실장 대각
중앙종회의원 정법 대광 연아 혜정 도언 경덕 범수 혜인 혜도 대오 도하 원효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항상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무료 숙식제공, 역학(철학, 사주관상, 성명학, 풍수지리)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합니다.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분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94 대한불교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원적사) / 한국 역술철학 협회 회장 시인 철학박사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총무원 055)346-2909 / 사무장 010-8548-8608 / 무료전화 080-3030-5959 /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55)346-2908
휴대폰 011-869-8608 / 대한불교 대원종 홈페이지 DW108.com / E메일 asp8990@naver.com

※본 종단은 승려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려제명 및 종단에서 발행한 제반증서 무효처리(폐기소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명예종정 **각암** 대종사
종 정 **능인** 대종사
총무원장 **청공**

원로의장 **범아** 대종사 승정원장 **덕암** 종회의장 **법장**
원로의원 **원담. 청담**

포교원장 **효천** 교육원장 **무변** 호계원장 **용진**
사정원장 **심공**

총무부장 **우성** 사회부장 **혜광** 규정부장 **도천**
호법부장 **원담** 비구니원장 **길상**

경기종무원장 **산원** 강원종무원장 **혜운** 충북종무원장 **보현**
경북종무원장 **법화** 경남종무원장 **지명** 울산종무원장 **무정**

사찰등록환영

■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645번지 각황사 종무실 : 053)325-4848 Fax : 053)325-0400
■ 총무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152-1 크로바빌딩 201호 전 화 : 02)706-0074 Fax : 02)706-0154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종 정 **운봉**
총무원장 **본 자**
종정사서실장 **도현**

승정원장 **영암** 승정부원장 **성암 정암** 자문위원장 **대현**
종회의장 **승법** 종회부의장 **홍운 법신** 종회의원 **도암**

감사원장 **법안** 교육원장 **혜초** 호법원장 **원광** 수선원장 **서연**
의전원장 **동선** 기획원장 **법장** 비구니원장 **효상** 비구니부원장 **설운**

호법부원장 **광월** 문화부원장 **설운**
호남교구원장 **도암** 경북교구원장 **제법** 경남울산교구원장 **갑태**

총무부장 **불현** 교무부장 **도문** 재무부장 **혜진** 문화사회부장 **현공**
포교부장 **각초** 규정부장 **도영**

종도모집 안내
종도 한분한분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본 종단에
법연으로 함께 하실 종도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총무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500-1번지 / 전화 031)323-1325

대한불교 선종

종 정 효담
총무원장 정 관

총무부장 인성 재무부장 행우 포교부장 효은 사회부장 인호
홍보부장 행수 호계부장 심인 감 사 무구 사서실장 인우
예경실장 효웅

경주교구 중앙종회의원
종회의장 무초
의 원 용현 무구 행우 효은 심인 행수 인성

포항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혜문 일우 일웅

울산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무초 행삼

직할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인호 효웅

영천포교원 중앙종회의원
의 원 법인성

경주교구임원
종무원장 용현
교육국장 법운
재무·사회국장 인성

포항교구임원
종무원장 혜문
재무국장 일웅
사회국장 행화

울산교구임원

영천포교원
포교원장 법인성

■ 총무원 :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831-99번지 / 054)748-0462 팩스 054)771-6606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산 현불** 부종정 **돈오** 총무원장 **원각**

승정원장 **홍구** 원로원 **영암. 혜승. 명공. 혜광. 응관** 불교대학장 **정호** 중앙선원장 **천륜** 법계고시위원장 **여산** 감사원장 **혜각**
사서실장 **보경** 종회의장 **청인** 의산장 **성종** 율원장 **금담** 종회의원 **만덕. 현우. 혜천. 지연. 도행. 보문**

총무원

부원장 **공심**
총무부장 **도현**
재무부장 **도우**
규정부장 **진산**
기획실장 **성오**
의식부장 **해일**
교육원장 **정수**
사회부장 **덕성**
호계원장 **남경**
복지부장 **인덕**
해외협력부장 **무임**
감찰부장 **혜암**
문화부장 **지훈**
포교원장 **보견**
포교부장 **원오**
호법부장 **진공**
교무부장 **도성**
비구니회장 **조명**
비구니부장 **금화**
비구니총무 **재범**
선거관리위원장 **혜원**

지방 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무운**
경기종무원장 **두인**
인천종무원장 **일현**
강원종무원장 **도림**
충북종무원장 **규봉**
충남종무원장 **혜명**
경남종무원장 **지심**
경북종무원장 **혜산**
울산종무원장 **혜명**
대구종무원장 **자은**
대전종무원장 **동우**
부산동부종무원장 **명종**
부산중부종무원장 **도성**
전북종무원장 **장봉**
전남종무원장 **성덕**
제주종무원장 **보산**
홍콩종무원장 **무영**
중국종무원장 **선무**
일본종무원장 **혜령**

이 사 회

회 장 **백산**
초 무 **일경**
재 무 **무애**
이 사 **무상 일호 도림 무경**

유발 승가단

비 구 **무착 일찬 무공 경종**
비구니 **정각 수연 보화 자량 보덕 구련**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종정원 :** 전북 부산군 상서면 통성리 567-1(관음사) 전화 063)583-8807 팩스 063)584-4153 ◇ **총무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산 47-4 (수도사) 전화 041)531-3792 팩스 041)544-108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10주 베스트셀러 1위 / 교보문고 종교서적 연속 6주 베스트셀러 1위

21세기 정법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불교경전!

왜곡되고 종파화된 기존 불교의 한계를 타파하고 세계불교의 방향성을 제시하다
동서고금 종교 · 철학사상과 현대 첨단과학을 아우르는 최고의 진리를 사자후하다

1. 부처님께서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다.
2.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가 한국에서 불과를 이루셨다.
3. 불교중흥의 신불교 정법시대가 열렸다.
4. 우주만물과 인간 탄생의 비밀을 밝히다.
5. 영혼체가 인간의 본체이고 윤회의 주체다.
6. 2000년간의 무아 – 윤회주체 논쟁을 마무리짓다.
7. 칭명염불만이 보살 · 붓다 될 수 있는 정통수행법이다.
8. 한국은 국운융창기를 맞고 세계는 보다 평화로와진다.

1. 부처님께서 불신(佛身)으로 한국 땅에 오셨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는 제1성으로 "부처님은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영산 당시 가섭 · 아난 두 애제자를 붓다 만들어 데려가시기 위해 또 말세의 왜곡된 불교를 쇄신하고 신불교 정법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사바세계 한국 땅에 오셨음을 밝힙니다.

현지사는 부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현지궁' 입니다. 춘천본사의 큰 법당 벽장 사이 10cm 남짓한 공간에 서울시보다 더 넓은 궁을 짓고 주(住)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매일 새벽 가섭 · 아난 두 아들이 올리는 공양을 드시고 법계의 중요한 일에 대해 회의를 주재하시고 보고도 받으십니다. 천녀정토의 천녀들이 가져다주는 차도 마십니다. 삼계지존 다보부처님과 약사부처님, 아미타부처님, 보명부처님 등 오여래 부처님과 문수 · 보현 · 관음 · 지장보살 등 보살행하시는 4대 부처님을 포함하여 기라성 같은 열 여섯 부처님들께서 함께 와 계십니다.


2011년 4월 초파일 현지사 전경

2.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가 한국에서 불과(佛果)를 이루셨다

영산 당시 부처님의 애제자 가섭 광명만덕 큰스님과 아난 자재만현 큰스님은 금생에 한국 땅에 태어나 부처님의 지도로 각각 광명불과 자재통왕불이 되었습니다. 광명불은 불세존 석가모니부처님의 법의 상속자로서 좌우보처가 명상불(수보리존자)과 화광불(사리불존자)입니다. 자재통왕불은 문수보살 법왕자로서 좌우보처는 본화보살의 지도자인 상행보살과 정행보살입니다. 이는 《법화경》의 부처님 수기 내용이 현실화 된 것입니다. 부처님 이후 수보리존자가 중국에서 사리불존자가 한국에서 붓다가 되었지만, 이 분들은 세상에 나오지 않으시고 조용히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불과를 이루었다는 것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했다는 것을 넘어서 대적정삼매 속에서 무량광으로 정화된 네 개의 영혼체가 무량광의 원만보신과 완전히 계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지사의 대적광전과 석가탑, 다보탑

3. 불교중흥의 신불교 정법시대가 열렸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구도는 초기불교(근본불교)를 거쳐 대승불교로 이어졌고 다시 21세기에 탄생한 신불교인 영산불교에 이르러 완성이 됩니다.

초기불교는 생천(生天)과 생사해탈(아라한) 중심의 가르침으로서 대승의 《열반경》에서는 이를 반자(半字-미완성)의 가르침이라고 부릅니다. 경전으로 보면 《아함경》의 가르침입니다. 초기불교 교설의 특징은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라는 점과 3법인, 4성제 · 8정도, 12연기 등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승불교는 대승경전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대승경전은 부처님 외의 다른 붓다의 화신들이 쓴 것으로 한 차원 높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전상으로는 불보살의 실존을 증언하고 있으나 현실 불교계에서는 이런 대승경전의 가르침을 수용하지 못하여 왜곡되고 종파화된 현재의 불교를 말합니다. 《열반경》에서 말하는 만자(滿字)의 가르침에 해당하지만 불완전한 만자(滿字)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는 부처님의 법통을 이어받은 가섭 광명불과 아난 자재통왕불이 불교중흥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정법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개창한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말합니다. 영산불교는 불보살 세계의 실재를 증거하고 보살 · 붓다 되는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불교입니다. 그 핵심교설은 부처님 실존론-삼신설, 우리의 본체인 영혼체론-영혼체윤회론, 칭명염불 수행론, 성기론 등입니다. 《열반경》에서 말하는 만자의 가르침 중에서도 완성된 만자(滿字)의 가르침이고, 《열반경》의 이자삼점의 비밀장이 실현되는 부처님의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는 신불교를 여는 법통서로서 기존 대소승 경전의 내용을 검증하면서 무아론 등 기존 불교계의 잘못된 교리 해석을 바로 잡고, 불신론과 영혼체론 등 기존 경전에서 담지 못했거나 미비했던 내용을 완벽하게 보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새로운 경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우주만물과 인간탄생의 비밀을 밝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Ⅱ≫는 지금까지 어느 종교에서도 어느 누구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던 인간과 우주만물의 생성원리를 우주본체인 공(空)과 연기법, 우주의 순환법칙인 '생성(成)-유지(住)-파괴(壞)-공화(空)' 과정과 연계하여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이는 우주이치를 통달한 붓다의 견처에서 이룩한 철학적 존재론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힌두교 베단타학파의 가현설(불이일원론)이나 상키아학파의 이원론, 그리고 도가의 우주론인 도일원론, 유교의 기일원론이나 이일원론의 주장을 차원면에서나 논리면에서 압도하는 진리입니다. 특히, 공은 비인격적 자존자임을 강조하면서 공의 실체와 속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일신교의 창조설을 배격합니다.

무엇보다도 압권인 것은 인간영혼체의 생성원리와 인간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의 비밀을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밝힌 데 있습니다. 특히 공에 내재된 인간종자인 공아자(空我子)가 드러나 1 · 2 · 3번 영체로 전개되는 과정은 지금까지 동서고금의 어떤 종교 · 철학에서도 넘보지 못한 가장 차원 높은 교설입니다

5. 영혼체가 인간의 본체이고 윤회의 주체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에서는 불교의 대 · 소승 어느 경전에도 없던 영혼체론을 새로운 불교교설로 정립하였습니다. 인간은 네 개의 영체와 하나의 육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번 영체가 인간의 본체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1 · 2 · 3번 영체는 영원히 멸도하지 않는 나의 주인공(主人空)으로서 윤회의 주체인 동시에 해탈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선악의 업을 지으면 모두 이 영혼체에 저장이 됩니다. 유식학자들이 말하는 제7식과 제8식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모두 영혼체의 기능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 교학상 또 하나의 커다란 변혁입니다.

이 책에서는 또 영혼체가 가는 사후세계가 실재함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어서 저승에 들지 못해 가는 무주고혼의 세계인 중음계, 여섯 윤회세계-지옥 · 아귀 · 축생 · 인간 · 아수라 · 천상, 세 해탈세계-아라한 · 보살 · 붓다의 세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삼악도를 벗어나야 하고, 윤회세계 안에서의 상대적 행복도 넘어 해탈세계의 영원한 행복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해탈세계 중에서도 최고의 행복이 보장되는 궁극적 해탈계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6. 2000년간의 무아-윤회주체 논쟁을 마무리짓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Ⅱ≫에서는 2000년 이상 왜곡 되어온 부처님의 무아설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영혼체가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 영혼체윤회론을 선언하여 2000년 이상 불교계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왔던 무아와 윤회주체 문제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불교계에서는 부처님의 무아설을 잘못 해석하여 인간의 영혼체 마저 없는 것으로 왜곡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윤회주체가 없어도 된다거나 아니면 심식류(아뢰야식 등)를 윤회주체라고 하는 등 무아설과 윤회주체 문제를 양립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무아윤회론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잡아함경》 〈제일의공경〉의 "업과 과보는 있는데 그 작자(주체)는 없다(有業報 無作者)"는 불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윤회의 주체(-작자)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무아윤회론은 인간의 보편적 상식에도 맞지 않지만 우주이법에 반하는 이론입니다. 업을 짓는 주체와 그 과보를 받는 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 두 주체는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인과법의 기본 전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아윤회설은 윤회와 해탈이라는 불교의 기본교설을 뿌리째 흔들고 있고, 나아가 불보살의 존재를 부정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불교 자체를 부정하는 사설(邪說)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7. 칭명염불만이 보살 · 붓다 될 수 있는 정통수행법이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에서는 부처님의 성호를 소리내어 부르는 칭명염불만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보살 · 붓다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정통수행법임을 밝힙니다. 부처님이 계시기에 칭명염불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남방 테라와다불교의 위빠사나 수행이나 북방불교의 참선수행, 티베트불교의 삼밀가지의 본존수행 등 자력 중심 수행으로는 윤회를 벗어나기도 지극히 어렵지만, 보살 · 붓다 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보살이 되려면 4중죄가 소멸되어야 하고, 원결영가와 천마 등의 마장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정토에 자기의 분신인 아기보살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부처님의 가피로만 가능합니다. 칭명염불은 부처님의 가피를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수승한 수행법입니다.

철기둥같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칭명염불과 함께 닦아야할 중요한 수행덕목은 청정 계행, 효행, 보살행, 보현행원 등입니다.

8. 한국은 국운융창기를 맞고 세계는 보다 평화로와진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를 관통하고 있는 이념은 중생구제와 호국평화불교의 실현입니다. 호국불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불교사상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호국평화불교의 사상은 과거와는 수준이 다른 지구적 차원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과 국운융창을 기하며, 지구촌 인류의 민족간 · 국가간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우주적 불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지사의 춘천본사에 있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 다보탑과 석가탑은 바로 그런 불력의 구심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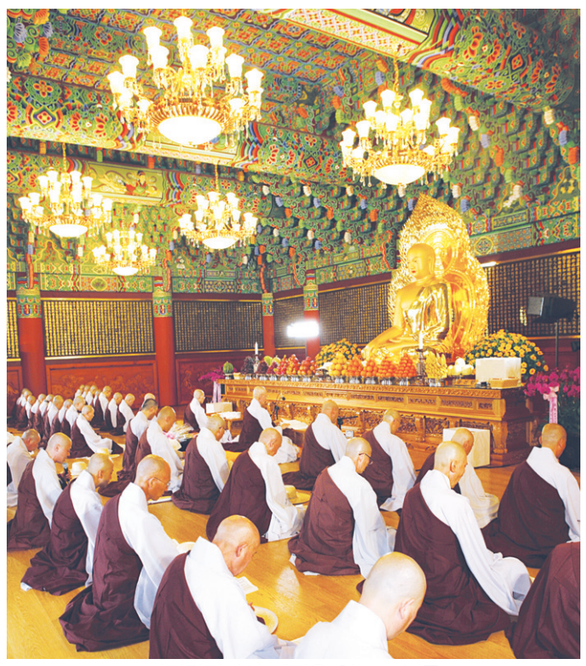
두 분의 붓다가 출세하고 부처님이 와 계신 한국은 불력으로 국운융창기를 맞이하고 지구촌은 보다 평화로와질 것입니다.

공동저자 가섭존자 후신 광명 만덕 큰스님

- 1997년 불세존으로부터 공청화두 게송 받아 9일만에 화두타파 답송함
- 1997.11월 부처님을 친견하고 법문 들음
- 1998.9월 부처님으로부터 불호 광명불, 보살명 만덕으로 인가 받음
- 2000.5월 자재 만현 큰스님과 함께 현지사 창건

공동저자 아난존자 후신 자재 만현 큰스님

- 1960년 부산 선암사 석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통도사 경봉 큰스님 문하에서 화두참구. 10년 만에 화두 타파하고 공성증득
- 조계종 상임포교사, 대한불교신문 편집국장 역임
- 경전에서 붓다의 길을 발견하고 염불행자로 전환하여 30여년간 생사를 넘나드는 염불수행에 정진
- 2000.1월 부처님을 친견하고 불호 산해혜자재통왕불 보살명 만현으로 인가 받음
- 2007.7 광명만덕 큰스님과 함께 영산불교를 개창하고 법통 전수받아 2대 교조 취임


대적광전에서 경전을 읽는 스님들

■ 현 지 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메일 hyunjigung@hanmail.net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 ☎033-243-1787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1439-2 이센타워 15층,14층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14-39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195-2 ☎033-681-5515
- 서울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1동 630-41 ☎02-453-5953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50-13 ☎053-654-5557
- 제 주 분 원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16 ☎064-783-5355
- 일 본 분 원 일본국 야마구치겐 이와꾸니시 히라타 ☎0827-34-1626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14-39 ☎042-525-5325

불교와 미학

(1) 연재를 시작하며

종교적 상징물…다양한 맥락 공존

1902년 8월 청년 릴케는 로댕에 관한 논문 집필을 의뢰받고 파리에 도착한다. 로댕의 비서로 일하면서 그는 로댕으로부터 사물을 깊이 관찰하고 규명하는 법을 배운다. 로댕의 정원에서 릴케는 특이한 조각품 하나를 만난다. 바로 붓다의 이미지, 불상이다.

불교에 대한 릴케의 생각이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원래의 종교적 맥락을 잃고 조각가의 정원에 하나의 조각 작품으로 진열되어 있는 불상 속에서 어렴풋이 남아있는 초월적 성스러움을 이렇게 읽어낸다.

붓다 Buddha

이미 멀리에서 이방의 겁먹은 순례자는
느낀다. 그에게서 금빛이 방울져 떨어지는 것을.
마치 회심에 찬 부자들이
그들의 은밀한 것을 쌓아올린 것처럼.

그러나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는 이 눈썹의
고상함에 혼란스러워진다.
그것은 부자들의 술잔도 여인들의
귀걸이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누군들 말할 수 있으랴,
어떤 사물들이 녹아들었는지,
이 꽃받침 위의 이 형상을

세우기 위하여, 황금빛 형상보다 더 묵묵하고
더 차분한 누런빛을 띠고, 스스로를 만지듯
주위 공간을 어루만지는 이 형상을.

릴케 〈신시집〉中 (안상원 번역)

화려하게 금으로 도금된 불상은 이방의 시인에겐 낯설고 두려운 대상이다. 언뜻 부자나 여인네의 천박한 장신구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그 고상한 눈썹에 매료당하고 만다.

시인은 묻는다. 이 불상에 무엇이 녹아들어 있는지를. 비단 물질을 묻는 것은 아니리라. 묵묵하고 차분한 빛으로 주위 공간을 어루만지는 이 고귀한 형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그에게는 예경의 대상이 아니지만 하지만 릴케는 이 불상 속에서 다른 예술작품에서 볼 수 없는, 찬연하게 빛나는 그 무엇을 보았던 것이다.

서구의 기독교 사회에서 발생한 세속화 현상이 한국불교에서도 생각보다 깊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100년 전 릴케가 머물렀던 파리에서 불상이 조각가의 아틀리에에 전시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도 사찰 밖에서 불교 상징물을 보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예전에는 예경의 대상으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염원을 기원했던 종교적 상징물들이 이제 관광객의 눈요기나 박물관의 유물, 또는 기껏해야 예술작품으로서 소구되고 있다. 그 예를 조계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살펴보자.

도심 속의 사찰이지만 조계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계사 대웅전의 삼존불. 불상은 예경과 기도의 대상이며 부처님의 화현으로 신성시 된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 예술작품으로 소구되기도 한다.

예경의 대상이었던 불상
박물관 예술작품으로 소구
종교와 예술의 갈림길서
종교의 미학화 경계할 일

삶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소망을 염원하는 귀의처이다.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조계사 대웅전은 한가한 틈이 없다. 한편에서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참선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어떨 때는 전통적인 법회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당 가득 사람들이 운집하여 대규모 행사가 치러지기도 한다.

이 모든 신행 행위의 중심에 불상이 있다. 조계사 대웅전의 불상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곳을 특별한 장소로 만드는 근원이다. 지극정성으로 불상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불자들에게 조계사의 불상은 철과 동, 금으로 만들어진 생명이 없는 무정물이 아니라 예경과 기도의 대상이자 영험과 가피를 주는 살아있는 부처님의 화현으로 신성시된다.

한편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조계사는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그들은 한국불교의 현장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불상은 릴케가 마주한 것처럼 이국의 신기한 종교적 상징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발길을 옮겨 불교박물관으로 간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여러 불상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박물관에 보존된 불상은 예경의 대상이 아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절하거나 기도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는 교양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관람객 중 더러 그 불상들에서 종교적인 감화를 받는다 할지라도, 조계사 대웅전의 불상처럼 종교적 예경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불상들은 이곳에서 그 역사적 가치나 예술적 가치에 의해 평가될 뿐이다. 그것들은 불교의 역사를 알려주는 자료이며,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 종교적 생명력을 다한 유물로 간주된다. 그것들은 역사학자나 미술사학자에게는 역사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연구대상이고 일반 관람객이나 예술가들에게는 미적 즐거움을 주는 예술작품이며 외국 관광객에게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문화유산일 뿐이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인류문화유산으로서, 예술작품으로서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박물관이라는 맥락은 종교적 상징물에 대하여 종교와 무관한, 역사적 기억을 담은 유물이나 미적 감상의 대상, 또는 이국적 산물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

이제 기념품을 사야할 시간이다. 관광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조계사 주변의 불교용품점에 들어서면 우리는 최근에 제작된 많은 불상들을 보게 된다. 갖가지 모양과 크기의 불상들이 있어서 취미에 따라 고를 수 있다. 가격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들여온 저가의 불상이 적당하지만 한국관광을 기념하려면 조금 비싸더라도 한국에서 제작된 불상을 구입해야 제격일 것이다.

불교용품점 쇼 윈도우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불상들은 엄격히 말해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품일 뿐이다. 그것들은 관광객이나 법당 기물을 찾는 사람과 같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제작된 상품이며 따라서 그 의미와 기능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 의미와 용도는 구매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만약 어느 스님이 구입하여 법당에 안치한다면 그것은 종교적 상징물로서의 제 기능을 되찾겠지만, 관광객들에게 팔리면 기념품이나 예술작품으로서 감상의 대상이 되며, 골동품 수집상에게 팔리면 재테크의 수단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불상을 둘러싸고 다양한, 심지어 서로 모순되는 맥락들이 공존한다. 한 때 법당에 모셨던 불상도 박물관에 옮기는 순간부터 더 이상 종교적 대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종교적 예경의 대상이었던 불상이 어느 날 상품으로서 판매되기도 하고, 상품으로 제작된 불상이 어느 날 종교적 대상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어떻게 하나의 대상에 서로 모순되는 맥락이 중첩될 수 있을까? 그 중 어떤 것이 불상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일까? 이렇게 모순되는 맥락이 존재한다는 것이 종교적 상징물에 대한 '모독' 인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된 현대사회에서 종교적 상징물이 당면하는 상황이다. 이제 한 사물은 그 의미와 기능이 그 고유한 성질과 가치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그것이 위치한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 법당에서는 법당에 적합한 행동이 기대되고, 박물관에서는 박물관이라는 환경에 맞는 행동이, 불교용품점에서는 또 그에 적합한 행동이 기대된다. 그 행동의 양식은 사회적 관례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불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불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놓인 맥락이다. 불행하게도 이 맥락들은 한번 설정되면 없앨 수 없으며 모순되는 다양한 맥락들을 통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처럼 어떤 대상을 그 내적 가치가 아니라 외적인 맥락에 따라 규정하는 태도는 종교적 상징물에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종교적 상징물은 과거에 그것들이 주장했던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가치를 상실하고 인간적 해석의 대상으로 퇴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성상파괴운동과는 다른 의미에서 이 상징물들의 생명을 빼앗아간다. 그것이 종교적 상징물이 환기시키려고 했던 본래적인 것, 즉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종교체험과 무관하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세속화 시대에 종교적 상징물은 그 본래의 종교적 맥락을 떠나 이질적이고 낯선 세속적 맥락에서 이해되고 기능한다. 그렇다면 종교의 미학화는 반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고 경계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다. 종교와 예술 사이의 오랜 애증의 역사를 비추어보아도 그렇고, 일체의 상을 떠나야 하는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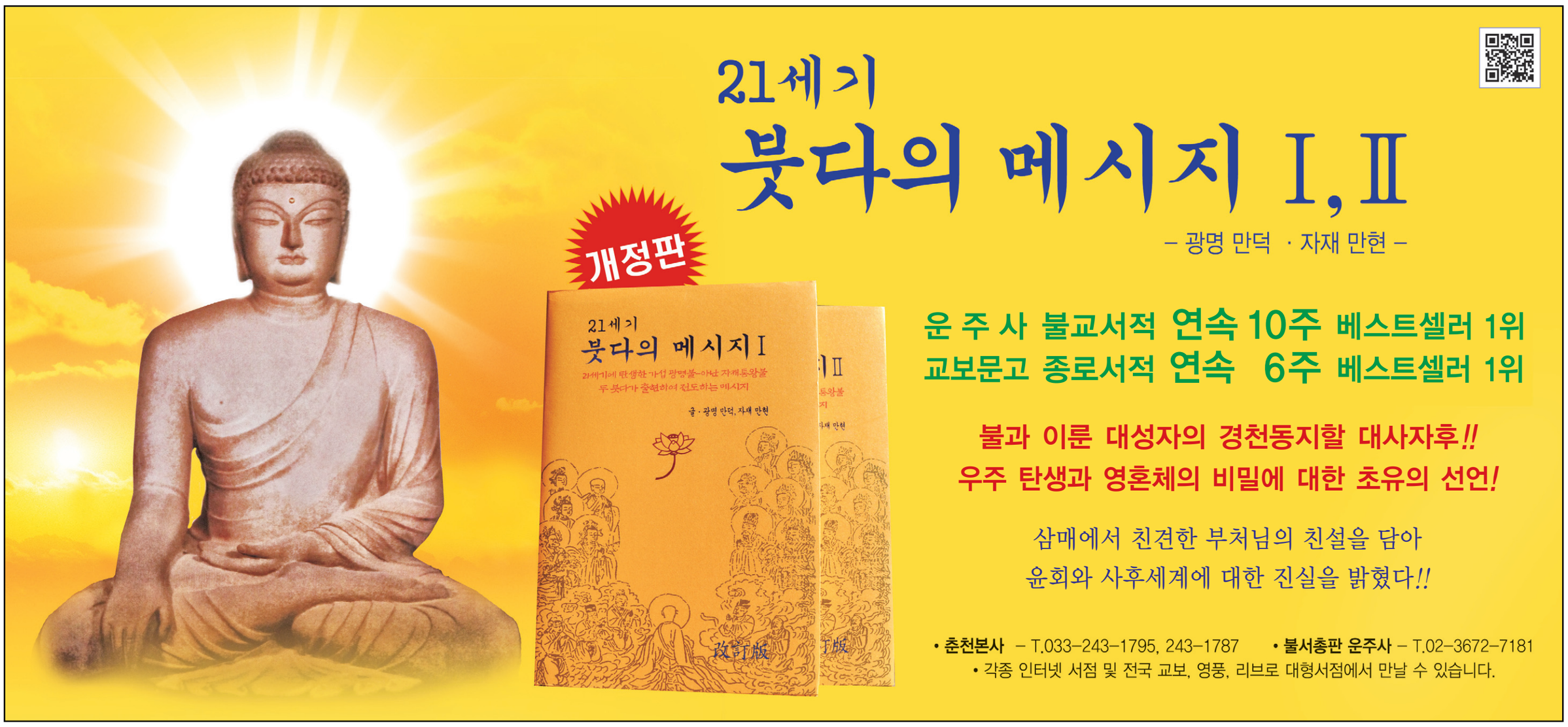
그래서 불교에 대한 미학적 글쓰기는 매력적인 주제지만 나에게는 언제나 두렵고 조심스러운 일이다. 또한 불자라고 하더라도 현대인들에게 불교 상징물들이 가졌던 본래의 세계를 실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바람직한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전통으로 기능하는 그 세계에 깃든 정신과 미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나의 수행을 살찌우는 방편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릴케처럼 사물을 깊이 관찰하는 안목을 가져보기를 기원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연재를 시작한다.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명법 스님은 … 조계종 교수아사리이며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미학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상담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다. 서울대 불문과 졸업 후, 동 대학원 미학과에서 석 · 박사 학위를 받았다. 운문승가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명성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다. 미국 Smith College에서 박사후과정 연수를 마쳤으며 서울대학교와 운문사에서 오랫동안 강의했다. 주요 저서로 〈선종과 송대사대부의 예술정신〉, 〈미학의 역사〉, 〈한권으로 보는 세계불교사〉가 있고 〈서양 현대예술에 나타난 선과 오리엔탈리즘〉, 〈디지털시대와 불교예술의 혁신〉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2011년 원효학술상 비전임강사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



불교미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제 1회 붓다아트페어 기획위원 김영수 작가


붓다아트페어 기획위원을 맡은 김영수 작가


제1회 붓다아트페어가 3월 7~10일까지 4일간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다. 그림은 붓다아트페어의 조감도.

갤러리전 불교4대 천왕전 등
기획 부스 대중맞이 준비
불교미술의 새로운 장 마련

불교미술은 신앙의 대상일 뿐이라는 인식은 불교미술의 현대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모른다. 불교미술도 하나의 독립된 예술 장르로 인식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는 불교미술 작가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인지 모른다. 한국 현대 불교미술의 현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1회 붓다아트페어가 3월 7~10일까지 4일간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다. 2013년 불교박람회와 더불어 열리는 이 행사는 불교미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기획위원 김영수 작가(불교박람회 집행위원장)는 불교미술을 대중화해보자는 취지에서 아트페어를 마련했다고 전한다.

김 씨는 "한국 불교미술의 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해 유명 불교미술인을 초청하고, 역량 있는 현대 미술작가들을 발굴해 대중에게 알리고자 기획된 전시다. 또한 대학생 졸업 작품 등 신인 작가들의 발굴에도 힘쓸 예정이다. 각 처에 불교 미술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를 알릴 기회가 많지는 않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신진 작가를 발굴하는 동시에 기성작가들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술시장을 뜻하는 아트페어(Art Fair)는 보통 몇 개 이상의 화랑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작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말한다.

즉 그림을 팔고사는 시장이 아트페어인 것이다. 이는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활성화하고 화랑간의 정보교환과 작품 판매 촉진, 시장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아트페어는 작가들의 작품을 알리고 이것이 판매로 이어지는 하나의 장이 된다. 따라서 작가들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아트페어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임이 분명하다.

김영수 작가는 "그동안 불교미술이 활성화 되지 못했던 이유는 불교미술을 신앙의 대상으로만 여겼기 때문이다. 신앙의 대상 불교미술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대미술의 관점에서 창작된 작품들도 다수인 것이 사실이다. 아트페어에서는 이런 불교미술의 현재와 과거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다. 또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작가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새로운 장을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한 불교미술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획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화랑, 불교미술단체, 전통 및 현대 불교작가, 신진 작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 30여 개가 선보인다. △갤러리전(8부스)△협회 및 단체전(5부스) △불교전통 4대천왕전(8부스) △청년불교미술Now&Here전(7부스)△신진작가 공모전(2부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갤러리전은 공갤러리 나눔 공예갤러리 선화랑 선아트플러스 담갤러리 갤러리M 불일미술관 골목 물파미술관 고도갤러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작가는 "불교적 마인드를 가진 갤러리들이 많이 있지만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 많다. 갤러리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대중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전통 4대천왕전도 눈에 띈다. 이진형, 박찬수, 허길량, 청원 스님 등이 참여 예정인 4대 천왕전은 우리나라 불교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동국대 불교미술과 졸업작품전,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작품전 등을 겸한 청년불교미술과 신진작가공모전 등은 젊은 신진 작가들을 육성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김 작가는 "이번 아트페어는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현대화 시키고자 하는 불교미술작가들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작가들이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고 더 정진할 수 있는 성찰의 기회도 될 것이다. 여러 측면에서 이번 아트 페어는 불교작가와 관련 갤러리들에게 신선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며 기대의 말을 전했다. (02)2231-201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거장의 70년 회화사 한눈에 본다

광주 무각사 백영수 회고전

광주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주지 청학)에서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무각사는 광주시립미술관과 함께 2월 24일까지 '한국미술사의 산증인' 이자 유럽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백영수 화백의 회고전을 펼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지적인 아름다움' 과 '명상적인 정신성' 을 살펴볼 수 있는 105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이는 백영수 화백의 70년 회화의 전모를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1940~50년대 전시 리플렛, 방명록, 각종 도서(백영수 화백의 삽화 수록), 화구 등 희귀한 자료들도 함께 전시돼 해방이후 초창기 한국미술사 및 문화계의 시대상을 함께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서양화가 백영수 씨는 1922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으며, 두 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유년시절과 학창시절을 보냈다.

일본 오사카 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했으며 1945년 귀국하여 목포고등여학교 미술 교사,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해방 후 최초의 국전이었던 미 군정청 문교부 주최 조선종합미술전 심사위원, 대한미술협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한국 현대미술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1977년 이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22번의 개인전을 비롯해 단체전과 살롱전 등 100여 차례의 전시회에 참여했다. 백영수 화백은 단순한 화면 안에 갸우뚱한 얼굴을 한 모자상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 하늘로 얼굴을 향한 모자상은 눈을 감고 행복에 젖은 듯, 꿈에 젖은 듯 천상과의 교감을 통해 현실을 넘어선 순수성을 보여준다.

최소한으로 단순화되고 함축적인 백영수의 가족 풍경은 사랑과 평화, 행복의 참


백영수 작가는 2월 24일까지 광주 무각사에서 회고전을 갖는다.

의미에 대한 메시지다. 2011년 초 영구 귀국한 작가는 현재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며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귀국 후 제작한 신작 30여점이 포함되어 있다. (062)383-0108 정혜숙 기자

"뱀에 관한 모든 것 보러 오세요"

국립민속박물관 '상상과 현실…' 전

2013년 뱀의 해를 맞아 국립민속박물관은 '뱀의 생태와 문화'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은 2013년 계사(癸巳)년 뱀띠 해를 맞아 '상상과 현실, 여러 얼굴을 가진 뱀' 전을 2월 25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십이지 뱀그림, 해상명부도 8폭병풍, 이삼만 작가의 '산광수색' 등 4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국립민속박물관 박수환 학예사는 "십이지 동물은 인간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다. 이 가운데 여섯 번째인 뱀은 불사(不死)와 재생(再生)의 상징이자 남남동쪽을 수호하는 방위의 신이다. 이번 전시는 2013년 계사(癸巳)년 뱀띠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얼굴을 가진 뱀의 문화적 맥락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 전시는 상상과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변화무쌍한 동물


화조도의 뱀또아리

뱀에 대한 전시로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는 '십이지신 뱀', 2부는 '상상 속의 뱀', 3부는 '현실 속의 뱀', 4부는 '상상과 현실의 접합점-뱀신앙' 이다.

한편, 국립민속박물관은 지난해 12월 21일 뱀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문학평론가 이어령 씨를 초청 '한국 문화 속의 뱀'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1부는 뱀의 생태·역사·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뱀에 대한 오해와 이해' △2부는 '한중일 삼국의 뱀에 대한 융합적 고찰' 등을 진행했다.

정혜숙 기자

시민들이 제작한 판화 달력 '눈길'

고판화박물관…목판화 달력 전시회

강원 원주 명주사의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의 목판화 달력 전시회가 1월 31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문화형 템플스테이 '숲 속 판화학교'의 참가자들의 작품으로 구성돼 눈길을 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과 시민, 학생과 학부모, 군 장병 등 연인원 4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다양한 판화 및 목판화들을 제작했고 이 중에서도 뛰어난 작품을 선별해 제작한 달력으로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 기간동안에는 군장병과 노인,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이 만든 목판화 달력을 주고받으면서 따뜻한 소통을 위한 행사도 마련해 눈길을 끈다.

한선학 관장은 "목판 달력으로 이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학생들과 군인들의 따뜻한 소통은 장병들의 사기진작으로 이



고판화 박물관의 군장병 전시회

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온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삶이 따뜻해지는 새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고판화박물관은 다양한 계층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교류활동을 넓혀 갈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국립중앙박물관…박물관 나들길 개통

전통문화유산의 보고인 국립중앙박물관 이용이 더 편리해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2년 12월 27일 박물관과 지하철 4호선 이촌역을 잇는 지하보도 '박물관 나들길' 을 개통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연간 3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는 세계 9위, 아시아 1위의 세계적인 박물관이다.

이 중 60%가 넘는 연간 18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이 지하철을 이용하여 방문하고 있다.

이들의 쾌적한 박물관 접근을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시와 공동사업으로 지하철 이촌역과 박물관을 잇는 지하보도를 건설하게 된 것이다.

'박물관 나들길은 총연장 255m의 규모로 무빙워크가 설치된 160m의 직선구간과 전시, 공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95m의 박물관 경내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들길은 2010년 4월 기공식을 가지고 약 2년 8개월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김원수 지음 | 도서출판 공경원
₩19,000원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중동 38-4 | 전화 : 070-7720-6832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석하여 돌풍을 일으켰던 금강경 해설서가
우여곡절 끝에 소생되어 15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교보·영풍 등 전국유명서점에 있습니다

▼ 이 책의 4대 특징

(1)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습니다.
홍익초등학교 6학년 김모란

'금강경은 해공제일(解空第一) 수보리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설법(說法)하신 말씀들을 모아 놓은 경이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전에는 머리 아프다며 설설 피해갔던 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마음을 밝혀주는 주옥같은 108가지 이야기로 엮어진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이란 책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금강경과 그 외의 부처님 가르침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2) 세상의 모든 난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우만동 서원행 보살

절에 다닌 지는 30년이 넘었지만 기복으로 믿다보니,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실패, 엄마의 고관절 수술과 위암판정, 아들의 병원입원, 본인의 디스크와 심한 위궤양, 남편의 고통사고 등 끝없는 재앙에 오로지 죽고만 싶었다.

그런데 어느날 문득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어렵다는 금강경이 읽혀졌고 그것도 너무 재미있게 읽다보니 한 달만에 만성피부염이 나았고, 1년 만에 재앙이 본래 없음을 깨닫아 모든 난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3) 깨달음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기림사 종무소 법희보살

7년간 이 책을 100회 가까이 읽다보니, 매년마다 영적인 성장이 느껴져 너무나 놀라울 뿐이었다.

라즈니쉬 성자의 가르침과 세상의 모든 종교적 가르침 그리고 수많은 진리들이 모두 이 책에 들어 있음을 깨닫고 보니, 온 몸에서 전율이 올 때가 많았다.

도반이었던 비구스님의 출가동기도 바로 이 책이었다.

(4) 진리탐구도 가능합니다.
한양대 응용수학과 명예교수 임종록

이 책이 제시하는 명쾌한 금강경 해설은, 이제까지의 피상적이고 실천불가능하게 받아들인 금강경 이해를 말끔히 씻어주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어느 듯 금강경 독송이 즐거워지면서 수많은 잡념들이 홀연히 사라짐과 동시에, 생각의 세계를 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를 감득(感得)하면서, 원인모를 기쁨이 내면 깊숙이에서 분출되는 신선하고 색다른 체험으로 진리탐구를 하게 된다.

佛紀 2557年 癸巳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효찰대본산 龍 珠 寺

주 지 정 호
특 보 성 로
부주지 성 직

총 무 성 무
교 무 덕 현
호 법 성 유
신도회장 해인화

기 획 인 해
포 교 중 원
박물관장 보 승

재 무 응 진
사 회 본 각
연 수 대 현

■ 부설 ■
효행교육원
템플스테이
효행박물관
경기불교대학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 ☎ 031)234-0040 / 팩스 031)234-2818 www.yongjoo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 곡 사

마음을 맑게하는 수행도량
자연과 하나되는 생태도량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도량

주 지 원 혜

사부대중일동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 ☎ 041)841-6221 전송 041)841-6227 www.magok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 지 사

조 실 영 허
회 주 혜 창
주 지 흥 선

사부대중일동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 054)429-1700~3, 429-1713~15 / 전송 054)436-3174
www.jikjisa.or.kr



조 실 지 유 대종사
주 지 수 불

사부대중일동

大韓佛教 曹溪宗 第14教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山 梵魚寺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www.beomeo.kr 종무소 ☎ (051)508-3122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www.donghwasa.net
Tel 053)982-0101 Fax 053)985-4405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 화 사

진 제 법 원 종정예하
주 지 삼호성문외 대중일동
신도회장 한삼화 외 신도일동

- 동화사 금당선원
- 동화사 율학승가대학원
- 동화사 승가대학
- 동화사 염 불 원
- 동화사 복지재단 동원어린이집 선우어린이집
-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동화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 불교교육의 요람
☎ 053)252-3445

노인전문요양원 동화사 자비원 치매, 중풍, 전문노인요양
☎ 053)985-2115 Fax 053)986-2115

불지종가 국지대찰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 통 도 사

방 장 원 명 지 종
주 지 원 산 도 명
부주지 일 해 재 원

유 나 천진 보탑
율 주 중산 혜남
강 주 현진 지형
율 원 장 우설 덕문
박물관장 범하
자비도량관장 지철

총무국장 현 덕
기획국장 선 혜
교무국장 광 우
재무국장 혜 원
포교국장 명 본

호법국장 진 응
사회국장 도 안
원 주 마 벽
도 감 세 봉

총림대중일동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 전화 055) 382-7182 / 팩스 055) 382-7196 • 홈페이지 www.tongdosa.or.kr

www.gounsa.net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조 실 현 봉 근 일
회 주 송 암 혜 승
주 지 남 전 호 성
부주지 등 운

총무국장 도 륜 기획국장 용 담
교무국장 성 공 재무국장 함 홍
사회국장 등 안 호법국장 정 우
포교국장 동 우

고운사 고운노인요양원 원장 석 우
안동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자 현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도 륜
의성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탄 하
템 플 스 테 이 연수국장 현 사

사 부 대 중 일 동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415 (구계리 116) ☎ 054) 833-2324 팩스 054) 834-6935
• 템플스테이 ☎ 833-6933 둘째, 넷째주 토~일 (1박 2일) •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매월 첫째주 토요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미륵근본도량 **모악산 금산사**



조 실 태 공 월 주
회 주 금 산 도 영
주 지 벽 산 원 행
부 주 지 성 우
총 무 원 혜
기 획 덕 산
교 무 보 연
재 무 운 승
사 회 원 천
호 법 신 성
포 교 행
도 감 보 산
신도회장 김백호

사 부 대 중 일 동

홈페이지 www.geumsansa.org / 이메일 geumsansa@hanmail.net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전화 : 063)548-4440~2 / 팩스 : 063)548-1390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 양 사



주지 진우

총림대중 일동

홈페이지 : www.baekyangsa.org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TEL 061)392-7502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도솔산 선운사

주 지 법 문

사부대중 일동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063)561-1419
선운사 성보박물관 063)561-1421
선운사 승려노후수행관
건립추진위원회 063)561-1422
백파사상연구소 063)561-1418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063)563-1111

평생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4교구 승려노후 수행마을 조성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대승보살의 서원과
실천으로"

민족불교의 성지,
정화불교의 산실

재단법인 선학원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우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 전화 (02)734-9654~6 | 전송 (02)734-3410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홍련암

www.naksansa.or.kr
관음진신주처 관음성지 오봉산낙산사



■ 무 산 사 (양양포교당)
■ 불교대학
■ 템플스테이
■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 무산 복지재단

· 낙산유치원
· 상락원
· 낙산노인복지센타
· 양양군노인복지관
· 양양시니어클럽
· 무산지역아동센타
· 의상도서관
· 낙산무료급식소
· 낙산모자원
· 아동청소년장학사업

조 실 무 산 오 현

사 부 대 중 일 동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100 ☎ 033)672-2447~8 www.naksansa.or.kr

‘MoST’ 를 알면 행복이 보인다

〈동기상태이론〉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즐거움

김정호 지음
불광 펴냄
1만3천원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대부분 ‘행복’ 이라고 답한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 야근, 재테크, 독서, 여행 등등이다. 그런데 ‘당신은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는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한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자신있게 말한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 선택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불행을 불러오고 있다.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생각의 습관들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맨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가만히 내게 귀 기울이는 시간’ 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보이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이 있다. 남이 세워놓은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진실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라는 깨달음을 저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바라던 동기(motivation)가 충족된 상태를 행복으로, 동기가 좌절된 상태를 불행으로 여긴다. 하지만 저자의 ‘동기상태 이론(Motivational States Theory, MoST)’에 따르면 동기가 충족된 상태뿐 아니라 동기 충족이 예상되는 상태 역시 행복이며, 동기가 좌절된 상태뿐 아니라 동기 좌절이 예상되는 상태 역시 불행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월급이 올랐을 때도 행복하지만, 월급이 오를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도 행복하다는 것이다. 반면 연애가 깨져도 불행하지만, 연애가 깨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도 불행하다.

저자의 이론이 사실이라면 행복을 얻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 된다. 충족 가능성이 높은 동기를 선택하여 추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동기가 충족 가능성이 높은 동기일까? 다음에 소개하는 네 가지 심리 원리를 통해 윤곽을 그려 보자.

첫째, 기분 일치성 효과.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긍정적인 기억이 떠올라 좋은 기분이 계속 유지되고, 기분이 나쁠 때는 부정적인 기억이 떠올라 기분이 더 나빠진다고 한다. 남편 또는 아내에게 서운한 일이 있으면 배우자가 과거에 잘못했던 일이 꼬리를 물고 떠오르다가 급기야 이혼을 하는 상상까지 하는 건 바로 이 원리 때문이다. 그렇다면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을 얻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현실적 한계에 갇혀 있다. 어떻게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둘째, 쾌락의 쳇바퀴 현상. 주위에서 핸드폰이나 가방 같은 것을 계속 사들이는 사람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쾌락을 위해 끊임없이 신제품을 사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쾌락은 짧고 불행은 길다. 신제품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세상 속에서 신식은 금방 구식이 되고, 그와 동시에 쾌락은 불만족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불행한 시간을 없애기 위해 계속 신제품을 사들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결국 이들 앞에는 기나긴 불행이 운명처럼 펼쳐진다. 이 불행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채움보다 비움이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행복한 결핍’ 을 실천하는 것뿐이다.

셋째는 행복을 부르는 친절 행동의 법칙. 친절 행동과 행복의 연관 관계를 밝힌 심리 실험이 있다. 6주 동안 진행된 이 실험에서는, 한 집단에게는 일주일에 5개의 친절 행동을 하루에 하나만 골라서 하게 했고 다른 집단에게는 일주일 가운데 하루에 5개를 몰아서 하게 했다. 실험 결과 5개를 하루에 몰아서 한 집단에서만 행복이 증가되었다. 10주 동안 진행된 또 다른 실험에서는, 한 집단에게는 똑같은 친절 행동 3개를 매주 반복하게 했고 다른 집단에게는 하고 싶은 친절 행동을 원하는 대로 골라서 다양하게 하도록 했다. 실험 결과 친절 행동을 다양하게 한 집단에서만 행복이 증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외재적 동기보다는 내재적 동기를.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동기에는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가 있다. 공부를 예로 들면 성적 상승, 장학금 취득, 명문대 진학 같은 것은 외재적 동기이고, 공부하는 것 자체는 내재적 동기이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외재적 동기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 상태에 빠지곤 한다. 공부를 할 때 이런 불안 상태에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져 공부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때문에 목표로 삼았던 외재적 동기를 이루지 못할 확률도 그만큼 올라가는 악순환의 고리에 매이기 쉽다. 반면 공부 자체라는 내재적 동기를 추구하면 공부하는 동안 동기가 충족되니 행복하고, 공부의 능률도 올라 외재적 동기까지 덤으로 달성될 확률이 올라간다. 기대하지 않았던 행복이 보너스로 주어져 행복이 늘어나기 쉬워지는 것이다.

충족 가능성이 높은 동기란 무엇일까?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보다 유리함은 이미 살펴보았다. 여기에 더해 동기 충족을 위한 노력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면 그만큼 동기 충족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런 동기로는 무엇이 있을까? 저자는 ‘진짜 나’ 가 누구인지 바라보는 것을 우리에게 권하면서, 그 방법으로 생각, 감정, 판단, 개념 등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챙김’ 을 소개한다.

마음챙김 명상을 하며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존재는 ‘나’ 가 아님을 알게 된다. 쾌락을 위해 끊임없이 소비하는 존재 역시 ‘나’ 가 아님을 알게 된다. 성취하고자 했던 목표나 타인에게 바라던 것 역시 우리 내면으로 잠시 들어와 머물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매달리는 것이 불행의 근본 원인임을 깨닫는다. ‘가짜 나(에고)’ 에게 놀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진실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에고에 가려 있는 ‘진짜 나’ 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모두 동기가 충족되는 과정이니, 그 자체로 우리는 행복하다. 이 책의 주제다.

김주일 기자

선문답 통해 선불교 핵심 조명

왜 선문답은 동문서답인가

이은윤 지음 | 동아시아 펴냄 | 1만2천원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오늘의 선불교는 본래의 인도불교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동아시아적 특성을 강하게 띤 독자적인 불교다.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풍미한 선불교는 그 출발이 농민과 전란에 쫓겨 떠도는 유민(流民), 유랑승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견문과 사려의 알음알이를 배격하고 직관에 의한 돈오를 강조했다. 이는 번쇄한 논리의 귀족불교와 교학불교에 대한 대항이며, 사회사적으로는 봉건 군주 체제에 맞서 평등과 자유를 추구한 정치적 혁명을 종교라는 틀을 빌어 표출한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책은 선불교의 핵심을 이루는 당송 대의 거물 선사 등 어록과 범백의 전등을 밝힌 등록(燈錄) 등에 나오는 선문답과 법문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선의 본래 모습을 살펴보고자 했다. 선의 경우 중국의 선불교가 곧 한국의 선불교이다. 신라 말 고려 초의 구산선문(九山禪門) 개산을 통한 한국의 선불교 전래부터가 모두 중국 선사상 등의 법맥을 직접 이어왔고 선불교의 경전 격인 조사 어록이나 등록도 중국 선불교의 것을 그대로 받아 써왔다. 현재 한국불교 선방에서 수좌들이 들고 참구하는 화두도 모두 100% 중국 조사 스님들의 화두이다.

따라서 이 책이 중국 선불교 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랜 역사와 오늘의 현실로 볼 때 선불교는 중국과 한국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오해할 필요가 없다. 중국 고대의 구어와 방언까지 원어를 예시, 설명한 것은 지금까지도 한문 원전을 그대로 읽어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였고 특히 선사상의 원초적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이 책은 이 같은 선에 대한 일반적 수요는 물론 전문적 접근에 필요한 첫 관문을 뚫기 위한 열쇠로서 선불교의 현란한 언어예술을 개괄적으로 조명했다. 우선 선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학의 특수한 언어체계와 하층 농민들의 투박한 방언에서부터 사대부 등의 우아한 아언(雅言)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한 선불교 언어들의 실제 사용 사례를 각종 선적(禪籍)들에서 발췌, 예시해 그 뜻하는 바를 풀어나갔다.

선의 핵심은 어록과 등록 등에 수록돼 있는 조사들의 선문답, 또는 법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조사들의 선문답을, 질문에 대한 엉뚱한 대답을 뜻하는 ‘동문서답’ 의 대표로 치부하고 무슨 알 듯 말 듯한 아리송한 말을 하면 흔히 ‘선문답 하느냐?’ 고 한다. 실제로 어록들을 읽다 보면 현란한 언어의 마술이 펼쳐지고 우리의 상식과 논리체계를 뒤흔드는 억지투성이의 연구들이 난무한다. 그래도 그 속의 알 듯 말 듯한 한마디가 우리를 통쾌하게 하고 10년 묵은 체증이 확 뚫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여기서 선불교 언어예술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 통쾌감을 100배 즐길 수 있다.

선불교책들에는 우리의 이성적 언로를 가로막는 동작어들과 일상용어에서부터 방언, 비속어, 욕설, 농담, 속담, 음사(淫辭)는 물론 깊은 뜻을 담은 현언(玄言), 우리의 언어체계를 벗어난 격외의 어구, 운치 넘치는 시어(詩語)들에 이르기까지 그 폭과 깊이가 넓고 깊다. 선불교의 고유 언어

선불교 언어 개괄적 설명
선언어 논리와 사고 차단

와 화법은 독특한 언어예술을 형성했다. 선언어들은 특수한 언어 형태로 각종 선적 등에 돌출했고 아언속어(雅言俗語), 문언백화(文言白話)의 각종 성분을 흡수해 자유로운 심령활동을 조합하고 자극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선문답이 동문서답으로 들리는 이유는 선가의 교육 방법이 무의어(無義語), 격외구, 은어, 관용어, 반어(反語), 차전법(遮詮法), 현언 등을 통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언설(不可言說)의 선리를 설파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선언어는 세속의 논리를 뛰어넘는 초논리의 논리와 사로(思路)를 차단해버리고 직각적인 깨달음을 촉망시키려는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인들은 장애를 느낄 수밖에 없다. 선문답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 풀어낼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 같은 선불교의 특수한 언어체계 때문이다.



저자 · 이은윤

김주일 기자

“템플스테이서 자녀 교육법을 찾아라”

스님의 자녀수업

승한 스님 지음 | 경향에듀 펴냄 | 1만4300원



최근 뉴스나 언론 매체에서 어린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대해 연신 보도하고 있다. 아이들을 향한 강압적인 교육과 소통이 되지 않는 가정문화로 부모와 아이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자녀교육 서적에서 우리 아이 잘 키우는 법, 아이와 소통하는 법, 산만한 아이 길들이기 등의 다양한 자녀교육 방법들은 제시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부모와 아이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해 질 수 있는지는 중심을 두지 않는다.

〈스님의 자녀 수업〉의 저자 승한 스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템플스테이 수업을 통해 많은 부모와 아이들의 가슴에 멍울진 고민들을 풀어주는 일을 해왔다. 이 책은 멀리 가서야만 배울 수 있었던 템플스테이를 집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명상과 발우공양, 울력 등을 직접 실천해 보면서 자녀교육의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 자녀교육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쉽다. 책이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된다. 책은 총 다섯 개의 수업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새벽예불, 명상, 발우공양, 울력, 스님과의 대화 등이다. 명상을 통해서는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 발우공양을 통해서는 음식에 감사하는 법을 갖게 유도한다. 울력을 통해서는 스스로 학교 준비물도 챙길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준다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각 수업 말미에는 팁 형식으로 스님의 멘토링 란도 마련해 스님이 생각하는 자녀 교육 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준다.

김주일 기자

무소유 실천 수행자 26인의 인생 지침서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지음 | 김영사 펴냄 | 1만3천원



영화 〈빠삐용〉에서 주인공 빠삐용은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여덟 번의 탈옥을 시도할 만큼 끊임없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가는데 맞은편에 재판관과 배심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결백을 주장하며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울부짖는다. 그러자 재판관이 이렇게 말하며 유죄를 선고한다.

“너에게는 분명 죄가 있다. 네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다. 그것은 인생을 낭비한 죄다.”

이십여 년 간 수많은 수행자들을 만나 인터뷰한 저자 박원자는 법전 종정스님의 수행기를 쓰고 혜암 전 종정스님의 유고법문집 출간을 맡고, 동국대 역경원의 역경위원을 역임했다. 20여 년 동안 수행자들을 가까이서 인터뷰하면서 출가와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여쭈었지만 정작 저자가 묻고 싶었던 것은 ‘인생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였다. 그가 인터뷰한 수행자들은 한국불교사에서 한 획을 그은 큰스님에서부터 스님들 사이에서도 회자될 만큼 독하게 수행한다는 어느 은둔 독종수행자까지 스펙트럼도 넓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수행자들은 저자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어떻게 살지에 대한 답을 준다. 그래서일까 저자는 석종사 혜국 스님께서 법문 중에 빠삐용 영화를 언급하며 “나는 불교에서 금하는 살생을 저지른 죄보다 인생을 낭비한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씀을 각인하며 책 서두를 시작했다. 26인의 수행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노라면, 잠시 일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김주일 기자

재단법인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회 장 공병수
명예회장 정금강행, 하도명화, 덕양 류진수
초대회장 동명 강석진

설 립 : 1967년
사 업 : 문화, 포교, 교육, 봉사, 포럼, 세미나, 성지순례

200만 부산불자의 전법 · 수행 도량
21세기 녹야원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관

1층 연담명품참치 연회석 200석 완비 051)861-8585
4층 (사)대한불교청년회부산지구,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산불교거사림, (사)세계선무도협회 서면지원, 세미나실
5층 부산불교인재원, 로터스불교대학, 로터스수행학교, 부산불교전문강당, 부산불교최고지도자아카데미
6층 대한불교 조계종 법계정사, 법계정사 신도회
7층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인도명예총영사관, 로터스클럽, 로터스불교대학총동문회, 부산시불교약사회



■ 부산 연제구 연산5동 1330-9 부산불교신도회관
연산동 부산시청 옆 (시청역 7번 출구) 전화 051)853-202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佛紀 2557年 癸巳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문화, 통상교류를 통해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인도공화국 명예총영사관

명예 총영사 류진수
명예 부영사 이욱태

◆ 사 업 ◆
· 인도문화공연 및 전시회,
· 인도문화강좌,
· 인도여행설명회,
· 인도교류 지원 및 활성화

전화 051)853-8539

명품불교 교육과 인재육성의 원천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
로터스불교대학

학 장 공병수
매주 월,화 오후 7시

· 로터스수행학교
매주 목 오전 10시, 오후 7시

· 부산불교최고지도자아카데미
부산불교전문강당 학장 지안스님
매주 수 오후 7시

부산불교인재원 원장 이욱태
로터스불교대학 총동문회 회장 김영일

전화 051)853-8539

21세기 녹야원 생활인의 전법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법 계 정 사

주 지 원오스님
법 사 보광 이욱태
신도회고문 배반야림
신도회장 최문식

· 일요법회 (오전 10시)
· 초하루 (매월양력1일)
· 관음재일 기도
· 다도회
· 선무도 (매주 화,목 오후7시)
· 합창단
· 부산시불교약사회
(매주 목 오후 8시30분)

전화 051)853-8539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서울
- 법당 : 40
- 요사 : 60
- 대지 : 230평
- 산신각 기도처
- 가액 : 20억

- 위치 : 금산
- 법당 : 20평
- 요사 : 40층
- 총 : 560평
- 가액 : 1억8천
- 최고 보시면OK

- 위치 : 서울
- 인법당 : 25평
- 가액 : 1억 3천
- 전세. 월세 급구 연락 주세요.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기타건물 : 60평
- 부지 : 740평
- 가액 : 10억

- 위치 : 강원도
- 법당 : 15평
- 요사 : 35평
- 부지 : 640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경기도
- 법당 : 24(목)
- 요사 : 45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3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235평
- 법당(2층) 30평, 요사채(2층) 80평
-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 6억 3천만원

울산 근교 아름다운 사찰

- 총부지 : 2,400평(관리지역)
- 법당 및 요사 50평
- 산세, 계곡물 최고, 주차장 200평
- 총금액 : 6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갓바위 부근
- 대지 : 385평, 건평175평(2층건물 2동)
- 법당 52평, 종무소 52평, 요사채 71평
- 4차선 국도인접, 전망좋음
- 가액 : 6억 5천만원

016-874-8885 / 053)853-5539

종 교 관 련 시 설 터

- 요양시설, 수련원, 선방, 포교원 등
-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자락)
- 평수 400평(대로에서 200m)
- 건물 : 약 40평 있음
- 특징 : 산 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 곳
- 가액 : 15억
- 신축도 가능합니다

011-372-774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구미시 원평2동
- 중앙시장 입구
- 평수 20평정도
- 방2, 법당
-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010-2418-62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역 앞 최고 도심지
- 지하철 앞
- 법당, 요사채, 주방, 화장실
- 깨끗함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011-809-896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 (황금동에서 차편 약 15분)
- 대지 : 도지료 연 35만원
- 건물 : 독채 32평, 개인 등기 필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 시설. 생활 편리함
- 가액 : 6천 8백만원

054)435-1259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 큰 대로변 상가 3층
- 평수 30평, 등 200개, 인등 200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벽

010-2126-25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지리산
- 면적 2,100평, 대웅전 30평
- 요사채 각 80평, 30평
- 산과 강이 잘 어울어 아름다운 사찰
- 가액: 6억 5천만원(전세가능)

010-2610-999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동래전철역 도보 5분거리 대로변 아파트 단지 및 금정시장
- 3층 건물 중 2층 40평
- 극락전, 지장전, 나한전, 시왕전, 산신용왕전. 시설완벽
- 큰절 소임관계로 (급)양도 또는 전월세 가능

010-2531-1961

도심과 산속의 만남 포교원

- 위치: 대구 (역 도보 5분거리, 시장 5분)
- 현재 법회중이며 3층 건물(50평) 옥상(50)
- 법당(20평) 방2, 친견실1, 주방(집기일체)
- 부처님(金)삼존불, 신중, 칠성각, 영가단, 각단후불도, 부처님 지신사리
- 모두(5천) 부족하더라도 오세요
- 불사관계로 양도함
- 토지 및 사찰 교환도 가능

010-6892-39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시내IC10분거리
- 대지 : 500평. 등기필
- 주변 산세좋음
- 대웅전, 요사채, 황토방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1억 8천만원

054)337-3687
017-517-368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신도시 내
- 6층 건물 중 3층
- 실평수 118평(분양 190평)
- 가액 : 4억(융자 1억 포함) 시설비 3천만원(조절가능)

010-6328-395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정읍 근교
- 대웅전 25평, 지장전 25평, 삼성각 4평
- 요사채 3동, 약 80평, 방11칸, 종각 4평
- 대지 500평, 전 1300평
- 조건. 관등록을 전재로 함
-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함
- 싯가 4억 상당의 사찰을 사정상 반값에 양도하려합니다

010-7149-636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불심이 깊은 대구(송현동) (남대구 IC에서 10분거리. 주차장완비)
- 2층 중 2층 70평, 옥상 70평 사용가
- 법당, 방 3개, 화장실 3칸, 공양간
- 보증금 1천만원 / 월 60만원
- 시설비 2800만원(절충가)
- 큰병원 및 시장, 서부정류장 (유동인구 많습니다)

010-3672-8424
010-9431-495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3층 약 50평
- 모든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51)506-4038

도심 속 조용한 절

- 위치 : 동대구역 부근
- 반양옥 48평
- 1층 : 법당 , 방1개, 공양간1개, 화장실 3 • 2층 : 방2개
- 삼존불, 소불 108위, 집기 및 비품일체
- 보증금 3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200만원

010-4083-9912

급 안 내

- 위치 : 서울근교
- 종교용지 800평
- 양도가 8천만원
- 160평 건축 허가 가능

010-5488-3171

도심속의 사찰

- 위치 : 부산시 청학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비구니 스님 적격임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 2층 : 법당과 스님방
- 가액: 2억9천만원(수정부분)

010-3732-523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안산시 월피동
- 평수 : 26평
- 법당완벽한 시설로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010-3662-552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신도시 내
- 6층 건물 중 3층
- 실평수 118평(분양 190평)
- 가액 : 4억(융자 1억 포함) 시설비 3천만원(조절가능)

010-6328-395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 평수 : 2층건물 38평
- 1층 : 공양간및 주방 방 3칸 2층 법당
- 그린상가지역, 도시가스 설치
- 지하철 1~2분 거리
- 가액 : 2억 2천만원(시설비 없음)

010-3578-4993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 상가건물 4층 전체 약 42평
- 법당1, 방2, 화장실, 엘리베이터
- 시설 살림살이 일체 3500만원
- 보증금 1500만원, 75만원
- 최고시설
- 답사후 절충가능(시설비)

010-6674-135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옥상이용 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 일체 완벽

011-217-9299

조용한터안내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 전 4853평, 관리 2190평, 합 7043평
- 읍내 5분거리 귀농하여 살기 좋은곳
- 투자가치 있는 곳 반에 반값 융자
- 1억 9,000만 포함 현금 1억 6,000만원

010-6460-131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가야초등학교 정문 앞
- 4층의 2층. 약 20평
- 방2개, 부엌, 삼존불, 지장불, 아미타불, 관음불, 탱화 지장불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3천 5백만원, 달세 無 시설비 2천만원

010-7929-7790

사 찰 안 내

- 위치 : 합천 초계면 삼거리 잘하실분
- 3층 180평, 대지 350평
- 산아래 2차선 3거리 (권율장군 역사공원 예정지앞)
- 가액: 2억 8천만원
- 주인직접

010-2708-1800

가까운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사상역 시외터미널 건너편
- 건평 60평, 시설 멋짐
- 전세 1800만원, 월 45만원
- 비품대 1500만원 4층건물에 2층

010-3590-6329
010-8548-8608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시 오라동 공항에서 10분거리 아름다운 사찰
- 평수 : 340평
- 집은 3동
- 가액: 7억

018-590-3583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 대지 175평(법당 20평, 요사채 22평)
- 아미타불 도량, 산신용왕
- 백년 된 대추나무, 은행나무 돌탑
- 비구니 스님, 안주하기 적합한 도량
- 가액: 1억 1천만원

010-8503-576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정읍 근교
- 대웅전 25평, 지장전 25평, 삼성각 4평
- 요사채 3동, 약 80평, 방11칸, 종각 4평
- 대지 500평, 전 1300평
- 조건. 관등록을 전재로 함
-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함
- 싯가 4억 상당의 사찰을 사정상 반값에 양도하려합니다

010-7149-6369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양도 : 8억5천

- 위치 : 인천
- 부지 : 80평
- 법당 : 50평
- 요사 : 80평
- 양도 : 8억8천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 10분거리
- 건평 1,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국유지 포함 사용면적 약 500평
- 총 2억 7천만원 (은행융자 1억포함) 절충
- 법당, 사물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010-8725-319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금호읍
- 경주. 포항 20분대 대구 15분시내 IC 3분거리
- 평수: 203평. 인법당. 삼성각. 용왕당. 기도방
- 요사채 방 4, 욕실1, 수세식화장실2, 현대식주방
- 300년 고목 약나무 지하온천수매장. 개발가능
- 비구니스님 거처로 용이함
- 양도가액은 만나서 협의를 원함

010-7473-6886

사 찰 안 내

- 氣가 있는 월출산 명당터
- 부지 1600평
- 건물 : 법당, 요사채, 문간채
- 산신각, 화장실, 공양간, 창고, 주차장
- 가액: 3억 (답사후 조정가능)
- 주지스님 지병으로 급 안내

010-3640-1494

포교원안내

- 대구 도청옆 대구역 5분거리
- 평수: 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개)
- 보증금 1500만원, 월 120
- 불교대학 최적지
- A/V 有. 냉난방시설, 시설비 답사후 절충
- 아미타삼존불, 지장, 삼성, 신중
- 사천왕탱화, 500인등, 영가단
-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 갖춘 법당

010-9598-91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 대지 175평(법당 20평, 요사채 22평)
- 아미타불 도량, 산신용왕
- 백년 된 대추나무, 은행나무 돌탑
- 비구니 스님, 안주하기 적합한 도량
- 가액: 1억 1천만원

010-8503-5769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수성구 요지
- 지하철 입구 바로 2층
- 약 30평, • 시설완벽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천만원(절충)
- 포교, 상담, 교육 최적지

010-9690-8275

알기쉽고 이해하기 쉬운 인간의 속마음을 꽤뚫어보는법

제 1기 힐링 분석 상담사 자격과정 교육생 모집 (누구나 저렴한 교육비)

감정, 의지, 정신의 사용유형를 분석 **치유, 심리, 영적인 ,미래예측, 인간관계, 학생들의 인성지도와 진학지도, 직업상담, 연애, 풍수, 수맥, 사업종목선정 등**에 활용 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힐링 분석 상담사과정. 현재의 문제점을 빠르게 간파하는방법

1. 육체적인 질병과 건강.내분비선의 이상유뮤
2. 성적인 능력의 사용유형 .성능력의 성향분석
3. 감정적인 조절능력과 건강을 돌보고자하는 능력
4. 사랑을 나누는 방식과 인간적인 대인관계능력 (인간관계의 특징)
5. 자신의 야망과 직업적인 적성과 직업의 만족도와 학업 성취력(직업적인성취도)
6. 정신적인 이해력과 행동과정(빙의와 정신이상 우울)
7. 영적인 수행능력과 통합능력(깨달음의 통합능력)
8. 미래 예측 ,사업종목,직업,적성,궁합,성격,풍수,수맥 과학적인 에너지분석

※ 진동주파수감지를 통한 다우징기법 미국의 존피에코라스박사의 방법
1. 일반인반 4회 - 완성 과정 (책자제공)
2. 전문가반 6회 -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한 자 (책자제공)

※ 힐링분석상담사란?
민간자격증으로 인간의 전기장을 통해 그 사람의 현재의 문제점 감정, 의지, 정신의 사용유형 읽어 치유와 건강, 심리, 궁합, 직업, 적성,인성을 개발 상담해주는 전문가로 활동한다.

협회 가입 자격증 발급과 월 2회 사례발표회와 특징

공개 강좌 : 월 2시, 토 2시

힐링분석상담사 협회 협회장 김광우 (빛의 친구)

인체전기 파동의학 043)296-5258 / 010-9242-525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영혼은 몸을 통해 이야기하기에, 진실을 체험하게 해주는 건 우리 몸이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옳은 말을 하라. 이것이 첫째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아닌 것은 말하지 말라.
이것이 둘째다. 좋은 말을 하고 좋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이것이 셋째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것이 넷째다.

– 숫타니파타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무속 선, 앉은거리 장단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발명특허 출원내용 : 뒤 틀인 척추, 골반, 고관절 각도, 다리길이 불균형을 바르게 하는 운동기법 디스크, 협착증, 좌골신경통,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 증, 척추측만증, OX다리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운동법
배울 분, 받을 분 한번 오시면 해결가능
혜경선사 011-829-7582

정선문 미래연구소

사 작 택
주 명 일
사주명리학 수강생 모집
실전 강의
02)733-8889
017-402-7848
종로 견지동 조계사 바로 옆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 434-5990
010-8730-5690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빙의,영가,영적장애 몸, 마음, 영혼 치유 해 드립니다

용음사
010-5538-5570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염불 잘하는 스님이 의식 집전해 드립니다

천도재,49재,바라,
나비, 회심곡
010-6569-1010

건축토목(하청전문)

전원주택, 빌라, 원투룸,
상가및 토목공사
시공전문 목수인
저에게 공사를 맡겨 주신다면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하자 없는
공사로 보답하겠사오니 불자님
010-7640-4404

전수생 모집

사주 명리학, 천고비전 육임학
기초에서 실기까지
육임은 백법까지
성심껏 지도해 드립니다.
031)642-6011
011-729-6011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염불CD판매

〈 우리말 예불1집 〉
한문예불을 우리말로 변역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용스님의 우리말 예불
〈정토선음악염불〉
극락세계 염불방법을 통해 쉽게 염불삼매를 성취하는 선용스님의 수행용 염불
구입처 : 전국불교용품점
010-8108-0715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 퇴마, 천병, 신병, 우울증, 틱장애, 병명없이 아픈 분, 가정우환, 엑소시스트도 치료못한 환자도 치료상담
금 강 사
010-2418-62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50대 후반 공양주 보살을 모십니다.

017-552-735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나이제한 없음)
055)835-8656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북갤러리출판
값 13,000원 (전국서점판매)
전화 주문 031-842-8023. 011-772-4606
농협 552-01-047918(대한불교비룡정사)
내용 (1)마음의 치유 (2)빙의퇴마 (3)무당 (4)사주팔자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심 와 기 도

• 神과 疏通하는 기도가 심와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여자)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청정한 **남해바다**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멸치**와 **멸치액젓(맑은 액젓)**을
자신있게 불자님과 모든 분들께 직거래로
소개하여 드립니다.
055)867-2259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영가찾는 법 교육생 모집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 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백암역리원 동작구청(우리은행)옆
02)597-1101 / 011-9150-2284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근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호주, 이스라엘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점성(占)비법 전수자 모집

1. 吉凶 영가찾기 2. 이름작명 (한자速成학습법) 3. 풍수
* 스님 특별강좌 * 타로교육
◆ 역 술 상 담 법 ◆
• 기 초 반 : 4주 완성 (선착순 8명) / 교재비 포함 5만원.
• 고 급 반 : 24주 완성
• 점성영업법 : 6주 완성 (선착순 3명)
• 특전 : 사단법인 한국역술협회,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상담자격증 취득됩니다.
전화 02)977-1389 (수시상담 가능)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관음사
• 주 소 : 경북 구미시 형곡동 346-11번지
• 법 명 : 선월 (유경숙)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 법하

정체 평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수시모집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보 금 정 사 주지 혜 문 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 2리 1195번지
054)954-7744

"최신판" 띠별(十二支神像型) 삼재풀이용봉

호신진언【옴치림】


※ 속지 6장식 들어있음!
2013년(계사년)부터 들어오는 삼재해당자(돼지, 토끼, 양띠) 들께서는 본인의 띠와 같은 봉투에 속옷하나 넣고, 이수에 따라동전을 넣고 스님들이나 법사, 보살님들에게 전달한 후 삼재를 풀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청담아트월드 社 www.cdsa.co.kr
주문전화 : 031)912-7114
◆ 90부 이상 우송!
(일반 신도분들은 개별적으로 근처 불교 만물상에서 구입하시오!)
계좌번호 : 638701-01-163513 (국민은행) 예금주 : 청담사

제 2회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학 인 모 집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승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염불승으로서 한국불교 전통범패단을 "한국불교 홍익범패단"으로 이름 짓고 창단하였습니다. 뜻 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먼저 청강해 보시고 접수는 뒤에 하셔도 됩니다. 성적이 우수한 분은 한국불교 홍익범패단에 단원으로서 인정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강 의 내 용
1. **기초 :**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향수해례, 사성례, 도량석, 종송, 조석예불, 사시불공, 사물.
2. **중급 :** 주 둘째시간 ~셋째시간 : 천도재의식, 시련, 대령, 관욕, 신중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혼소, 봉청(짓소리), 39위, 복청게, 고혼청, 헌좌게, 진령게, 칠언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 귀명정례긴소리, (짧은소리) 화청
3. **상급 :** 매주 넷째시간 : 범패의식-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도량게, 다게, 법고춤, 호적
4. **고급 :** 2년이상 된 자로서 시다림, 다비, 점안식, 방생, 생전예수재, 종사이운, 불상이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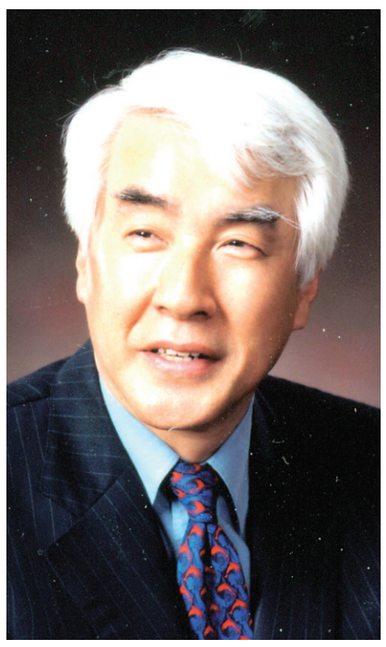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 10만원 (1년 선불 10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본원에 비치)
■ 장 소 :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 소 : 김해시 홍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055)332-1675
■ 강 주 : 민지효 010-4466-3575


도법 스님


정산 스님


종호 스님


성행 스님


정병조 금강대 총장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한국불교 변화의 주역들 2013년을 말하다

"스스로 희망 만들때 거듭날 수 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가고 2013년 새 해가 밝았다. 새 해에도 여전히 한국불교 변화의 과제는 많다. 조계종의 자정과 쇄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교문화에 대한 전통문화로서의 재평가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활동도 보다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불교계 인사들에게 2013년의 혁신 전망과 과제를 들었다.

정리=노덕현 기자

"종도 의식이 먼저 변화해야 종단 개혁"

도법 스님 자성과쇄신결사본부장

현재 한국불교가 갖고 있는 모순과 불합리한 것을 깊이 인식해 새롭게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2012년 자성과쇄신결사가 제안됐고 종정 스님을 위시해 원로, 본사 주지 등 각계에서 한국불교가 결사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새해에는 대중공사를 통해 조계종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단과 사찰의 재정과 운영이 합리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의 틀과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승불교답게 현대 사회 상황에 불교정신을 담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일 정진과 무차대회 등의 내용을 더욱 알차게 담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고락을 함께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흐름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화쟁불사에는 보다 종단 구성원들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특히 쌍용차 문제, 제주 강정마을 문제 등에 책임있는 종단 소임자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종단 구성원 개개인의 사상과 문화, 풍토가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도 의식이 변화하기 위해서 의식개혁결사가 활발히 전개돼야 합니다.

희망은 어디에 따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현장에서 희망을 만들어야 하며 그 주체도 자기 자신입니다. 주체적으로 자기 현장에서 희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입니다.

"전통문화 콘텐츠로 확고한 위치 확보"

정산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 10년간 한국불교는 물론,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선두를 지켜왔습니다. 지난 한해는 전통문화로서 불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한해였습니다.

2013년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콘텐츠로서, 템플스테이가 지닌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전 세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한국불교는 그 어느 전통문화 프로그램보다 다양한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그리고 천년을 넘어 이어진 철학의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업단은 이러한 자산을 기반으로 국내와 외국인 참가자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구성하여 궁극적으로 향후 3년간 템플스테이 브랜드의 내실화와 콘텐츠 발굴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사찰음식 문화를 체계화하기 위한 조사와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이 시대의 아픔과 모난 곳을 함께 치유해 나가는 사회통합적 프로그램개발에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템플스테이 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와 교재 마련, 연구조사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보다 학술적이고 신뢰성있는 전통문화 개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노동환경 개선 공생의 삶을"

종호 스님 조계종 노동위원장

지난해에는 불교의 사회적 지평이 넓어진 한해였습니다. 노동문제에 까지 불교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처음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을 때 노동운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연기적 관점에서 노동문제는 다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일찍이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했습니다. 역대 조사 스님은 일일부작 일일부식이라 하여 노동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삶의 필수조건으로 우리는 노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에 대한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2013년에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자본의 극단적인 독주로 좋은 일자리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양극화가 최대 화두. 그 과정에서 자본에서 극단적인 독주로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비정규직만 48%인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노동계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초 노동자 5명이 생활고로 자살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의 국민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극단적인 이익추구가 빚은 참극입니다. 공생의 삶을 사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불하는 공정한 노동환경, 고용자의 사회적 책무에도 주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새해 과제일 것입니다.

"어린이 포교 저변확대의 해"

성행 스님 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지난 한 해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제성취포상제가 실시되며 이에 맞춰 불교 스카우트, 아이숲학교 등이 도입됐습니다. 조계종과 교육계의 업무제휴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활동하며 체험과 동시에 스팩을 쌓는 기초적인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불교계의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공부방이나 아동센터의 분야에만 국한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의 기반으로 이제 보다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봉사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며 자기개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새해에는 불교계는 성취포상제도와 연계해 지역사찰들과 협조를 통해 지난해 마련한 제도를 잘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어린이포교 법인인 예그리나를 설립했습니다. 청소년 단체에닌 파라미타와 함께 청소년교화연합회가 활동했지만 어린이 분야에는 동련이 유일했습니다. 종교법인으로의 제약을 넘어 전통문화를 알리고 자연스럽게 불교문화에 어린이들이 빠져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새터민 자녀 등과 같은 소외계층을 함께 보듬어 나가는 일도 힘써야 겠습니다.

"불교 · 지역 발전에 앞장을"

정병조 금강대 총장

지난 2012년은 금강대가 개교 1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10년이 세계 초일류 명문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씨를 뿌린 시기였다면 앞으로 걸어갈 10년은 본격적인 성장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금강대는 소수정예로 수능 1~2등급 이상의 엄격한 자격조건을 걸고 장학제도 등으로 사회 리더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 2007년 HK사업을 수주하고 교육역량강화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절대적인 학생 수가 줄고 잇는 상황에서 각 대학의 질적 도약이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인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립대학으로서 사회적 리더를 배출하는 역할이 막중합니다.

금강대는 첫째 한국불교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이다. 셋째 세계적인 대학으로의 금강대 위상을 정립할 것입니다. 2013년 새해에는 더욱 안으로 내실을 기하고, 외적으로도 한 단계 대학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대학의 크고 작은 부분에서 변화가 인다면 이 것이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불교계 인재발굴 육성에 최선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2013년은 한국 신행의 큰 변화가 이는 해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10월 중앙신도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불교를 잘 계승하고 벌전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고령화와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불교계에도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도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신도회는 불교계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 예정입니다. 신도역량을 높이고 신도회의 기본조직인 교구신도회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신행단체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신도회 조직력을 높이는데 힘쓸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해 사회공동선 구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있지만 믿음이 큰 불자님들이 계시기에 불교와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먼저 변해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謹賀新年



부처님 제자들이 희망입니다.



강한 인문학과 따뜻한 과학
동국대학교 융복합교육으로 키워낸
부처님 제자들이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dongguk UNIVERSITY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가피가
모든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영산불교 현 지 사

초대교조 광명 만덕 큰스님
2대교조 자재 만현 큰스님

장로회의 의장 현각
감 찰 원 장 만성
불교대학장 덕산
교 정 원 장 성광
포 교 원 장 일도

춘천본사 주지 대원
대전분원 주지 보행
서울분원 주지 지원
제주분원 주지 무량
부산분원 주지 도현
고성분원 주지 혜명
대구분원 주지 보덕
일본분원 주지 성도

영산불교 현지사 사부대중 일동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 ☎ 033)243-1787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1439-2 이센타워 15층,14층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14-39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195-2 ☎ 033)681-5515
■ 서울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1동 630-41 ☎ 02)453-5953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50-13 ☎ 053)654-5557
■ 제주분원 제도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163 ☎ 064)783-5355
■ 일본분원 일본국 야마구치겐 이와꾸니시 히라타 ☎ 0827-34-1626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14-39 ☎ 042)525-5325
■ 홈피 http://hyonjisa.com 메일 hyunjigung@hanmail.net



대행 스님

모든게 이 한 점의 마음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마음공부에도 단계가 있는지요.

문) 마음공부 하는 데도 단계가 있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면 좀더 빠르게 나를 보게 될는지요?

답) 물론 계단 없는 계단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완전히 죽었을 때 자기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자기 껍데기를 벗고 말입니다. 다 태워 버리고. 그랬을 때에 오관을 통해서 거기 말리지 않고 그 오관을 자기가 부릴 때 그때 도력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지혜와 더불어 선정과 자비가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도 그때에 나를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관을 통해서 부릴 때, 즉 말하자면 오신을 부릴 때 결국 그것은 자기가 다시 보림하려고 그걸 체험하고 돌아가면서 또 놓게 됩니다.

그런데 '나 한 번 죽기 어렵다 했더니 나 한 번 죽기는 쉽더라. 나 한 번 죽기는 붙들고 갈 거라도 있어서 그래도 쉬웠는데 두 번 죽기 어렵더라.'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한 번 죽어서 탄생을 해서 어린애 임신해서 탄생은 됐으나 도대체 물리를 몰라요. 어린애가 나온 것처럼. 다 자라야 어른 노릇을 할 텐데. 그래서 어른 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보림을 다시 해서 놓고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그래 성장을 다 시킨 뒤에 또 더불어 같이 죽기 어려워라 하는 겁니다. 같이 죽어서 그게 다 됐다면 더불어 같이 나투기 어려워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까지 이끌어 가는 둘 아닌 한 길인데, 길 없는 길을 발 없는 발로 디딜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다가 손 없는 손으로서 닿을 데 없는 닿을 데 있는 데까지 아니 닿는 데 없다 이겁니다. 그르고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르다 옳다 이거를 분리한다면 반드시 이건 어긋납니다. 둥그런 그릇에 네모난 뚜껑 덮는 거나 한가지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어느 사람이 와서 "이것이 옳습니까?" 하니까 그르단 말은 하나도 안 하거든요. "어떤 게 정법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응. 그것도, 그것도 옳다." "저 얕은 산은 저 높은 산하고 어떤 게 차이가 납니까?" "얕은 산도 옳고 높은 산도 옳다." 그래서 한 번 죽기는 어렵다 했는데, 한 번 죽기는 쉬운데 같이 죽기는 어렵거든요. 그건 또 둘째라. 전부 같이 나투기 어렵다 이겁니다. 이 뜻을 말로만 훵하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문제예요. 거기에는 티끌 하나 붙질 않아야, 그르고 옳은 게 붙질 않아야 합니다. 이런 공부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다가 '아 저건 틀리다, 저건 옳다.' 그런 걸 가지면 절대 이건 할 수 없어요. 미지수의 그것을, 한 구녁도 없고 티끌도 없는 그걸 한숨에 찰나에 뚫을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 나가다가 점차적으로, 점차 뚫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죠. 허나 미해질 수도 있거든요. 하도 따지니까. 왜 그렇게 달기는 좋아하는지.

우리가 한번 '야, 참 너 만나서 좋구나.' 하는 그 소리가, 아주 웃으면서 그 소리 한번 하는 게 몇 근이나 될까요. 나는 만약에 그르고 옳은 것을, 그래서 '선을 지킨다면 선의 업이 있고 악으로 간다면 악의 업이 있다. 선과 악을 다 놔라.' 이러고 싶은 거예요. 잘되고 못된 거를 다 놓지 않는다면 그건 치우치게 되죠.

우리 지구도 부동한 자세로서의 그 긍지를 가지고서 지축이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서 사방에서 조여드는 그 자체로 인해서 자석과 같습니다. 어느 거 하나 붙어도 타 버리고 말죠. 타 버리는 관계상 살아난다 이겁니다. 이 유생 무생이 다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 이 원리를 왜 모릅니까. 우리 인간 하나 하나도 혹성이다 할 수 있죠. 별성이다 이겁니다. 한 사람의 한 점의 마음의 불덩어리가 온 우주 세계를 다 집어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어삼킬 수 있는 그 오묘한 마음을 가지고 만날 저울질만 하고 있으니 이것은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와서 저울질하다 간다면 저울질밖에 못하지 어떡합니까. 차원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두가 그렇게 모이는 거죠, 뭐. 이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만 하지 말고 내 내면을 볼 수 있을 때, 내공을 볼 수 있을 때 홀연히 그 내면으로 하여금 천리도 요 눈앞이죠. 조그마한 고 불씨 하나가 삼천대천세계를 집어삼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뭐 남는 게 있어서 몽탕 다 태워 버리나요? 본래 태워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마음으로 그렇게 쌓아 놓으니까. 무조건이지, 뭘 이렇게 달고 저렇게 달고, 그게 도대체 몇만 근이나 된다고.

나는 그전에 어느 스님한테 가서 "스님! 얼마나 가면 죽겠습니까?" 하니까 "눈 뜨고 푹 자면 돼. 죽는 거야, 그게." 이 말씀 한마디가 참 실감났어요. 눈 감고 자는 거는 자는 게 아니죠. 눈 뜨고 자야, 얻다가 시장바닥에 갖다가 팽개쳐도 우뚝우뚝 서게 되죠. 잘된 거 못된 거를 남의 탓으로 돌려서도 아니 되고, 또는 잘된 거 못된 거를 건져 들어도 아니 되고, 잘된 거 못된 거를 일일이 그걸 계산해도 아니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똑똑하더라도 좀 겉으로는 무식한 척 둔한 척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공부는 둔하지 않고는 도대체 될 수가 없거든요. 벌써 오관을 통해서 이 사량으로 전부 알거든. 이 머리로 다 알아 버려요. 감각이니 지각이니,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기계적으로 다 있는 거거든, 이게. 언제 그놈의 오는 거, 헤아릴 수도 없는 게 그냥 스쳐 가는데 언제 그놈의 걸 세웁니까.

그저 모든 게,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탓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봤고 자기가 거기 갔기 때문에 들었고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되고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게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게 내 탓입니다. 못난 내 탓. 잘나지도 않았고 못나지도 않았고 그저 그대로 내 탓이다 이겁니다. 그 내 탓이라는 한마디의 뜻이 눈 뜨고 자는 일이에요. 가정에서도 무슨 언짢은 일이라든가 부부지간이라든가 자식지간이라든가 모든 일에 대해서 말을 참 이익하게, 상치 않게 말을 해 줄 뿐 아니라 말을 해서 상할 일이라면 하지 말고 안에다 굴려서 놔야 된다 이겁니다, 내공에다. 모든 걸 내공에서 나오는 건 내공에다 다시 놔야 됩니다. 잘된 거는 감사하게 놓고 안된 거는 안돼서 맡겨 놓고. '나는 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것이 공부다.' 이런 거 다 놔야 됩니다. 급하다는 거까지도 놔야 돼요. 그렇게 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나온 자리, 내가 낳기 이전 자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전 자리를 알게 되면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지만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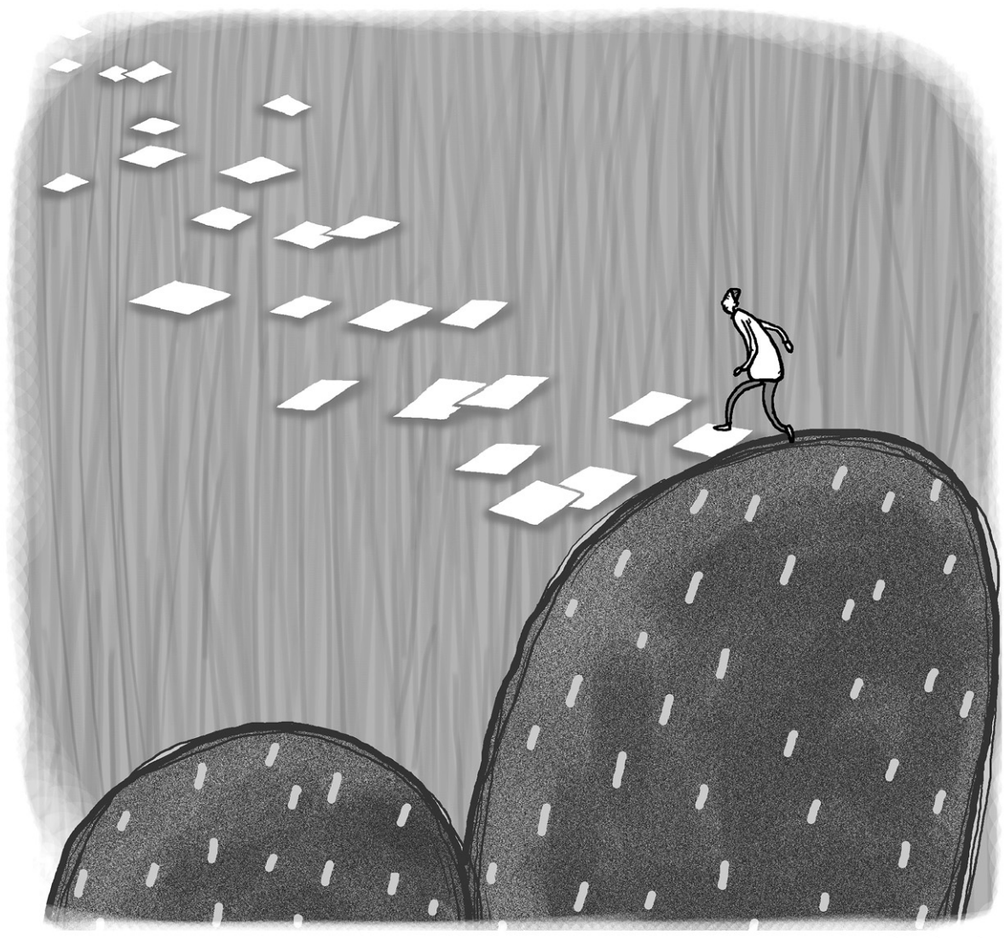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염화미소의 공안에 대해서

문) 『법화경』에 보면 "백만 대중이 부처님께서 전법의 설법을 하신다고 하니 손에 식은 땀을 쥐고 눈만 반짝거리고 숨 하나 쉬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부처님은 대범천왕이

☞ A30면으로 계속

2013

2013(불기 2557)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2년	불교입문, 부처님생애 대승불교, 불전개설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8:30 ~ 19:50 · 2교시 : 20:10 ~ 21:30	· 입학원서1부 (5,000원) · 반명함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20만원 (1년 10만원씩)
	2학년		천태불교학 중국불교, 법화경 Ⅰ · Ⅱ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선사상, 유식사상천수경, 정토사상 화엄경, 포교방법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 18:00 ~ 19:20 · 2교시 : 19:30 ~ 20:50 · 3교시 : 21:00 ~ 22:20	· 지원서 1부 · 반명함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25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 접수 : 2012년 11월 19일(월) ~ 2013년 2월 15일(금) 18시까지 • 면접 : 2013년 2월 16일(토) 오후 16시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576.6401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 관문사에서 하차)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일 산 화성사 : 031.905.2912		군 포 상락사 : 031.392.0924			

서 울 金 剛 佛 敎 大 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佛紀 2557年 癸巳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본사 금산사 포교당

전북불교회관 · 보현사

화엄불교대학 · 부설 룸비니 어린이집

원감 보연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6-5
☎ 063)277-3497 / Fax 063)275-0108 http://www.jbbulgyo.org/

법회안내

□ 일요가족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신도신행연합법회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7시
□ 청년회 법회 - 매월 2 · 4주 수요일 오후 7시
□ 화엄불교대학 -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7시
학림원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불련 연합법회 - 매월 1 · 3주 금요일 오후 7시
□ 운전자 불자 연합회 - 매월 2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 합창단 법회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 어린이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눈 뜨고 푹 잔다면 그것이 진짜로 죽는 것이다

☞ A29면에서 계속

드린 꽃가지를 들고 법단에 오르시자마자 그 꽃가지를 번쩍 들어서 대중에게 보일 뿐, 일언반구의 말 한마디가 없었다. 이때 백만 대중은 그것이 무슨 영문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중 단 한 사람 마하가섭이 그 이치를 알았다는 표정으로 빙긋이 웃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염화미소의 공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꽃 한 송이로 마음을 전한 이치를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한데 좀더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답) 백만 대중이라고 했습니다. 백만 대중 하면은 벌써 그건 꽃 한 송이로 표현이 됩니다. 백이라는 숫자도 없고, 만이라는 숫자도 없습니다. 대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포괄된 하나에서 중점을 두고 말한 것이 평상심입니다. 이 평상심에 그 모두를 한꺼번에 든 자체의 꽃 한 송이는 꽃으로 보아서는 안 되죠. 그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그 전체적인 포괄된 하나의 꽃을 드는 순간, 벌써 꽃은 들기 이전의 평상심이지요. 그렇다면 평상심에 전체적인 것 하나를 이렇게 내보일 때, 벌써 가섭 존자는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인 하나를 또 웃음으로서 들었습니다. 그랬을 땐 이게 어디 전체가 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님과 가섭 존자 두 마음만 같이 혼합이 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혼합입니다.

여러분도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 든 이유와 또 가섭 존자가 씽긋이 웃은 이유를 소리를 들어서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귀로 들었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 하기 이전에 우리가 '아! 그랬다더라. 그것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렇게만 그저 귓가에서 들어서 넘기고 말곤 이렇게 하죠, 모두가. 그런데 부처님이 그 꽃 한 송이 들 때, 그 꽃 한 송이에 어떠한 것이 거기 포함돼서 그게 방편으로서 꽃 한 송이가 번쩍 들렸을까요? 그 꽃 한 송이에 꽃 한 송이 있는 게 아니라 꽃을 들었다는 데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이 아니라 웃었다는 그 가섭 존자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가섭 존자와 부처님과 그 꽃 들은 거하고 말이에요, 도대체 그 꽃도 없고 웃은 것도 없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도리를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항상 그거를 내가 얘기해 드려도 여러분이 이론으로 듣는다면 이론일 것이고, 누구나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게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전체가 이해가 안돼요. 없다고 해도 이해가 안되고, 있다고 해도 이해가 안되고, 웃었다 해도 이해가 안되고, 꽃을 들었다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즉 말하자면 한자리! 하나를 번쩍 쳐들 때는 벌써 주고받는 사이 없이 가섭 존자가 법을 이어받았다. 한자리를 말하고 공심을 말한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공심, 공용, 공체, 공식. 이것을 항상 얘기하죠. 그럭하는 데에 그 묘심, 정법안장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여러분이 정법이라고 하는 거 다르고, 그분이 정법이라고 하는 그 말이 다른 거예요. 왜 그게 다른 거냐. 깨닫지 못하고 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로 떨어지는 거고, 그분이 정법이라고 한 것은 말없이 꽃 한 송이 든 게 바로 그게 정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무슨 공심이니 공용이니 공체니 이런 것이 귀합된 하나의 근본을 가지고서 한번 근본을, 즉 말하자면 꽃 한 송이로 비유해서 탁 들었을 때는 우주 전체가 다 들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앉아서, 몸이 다녀서 전부 가정이나 또 사회, 국가, 세계,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무루의 법, 유루의 법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저 숱한 별들이 모두가 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깨달아서 둘이 아니라고 할 때, 그 모두가 돌 하나도 나 아님이 없을 때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묘심이 되면 묘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얘긴데, 어마어마한 작용인데도 우리는 그걸 느끼질 못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듣고 넘어가요, 그냥. 그 실감이 안 나니까.

소인은 죽 끓고 밥 끓는 거 쫓아다니면서 그거 냄새나 맡지만 대인은 그런 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 뜻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즉 말하자면은 무루에,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과 그 공심의 묘용이 다 나인 거예요. 나라고 했다고 해서 나 하나만을 지금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모두가 그렇게 지금 물질로만이, 유위법으로만 사니깐 그렇지 무루와 유루가 한데 합쳐져서 나 아님이 없을 때에 그 힘을 어떠한 환경에 따라서, 이러한 환경이라면 이런 데 쓰이고 저런 데 환경이라면 저렇게 쓰고, 이걸 맘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묘용이 바로 능히 여여하게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부처님께서 말없이 해 놓으신 그 말씀이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나 이 뜻을 모르고는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좋은 말을 말없이 좋게 꽃 한 송이를 들어서 우주 전체 삼천대천세계를 싸고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없이 들었건만 이 도리를 모른다면 우리가 밥 한 그릇 이렇게 주워 먹는 것만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밥 먹고 똥 싸고 잠자고, 이것이 바로 그 꽃 한 송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날까지도 부처님의 말씀을 역을 해서 수만 경을 설해 놓았습니다만 그 뜻을 알고 지내는 사람이 몇몇이나 되었겠습니까. 그 뒤로 수백의 선사들이 났고 그 밑으로 참 많은 또 큰스님네들이 났습니다. 그렇지마는 진짜 우리가 그 꽃 한 송이의 뜻을 알고 지내느냐 못 지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에 의해서 좇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든다면, 바로 우리는 그 부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뜻을 아마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량으로 알려고 앨 쓰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 체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 탓이에요.
> 이 세상에 자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봤고
> 자기가 거기 갔기 때문에 들었고
>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되고
>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게 상황이 있는 거예요.
> 그러니 모든 게 그저 내 탓입니다.
> 그 내 탓이라는 한마디의 뜻이 눈 뜨고 자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포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문) 요즘 세상은 인정이 참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돈이라면 가족끼리도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이 되고 학교 폭력 등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성도 참으로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다 우리 어른들이 문제가 참 많다고 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변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부모 밑에서 올바르게 길러지는 자식들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걷는데, 궤도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른이나 애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자석처럼 붙어 돌아가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어머니라는 인정, 그게 자석입니다, 자석. 그래서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기네 가정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인간이라는 자석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이 벌써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른이라도 철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철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자기 중심을 잃고 사는 사람들, 즉 말하자면 패배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난 살아야겠어.' 하고선 잘되고 잘못된 걸 번연히 알면서도 저지릅니다. 자기가 배고프니까 저지릅니다. 무댓방 저지릅니다. 죽입니다. 또 착취합니다. 이렇게 하는 여러 우리 삶에 대한, 이 국내에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지금 각국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싸우고 이 야단들을 하죠.

오신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이 오신통이라는 자체는 내가 자성을 깨달아서 주인이 돼 가지고 내가 오신통을 부려야지 만약에 내가 내 안의 자성을 찾지 않고 바깥으로만 만날 신을 찾아 돌아다니고, 학문으로만 아는 양하고, 그렇게 집이 빈 사람들은 항상 끄달리게 돼 있어요. 항상 끄달리니까 이거는 바깥에서 들어와도 들어오는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유법으로나 무법으로나, 하여튼 그냥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나 보이는 생명들이나 모든 것에 끄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끄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내 몸을 가눠 가면서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회를 국가를 세계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습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주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모두들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서만 굴리고 내 안에서 배신하지 말고 자기 주인공을 믿고, 패기 있게, 물러서지 않고, 모든 만법이 일심에서 나고 만법이 일심으로 드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는 아주 난 모른다. 나는 뭐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이시여! 아무개 신이시여! 용신이시여! 관세음 신이시여! 무슨 부처신이시여!' 이렇게 이 신 저 신 찾다 보니까 이 신 저 신, 내 신도 잊어버리거든요. 아니, 이 신 저 신 찾다 보니까 내 신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 신을 근중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내 몸뚱이를 이끌고 가는 내 신을 말입니다. 자신을. 자성신을.

여러분 앞에 창살이 없는 것 같습니까. 창살이 있고 문지방이 높고 천야만야한 산봉우리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기가 막힐 때가 있고 불이 일어날 때가 있고 건너가지 못할 때가 있고. 이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억겁 전서부터 나오면서 노비 문서를 짊어지고 말입니다, 여기서 그냥 저 달나라 가게만큼 그냥 차근차근히 쟁여서는 무겁게 짊어지곤, 그 습을 한 번도 떼어 놓지 않고, 그래도 자기 노비 문서가 제일이라고 하죠. 자기라는데요, 뭐. 그걸 짊어지고도 무거운 체도 안 하고 그게 좋다고 웃으니 말입니다. 그게 사는 거래요. 아, 왜 그렇게 자유권을 갖고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고, 하나하나 끄달리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모든 게 이 한 점의 마음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애들이 음식을 너무 함부로 버려요

문) 저의 조카들을 제가 보살피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 음식을 함부로 버리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잘 타일러 주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 그거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음식을 내버리고 그렇게 할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을 마저 먹어서 그 애가 탈이라도 생기면 더 손해가 날 거에요, 아마. 그런 거 한 가지가 있고, 음식을 내버린 걸 주워서 또 더 맛있게 해 줄 수도 있어요. 더 맛있게 해 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지혜지만 우리 옛날에는 음식이 다 다시 만들어도 될 수 있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내버린 거를 주워서 다시 이렇게 밥도 남은 찌끄러기 내버리는 거 다시 저거 해서 그거를 아주 맛있게 나물 넣고 그렇게 해서 주면 그거 그런 줄 모르고 맛있게 먹거든요. 여러 가지예요, 그게. 그거 그렇더라도 마음이 훌떡 올라와서 화가 난다거나 이래서도 안 되죠.

'그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네들을 그렇게 나와 같이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애들이니까 애들 세계로 들어가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화가 안 날 테니까요. 그렇게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계속 마음을 내다 보면 그 애들도 바뀔 테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921 호





새 아침을 열며

가장 행복한 때



윤후명
소설가, 국민대 문창대학원 겸임교수

한 해를 보내며 영종도의 도서관이 마련한 송년행사에 가서 시와 동화를 읽었다. 지난 한 해는 시집 두 권과 소설집을 내고 첫 그림 전시회까지 열었으니, 생애에서도 바쁘게 보낸 날들로 기록되었고, 그 마무리 행사가 되는 셈이었다. 흔히 그렇듯이 뒷부분에 질문 시간이 되자 누군가 내게 물었다.

"선생님은 가장 행복을 느낀 때가 언제인가요?"

돌이켜보면 지난 인생에서 실로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갖가지 일들을 겪어왔다. 특히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란 말로서는 도저히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음이다. 식민의 굴레가 끝나고 전쟁이 덮쳤으며 혁명이 있었다. 보릿고개 같은 이상한 낱말이 있었던 어려운 나날, 실낱같은 목숨을 하루하루 이어온 세상살이였다.

가장 행복을 느낀 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울컥 하고 가슴을 치고 올라오는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자자분한 많은 기쁨들이 있었다. 그만큼의 슬픔들도 있었다. 용기의 나날, 좌절의 나날이 있었다. 그러는 동안 이렇게 나이도 들게 되었다. '가장'이라는 말이 지난 세월을 통틀어 아우른다고 할 때, 실로 어렵게 어렵게 오늘까지 지켜온 삶이 큰 느낌으로 고맙게 밀려오는 한가운데 나는 서 있었다. 그와 함께 나는 20대의 젊은 어느 날, 나 스스로에게 던졌던 숙제를 기억하고 있었다.

늙어서도 젊어 있는 삶.

나이 들어서도 젊은날처럼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각오였다. 우리 사회는 여러 방면에서 일찌감치 현역을 그만두는 풍조가 두드러진다고 생각되었다. 특히 글을 쓰는 작가들이 오래 오래 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다. 그러니까 '늙어서도 젊어 있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한 외국 작가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글을 썼다고 알려져 있었다. 조그만 성공에 만족하고 글을 멀리하는 작가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나는 어서 빨리 나이 먹어 늙기를 바랐다. 그래야 나는 '늙어서도 젊어 있는' 나를 볼 수 있을 것이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천하는 나를 보여줄 것이었다. 나이 먹지 않고서는 증명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오랜 세월을 보내며 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 혹시나 세월에 풍화되어 사라지면 어쩌나, 나이듦이란 모든 것을 흐지부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는 투로 흐리게 하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기만을 바랐다.

오랜 세월이 흘렀다. 말했다시피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다. 하루 하루 끼니를 이어가기에도 허덕이던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지상명제였다. 그동안 안타깝게 이승을 버린 동료도 몇이 되었다. 그런 한 해 한 해를 살아넘긴 것이 기적 같은 때도 있었다. 나는 한 해를 보내는 시를 적는다.

지나온 한 해가 거울 속에 묻혀 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내 얼굴,
사랑을 기대한다.
있는 그대로 없는 그대로
곧이곧대로 보여주는 힘인 사랑을.
거울을 들여다보는 내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그때마다 더 깊게 파이고
새로운 날 숨가쁘게 기다리게 했으니
이제 기쁨과 슬픔 함께 버무려
거울 속 침묵의 창고에 간직하련다.
가거라, 모든 망령이여
먼 뒷날 비록 다시 모습을 드러내
거울 속에서 절규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없는 그대로
곧이곧대로의 사랑의 힘으로
이 땅에 옳음과 그름을 살피기 위하여
곧이곧대로의 사랑의 힘님께
길을 비켜라.
헌날을 데리고 서산을 넘어가
멀리 멀리 사라져가거라.
있는 것을 있게 하고 없는 것을 없게 하는
사랑을 위하여.

이제 나는 나이 들어서 '있는 것을 있게 하고 없는 것을 없게 하는' 꾸밈없는 인생 앞에 서 있음을 노래하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기다려온 때가 바로 지금임을 확인할 차례인 것이다. 젊어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이 마음이야말로 인생의 승리라고도 여긴다.

"가장 행복한 때는 지금입니다."

나는 기쁘게 말했다. 왜 그런지는 앞의 이야기를 곁들였다. 그렇게 기다려온 때가 마침내 다가왔고, 바라던 대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20대부터의 숙제를 푸는 작업이라고 나는 말했다. 그리하여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막상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고 나니 새삼스러운 감격이 밀려왔다.

플라톤은 〈대화편〉에서 젊은이들에게 너희도 결국 늙는다고 가르친다. 이 평범한 가르침을 위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래 나는 더욱 '늙도록 젊어 있는 삶'을 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나는 새날을 맞이한다. 굳이 1년 단위로 시간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마야달력의 종말론도 별일 없이 지나갔고, 무엇보다 뜨거웠던 대선도 결말이 난 다음의 지금은 예년과는 다른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믿는다.

새롭게 나 자신을 가다듬고, 나라 역시 새로운 역사 앞에 '곧이곧대로의 사랑의 힘님'을 맞이하는 새해가 오고 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다. 언제까지 내게 이 행복한 나날이 허락될지 알 수는 없어도, 이 고마운 나라에 태어나 살고 있음을 나는 증명하려 한다.

윤후명 소설가는 … 1946년 강원도 강릉에서 출생. 연세대학교 철학과 졸업. 196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 197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저서로 시집 〈명궁〉 〈홀로 상처 위에 등불을 켜다〉 〈쇠물닭의 책〉, 소설집 〈둔황의 사랑〉 〈협궤열차〉 〈여우 사냥〉 〈가장 멀리 있는 나〉〈모든 별들은 음악소리를 낸다〉 〈삼국유사 읽는 호텔〉 〈새의 말을 듣다〉 〈꽃의 말을 듣다〉, 산문집 〈꽃〉 〈나에게 꽃을 다오 시간이 흘린 눈물을 다오〉 등 다수

터

손현숙

침묵할 때 들리는 소리가 있다
토함산 동쪽 능선이 끌나는 기슭
절은 없고 터만 남아 잡초 우거졌다
기억의 뼈를 모아 쌓은 탑
공손하게 합장한 듯
천수다라니를 독경하고 있다
없는 사람, 없는 종소리,
없는 목어를 깨운다
햇살이 탑 주위를 돌고 돌아
도는 시간에
누구들 속수무책 아니랴
천년을 흘러도 흐르지 못한 것들
어떤 손길이 밤낮 정을 쪼아
몸돌에 새긴 시방,
시방을 살피는 눈 부릅뜬 인왕상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킨다

손현숙 시인은…
1999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너를 훔친다〉, 산문집 〈시인박물관〉 등

社說

새해에는 '행복지수'를 높이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구랍 27일 발표한 SQ(자아행복지수) 테스트 결과 자신의 일상에 행복감을 느끼는 국민은 5%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약 3개월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10주년을 기념해 자체 개발한 SQ(자아행복지수)에 참여한 10대~60대 국민 5,011명의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국민 대다수인 85%는 열심히는 살고 있으나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해 정작 자신의 행복감 충족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자칫 우울증이나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 받은 응답자도 1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중을 떠난 종교는 있을 수 없다. 국민들이 힘들어 할 때 등을 두드려 주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 종교 본연의 역할이다. 그래서 종교계, 아니 우리 한국 불교계의 어깨는 그 어느때보다도 무겁다. 우선 새해 불교계는 국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건강한 포교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 보급해야 할 것이다. 행복은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것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다양한 마음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된다면 종교를 초월해 무력감과 우울증에 빠진 국민들이 언제든지 체험하며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양한 불교 멘토들을 키우는 것도 한국 불교계의 또다른 신년 과제다.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이 불교 멘토들의 감로법문이나 상담을 통해 용기를 찾고 위안이 된다면 이또한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큰 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본다.

자 이제 계사년 새 아침이 밝았다. 올해는 우리 불교계의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들을 통해 불자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 전체가 모두 행복하길 새해 벽두에 간절히 발원해 본다.

마음산업 대중화는 포교 지름길

지난해 한국 사회에 불었던 '힐링 열풍'은 각박한 마음을 치유받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힐링 열풍'에 대한 관심은 마음 산업의 수요로 이어졌다. 특히 뇌과학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전문 서적부터 멘토 스님들의 치유 에세이까지 마음치유에 대한 출판물은 특수를 누렸다.

외국인 명상 전문가들도 지난해 하반기 대거 방한했고, 올해에도 틱낫한 스님 등이 한국을 찾는다. 이런 현상은 불교계 내부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조계사와 통도사에는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이 설립됐고, '명상과 행복, 뇌과학을 넘어서', '실전 호흡수행' 등 마음 관련 강좌들이 불교대학 내 신설되기도 했다.

하루가 다르게 팽창하는 마음관련 산업에서 불교계의 역할과 나아갈 길은 가히 무궁무진하다. 불교는 마음 수행의 종가이자 다양한 수행법과 역사를 갖고 있는 콘텐츠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교의 마음산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그 사이 서구 마음산업과는 격차가 벌어져 비싼 돈을 주고 역수입하게 됐고, 유사 명상 단체들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참선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단월드의 경우 1985년 전신인 단학선원을 개원한 이래 1991년 미국에 진출했고 현재는 200만 명의 수련자를 보유하고 있다.

불교가 마음수행, 명상의 '종가(宗家)'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한국불교도 유구한 수행 체계가 어떻게 현대화·대중화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불교적 마음산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부터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분명 '마음산업'은 시대적 트렌드이다. 더 이상 서구 프로그램을 역수입할 것이 아니라 한국불교만의 마음사업을 개발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佛紀 2557年 癸巳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부지런히 일하고, 자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자지 않는 사람이 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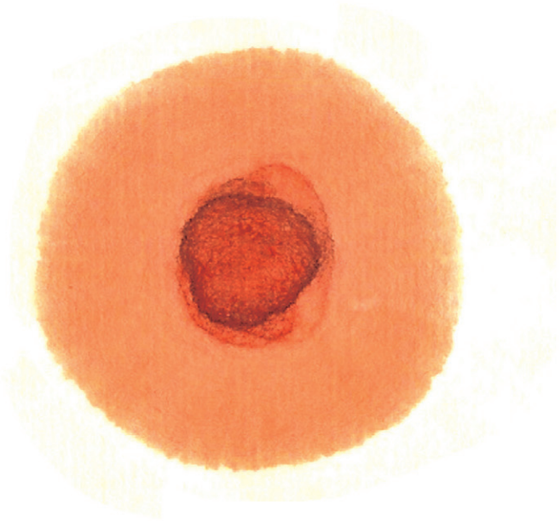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사)지구촌공생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복지법인 나눔의 집
위 단체는 영화사에서 후원합니다
회주 송월주 스님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9번지
TEL 02)444-4321, 7215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
大本山 藥師寺
(약사 추모관 운영中)
회주 화담
주지 화응
부주지 대휴
신도일동
財團法人 華嚴僧伽奬學財團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奬學會
이사장 한상호(화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 21
☎ 032)422-2066
서울사무소 소장 양위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412호
전화 02)730-0798 / 전송 730-0799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산 불암사
주지 일관
총무 법종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불암산로 190
TEL 031)527-8345
www.bulamsa.comm

대한불교조계종
내원정사
주지 도가
사부대중 일동
■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88번지
TEL 02)814-5502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법주 대종사 무진장
이사장 이상우
동산가족일동
www.dongsanbud.net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2013년 새해

일체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듣고 보고 행하는 그 모든 것 부처님 법 아님 없어
내 한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며 생활일세

-대행선사법어-

주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본원 www.hanmaum.org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el)031-470-3100 (Fax)031-470-3116

국내·국외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04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113-3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449번지
  TEL(054)555-8871 FAX(054)556-1989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1-718)460-2019 FAX:(1-718)939-3974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FAX:(1-323)766-1316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그림. 전정구



그림 · 박구원

'마음산업' 宗家는 불교… 역수입, 바라만 볼 것인가

불교 마음산업 어디까지 왔나

한국 사회에서 '치유'라는 단어는 이제 낯설지 않다. 지난해 한국 사회를 이끌었던 '힐링' 트렌드가 확고히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미 2000년대 초 '웰빙' 열풍을 타고 뿌리를 내린 요가, 명상 산업들은 본격적인 대중화 · 상품화 시대에 들어섰다.

서구에서 먼저 시작된 마음산업

전문가들은 "명상을 단순히 트렌드로만 여기는 것은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말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마음산업이 거대 시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명상은 수련 중심의 소수 동호회 차원을 넘어 음악, 서적, 부대상품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산업 단계로 성장했다.

실제 명상을 필두로 한 미국 내 마음산업 규모는 60억 달러(한화 8조원)에 이르며 매년 10%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1980~90년대 일본 불교의 '젠(ZEN)' 열풍이 불면서 마음 산업의 기틀이 마련됐다. 이 같은 현상은 체계적인 매뉴얼화가 되면서 자기 계발(self-improvement) 프로그램으로 보편화됐다.

최근에는 불교적 명상 수행법이 급속히 대중화되고 있으며, 1000만명 가량의 미국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기적인 명상을 수행하고 있다. 콜로라도 로키 산맥에 위치한 티베트 불교 명상 수행기관인 '삼발라 센터'는 매년 1만 명이상이 수행을 위해 찾고 있다. 캘리포니아 칼라바사스의 명상센터 '더 아쉬람'의 경우 1주일 참가비가 3500달러(한화 370만원)나 되지만 6개월까지 예약이 완료돼 있다.

마음산업은 무엇인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마음산업이지만 정확한 규모와 정의는 내려있지는 않다. 다만 한국에서는 몇몇 트렌드 전문가들이 마음산업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정진홍 씨는 본인의 저서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에서 마음산업(mind industry)을 제5산업으로 본다. 그는 마음산업을 "하이테크를 넘어선 하이터치의 산업이자 고감성,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라고 평가하며 "시장의 감성화가 시작되면서 마음산업도 엄청난 규모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학자 패트리셔 애버딘은 저서 〈메가트렌드 2010〉에서 창조의 구성요소인 깨달음이 정신적 재능을 인도할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한 명의 깨어있는 개인이 10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일으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시대"라고 설명했다. 이는 불교적 영감으로 아이팟, 아이폰을 내놓은 故 스티브 잡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마음산업을 자본주의 산업 전반에 적용시키고 있다. 이는 마음산업이 가지는 파급력과 범용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요익중생, 마음산업이 가야할 길

불교적 마음산업의 정의는 (사)수행도량 싸띠아라마를 이끌고 있는 붇다빠라 스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

붇다빠라 스님이 제시하는 마음산업의 정의는 매우 구체적이다. 스님은 지난해 열린 '마음산업에 길을 묻다' 강연에서 "현대인은 스트레스, 욕망, 분노, 교육, 경영, 스포츠, 예술, 의료 분야 등에서 마음의 관리, 뇌와 마음의 휴식 등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며 "마음산업이란 한 마디로 마음을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구 중심으로 '마음산업' 형성

미국 시장 규모만 8조원 달해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

현재 불교 수행기관 15곳 성황

프로그램 개발은 포교의 지름길

이어 "마음산업은 불교수행자가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마음작동 이론인 마음과학과 마음작용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술인 마음공학을 활용해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라며 "불교수행자는 수행의 구체적인 영역인 마음작동 원리를 수행과 깨달음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마음관리에 관한 정보를 인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사와 통도사에서 설립한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은 불교적 마음산업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들 기관들은 △마인드케어지도사과정 △명상체조교실 △대학생 리더십 캠프 △청소년겨울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가민간자격증인 마인드케어 지도사 과정을 통해 마음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기업체, 학교, 군부대 등에 전문강사로 진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불교교리, 심리 · 뇌과학과 접목 필요

이밖에도 현재 불교의 '마음 수행'을 특화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한마음과학원, 제따나와선원, 동사섭행복마을, 정토회 등 대략 15곳 남짓. 그만큼 불교의 수행을 현대인에 맞게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하기 위한 저변이 넓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다 보니 불교가 마음수행의 종가(宗家)이면서도 이제 서구 전문가들의 프로그램을 비싼 돈을 주고 역수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적지 않는 불교계 전문가와 스님들이 마음산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교계에는 마음산업이 아직 깊게 뿌리 내리지 않았지만, 부처님 말씀을 현대화 · 대중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사섭행복마을 이사장 스님은 "마음산업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한창 유행하고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마음산업이라고 규정했을 때 한국불교는 걸음마 수준도 안된다. 템플스테이 정도를 마음산업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불교 안에 무궁무진한 콘텐츠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빠사나 전문가인 전현수 정신과 전문의는 불교가 가진 종교적 지혜를 보편적 지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교계 마음 산업이 현대인의 복잡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며 "마음 콘텐츠에 대한 모든 자원은 불교 안에 있다. 불교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현갑 마인드플러스 스트레스대처 연구소장 역시 "불교문화가 전무한 서양이 불교의 명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고통을 없애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하는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최근에는 뇌와의 상관성이 연구되며 점차 과학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뇌과학은 매우 어렵고 방대한 학문이지만, 마음수행이 근간인 불교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불교계 전문 연구기관과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불교적 마음산업의 필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불교의 참선 수행 등을 보편화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태호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 기획이사는 "마음산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사람들이 간단히 쓸 수 있는지,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산업과 불교포교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라며 "불교와 수행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데 있다. 마음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불교교단과 수행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佛紀 2557年 癸巳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집 행 부

증명대법사
능인 혜암 (한국불교태고종 대화상)
성해 (조계종선학원 前 중앙선원장)
혜천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법열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벽운 (현대불교조계종 종정)

상임고문 **진표** (신선불교조계종 종정)

고 문
대광 (대한불교해탈종 종정)
현광 (대한불교달마선종 종정)
도성 (진언불교 종정)
덕천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혜산 (대한불교가야조계종 종정)
청광 (달마선원예술문화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청해 (대한불교위앙종 종정)
보인 (대한불교신인종 종정)
법일 (대원불교유심종 이사장)
학봉 (한국불교조동선종 이사장)
일오 (정토불교조계종 종정)

자문위원
담월 (한국불교태고종 원로)
보안 (대한불교조계종 대덕)

감사원장 **도일** (한국불교조계종 감사)
총 재 **각성**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행)
부 총 재 **성범** (대승불교조계종 종정)
회 장 **무산** (한국불교조계종 상임이사)
부 회 장 **운산** (한국불교조계종 이사)

전국지부종단관리위원장 **무공** (대한불교승가회 이사장)
전국지부종단관리부위원장 **지법** (대한불교반야종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보각** (세계불교대각종 종정)
대외협력위원장 **해정** (한국불교조계종 종회의원)
법계고시위원장 **영월** (진묵대사유적진흥회 이사장)
조직총괄위원장 **성철** (국제불교조계종 이사장)
복지재단위원장 **지현** (해동불교호국조계종 종정)
재정기획총괄본부장 **도현** (세계불교평화연맹유지재단 이사장)
비구니진흥원인권위원장 **법운** (조계종선학원 원장)
특임원장 **활안** (금강불교조계종 종정)
종단관리본부장 **대봉** (한국불교조계종 종책원장)
영산대제보존회회장 **지암** (대한불교천우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대명** (선종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호계행정위원장 **금당** (대한불교신조계종 총무원장)
비구니진흥회감사원장 **관행** (대한불교관음성종 총무원장)
자연치유대체연구원 **도연** (한국불교조계종 비구니진흥원위원)
간 사 **법현** (한국불교조계종 이사)
전사련불교용품사업단 **김부겸** (전사련문화사업부 단장)
직능전문위원회 **백운생** (천안목재 사장)
법사회 단장 **해동** (법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복지재단위원회

위 원 장 **법운** (조계종선학원 회주)
부위원장 **동진**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위 원 **청해** (대불교조계종 종정)

전문직능위원회

위 원 장 **장수** ((재)고려대장경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위 원
무허 (대한불교유마종 총무원장) **태인** (한국고건축예술문화진흥원 원장)
설송 (대한불교조계미륵선종 총무원장) **광식** (한국범종연구진흥원 원장)
정규진 (한국불교미술원보응문도회 원장) **송창일** (한국불교청동불상예술연구원 원장)
백운생 (한국고건축진흥원예술문화재단 이사장)

전국증명대법사단

미 얀 마 **우꾸라마** (미얀마원로회 종정)
미 얀 마 **아신판디타비밤신** (미얀마원로회 원로위원)
스리랑카 **붓가락끼타** (아스기리아종 종정)
중 국 **명승** (광저우광요사 방장)
대 만 **요중** (세계불교승가회 회장)
태 국 **파,다라커사라** (추라롱콘불교대학 교장)
캄보디아 **불거리** (캄보디아왕사 승왕)

원 로 회

원로원장 **정암** (한국불교조계종 종정)

원 로
일공 (대민불교조계종 종정) **혜안**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월정 (한국불교조계종종단연합회중앙본부 종정) **운장** (한국생활불교보림종 종정)
명조 (대한선불종 종정) **의성** (대한불교의성종 종정)
태성 (대한불교태선종연합 종정) **동산**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혜철 (한국불교원각종 종정) **청암** (월드불교법왕청 종정)
동원 (대한불교연화종 종정) **청원**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법천 (법천불교종단연합회 회장) **법민** (한국불교원효종 종정)
만청 (대한불교대각종 종정) **월산** (미타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임제불교조계종 종정) **도운** (한국불교법인선원덕선사 이사장)
혜승 (세계불교평화연맹 이사장) **정안** (한국불교환인종 종정)
일월 (세계불교만불종 종정) **법천** (한국법화종 종정)

비구니진흥회

위 원 장 **법운** (대한불교조계종선학원 원장)
부위원장 **월단** (용화세계미륵종 종정)
위 원
법성 (한국불교동방조계종 총무원장) **일경** (대한불교비구니진흥회 이사장)
연화 (대한불교금강여래종 총무원장) **서광** (한국전통불교천부종 총무원장)
재연 (목멱사랑회 원장 **뮤린** (무궁화어머니재단 회장)
해동 (법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태산** (세계평화재단법왕청 이사장)
관행 (대한불교관음성종 총무원장)

자 문 위 원 회

자 문 위 원 장 **일강** (대한신불천우종 종정)
자문부위원장 **지암** (대한불교조계선종 이사장)
자 문 위 원
불광 (한국불교약불조계종 종정) **아산** (한국불교천신종 종정)
진산 (전통사찰조계종 종정 **송월** (한국종교무교천왕종 종정)
대광 (대한불교해탈종문화재단 종정) **아산** (한국불교환인종 종정)
금란 (한국도교수성궁 도장) **태대** (환단도 이사장)
태일 (세계불교달마조계종 종정) **무량수** (대한불교호국조계종 종정)
환인 (국제대성황문화재단 이사장) **혜륜**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종정)
대명 (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법** (대한불교가야법사종 종정)
지암 (대한불교법운종 종정) **황봉** (대한불교연지조계종 종정)
법성 (천지불교태극종 종정 **혜산** (대한불교조계종국제승가총연맹 종정)
철산 (대한불교용산조계종 종정) **진묘** (중생불교조계종동지복지문화재단 종정)

특 별 위 원 회

특 별 위 원
지광 (법행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정암** (환국불교조계종 종정)
청송 (우리불교우리절미륵사 총무원장) **혜인**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총무원장)
대봉 (대한불교대선종 총무원장) **월광** (백산소도삼신문화재단중앙본부 이사장)
원당 (대한불교구생종 총무원장) **법천**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현각 (대한불교승정원 총무원장) **성도** (금산문화재단 이사장)
무허 (대한불교유마종 총무원장) **범행** (세계불교세심종 총무원장)
부건 (대한불교대각조계종 총무원장) **만봉** (한국전통불교천불종 총무원장)
혜담 (대한불교여래종 종정) **장원** (대한불교일월조계종 총무원장)
이지영 (동방선도총본산 도령) **도주** (용화사월대도 도주)
해원 (해동불교금강종 총무원장) **성철** (한국불교종단체협의회 회장)
대도 (한국도교삼청관문화재단 도장) **보각** (세계불교승가회 한국본부)
불광 (대한불교본조계종 총무원장) **해봉** (대한불교통합조계종 총무원장)
진공 (한국불교금강종 총무원장) **영암** (한국불교화엄지장종 총무원장)
대각 (석가불교조계종 종정) **청산** (대한호국무불천지종 종정)
금강 (유신불교조계종 종정) **법안** (환국신앙천신교 종정)

■ (사)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파빌리온 412호 전화 02)2198-5022-4 팩스 02)2198-5025 이메일 jonggyo119@hanmail.net

현대인 눈높이 맞춘 마음 수행법 개발 시급

국내 마음산업은 걸음마 단계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늘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다. 부처님의 출가 역시 이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서 시작됐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 치유의 시조이자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 중심에 마음산업이 있다.



그림 · 강병호

국내에서도 명상상담연구원 상좌불교한국명상원 위빠사나나붓다선원 조계사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 등 현대인들의 찌그러진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다양한 수련기관들이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위빠사나 명상을 기반으로 한 것이 다수며 심리치료와 연계해 마음치유에 접근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지치고 상처 입은 마음을 다스려 행복한 삶을 찾아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종교를 초월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기존 간화선 수행법을 고수해왔던 한국 불교에 위빠사나 명상이 들어오면서 현대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체질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위빠사나 전문가 김열권 법사는 "현대인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 해결책으로 서양에서 프로그램화된 위빠사나 명상이 한국으로 들어와 널리 퍼지고 있다. 이는 간화선에 비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교를 초월해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과전문의 전현수 원장은 세상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마음치유라고 말한다. 그는 "불교의 명상 채식 묵언 생활방식 등이 현대인들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해지고 있다. 마음치유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살피고 다스리는 동시에 세상의 이치를 알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는 세상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며 마음치유의 의미를 전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마음산업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계사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은 마음산업 활성화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마인드케어지도자과정 까야싸띠교실(명상체조) 마음건강힐링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용타 스님이 운영하고 있는 경남 함양의 행복마을은 1980년 동사섭 마음수행을 시작한 이래 지난 33년 동안 2만 여 명이 다녀갔다. 이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자아관을 정립하고 △원대한 이상을 품으며 △마음을 잘 다루고 △마음을 나누고 △역할을 잘 한다는 5가지 원리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5박 6일의 수련 기간 동안 연찬 토론 학습 등을 수행한다.

위빠사나 수행에 기반한 마음챙김 프로그램 다양

서양 대비 확산속도 느려 인재 · 프로그램 개발 필요

상좌불교한국명상원 역시 위빠사나 명상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있는 마음보기-일어난 마음보기-하려는 마음보기-아는 마음보기 등의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하고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제따와나 선원의 '팔정도 집중수행'은 4단계 4개월 코스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생활 속의 알아차림-생각 멈추기 △붓다의 호흡명상과 걷기명상-마음 보호하기 △자애명상과 붓다에 대한 명상-성냄 버리기 △부정관과 죽음에 대한 명상-탐욕 버리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토수련원의 '깨달음의 장'은 매주 4박 5일 과정으로 열리고 있다. 이는 이후 나눔의 장, 백일 출가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며 마음을 관찰하고 치유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안내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한 매월 열리고 있는 명상수련은 감각과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제공하고 있다.

활인선원 수행 프로그램도 인기다. 선회는 3일 동안 법문과 참선을 통해 참나를 찾는 프로그램으로 지친 현대인들의 심신을 깨워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삼매체험 참선 · 단식 등으로 짜여진 수련회 및 단기출가, 행복 참선학교 등도 호응을 얻고 있다.

상도선원의 '마음수행학교'도 연기 중도를 통해 마음 수행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다. 집중강의와 연기맵 그리기, 과제를 통한 마음수행 코칭 등을 통해 마음공부를 진행한다.

생활속 참선을 표방하는 한마음선원은 故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해 대중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마음과학원의 공생실천과정은 매년 상 · 하반기 진행되고 있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이다. 믿고 맡기기-지켜보기-중간점검-참구하기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탐구 더 나아가 마음비움으로 자성을 밝혀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하지만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마음산업은 걸음마 단계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국내 마음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한다.

상좌불교한국명상원 묘원 법사는 "미래는 신앙의 시대에서 명상의 시대로 옮겨갈 것이다. 명상수행은 마음의 개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동양이 전체적인 것을 보고 있을 때 서양은 위빠사나를 프로그램화 하는데 성공해 대중화시켰다. 우리 불교도 현대인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김정호 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서양의 성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응용하는 자세를 갖는 게 좋다. 다이아몬드 원광석을 손가락에 그대로 두르지는 않는다. 다이아몬드를 가공해 반지를 만들듯이 시대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재 양성도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아란야명상센터를 통해 생활속 명상을 알리고 실천하는 김승석 변호사는 "앞으로 불교심리 마음공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본다"며 "명상지도자 양성을 통해서 이를 확산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국내 마음수행 프로그램

기관명	프로그램	전화번호
명상상담연구원	명상상담	(02)2236-5306
서불대 불교와심리연구소	마음챙김, 심리치료	(02)890-2800
상도선원	마음수행학교	(02)815-3391
상좌불교한국명상원	위빠사나	(02)512-5255
조계사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	마음 치유, 마인드 케어	(02)732-1402
제따와나선원	팔정도집중수행	(02)595-5115
한마음과학원	한마음 공생실천 과정	(031)471-6926
정토수련원	깨달음의 장	(054)571-6031
통도사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	마인드케어지도사과정 등	(055)382-718
행복마을	동사섭	(055)962-1070
아란야 명상센터	명상 상담	(064)702-6272
위빠사나붓다선원	위빠사나 심리치유	(011)417-0379
안성 황룡사	위빠사나 심리치유	(010)2779-7864
마인드플러스스트레스대처연구소	마음챙김명상	(010)4056-5069
활인선원	선회	(070)7519-9929

"마음 챙김은 이 시대의 화두"

동사섭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



"마음 치유의 비조(鼻祖)는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는 이웃 종교인 기독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면이죠. 기독교는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마음 치유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죠. 부처님의 경전 자체는 무궁무진합니다. 이를 시대에 맞게 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사섭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사진〉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고 있다. 스님은 1980년 동사섭 마음수행 프로그램을 통해 고통받는 대중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혼탁한 시대 마음공부는 필수 시대에 맞는 수행법 개발 화두

스님은 부처님 당시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마음산업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한창 유행하고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마음산업이라고 규정했을 때 우리 불교는 이것이 확산이 되려면 멀었다고 봅니다. 템플스테이 정도를 마음 산업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템플스테이의 확산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죠. 앞으로 불교 안에 무궁무진한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스님은 혼탁한 이 시대에 마음공부는 꼭 필요하다고 전한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평화로워야 되고 자비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요즘 시대는 다양한 가치가 발달돼 있습니다. 중독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고 필요한 것들도 너무 많아요. 이로 인해 인성이 혼탁해지고 있죠. 그래서 마음공부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스님은 마음산업의 확산을 위해 불교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마음 공부는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이 시대의 논리 언어 정서 등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템플스테이 같은 대중적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죠. 이를 위해 대중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불교 정신을 알릴 수 있는 현대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불교적 정신을 가진 대안학교가 나오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혜숙 기자

ACE 잘 가르치는 대학
인재 불사를
교육의 최고 가치로 삼는 불교 종립 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web.dongguk.ac.kr

대한불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계사년에도 더 힘차게 군포교에 매진하겠습니다.
계사년에도 청년 불자 교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계사년에도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군종교구장 자 광
대한민국 육 · 해 · 공군 군승일동 합장
국군불교총신도회 · 국군불교후원회
젊은 불자 양성의 도량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는
원불 모연 불사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1인 1불 100만원, 분할 납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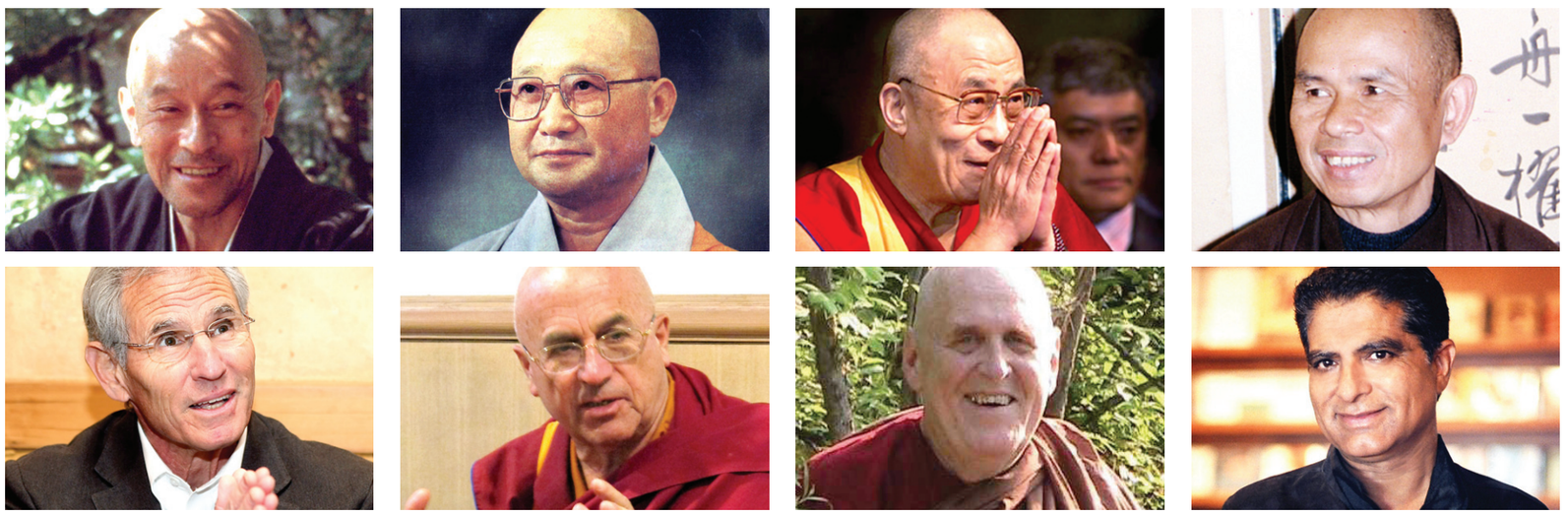
호국연무사 수계법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83호 / ☎ (02)749-8646. 797-7266 / www.gunindra.com

마음산업은 서구에서 시작됐다. 2005년 5월 말 미국 국세청이 명상을 판매했다고 신고한 액수만 67억 달러(한화 8조원)나 된다고 한다. 거기에 미국 마음산업 규모는 해마다 10% 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불교 수행 '마음챙김(Mindfulness)' 은 미국 사회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려 사업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 · 영국 군부대와 교도소를 비롯해 구글(Google), 프록터 & 갬블(Procter & Gamble), 바스프(BASF) 등 다국적기업은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도입해 구성원들의 스트레스를 치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존 카밧진, 마티유 리카르, 위말라 람시 등 불교에 뿌리를 둔 세계적인 명상 전문가들이 잇따라 방한해 워크숍을 열어 북새통을 이뤘으며 세계적 명상스승인 아잔브람이 1월 10~16일 방한을 앞두고 있다. 이들의 워크숍 참가비용은 30~80만원 정도로 국내에서 이뤄지는 위빠사나, 참선, 간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 및 템플스테이 참가비용과 비교하면 몇 배에 달한다. 이같이 결코 적은액수가 아님에도 참가자들은 거리낌 없이 비용을 지불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불교가 '역수입' 되고 있는 것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아시아에서 서구로 건너간 불교가 다시 아시아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스즈키 순류, 숭산 스님, 달라이 라마, 틱낫한, 디팩초프라, 위말라람시, 마티유리카르, 존 카밧진.

동아시아서 전파된 불교…마음산업으로 역수입

서구 마음산업을 이끄는 사람들

마음산업 전초기지 다진 인물들

일본 조동종의 스님인 **스즈키 순류**(1904~1971)는 1959년 세수 55세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비트선이 주류이던 그곳에 좌선을 중심으로 하는 정통 선불교를 전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다수의 선원을 설립했고 1960~70년대에 미국에 불교를 전한 몇 안 되는 주요인물에 속한다. 스티브 잡스(1955~2011)가 수십 년 동안 한 순류 선사와 교류하며 애플의 영적 지도자로 모신 것은 유명한 일화다.

숭산 스님(1927~2004)은 미국에 거주하며 선원을 세우고 한국 불교를 전파한 최초의 스님이다. 숭산 스님은 미국인 제자를 길러 냈을 뿐 아니라 유럽에도 불교를 전파했다.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MBSR ·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창시자 존 카밧진 박사는 1974년 미국 프로비던스 선원에서 숭산 스님을 만난 뒤 매사추세츠주 지부의 선원 책임지도자를 맡았다. 그는 "그 시절 숭산 스님에게 배워 영감을 받은 덕분에 세상에 지혜와 자비가 늘고 고통이 줄어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MBSR을 개발하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숭산 스님의 관음선종은 현재 32개 국가에 130개가 넘는 포교센터를 갖고 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1983년 신경생물학자인 프란시스코 바렐라와 '마음과 삶 연구소(Mind and Life Institute)' 를 설립해 양자역학, 뇌과학, 물리학, 심리학을 전공한 학자들과 모여 마음의 본질과 자연이란 무엇인지 토의했다. 2000년 초부터는 명상이 뇌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그러던 중 미국 위스콘신대의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가 티베트 고승들을 대상으로 감정과 뇌를 연결하는 연구를 시도하면서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는다. 이후 많은 과학자들이 명상의 장 · 단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프린스턴 · 하버드 · 예일대 등을 비롯해 홍콩까지 30개 주요 연구소에서 명상-뇌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틱낫한(1926~) 스님은 1982년 프랑스 남부에 플럼 빌리지라는 수행센터를 세우고 유럽과 미국인들에게 법을 전하고 있다. 틱낫한은 명상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명상자의 마음을 청정과 평화로 인도해주는 리듬감 있는 시구를 좌선하는 중간에 들려주는 인도 명상(guided meditation)을 만들었다. 플럼빌리지에는 매년 수천명의 방문객이 찾아든다. 플럼빌리지의 종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세계 수행 승가는 300여 개에 이르며 서양에서 불교 인구 3위를 자랑하는 나라가 프랑스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틱낫한 스님의 공헌이 크다. 틱낫한 스님이 만든 참여불교라는 말은 서구에 퍼져 서구의 표준불교가 됐다.

현재 마음산업 주도하는 인물들

이처럼 동아시아의 불교 지도자들이 1960~70년대 서구에 뿌린 씨앗은 동양에서와는 전혀 다른 결실을 가져왔다.

장현갑 영남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후기 산업시대에 들어서면서 서구인들은 스트레스 질환이 많아졌다. 병원환자의 80%가 만성질환, 암, 심장병 등을 앓고 있으며 약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이때 서구인들은 사성제와 육바라밀에 주목하고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는 사마타 수행 등을 응용했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존 카밧진** 박사는 1979년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MBSR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MBSR은 모든 병의 근원이라 일컬어지는 스트레스를 비롯해 불안, 우울증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돼 현재 미국에서 약 300개 의료 기관과 전 세계적으로 750여 개 의료 기관에서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기업, 프로 스포츠 팀 등역시 리더십과 창조성에 기여한다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활용하고 미국 고교와 대학에서 정식 커리큘럼으로 채택돼 청소년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승려와 철학자〉의 저자인 프랑스의 **마티유 리카르**는 파스퇴르 연구소에서 세포유전공학 박사학위를 딴 뒤 27살 때 히말라야로 가 티베트 승려로 출가했다. 40여 년간 히말라야에서 명상을 한 그는 1972년 이후 네팔의 세첸사원에 거주하며 위대한 스승들을 만났다.

마티유 리카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으로 일컬어진다.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마음과 삶 연구소' 가 그의 머리에 256개의 센서를 부착하고 기능성자기공명장치로 촬영해 검사한 결과 긍정적 감정과 관련된 영역인 뇌의 전전두피질에서 이제껏 조사한 사람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한다.

위말라람시 스님은 빨리 경전 원전 그대로 아나파나 사띠 수타에 근거해 명상을 가르치며, 현대 미국에서 담마 수카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일년 중 대부분을 유럽 동남아시아 한국 등으로 수행지도를 다닌다. 지난해 10월 방한 때에는 호두마을에서 2차에 걸쳐 각각 14일씩 명상을 지도했고, 중앙승가대학에도 강연을 하기도 했다.

현재 위말라람시 스님은 담마수카 상가를 세워 운영하면서 '제타의 숲' 에서 승려와 일반인을 위한 명상센터와 국제불교대학(Anathanpindika's University)을 건립중에 있다.

그 밖의 인물들

영국 왓킨스 북(Watkins Book)서 발행하는 잡지인 〈마인드 바디 스피릿 매거진〉은 2012년 현존 인물 중 영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 발표했다.

100인 가운데 불교적 성향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은 달라이라마(1위), 틱낫한(3위), 디팩 초프라(4위), 앤드류하비(33위), 페마 초드론(55위), 소걀 린포체(64위), 사트야 나라얀 고엔카(86위), 존 카밧진(94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팩 초프라(Deepak Chopra)는 심신상관의학과 인간의 잠재력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자이자 영적 지도자다. 하버드 의대서 공부한 그는 고대 인도의 전통 치유 과학인 아유르베다와 현대 의학을 접목해 '심신상관의학(MIND-BODY MEDICINE)' 이라는 분야를 창안하며 대체의학의 선두 주자가 됐다.

페마 초드론(Pema Chödrön)은 금강승 수행을 마친 미국인으로 현재 서구인들을 위한 티베트 불교 사원 감포 아베이(Gampo Abbey)의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마음 전문가' 로 불리는 그는 세계 각지를 다니며 불교와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이밖에 차드 멍 탄(Chade-Meng Tan)은 구글 인재팀 소속의 '내면검색 리더십 교육기관(SIYLI)' 회장이다. 그는 직원들을 위한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개발 명상프로그램' 을 2007년 개발한 주역으로 올해로 5년째 구글에서 불교의 명상수행법 중 하나인 '마음 챙김' 과정을 이끌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마음과 삶 연구소(Mind and Life Institute)를 설립하고 다양한 전공학자들과 모여 마음의 본질에 대해 토의한다.



틱낫한 스님은 1982년 프랑스 남부에 플럼빌리지라는 수행센터를 세우고 유럽과 미국에 법을 전하고 있다.



존 카밧진 박사가 개발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MBSR)은 750여 개 의료기관 및 미국 전역에 도입돼 활용되고 있다.

佛紀 2557年 癸巳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큰 바위가 그 어떤 바람에도 끄덕하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에도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대한불교조계종
갑 사
주지 태진덕천
사부대중일동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전화 041)857-8981~2 www.gapsa.org



대한불교조계종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주지 덕운
길상사 사부대중 일동
(사)맑고향기롭게 회원 일동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전화 02)3672-5945 www.kilsangsa.or.kr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지 연광
사부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번지
전화 062)226-0108 / 전송 062)222-5997
www.jeungsimsa.org



마음을 챙기면 행복의 문 열린다

한국불교, 이제 마음산업에 나서자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이 길을 가는데 만공 스님이 시주자루가 무겁다며 불평을 했다. 이때 경허 스님이 지나가는 처녀를 희롱했고 이 광경을 본 동네 사람들이 쫓아오자 두 스님은 죽기 살기로 도망쳤다. 산길에서 한숨 돌리게 된 경허 스님이 만공 스님에게 물었다.

"시주자루가 아직도 무거우냐?"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무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 무겁다는 생각이 없으니 무엇이 너를 무겁게 하겠느냐."

〈경허집〉에 나오는 일화는 '일체유심조(一切有心造)'가 무엇인지 잘 보여 준다. 〈화엄경〉(華嚴經)의 중심 사상으로 일체 만물의 움직임은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의 나타남이고 존재의 본체마저도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일 뿐이라는 가르침이다.

일체유심조 어느새 '산업'으로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이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담 스미스가 생각한 '마음의시장'은 2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 디지털시대를 맞이하면서 비로소 현실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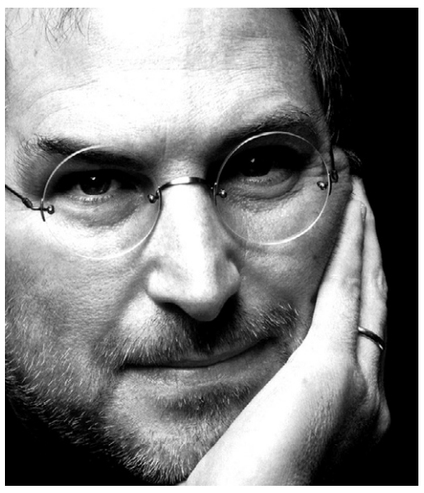
21세기 미래시장은 마음이 만들고 마음의 변화가 시장을 움직인다. 또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진정한 비즈니스로 주목받고 있다. 즉, 마음산업 시대의 도래다.

이를 비즈니스에 가장 잘 적용한 이가 바로 '스티브 잡스'(1955~2011)다. 인문학이 강한 미국 리드 대학을 다니며 불교공부를 한 잡스는 '스즈키 선사의 선심 초심' 등을 통해 사람의 감성에 대해 공부했다. 잡스는 선(禪)이 주는 단순함과 간결함이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평온함을 주는지를 깨닫고 이를 상품에 반영했다.

서구사회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마음 챙김 명상을 비롯한 다양한 명상, 수행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었다. 그 이면에는 영적 체험을 통한 개인적인 안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열기와 함께 이를 활용해 개인의 삶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자 함이 컸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종교, 그 중 불교는 신앙이 아닌 문화와 기호(嗜好)로서 생활의 일부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 불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마음산업 '웰빙', '힐링' 바람

시중에는 관련 서적들이 봇물을 이루고 단(丹), 명상 등 마음을 다스리는 수련장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명상, 요가 등의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요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만도 200여 군데나 되며 단월드로 대표되는 명상센터도 300여 곳에 이른다.









마음의 변화를 살피는 것은 21C 미래시장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떠오르고있다. 사진 왼쪽 상단부터 선을 상품에 도입한 스티브 잡스, 마음과 치유를 주제로한 서적, 참선현장과 템플스테이의 이효리씨.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외국인 관광객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며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템플스테이'는 해마다 참가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도 118곳 22만 명의 내외국인들이 모여들었다.

세계적인 상품코드로 부상

마음산업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미국의 경우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자기계발(self-improvement) 산업의 규모가 약 60억 달러에 이르며 매년 10% 안팎의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마음산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아를 찾는 법,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 화를 다스리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등이다. 이와 관련된 심신치료프로그램, 요가프로그램, 서적,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집중명상 등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마음 챙김 명상(Mindfulness Meditation)을 활용한 심리치료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간화선, 생활밀착 프로그램 개발 필요
취미 생활하듯 '마음 챙김' 할 수 있어야
사찰 · 신행단체 마다 '마음 공부' 법회 개설
치유 내세운 비불교적 마음산업과 차별화를

의료계와 심리학계에 운영되고 있는 주요프로그램으로는 마음 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MBSR), 마음 챙김 명상에 기초한 인지치료(MBCT),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수용과 전념치료(ACT) 등이 있다. 또한 명상, 통찰,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아바타(Avatar), 랜드마크(Landmark), 원네스(Oneness) 등이 있다. 여기에 자기계발 관련 제품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 또 아시아에서 각광받는 마음 산업의 분야는 국내 수행단체의 명상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문화 · 사회적 반발을 사지 않고 세계화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마음산업은 매우 주목받고 있다.

세속적 목표에 머무는 경우 많아

하지만 현대 명상 프로그램 등 마음산업은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프로그램 목표가 스트레스 해소, 건강, 세간적 행복 등 세속적 목표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윤희조 불교와심리연구원 원장은 "외국 프로그램들이 불교수행법을 대중화하고 있는 공로는 있지만 생사해탈이나 열반 등 불교 근본목적에 근거하고 있기보다 치유 기법으로만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 불교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마음산업의 호황은 역으로 불교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음산업이 각광받게 된 이면에는 공동체에 기대왔던 영역이 개인화가 된 것이 크다. 수행의 개인주의가 강해진 것이다.

불교계 안으로 돌아보면 그동안 전통과 규모를 갖췄던 조직은 날로 위축되고 있는 반면, 취미를 공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조직들은 활성화 되고 있다.

일반인들은 수행을 취미활동으로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춰 불교계도 사찰과 직장에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수행프로그램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음공부 정기법회와 같은 것들이 그 것이다.

그 근간은 중생이 자유롭고 행복함이 곧 불교의 근본목적임에 기인한다. 스님들의 수행을 전문인력 양성으로 전환해 사회적 회향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생교화 자체가 포교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명상상담연구원 원장 인경 스님은 이에 대해 "일상생활, 특히 개인생활과 연계된 수행법과 심리치료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며 "불교수행도 단순한 신행활동을 떠나 실용성을 담보로 한 각 개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간화선 대중화로 마음산업 주도해야

그런 측면에서 간화선은 최적의 수행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포교원이 2003년 신도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체계적으로 지도받고 싶은 수행법으로 '참선'이 59%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선 수행하는 불자는 기도, 염불 등에 비해 적은 17%에 불과했다. 2010년 수도권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도 7%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 이유는 재가 신도 교육과 수행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실생활에 맞는 참선법과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했다는 것이 크다. 일례로 위빠사나의 경우 죠셉 골드스타인, 새론 샐츠버그, 잭 콘필드 등의 활동으로 대중화가 됐으며 존 카밧진이 창안한 마음 챙김은 인지치료와 조합해 이용되고 있다.

김홍근 간화선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간화선이 현대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돼지 않은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개발은 불교 미래를 좌우할 핵심과제"라며 "과학적이고 단계적 훈련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화선 비롯한 한국수행법의 미래는?

간화선을 비롯한 한국수행법이 좀 더 널리 알려지고 대중화되려면 몇 가지 장애를 극복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그 무엇보다 현대인들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응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직장인을 위한 참선 스케줄과 함께 수행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보여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 것이다.

아울러 전국사찰 시민선원 공간확대와 선 프로그램 상설 운영, 주5일제에 맞춘 1박 2일 프로그램,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실 점검 시스템 활용도 모색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재 서강대 교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일상 삶에서 몸소 선 수행을 생활화 하며 그 자리에 삶의 모범이 되는 것이 선수행 대중화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효율적인 눈높이 지도를 위해서는 입실점검이 가능한 스승들의 점검체험 공유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며 "획일화된 집단적 입문 프로그램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佛紀 2557年 癸巳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노력하기를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음에 얽혀 있는 장애물을 모조리 다 태워야 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염 불 사
회주 성직 스님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산 17번지
TEL 031)471-2300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진산 종하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
TEL 02)582-8609
www.kwaneumsa.net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회주 세 민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8-12
TEL 02)587-4677 / FAX 02)522-5666

재단법인선학원
인 과 선 원
주지 정 덕
신도일동
■ 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657-2
TEL 02)907-3706

대한불교조계종
등명낙가사
주 지 청 우
가섭회장 최종명
신도일동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1리
TEL 033)644-5337, 5475

화중생연 육신등공도량 호명산
감로사 · 승가사
우.477-816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산 1-5
청평면 우무내길 210 (새주소) 청평검문소 남쪽 2키로
전화 031)584-0117, 02)2292-3418 / FAX 031)585-5747
카페:http://cafe.naver.com/kamrosa.cafe
서울 승 가 사
우.131-833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092-2 나동용마산길 113
(농협 용마지점 옆) 지하철7호선 용마산역3번. 사가정역 4번
전화 02)2292-3418,2282-3418 이메일 ljk3418@naver.com
한국불교태고종 서울교구 동부종무원장
주지 이지성 합장 H·P 010-3722-3418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신 흥 사 청소년 수련원
템플스테이사찰
신흥사 불교대학
주지 오성일
대중일동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72-15
TEL 031)357-2695, 357-3916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노고산 흥 국 사
주지 대 오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3번지
TEL 02)381-7970 / 전송 02)381-7329
홈페이지 www.heungguk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 주 대궁 종상
주 지 성 행
신도회장 자비화
사부대중일동
청계사 부설 : 지적장애인생활시설 녹향원
의왕시립희망나래종합복지관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번지
TEL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 주 진 관
주 지 계 호
사부대중일동
[부설] 포교원 보현정사, 고끼리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진관무위원, 진관지역아동센타
불광노인복지센터, 불광데이케어센터
(사)진관사수륙재보존회,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구파발 어린이집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54번지
TEL 02)359-8410/ www.jinkwansa.org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운 문 사 승 가 대 학 회 주 명 성
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 학 장 흥 륜
운 문 사 보 현 율 원 주 지 일 진



■ 주소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전화 054)370-7100 /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관 음 성 지
휴 휴 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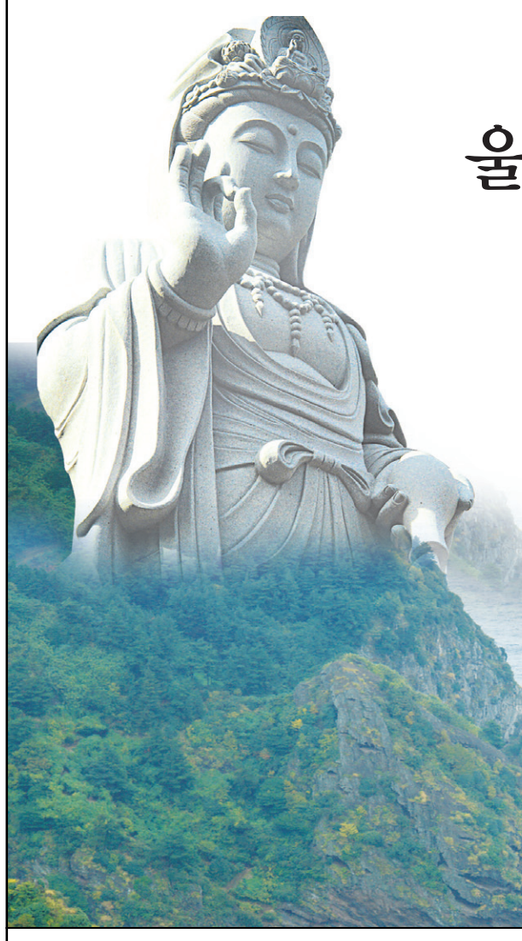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TEL 033)671-0093~5 FAX 033)671-0525

대한불교천태종
동해 관음성지

울릉 해 도 사



주 지 정비룡

남양 성 인 사 신도회장 도영국 外
태하 삼 도 사 신도회장 김도근 外

신 도 일 동

■ 경북 울릉읍 도동 584-6
TEL 054)791-2471

대한불교조계종

전 국 비 구 니 회

회장 명 우

운영위원 임원진 일동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번지 법룡사
전화 02)3411-8103 팩스 02)3411-8108 / www.kbiguni.org

사단법인 대한불교 우담종문회

원 로 회
원로의장 **은파**
원 로 원 **성파. 원파. 동파. 정공. 정봉. 진파**

종 무 원
종문회장 **근파** 부 회 장 **농파. 선파**
총무부장 **능산** 재무부장 **해암** 교무부장 **묵암** 사회부장 **만산**
문화부장 **자관** 의전부장 **덕산** 기획부장 **등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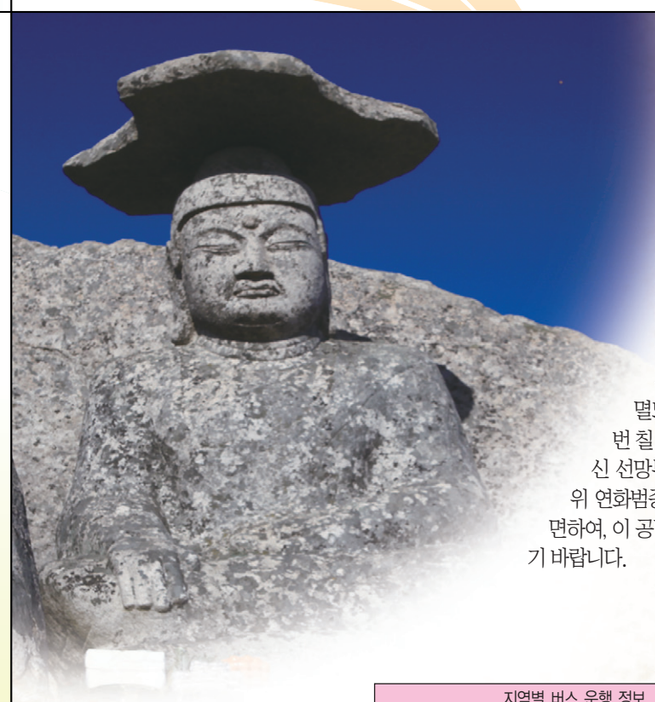
교 육 원
불곡사 승가교육원장 **영파** 불모산 영산재보존회장 **한파** 본사 불곡사 주지 **서암**

감 사 원
감사원장 **영산** 감사위원 **거산**

법인이사회
이 사 장 **근파** 이사 **은파. 원파. 농파. 영파. 정봉** 감사 **능산. 서암**

우 담 종 문 회 일 동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1036번지
전화 055)282-7402



선본사 종각 및 범종불사

팔공산 남쪽 봉우리 관봉 석조여래좌상(갓바위 부처님)은 지성으로 기도드리면 누구나 한가지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범종불사에 동참한 공덕은 전생의 업장이 소멸되어 현생의 바라는 소원이 성취되고, 지옥고를 면하여 종을 한 번 칠 때마다 번뇌가 끊어져 복덕이 구족되며 지혜를 증득하고 돌아가신 선망부모 형제들이 극락왕생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디 선본사 갓바위 연화범종 불사에 동참하시어 현생에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지옥고를 면하여, 이 공덕이 자자손손 만대에 이어져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십이상원약사여래불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갓바위 주지 초암 덕문 합장

지역별 버스 운행 정보			지역별 버스 운행 정보		
지 역	버스회사	연락처	지 역	버스회사	연락처
부산 (동편자유시장)	골든강남관광	011-557-3777	창원 (신월주공지하도)	성산관광	017-540-9301
부산 (부산역)	골든강남관광	011-590-8868	대전		010-8801-2722
부산 (광안리소호맨션)	오륙도관광	011-579-8065	전주 (시청)	유일관광	011-654-9047
부산 (사상역)	삼성관광	010-7457-8080		길벗관광	011-659-8143
서울 (조계사)	용진관광	02-2279-1191~3	김해	가야고속	010-4583-1880
서울 (전철7호선 수락산역)		010-3069-6809	포항 (해도고속터미널탓터)	영일만관광	010-3000-0404
울산 (종합운동장)	울산고속	010-6571-7007	수원 (수원북문)	신세계관광	011-245-8369
양산 (신도시 국민은행)	한솔관광	055-372-3333	진주 (문화회관)	뉴해인관광	011-855-9220
영주 (영주오거리)	강남관광	011-522-8055	진주 (MBC방송국)	대륙관광	011-9310-8894
밀양 (구 시청)	밀양관광	011-879-3452	논산 (논산파출소)	아주관광	011-405-3742
			청주 (청주체육관)	스카이관광	043-269-2855

※ 동참하시는 불자님들께는 종이 완성 되고 타종 이후 매일 축원하여 1,000일 동안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계좌번호 : 농협 351-0399-5622-13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문의 : 053)851-1869, 853-9877, 851-1868

佛紀 2557年 癸巳年 謹賀新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6 전면광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온갖 싸움이 사라질 것을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천년고찰 안흥사

주지 대웅

'자비도량 참법과
참선용맹 정진 수행도량'

■ 경북 경산시 상방동 71번지
TEL 053)815-4030
FAX 053)814-5142

대한불교조계종
반 룡 사

주지 혜해

경산시 용성면 구룡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신라 문무왕(661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설총 선생이 유학했던 곳으로
고려 문종때 화엄 천태종 고승 원흥국사가
이곳에서 대중창을 하였다!

*원효불교대학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경북 경산시 용성면 용전동 118-2
TEL 053)852-1919
FAX 053)852-1950

대한불교조계종
용 연 사

회주 성문
주지 활중

비슬산 천년고찰
부처님 사리모신 적멸보궁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TEL 053)616-8846
TEL 053)616-0408

대한불교조계종
충 효 사

회주 원감 해공

신도일동

■ 충효사 :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660
TEL 054)338-8196 FAX 054)338-6006
■ 자비원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지동리 706
TEL 054)338-1152

대한불교조계종
서 봉 사

회주 경희
주지 명연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2
TEL 053)471-4812
FAX 053)471-4813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지 묘청

· 선화여자고등학교 교법당
· 은해사 불교대학개설 운영

■ 경북 영천시 교촌동 237
TEL 054)334-3526

대한불교조계종
정혜결사도량 오백나한기도도량
팔공산 거조사(암)

주지 태관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TEL 054)335-1369 FAX 054)335-2609

대한불교조계종
보 경 사

회주 법달

주지 효웅
총무 등현

사부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TEL 054)262-1117 FAX 054)262-0149

대한불교조계종
보 현 사

주지 지우

〈초기불교학림〉
◆ 빤디짜스님 겨울 특강(1, 2, 3월 중순)
1. 아비담마(몸과 마음에 대한 지혜)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2. 수행체험 및 문답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각묵스님 특강 3월 개강 일시 : 2013년 3월 22일
1. 아비담마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2. 청정도론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심신치유학당, 문화강좌〉
◆ 골반, 척추교정으로 건강해지는 운동법 전수
경락. 발 마사지. 경락지압법 전수
- 일 시 :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 ~ 12시
- 강 사 : 곽연호(대한운동처방센타 원장)
박철희(경희 마사지센터 원장)
◆ 흥겨운 국악 치유
-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30~12시
- 강 사 : 김지성
(경북대 국악과 외래교수, 정음 국악원장)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2동 932-35
TEL 053)431-5400.
Email: bohyunsa5400hanmail.net
※ 대구은행 : 006-05-336518-001

대한불교조계종
파 계 사

주지 남명허운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7번지
TEL 053)984-4550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사부대중 일동

■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번지
TEL 055)672-0100
FAX 055)672-0481
홈페이지 www.okcheo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비슬산 은적사

은적사 부설 룸비니 유치원

주 지 허주
신도회장 권정행성
합창단장 김일심행
봉사단장 배정광해

[부설] 룸비니유치원 원장 이수련화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572
TEL 053)653-1572 FAX 053)653-2765

대한불교법화종
무우소 가람 수 참 사

주지 영암

신도회원 · 관음회원 일동

번뇌망상 털어버리고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한마음 쉬어가는 도량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6동 640-5
TEL 053)561-3129

만불산 만불사

회주 학성

■ 경북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산 46
TEL 054)331-0101
www.manbulsa.org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 지 김유정
신도회장 윤수현

〈부설〉
· 동해유치원
053)652-5760
·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FAX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佛紀 2557年 癸巳年 謹賀新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7 전면광고

진실을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거짓을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끝내 진실에 이를 수 없다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해동선원

선원장 태 응

사부대중 일동

■ 경남 산천군 금서면 평촌리 540-5
전화 055)973-9554
banyob@naver.com

대한불교천태종
포 항 황 해 사

주 지 조진덕
신도회장 김길환

국내최초
「관음33응신불」 봉안

■ 경북 포항시 북구 학잠동 169-3
TEL 054)277-3611~3
FAX 054)277-3644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 구 교 구 청

교구청장 혜 명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584-1
TEL 053)255-1450,1411
FAX 053)252-9703
홈페이지 www.jingak.or.kr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성 불 사 (구 · 법성사)

주 지 법 성

■ 대구광역시 북구 작원길 9(팔달동)
TEL 053)322-0567
H·P 010-6937-0567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 문

사부대중

■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 안

사부대중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대구·경북 지역단

단 장 장한상

"포교가 수행이다"

대구 경북 포교사 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1800-2
(불교회관 2층)
TEL 053)745-4108
FAX 053)745-4109

보건복지부지정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대 구 지 역 본 부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본부장 박 종 명

장기기증 / 헌혈지원사업
환우지원사업 / 결연사업

■ 후원계좌 안내
대구은행 188-13-073651
농 협 301-0031-1553-61
국민은행 805501-01-375024
예금주: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324(구.신암동)
TEL 053)945-0007/FAX 053)945-0008

■ 산하기관 :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TEL 053)944-0007

대한불교조계종
소원사 산내암자 감 로 사

주 지 덕 기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1동 117-2
TEL 053)625-5302

경북 성주군 사암 연합회

회	장	천불사 법원
총	무	지안사 지안
기획실장		수국사 지원
포교부장		길조암 보현
조직부장		자은사 지형
감	사	성화사 지현
		약사암 홍제
회	원	보광사 지영
		대승정사 묘덕
		북지장사 묘련
		관음사 지마
		문수사 담현
		청매암 정도

■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775
TEL 054)932-8443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대구광역시 신도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동화복지재단 부설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회 장 류병선

장학사업 및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운영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32-35 (보현사 별관 3층)
전화 053)253-2886, 팩스 053)252-2886(신도회)
053)253-1082 (자비의 집 봉사부장 장춘강)

■ 장학후원계좌
대구 043-10-010486
국민 028201-01-013886
우리 1005-901-797252
외환 630-007485-229
농협 301-0075-8540-01

•무료급식소
후원계좌 대구은행 096-04-000193-7
(복지재단 무료급식소)

※ 입금후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종무원장 견불사 경묵

총무국장 우포정사 영범
재무국장 용천사 광범
규정국장 정토선원 진일
교임국장 일성사 덕현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629-21
TEL 053)622-3702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 표 탁희열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054)955-8200~1
FAX 054)955-8202

지산치과의원

원 장 송준기

가족같은 병원, 환자 중심의 병원

- 지산치과의원 원장
- 치의학 박사
(임프란트, 보철학 전공)
- 단국치대 임상교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 2동 1188-2
TEL 053)782-0022 FAX 053)782-2875

高靈瓦 Goryeong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Goryeong Rooftile Co., Ltd.

www.rooftile.co.kr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Tel 054-954-8008(代) Fax 054-954-8308

서양 불교서적…에세이, 학술서 등 인기

샴발라선 발행지 '붓다달마' 2012 불서베스트 16 선정

캐나다에서 발행하는 불교 계간지 '붓다달마(BuddhaDharma)'가 2012년 베스트 불서를 선정했다. '붓다달마'는 불교잡지 '샴발라 선(Shambhala Sun)'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잡지다.

'붓다달마'의 편집장 마이클 쉬하이(Michael Sheehy)는 "2012년 다양한 불교서적들이 발간됐다. 이 가운데 최고의 불서가 무엇일까 생각하다 기준을 정해 책을 골라봤다"고 말했다.

붓다달마는 △불자들에게 수행법을 잘 전달하는가 △불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가 △책의 내용과 구성이 탄탄하고 번역이 잘돼 쉽게 읽을 수 있는가 등을 기준으로 16권의 책을 선정했다.

이들 중에는 2012년 6월 최종 완간된 〈한국전통사상총서〉 영역본이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편집장은 "불교서적 번역본들은 오랜 불교전통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필수적이다. 영역본 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별도 카테고리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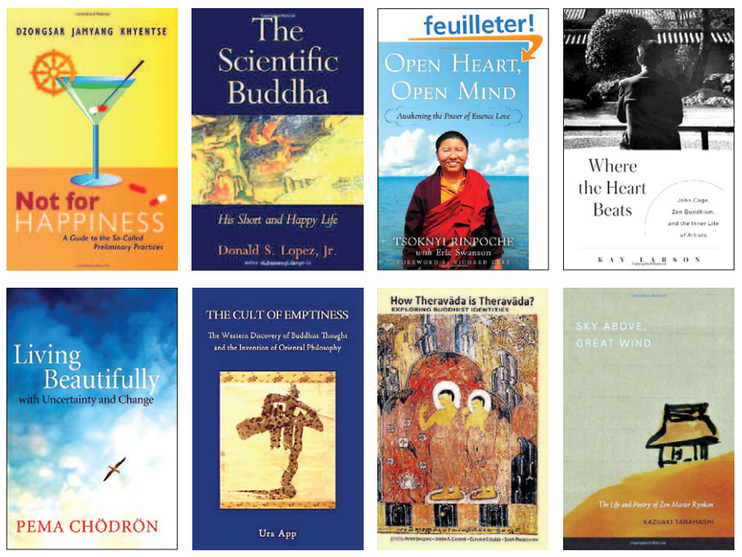
불교에 대한 편견 없애는 불서들

서구인들은 불교를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는 종교' '과학적인 종교'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영화제작자이자 캐나다, 호주, 미국 등지의 명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쫑사르 잠양 켄체(Dzongsar Jamyang Khyentse)는 그의 저서 〈Not For Happiness(행복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에서 "불교는 깨달음에 대한 종교다. 만약 당신이 불교를 통해 편안함을 찾겠다면 차라리 마사지를 받는게 좋다. 그러나 만약 변화에 관심이 있다면 기초 수행(예비사가행: Ngondro)과 탄트라 수행을 하라"고 조언하며 단계별 수행가이드를 제시한다.

美 미시간대 교수 도널드 로페즈(Donald S. Lopez)는 〈The Scientific Buddha(과학적인 부처)〉에서 "왜 우리는 불교가 빅뱅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다윈의 진화론, 신경과학 등 과학적 이론을 예측했다는 것에만 열망하는가"라며 "물론 불교의 이론이 과학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도전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붓다달마가 선정한 도서들은 불자들에게 수행법을 잘 전달하고, 불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선정도서 가운데서는 2012년 6월 최종 완간된 〈한국전통사상총서〉 영역본(사진 왼쪽 상단)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한국불교총서〉도 포함돼
"영역본 불서 불교연구에 필수"
불교 편견 깨는 불서도 인기

편하게 읽는 에세이 불서

젊은 세대들에게 사랑받는 티베트 스님 중 하나인 촉니 린포체(Tsoknyi Rinpoche)는 〈Open Heart, Open Mind〉에서 "고통, 불안, 불가능에 대한 의심 등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기본 감정"이라며 "우리는 평화를 위해 사랑과 자비, 신뢰를 서로에게 줌으로써 일상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Where the Heart Beats〉는 미국 현대음악가 故 존 케이지(John Cage)의 예술과 삶, 그리고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순간 속에 들어있는 가능성과 우연을 표현하여 음악을 만들었던 존 케이지는 지금 이 순간 속에 전우주가 들어있다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음악과 삶으로 실천한 사람이다.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 여성 승려인 페마초드론(Pema Chödrön)은 〈Living Beautifully with Uncertainty and Change〉에서 자신의 에고(ego)를 깨고 공포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철학, 학문적 접근 불서

우르스 앱(Urs App)은 前 일본 하나조노 대학 교수다. 현재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교육기관에서 불교연구를 하고 있다.

그는 〈The Cult of Emptiness(空의 추종)〉에서 서구에서의 불교발견과 전파 그리고 동양철학의 발명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는 16세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서양 선교사들이 처음불교를 접하게 됐고 이때 동양철학이 생겨나게 됐다고 주장한다.

피터 스킬링(Peter Skilling) 프랑스 극동학원 교수외에 여러 필진이 참여한 〈How Theravada is Theravada?〉는 동남아불교인 테라와다 불교의 형성부터 20세기까지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 외 번역서들

〈한국전통사상총서〉 영역본 〈한국불교총서(The Collected Works of Korean Buddhism)〉는 한국 불교의 정수인 원효·의상·지눌·휴정 등 한국불교사상사에 이름을 남긴 선지식들의 문집을 선별해 13권의 영역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붓다달마는 "이 영역본을 통해 1700년의 한국 고승들의 문학작품을 다루고 있으며 정토(淨土) 사상과 대승불교 등 한국불교의 정수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y Above, Great Wind〉는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님인 카주아키 타나하시(Kazuaki Tanahashi) 스님의 선시(禪詩) 모음집이다.

이밖에 붓다달마는 앙굿따라니까야 영역본인 〈The Numerical Discourses of the Buddha〉을 비롯해 〈To Dispel the Misery of the World〉〈A Torch Lighting the Way to Freedom〉〈The Lankavatara Sutra〉〈Jewels from the Treasury〉〈The Treasury of Knowledge〉〈The Ceasing of Notions〉 등을 선정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인생굴곡 뱀처럼…"

불광산사 성운 스님 신년 휘호



曲直向前 福慧雙全(곡직향전 복혜쌍전)

"인생의 굴곡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함은 '앞으로 나아가야 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뱀이 몸을 구부려야만 목표하는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에게 공간을 주고 자신도 여유를 가지면서 복덕과 지혜를 쌓아간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원만하고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대만 불광산사 개산종장 성운 스님이 현대불교신문에 2013년 신년 하례 메시지와 휘호(揮毫)를 보냈다.

우명주 박사의

암베드카르와 현대 인도불교 〈1〉



인도의 불교라는 말은 과거를 떠올리게 만든다. 그 과거는 부처님 당시일수도 있고 화려했던 대승불교 시대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인도에서는 불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불교가 탄생하고 발전했던 그 땅에서 '신불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현대인도불교를 살펴본다.

불가촉천민 집단 불교개종 이끈 불교부흥 선구자

인도는 부처님의 나라이자 불교의 발상지이다. 따라서 지금도 인도에서 불교가 부처님 당시처럼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재 인도의 불교인구는 전체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신이 태어나고 화려하게 성장했던 인도에서 불교는 12~3세기경에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정체성을 잃어버린 불교가 서서히 힌두교로 흡수되어버렸다는 설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현장 스님이 인도를 방문했던 7세기에도 이미 쇠퇴의 기미를 보여주던 불교는 이슬람의 침공과 함께 거의 인도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인도에서 완전히 잊혀졌던 종교인 불교가 다시 주목받게 되고 거의 찾아볼 수 없던 불자의 수가 그나마 인구전체의 1%에 가깝게 된 데에는 1956년에 있었던 불가촉천민들의 집단개종행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1956년 10월 14일에 열렸던 이 집단개종식에서 사십만명의 사람들이 힌두교를 버리고 불자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이 개종식의 중심에는 암베드카르 박사가 있다. 이 개종식에서 암베드카르는 이 거대한 군중 앞에서 당시 인도에서 가장 법납이 높은 승려였던 미얀마 출신 우 찬드라마니 스님께 수계를 받았다. 삼귀의를 낭송하고 불상 앞에 삼배를 올린 암베드카르는 군중들을 향해 돌아서서 불교로 개종하고자 하는 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외쳤다. 흰 옷을 입고 그곳에 모인 사십만명의 군중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암베드카르를 따라 삼귀의와 오계를 낭송하고 불자가 되었다. 다음날 늦게 도착한 십만명의 군중을 위해서도 같은 의식이 열렸고 이틀 동안 무려 오십만명의 사람들이 불교신자가 되었다. 이는 인도에서 고적으로만 남아있던 불교가 살아있는 종교로 다시 부활하는 계기이자 '신불교'로 표현되는 현대인도불교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집단 개종을 이끌어낸 암베드카르 박사는 현대 인도에서의 불교부흥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암베드카르는 누구인가 (상)



암베드카르
(Bhimrao Ramji Ambedkar; 1891~1956)

암베드카르 박사는 인도의 초대법무부장관이다. 그러나 그는 인도의 계급제도인 카스트제도에서 말하는 '불가촉천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카스트제도는 3000년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흔히 알려진 대로 카스트는 브라만, 크샤트리야, 바이샤, 수드라의 네 계급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의미의 불가촉천민은 어디에 포함될까? 그들은 그 카스트에도 들 수 없는, 카스트 바깥의 존재들이다. 이렇듯 그들은 인간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그 아래에 있는 무엇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상위계급에 속하는 힌두교도들은 불가촉천민들과 접촉하거나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이 오염이 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불가촉천민들은 상위계급 힌두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멀리서도 알아채고 고개를 돌릴 수 있도록 목에 방울을 달고 다니거나 밤에만 외출을 해야 했다. 또한 그들은 사원출입이 금지되었고, 마을공동우물의 물을 먹을 수도 없었으며 버스나 기차에 빈자리가 있어도 앉을 수 없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차별은 19세기 말까지 성행했다.

우명주 박사는…

동국대학교(경주) 불교학과 졸업. 델리대학교 불교학과 석·박사를 거쳐 델리대학교 동아시아 학과 강사를 역임했으며 한겨레 21 인도통신원으로 활동했다. 오는 3월부터 동국대 불교학과 강사로 강의에 선다.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교육시간 : 초·중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개강일시 : 2013년 3월 7일(목) (수시모집가능)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지평 중, 고등과정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신입생 모집안내

21세기 신화랑 운동의 발원지이며 청소년 인성교육의 20년 전통인 **골굴사** 부설 (**선무도화랑사관학교**) 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교는 검정고시를 대비한 교과학습 지도와 다양한 전통문화 실습과 선무도, 승마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인성을 치유하는 대안학교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수탁교육지정 시설)

▶ 모집대상 및 기간
• 중등과정 20명, 고등과정 10명
• 2013년 1월 ~ 2월 중 수시로 개별상담



▷ **학교특성** 선무도를 비롯한 전통무예 수련과 승마교육
• 템플스테이 외국인 연인원 7천명과 원어민 영어교사가 함께생활
• 선무도 승단후 (약1년) 공연단 참가시 장학금 지급
• 선무도 사범, 법사로 육성· 국내,외 지원으로 파견
• 동진출가 발심자나 결손가정 자녀는 학비전액 무료

▷ 전 화 : 070-8870-0246, 054)775-1689
홈페이지 : www.golgusa.com,
cafe: daum.net/sunmudoschool (선무도화랑사관학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대한불교 조계종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
재단법인 선무도대금강문, 선무도화랑사관학교

佛紀 2557年 癸巳年 謹賀新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9 전면광고

허술하게 덮은 지붕에 비가 새듯이 수행이 덜된 마음에는 욕망의 손길이 뻗치기 쉽다.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남지장사
주지 각 운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 2리 865
TEL 053)768-9920

대한불교조계종
대방산 보 림 사
주지 선주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 산 67
TEL 053)614-4526, 7169

대한불교조계종
감 천 사
■ 대구광역시 동구 진안동 151-1
TEL 053)982-0562 / FAX 053)983-6668
사회복지법인 감천복지재단
후원계좌 : 대구은행 179-04-153377-001
(예금주: 감천복지재단)
TEL 053)986-5522~3 / FAX 053)986-5524
www.gamchun.com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지 지 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26
TEL 054)931-7777,933-0808

대한불교조계종
송 림 사
주지 원광
신도일동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61-6
TEL 054)976-8116
FAX 054)976-6802

古佛 전법도량
비슬산 보성선원
주지 한 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52-1
TEL 053)653-7558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 천 사
주지 선 지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대한불교조계종
석 가 사
주지 경 암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EL 053)791-8137
FAX 053)792-0784

대한불교조계종
법 왕 사
주지 실 상
경율론 삼장 백고좌 대법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 116
TEL 053)766-3747 9088
FAX 053)767-6095

대한불교조계종
법 성 사
주지 부 용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6동 386-3
TEL 053)553-5371

대한불교조계종
망 월 사
주지 동 진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1리 421-4
TEL 054)972-2700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장 운곡 돈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TEL 053)792-1353, 1181 FAX 053)791-4951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장 증 악
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
(문화강좌안내) 선체조/다도/어린이 천자문 교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대한불교조계종
장 암 사
주지 도 명
대 중 일 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 83
TEL 053)762-3800

대한불교조계종
원 만 사
약사여래대불
주지 법 홍
원만사 부설 유치원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08
TEL 053)257-1914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포 교 당
주지 효 신
대구·경북지역전법단
(경찰·교정포교)
「매월 셋째 토요일-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점심무료급식」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470-5
TEL 053)637-0900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 덕 사
주지 운 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성주 취운향당
주지 능 혜
■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845
TEL 054)933-6371~2/FAX 054)933-6373

대한불교조계종
청 수 사
[부설] 청수어린이집
청수유치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 4동 117-36
TEL 053)741-2562
[청수어린이집] TEL 053)753-2561
[청수유치원] TEL 053)753-2563

대한불교조계종
송 향 사
[부설] 통일신라시대
미륵부처님
운암사
주지 정 환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1031-1
TEL 053)312-5689/kbn5689@yahoo.co.kr

대한불교조계종
최 정 사
주지 금 봉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주동리 302번지
TEL 053)767-4860

대한불교조계종
개 운 사
주지 진 원
■ 경북 김천시 황금동 196-3
TEL 054)434-3204
suok320@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주 무 공
신 도 일 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626
(월드컵 경기장 안쪽)
TEL 053)793-1551

대한불교조계종
화악산 적 천 사
주 지 정 광
신도회장 변숙현
반야회장 정광심
구도회장 양해성
신 도 일 동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TEL 054)373-0307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구 룡 사
주지 효 재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 2리 328
TEL 054)975-9045, H·P 010에9045또9045

대한불교조계종
지 장 사
주지 지 형
신 도 일 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136-10
TEL 053)755-9817

마음청정·국토청정
대한불교조계종
보 현 암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7
TEL 053)767-0274 FAX 053)762-8950
휴대폰 011-534-8950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주지 포전 혜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로 85길 52
TEL 053)767-3971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주지 정 관
사부대중 일동
천수경 에세이집
「마음을 주는 손」 - 저자 정관스님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산1번지
TEL 053)767-7504

대한불교조계종
대 운 암
주지 지 자
■ 경북 총도군 청도읍 유호리 산1번지
TEL 054)372-1433

자연 친화적 에너지 개발은 '연기법' 실천

사찰이 신재생에너지 도입 앞장선다

2012년 한해 불교계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탈핵'이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위험성이 한국 사회에도 제기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대두된 것은 태양, 풍력, 지열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도입의 중요성이다.

굳이 탈핵을 꼽지 않더라도 이제 기후변화 문제로 인한 대안 에너지 개발은 세계적인 숙제이다. 여기서 단순히 개인주택이나 학교단위만이 아니고 지역단위의 에너지 공급으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도입은 불교계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과제다. 조계종은 2009년 환경위원회 산하에 신재생에너지 연구팀을 구성하고 2차례에 걸쳐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는 조계사, 마곡사, 통도사 등 11개 사찰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태양광과 소수력, 바이오 메스가 사찰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계종은 그간의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시범보급 사찰을 선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으로 진척 사항은 아직 없다.

그나마 양산 통도사, 포항 천곡사, 광주 문빈정사 등이 몇몇 사찰들이 자체 원력으로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8년 가까이 연구, 조사가 이뤄져왔지만 보급이 더딘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사찰 주변 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적지 않은 초기 시설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 한옥의 가장 큰 문제인 에너지 효율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사찰 에너지에 대한 정부 정책적 지원이 전무한 만큼 사찰과 문화재 시설, 사찰림 등에 대한 에너지 지원 법제화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사찰 자체를 원전이나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대체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사하촌,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에너지 순환형 마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고유가와 지구온난화, 원전 사태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불교계 역시 자연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을 시급히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①



②


④



③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①지난해 4월 설치된 광주 문빈정사의 무량광 발전소 현판식 ②발전소 전경 ③마곡사 등이 개최한 에너지 절약과 자립을 위한 워크숍 ④양산 통도사의 태양광시설. 고유가 시대를 이기고 생명평화 사상을 실천하기위한 사찰 신재생 에너지 도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포항 천곡사 지열 최초 도입

폐목 이용 바이오매스 활성화

태양광 발전 통한 사회 공헌도

사찰 경관 훼손은 단점

신재생에너지 지원 법제화 필요

신재생에너지 도입 사찰 현황

태양열 · 광	광주 문빈정사,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산하 지리산생명문화교육원, 설악산 영시암, 오세암, 봉정암, 아산 옥련암, 문경 백운암 등
지열	포항 천곡사(태양광 병행),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
바이오매스	양산 내원사, 김천 직지사, 김제 금산사

불교도 이제는 에너지를 신경써야 할 시대이다.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은 사찰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생명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불교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는 실천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에서도 연구 조사됐듯이 현재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수력, 바이오 매스 등이다.

특히 바이오 매스와 지열, 태양광 등은 상당 수의 사찰에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가장 광범위하게 보급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다. 특히 호남의 명산인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문빈정사에 2011년 4월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무량광 발전소'는 대표적인 사례다.

4월 26일 문빈정사 공양간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는 59.4㎡(18평) 규모로, 앞으로 25년간 하루 평균 4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설비이다. 40kw는 일반 가정 세 가구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현재 문빈정사는 무량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적립해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기금으로 회향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력 가격으로 무량광발전소에서 생산한 한달 분량 전력을 환산하면 40~50만원에 해당된다.

주지 법선 스님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와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의 영향으로 청정에너지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무등산 자락의 사찰에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보다 많은 사찰에서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산하 수련원인 지리산생명문화교육원도 태양광 발전소를 도입해 활용 중이다. 인드라망이 추진하는 햇빛발전소는 일반가정에서 쓰는 3kW 발전기보다는 큰 10kW 발전기가 설치됐으며, 설치비용은 약 8천만 원에 가량이 소요됐다.

생산된 전기는 자가발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잉여전기는 한전에 1kW/h 당 7백16원에 15년 간 판매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발전기를 가동한 날로부터 9년이 경과하면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태양광의 경우 전력 공급이 어려운 곳에 위치한 작은 암자 등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설악산 영시암, 오세암, 봉정암, 아산 옥련암 등과 문경 봉암사 산내 암자인 백운암에 태양광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이들은 역시 태양광 설비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로 조명과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수급하고 있다.

지열의 경우 냉난방 사용 규모가 큰 곳에 적합하기 때문에 교구본사 등 에너지사용이 많은 곳에서 효율성이 높다.

지열 냉난방은 지구 내부에서 표면을 거쳐 외부로 나오는 지열을 이용해 냉난방을 취하는 방식이다.

겨울에는 지하가 지상보다 따뜻하고 여름에는 지하가 지상보다 시원하다는 점에 착안한 신기술이다. 지열의 경우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이지만 설비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

불교계 최초로 지열 발전을 도입한 곳은 바로 포항 천곡사다. 2005년 천곡사는 지열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했다.

생산된 전력은 일부 운영 중인 문화관 자체 전력으로 소비되며, 건물 완공 후에도 외부 전력 의존도는 30%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곡사의 지열 발전은 어디를 가도 땅 속의 온도는 거의 일정하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지상과 지하를 연결해 겨울에는 열을 끌어올려 난방과 급탕에 쓰고 여름에는 열을 끌어내려 냉방에 쓰는 것이다. 필요한 전력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게 된다.

주지 정오 스님은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건립하며 고민한 부분이 시설의 유지 · 관리 비용이었다"며 "지열과 태양광 발전으로 외부 전력 의존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양산 통도사의 성보박물관도 지열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불교 시설이다.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냉난방을 비롯한 전기 등 소요 에너지의 100%를 지열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 연간 5000만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최근 사찰에 활용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찰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이다. 대표적 사찰은 양산 내원사로 매년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목재량만 9만 톤에 달한다. 사찰림을 보유한 곳 가운데 유일하게 참나무 위주의 연료재를 벌채해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 3만 3천톤의 바이오매스를 사용하고 있다.

또 김천 직지사는 화목보일러를 사용해 약 1000평에 가까운 전각과 요사채의 냉난방을 담당하고 있다. 등유 대비 30%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으며, 향후 태양광 보급 시범 도시로 선정된 김천시와 지열 설비 보급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 금산사 역시 간벌 과정에 나온 폐목을 화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직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단열 등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에너지 절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찰도 있다.

조계종 제 6교구본사 마곡사, 갑사, 광덕사, 관촉사와 에너지시민연대는 2010년 워크숍을 열고 사찰의 에너지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마곡사는 대기전력 차단, 단열보강, 신재생에너지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소비의 2/3를 줄이는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성원 흙부대건축네트워크 매니저는 "전력공급이 어려운 작은 암자들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 사찰 인근의 계곡을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난방을 위해서는 펠릿보일러 지열난방 태양열보일러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남태규 마곡사 종무실장도 "태양광 가로등과 중앙공급식 난방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과 함께 떠나는
하나투어(VIP여행사) 중국성지순례 6일
스님, 불자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3월 29일 출발 : 북경 | 성도 | 아미산 | 낙산
부산 ⇨ 북경 ⇨ 성도(1박) ⇨ 낙산 ⇨ 아미산(2박) ⇨ 성도 ⇨ 북경(2박) ⇨ 부산
불자라면~ 평생 한번은 꼭 가봐야 하는 성지순례
세계 최대 마애불상 낙산대불!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성도의 최고 고찰 문수원!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관광까지....
주요일정 (전일정 현지최고호텔 및 전용버스)

1일(3/29, 금)	북경, 성도
2일(3/30, 토)	낙산 : 소각사, 대자사, 낙산대불, 대불선원
3일(3/31, 일)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만년사, 금정사, 복호사
4일(4/ 1, 월)	성도 문수원, 아미산 보국사, 소열사, 금리시장, 북경
5일(4/ 2, 화)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이화원
6일(4/ 3, 수)	북경, 부산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투어)
■ 전화주시면 상세일정 안내 및 세부일정표 보내드립니다.
문의 및 접수 : 055)867-2259 / 진주 하나투어 VIP여행사 055)741-9999
후원 : 현대불교신문사

佛紀 2557年 癸巳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문의 : 053)474-8228, 010-9562-8228

물이 병들면 생명위협…깨끗하게 아껴써야

2013 세계 물의 해- 불교와 물

2013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해'다. 물은 단순한 자원이나 자연의 개념을 넘어 생명의 근원이라는 측면에서 인류가 깊게 고민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다. 유엔이 나선 만큼 오늘날 물의 문제는 가볍지 않다. 물의 해를 맞아 물에 대해 생각해 본다.

발우공양이 끝났다. 그런데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중 일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발우를 씻은 물을 마셔야 하기 때문이다. 템플스테이 현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불가에서는 발우공양을 하고나면 발우를 씻게 되는데 그 발우를 씻어낸 물을 청정수라고 한다. 그 청정수는 모아서 마당 한 쪽에 마련된 아귀발우에 버리게 되어있는데, 오늘은 그 청정수에 고춧가루가 하나 떴기 때문에 아귀발우에 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물을 당사자들이 마셔야 하는 것이다. 아귀발우에 버린 물은 아귀가 마실 물인데 아귀는 몸집은 집채만 한데 목구멍은 바늘귀처럼 좁아서 물밖에 먹을 수 없고 그 물에 고춧가루 하나라도 들어가면 목에 걸려 물을 마실 수 없다. 목에 걸린 고춧가루 때문에 아귀는 목구멍에서 불이 난다고 한다. 집채만한 몸을 채우기 위해 쉬지 않고 물을 마셔야 하는 아귀에게 깨끗한 물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이 죄를 많이 짓고 윤회전생(輪廻轉生)하게 되는 6가지 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 괴로운 곳인 삼악도(三惡道)는 지옥도(地獄道), 그 다음이 아귀도(餓鬼道), 축생도(畜生道)이며, 그 반대인 삼선도(三善道)는 아수라도(阿修羅道), 인간도(人間道), 천상도(天上道)의 여섯 갈래다. 이것을 육도라고 하며 여기에 삼계인 욕계, 색계, 무색계가 더하여 삼계육도라고 한다. 생전에 탐욕이 많고 시기가 많으면 다음 생에 아귀도에 나는데 아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굶주린 귀신'이라는 뜻의 아귀는 물밖엔 먹을 수 없는 괴로운 과보를 받았다. 이에 아귀를 불쌍히 여긴 불가에서 아귀를 위해 청정수를 모아 아귀발우에 버리기 시작한 것이다. 단지 아귀발우에 버리는 물이 아니더라도 물 밖에 먹을 수 없는 아귀를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물은 모두 깨끗해야 할 것이다. 해서 불가에서는 버리는 물도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이유를 붙인 것이다.



지구촌공생회는 2004년부터 캄보디아를 비롯한 물이 부족한 오지에 우물파주기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UN이 '세계 물의 해'를 정한 뜻

2013년 새해가 밝았다. 유엔(UN · 국제연합)은 2013년을 '세계 물의 해'로 정했다. 인류에게 물에 대해 심각하게 묻는 것이다. '물'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물이 부족한 곳이 늘어나고, 더러운 물이 늘어가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유엔이 정했든 아니든 물은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소중한 것을 넘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부족해지고 있고, 더러워지면 안 되는 것이 더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인류에게 묻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 '물'
부족하고 오염 심각해져
한국불교, 물 부족 국가에
우물파주기 '물사랑' 전개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한국을 포함해 리비아 · 모로코 · 이집트 · 오만 · 키프로스 · 남아프리카공화국 · 폴란드 · 벨기에 · 아이티 등을 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했고, 지부티 · 쿠웨이트 · 몰타 · 바레인 · 바베이도스 · 싱가포르 등 19개국을 물 기근 국가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1993년 1인당 물 사용 가능량이 1470㎥로 물 부족국가에 해당하고, 갈수록 물 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여러 보고서를 통해 알려져 있지만 종합하면 물 자체가 부족해진 것이 아니라 인류가 분별없이 쓰기 때문인 것으로 정리된다. 제대로 된(인류에게 필요한) 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소비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깊은 지하수가 되기까지 약 50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많은 물을 써버렸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케냐의 원주민이 강가에서 물을 담고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이 지하수가 되기까지는 50년이 걸린다. 물을 아껴써야 하는 이유다.

물의 부족 현상과 함께 물의 오염 또한 심각한 문제다. 2009년 발표된 유엔의 미래보고서는 지구의 물 부족과 함께 해양의 오염을 걱정했다. 해양오염 전문가 그룹은 해양오염의 44%는 육지의 오염물질 때문이고, 33%는 대기에서 유래했고, 12%는 선박에서 투기하거나 흘린 것이고, !00%는 고의로 버린 쓰레기에 의한 것이고, 1%는 근해의 광물채광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아귀의 물을 다시 생각해보면 물은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마셔야 하는 것이다. 경전 속의 아귀는 다름 아닌 우리다. 우리가 잘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이다. 깨끗한 물을 버리는 일이 깨끗한 물을 마시는 일의 시작이고 보면 마시는 일이 먼저가 아니고 버리는 일이 먼저가 아닐까.

물 없는 곳에 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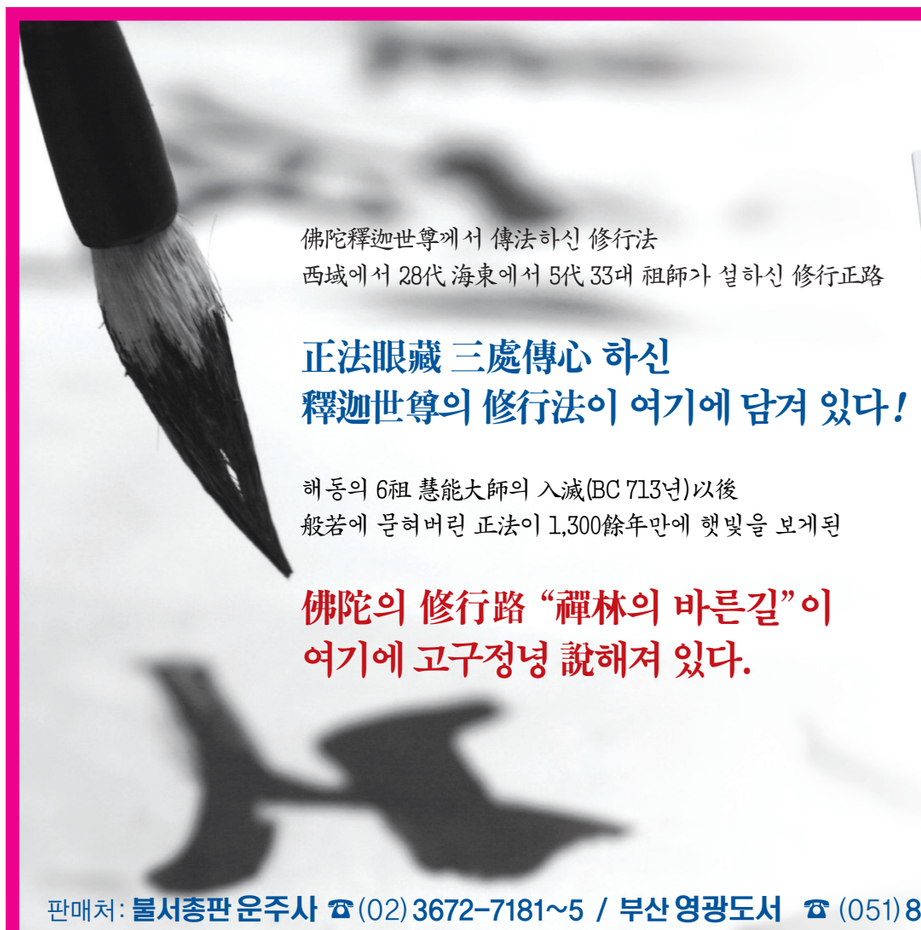
불가에서는 아귀를 위해 버리는 물도 깨끗이 해서 버렸다. 쉬지 않고 물을 마셔야 하는 아귀는 늘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버리는 물까지도 함부로 버릴 수 없음이었다. 앞서 말했듯 우리의 모습도 아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늘 마셔야 하고 깨끗해야 한다.

지구촌 곳곳엔 더럽고 깨끗함을 떠나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이 많다. 아귀를 위해 청정수를 준비했던 불가의 마음이 필요한 곳이다. 지구촌 곳곳에 '아귀발우'가 필요해진 것이다. 그 '아귀발우'는 우물 파주기다. 불교계 대표적인 국제구호단체인 JTS, 지구촌공생회 등 많은 단체들은 2000년 대 초부터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 물이 부족한 곳에 '우물파주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우리도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지만 우리보다 더 물이 절실한 곳을 찾아 부처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 몸은 지수화풍

우리 인간의 육신은 지수화풍(地水火風) 4대가 모여 이루어진 인연가합의 형태임을 부처님은 오래 전에 알아내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지수화풍에서 왔고,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다. 우리 몸의 일부는 물이 절대적이다. 우리는 물에서 왔고 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돌아간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랬다. 아귀가 처음부터 아귀가 아니었듯 끊임없이 우리는 돌아가고 또 그곳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돌아가고 시작되어야 할 물의 자리가 아귀의 물처럼 깨끗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탐욕의 과보로 집채만 한 몸과 바늘귀만 한 목구멍을 받은 아귀처럼 우리 인류의 탐욕이 계속된다면 우리도 역시 집채만 한 몸을 채우기 위해 늘 목마름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물은 지구의 핏줄이자 인류의 핏줄이다. 2013년 물의 해를 맞아 모든 불자들과 함께 물의 소중함을 살피는 한 해가 되기를 발원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 편저자 : 각암 성원
■ 상권 401쪽 / 하권 380쪽
■ 가 격 : 상권 15,000원 / 하권 15,000원
■ 발행처 :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부산시 기장군 철마삼동로 54
☎(051)515-8888(代)
출판등록 제11-67호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기쁜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佛紀 2557年 癸巳年 謹賀新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12 전면광고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욕심이 동하게 하지말고, 뜨거운 쇳덩이를 입에 머금고 목이 타는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지 말라.

대한불교조계종
대 해 사
「만약 모든 상相 이 상相이 아닌 줄 알면 곧 여래를 보리라.」 - 금강경 중에서 -
사부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대동 160-6
TEL 053)818-4055 / FAX 053)294-0408
www.daehaesa.org

대한불교조계종
원 각 사
주지 석대혜
신도일동
"부처님은 영원한 동행자이시며" - 저자 석대혜 -
카페 : 선산 원각사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59
TEL 054)481-2363

대한불교조계종
아 미 사
주지 덕현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236
TEL 053)983-1816

대한불교조계종
가야산 심원사
주지 응관
■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 65-1
종무소 : 054)931-6886
팩스 : 054)932-3838
www.simwonsa.kr

대한불교조계종
영 혜 사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469
TEL 054)733-4402

대한불교조계종
청암사승가대학
학장 지형
주지 상덕
학인대중일동
■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688
TEL 054)439-9511 / FAX 054-437-9664
www.chungamsa.org

대한불교조계종
봉 불 사
신도일동
■ 경북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554-1
(용화 5길 22)
TEL 054)481-1560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기도도량 중암암
주지 덕조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
TEL 054)335-3380

대한불교법화종
용 화 사
주지 혜각
■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740
TEL 054)332-0235

한국불교태고종
청 룡 사
대중일동
◇ 복지불사안내
· 매월독거노인지원 · 어르신 무료관광
· 매주 노숙자 무료급식 · 경로위안 문화예술제 봉행
· 독거노인. 장애인 목욕봉사 · 영안실 염불기도 봉사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141-16
TEL 053)656-5266

대한불교禪조계종
일각 혜동
■ 대각사 : 경북 청도군 이서면 칠곡리 165번지
TEL 054)373-5830, 010-6786-5830
■ 일지암 포교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663-13번지 TEL 053)625-5830

사)한국불교미륵종
거 오 사
주지 혜련
신도회일동
■ 경북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121
TEL 054)335-6603

'지장천도 영험기도도량'
팔공산 천룡정사
'탄생불'
주지 지덕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시원길 95
TEL 054)336-0052
FAX 054)336-0053
H·P 010-5153-0052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지 우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 FAX 053)983-1698

관음보살원만성취 지장보살업장소멸 기도도량
까치산 길조암
주지 보현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TEL 054)931-5204

"33관음 대불 도량"
"기도 가피가 빠른 도량"
우리절 성관음사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37-33
신행상담 TEL 053)655-3380

해 운 정 사
주지 청명
관음회 신도일동
청명노인복지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1928-13
TEL 053)621-6237

우리불교 우리절
용암산 미 륵 사
주지 석청송
■ TEL 053)981-1199
FAX 053)982-0683

대승불교관음종
석 송 사
주지 법장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월호 3리 838
TEL 054)636-2201

지 장 사
주지 문공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944-5
TEL 053)566-5391

수 국 사
주지 지원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 3리
TEL 054)932-9847

하늘이 내려준 복을 누리는 도량!
월산 안 향 사
주지 조향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289번지
TEL 054)232-9988 / FAX 054)261-8000

大願佛教曹溪宗
팔공산 白眼寺
주지 연공성오
신도회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백안동 275
TEL 053)985-4748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 주 암
주지 韓成鶴
사부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대한불교법화종
천 불 사
주지 법원
(성주사암연합 회장)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32-1
TEL 054)933-7881

대한불교 구화종 총무원
총본산 구 화 사
총무원장 석혜성
부 원 장 석현진
총무부장 석지법
재무국장 석지함
대중일동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응추리 산 92
TEL 054)977-9733 / FAX 054)976-6454

대한불교선각종
영천보현산 등 명 사
조 실 석정암
주 지 석혜명
신도회장 이선혜
신도일동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603-2
TEL 054)337-4572(등명사) 054)281-7712, 7719(포항자명선원)
H.P 010-5506-9448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정 원 사
주지 성봉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선1리 170-1
TEL 054)974-3223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정 수 사
주 지 만성
대구교구장
■ 경북 경산시 와촌면 신한리 58-3
TEL 053)853-0772

해 봉 사
주지 혜주
■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265
TEL 054)293-5785
FAX 054)291-5786

佛紀 2557年 癸巳年 謹賀新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13 전면광고

진리를 음료수로 삼는 사람은 맑은 마음으로 편안히 잠들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즐긴다. 성인들이 말씀한 그 진리를

대한불교 조계종 弘法寺

佛光 BLIA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사)한나래문화재단

주 지 심 산 (深山)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220-1
TEL 051)508-0345
FAX 051)508-6561
홈페이지 www.busanbuddhism.com
E- mail : 5080345@hanmail.net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감로불교대학
- 기초 / 경전 과정 -
회주 법희
주지 혜총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진구 전포 2동 33번지
TEL 051)809-0926 / FAX 803-0188

불교자비사상 실천현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부산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가릉빈가언어치료센터 ■ 용호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 용호방문요양파견센터 ■ 용호어린이집
■ 양정노인주간보호센터 ■ 용당어린이집
■ 무료급식(매일 400여명) ■ 노인대학(매일 200여명) 등
이사장 혜총 관장 이춘성
소 장 김영곤 부장 서은해
■ TEL 051)628-6737 / FAX 628-6562

부산불교회관은 도심포교를 위해 계획 설계된 미래 불교 도량입니다
부산불교회관 (부산시청 옆)
여여선원 · 여여정사
(부설)신행학교 · 여여불교대학 · 수선회
선원장 정여 스님 (前범어사 주지)

여여선원총무	효산스님
여여정사총무	효성스님
김해여여정사 주지	도명스님
김해불조사 주지	도명스님
해운대여여선원 주지	도우스님
관음낙가사 주지	효원스님
울산여여선원 주지	효암스님
여여선원신도회 명예회장	김경환
여여선원 신도회장	여만숙

신도회, 총동문회, 복지회, 선림회, 다도부, 삼천일기도회, 여여산악회, 여여선원카페, 지장회, 관음회, 청년회, 정소년회, 어린이회, 기초교리반, 여여불교대학, 선불교대학원

여여선원에 오시면 언제나
기초교리, 경전, 참선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여여선원수선회 (051)851-3355
■ 삼랑진여여정사 (055)355-9290~1
■ 김해 여여정사 (055)311-2911~2
■ 김해 불조사 070-4632-4747~8
■ 해운대여여선원 (051)782-7799
■ 울산여여선원 (052)267-0108
■ 사량도관음낙가사 (055)641-7766
■ 영도 대흥사 (051)417-6010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주 지 목 종
신도회장 신익철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로데오아울렛 3층)
TEL 051)742-7610 / FAX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자비실천수행도량
미 룡 사
회 수 정각
주 지 청명
법 사 범진
노 전 정혜, 이구
신도회장 김동렬
■ 부산시 영도구 장수길 150
동삼1동 323-194
TEL 051)404-4300, 403-4848
FAX 051)403-4860

대한불교조계종
천성산 원효암
사부대중 일동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산 1번지
TEL 055)375-4111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 지 하 림
사부대중 일동
■ TEL 051)253-8687~8
www.mitazen.net

범어사 직할포교원
반 야 원
(세계금강승불무도)
주 지 안 도

http://www.bulmudo.org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61-7 8층
TEL 051)701-5655

한국불교의 중심! 부산불교!
『2013 계사년 새해 새 아침』
"화합과 번영의 21세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사)부산광역시불교 연합신도회가 수행과 정진에 앞장 서겠습니다."
(사)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
회 장 이윤희
外 임직원 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 1동
393-12번지 불교회관 401호
TEL 051)861-8800
www.baob.kr

(사) 부산불교지도자포럼

상임고문	박수관
고 문	김재운 김재진
	조효식 최칠관
	설동근 이윤희
	박민식 김영주
직전회장(고문)	허인구
회 장	박순곤
수석부회장	김종백
부 회 장	권청길 김수현
	이상수 이시영
	장남인 박영근
	신재철 장인화
	최삼섭 장석준
	김승영 양재생
감 사	김동열 노종헌
사무총장	신상해
재무총장	박차수
총무이사	장병주
기획이사	안천일
친목이사	공정근
사업이사	정연식
조직이사	이헌호
홍보이사	이현수

이사회원 일동
■ 주소 : 부산 진구 부전동 512-3번지
정산빌딩 9층
TEL 051)334-0108 / FAX 051)867-4397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釜山佛教實業人會
妙 光 禪 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최 찰, 서춘석
박수복, 이상태, 하문원
부회장 조재원, 이근철, 이달수
황인관, 신병호, 박주영
감 사 지호경, 이광재
총무이사 이환길
재정이사 이학성
사업이사 이종환
관리이사 이규인
재정자문 김정웅
회원 및 마야부인회 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1-9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TEL 070-8133-9917 / FAX 051)818-9916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고 문 김귀련
회 장 김윤순
수석부회장 조옥자
부회장 이정희 이나전
박화자 장옥기
김정숙 김윤경
김수정 허혜정
총 무 윤의숙
재 무 조영순
홍 보 안소민
교 무 김해숙
감 사 이옥희
봉 사 김순자 강옥자
김진남 김정애 정월화
운영위원장 강경희
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393-12 불교회관 4층
TEL 051)867-0501

대한불교조계종
대 광 사
[부설] 대광유치원
대광불교대학
회주 운성
주지 탄경
신도일동
●법회안내
*초하루법회:매월(음)1~3일 오전10시30분
*보름법회:매월(음)15일 오전10시30분
*지장회:매월(음)18일 오전10시30분
*관음회:매월(음)24일 오전10시30분
*대광불교대학: 매주 화,수요일 오전10시
*어린이회:매주 토요일 오후2시
*반야합창단: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다도반 :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
TEL 055)545-9595 FAX 545-9513
유치원 055)545-9599 FAX 545-9499
홈페이지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황령선원 홍 제 사
선원장 혜국
주 지 성문
사부대중일동
· 매월(음) 초 하 루 - 초사흘 신중기도
· 매주(월) 다라니기도 - 오후 7시 ~ 9시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노인요양시설 효 림 원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 3동 485-31
TEL 051)802-0130 / FAX 804-1037

대한불교조계종
혜 원 정 사
조실 고산
주지 원허
신 도 일 동
[재] 고산장학회
사회복지법인 혜 원
영도구 노인복지관
혜원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
선 재 어 린 이 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1113-1번지
TEL 종무소 051)866-7771~3
FAX 051)866-7777

“뱀이 허물을 벗듯이 수행자는 새 세상을…”

불교와 뱀

뱀은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동물이다. 남남동을 지키는 방위의 신이자 십이지의 여섯 번째 동물로 사람들에게 숭상을 받고 있으며 한국인의 12명 중 1명은 아마도 뱀띠일 가능성이 있기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뱀과 연관을 맺고 살고 있다.

조선후기부터 민간에 크게 유행한 당사주책에는 뱀띠는 ‘용모가 단정하고 학업과 예능에 능하며 문무를 겸비’ 하였다고 전해진다. 십이지 동물로서 뱀은 다른 동물에 뒤지지 않는 대접을 받고 있었으며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운명을 같이하는 친숙한 존재였다.

하지만 현실세계의 뱀은 어떠한가? 뱀은 사람들에게 피하고 싶은 징그러운 존재에 불과하다. 둘로 갈라져 날름거리는 혀, 징그러운 비늘로 덮인 몸, 몸으로 기는 기괴한 이동법 등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뱀의 치명적인 맹독은 사람들에게 뱀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했다. 현실 세계에서 뱀은 항상 조심해야 하고 피해야 하는 징그럽고 거북한 존재다.

〈숫타니파타〉에선 수행에 비유
은혜 갚는 뱀도 자주 등장

한편으로 뱀은 노쇠한 몸에 원기를 가져다주는 신비한 명약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뱀을 잡아 돈을 벌었고, 뱀을 먹고 건강해지길 원했다.

경전속의 뱀은 수행에 비유

그렇다면 경전 속에서 뱀은 어떻게 나타날까? 〈숫타니파타〉 첫 장에서는 수행자가 고행을 통해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뱀의 허물을 벗는 것에 비유했다. 17개의 경구 중 두 개만 골라 보면 이렇다.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치미는 화를 삭이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연못에 핀 연꽃을 물속에 들어가 꺾듯이 애욕을 말끔히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처럼 뱀은 기존의 습을 허물처럼 벗어버리고 수행자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리고 일체의 세계로 들어서는 수행자는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숫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도 나온다.

‘히말라야에 흐르는 물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이는 똑같은 물이라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여기서 소가 먹는 물은 젖이라는 긍정적인 것을 낳고 뱀이 먹는 물은 독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뱀의 독은 부정적 측면의 표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뱀의 습성은 법에 비유되기도 한다.

〈맛지마니까야〉에는 ‘뱀의 비유의 경’이 있다. 여기서는 이전에 독수리 사냥꾼이었던 아릿타 비구의 이야기가 나온다. 아릿타 비구는 “내가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장애가 되는 법들이라고 설하신 것을 수용해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자 비구들은 아릿타 비구에게 나쁜 견해를 고쳐주려고 질문하고 반문하고 추궁하며 그를 설득한다.

“도반 아릿타여,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존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반 아릿타여,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장애가 되는 법들을 설하셨고, 그것을 수용하면 반드시 장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존께서는 뱀 머리의 비유로 감각적 욕망은 많은 괴로움과 많은 절망을 주고 거기에는 재난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득에도 불구하고 아릿타 비구는 그의 견해를 완강하게 고수하고 고집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비구들을 불러 법을 잘못 파악한 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준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땅군이 뱀을 원하고 뱀을 탐색하고 뱀을 찾아다니다가 큰 뱀을 보았다고 하자, 그 사람이 그 뱀의 몸통이나 꼬리를 잡는다면 그 뱀은 되돌아서 그 사람의 손이나 팔이나 몸의 다른 부분을 물어버릴 것이다. 그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뱀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중략) 법을 배우지만 그 법을 배워 통찰자로서 그 법들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 그럴 때 그들에게 그 법들은 확립되지 못한다. 그들은 오직 다른 이들을 논박하고 자기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을 배우므로 법을 배우는 그 궁극의 의미를 체득하지 못한다. 그들이 잘못 파악한 법들은 그들을 긴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법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처님은 땅군을 수행자에 뱀을 법에 비유해 비구들에게 설명하셨다. 결국 법이라는 것은 제대로 살펴야 그 진정한 뜻을 궁극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혹여나 잘못 파악하면 뱀의 독에 물리는 격이 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은혜 갚는 이야기 속의 뱀

〈경률이상〉에서는 은혜를 입은 뱀이 자신의 독으로 이를 보은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경률이상 11권’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옛날 보살이 큰 재판관이 되어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쌓았는데, 언제나 3존(尊)을 받들었고 중생들을 사랑으로 대하였다. 그는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그러던 어느날 홍수를 예언하고 배를 타고 거처를 떠나고 있는데, 물에 떠내려 가는 뱀과 여우와 사람을 구하게 된다.

이후 보살은 구해준 사람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자 뱀이 나서게 된다. 뱀은 보살을 찾아가 약을 건네준다. ‘내가 태자를 물테니 이 약으로 태자를 구해 목숨을 구하십시오’라고 말한다.

이후 뱀은 태자를 물게 되고 태자는 곧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된다. 왕은 명했다. ‘태자의 목숨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상국(相國) 벼슬을 봉하여 나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겠느니라’

보살이 뱀에게 들은 대로 약을 전했더니 태자는 감쪽같이 병이 낫게 되었다. 이후 보살의 진실이 밝혀지고 죄를 면하게 된다. 이후 왕은 보살의 조언을 받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시하게 된다. 홀아비와 과부, 고아들을 어여삐 여기기를 꼭 자기의 친아들처럼 하였으니, 온 나라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웃음을 머금고 행하였다고 한다.

26권에 나오는 이야기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한 도사가 뱀, 까마귀, 사냥꾼을 구해주게 된다. 이후 도사는 오해를 사게 돼 감옥에

부처님, 법을 뱀에 비유 설법
“잘못 파악하면 독에 물리는 격”

갖힌다. 이때 뱀이 태자를 물어 뱀이 준 약을 통해 도사가 풀려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인간은 보살이나 도사를 해치는 존재로 나오고 뱀은 보은의 동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뱀의 독은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뱀은 자신의 독을 이용해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실 속에서의 뱀은 부정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상 세계의 뱀은 그 무대의 주인공이었다. 십이지 동물 가운데 뱀처럼 상상의 세계에서 많은 이야기를 가진 동물도 없었다. 경전 속에서 설화속에서 뱀은 인간의 여러 얼굴을 보여주는 대리자로서 인간 내면의 여러 요소가 뱀의 입과 몸을 빌려서 나타난다. 은혜를 갚는 선한 존재로, 복수의 화신으로, 때로는 탐욕스런 절대악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래 묵은 구렁이인 이무기는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고 싶은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상징이다. 또한 저승 세계에서 뱀은 악인을 응징하는 절대자로 나타나며, 악한 사람은 뱀이 되어 다시 태어나기도 했다. 2013년 뱀의 해를 맞았다. 새해에는 뱀의 긍정적인 면을 배워보자. 인내하고 지혜롭고 의리 있는 그런 뱀의 면모 말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2013년 흑사의 해를 맞았다. 긍정성과 부정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뱀은 여러 불교 경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림은 통도사성보박물관 십이지의 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佛紀 2557年 癸巳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한국불교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

종무원장	도광	원로위원	근수
부 원 장	도안	원로위원	수종
총무국장	혜성	종회의장	혜신
재무국장	현법	부 의 장	송헌
규정국장	정수	중앙종회의원	승천
사회국장	청각	중앙종회의원	도성
포교국장	송운	중앙종회의원	진성
교임국장	행담		
교육원장	영산		
감사원장	법륜		
포교원장	승천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65-14 ☎ 063)285-9700 / 팩스 : 063) 282-1536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2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1월 중
◆ 개강일시 : 2013년 1월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계사년 불교 소사

453년 운강석굴 조성
1233년 대장경 판각 시작
1893년 시카고 만국불교대회

393년 | 372년, 전진의 순도에 의해 고구려에 불상과 경문이 최초로 전해졌다. 371년 왕위에 오른뒤 율령 반포 등 국가기반을 다지전 소수림왕은 불교를 통치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375년 삼국 최초의 사찰인 초문사(肖門寺)와 이불란사(伊弗蘭寺)가 건립됐으며 393년에는 평양에 9개 사찰이 창건됐다.

453년 | 막고굴, 용문석굴과 함께 중국 3대석굴로 불리는 운강석굴 조성이 시작했다. 494년에 완성된 석굴들은 동서로 1km가 이어진다. 주요동굴 45개에 감실 252개로 석조조상이 5만 1000여구가 있다. 당시는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 394~468) 등 역경승들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다.

513년 | 백제에서 오경박사(五經博士) '단양이(段楊爾)'를 일본에 보내 역경을 포함한 오경(五經)을 처음으로 일본에 전했다.

573년 | 위진남북조시대 왕실 귀족들의 지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불교가 2차 법난을 겪은 해이다.

633년 | 백제 담화(曇和) 선사에 의해 연암산(燕岩山) 기슭에 천장암(天藏庵)이 창건됐다.

693년 | 〈삼국유사〉에 신라 국선(國仙)인 부례랑이 북명(北溟, 지금 북한의 원산만)에서 말갈족에게 붙잡혔는데 월성(月城) 천존고(天尊庫)에 보관하고 있던 만파신적과 현금(玄琴)을 뺐겼다. 부례랑의 양친이 백률사에서 백일간 기도하자 향탁에 나타났고 전해진다.

753년 | 신라 경덕왕이 여름 가뭄으로 태현(太賢) 스님을 궁중으로 불러 기우(祈雨)를 하도록 했다. 태현 스님은 〈금광명경〉을 강설했는데 한국불교 최초의 기록이다.

813년 | 813년에 당나라에서 〈구화산 화성사기〉가 쓰여졌다. 〈구화산 화성사기〉에는 지장 스님의 활동을 상세히 다뤘다.

873년 | 〈삼국사기〉에 의하면 경문왕 13년인 873년 9월 기울어진 황룡사 9층탑의 개조가 완료됐다. 당시 황룡사 9층탑 높이는 22장(약 66m)였다고 한다.

1113년 | 캄보디아 앙코르왕조가 크메르(Khmer) 왕국을 세워 앙코르 와트를 건립한 해이다.

1233년 | 1233년은 대몽항쟁기로 전란의 와중에 대장경 조성사업이 시작된 해이다. 팔만대장경 판각을 고종 38년(1251년)을 기점으로 16년 전인 고종 23년(1236년) 시작했다는 설이 있으나 학계에서는 대장경판 권말의 경판 간행기록의 마지막인 1248년에서부터 16년을 역산해 1233년 조성사업이 시작된 해로 보고 있다. 1233년에는 몽고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강화 외성 축조가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1413년 | 불교를 배척하던 태종이 즉위 13년을 맞아 서울 진관사에 성녕대군(誠寧大君)을 위한 수륙재를 열고 향과 제교서(祭敎書)를 내렸으며, 수륙재위전(水陸齋位田) 100결을 하사하여 재를 계속하게 했다.

1473년 | 조선 세조 이후 성종이 즉위하자 척불정책이 본격화됐다. 1471년에는 도성안 염불소 등이 폐지됐으며 1473년에는 사대부 부녀자의 출가가 국법으로 금해진다. 성종의 정책은 다음 왕인 연산군 때도 이어져 선종 도회소 인 층천사, 교종 도회소인 흥덕사, 대각원사 등 삼각산 모든 절이 폐사됐으며 승려들은 관노가 됐다.

1593년 | 1593년은 임진왜란이 진행되고 있던 해로 전국 각지에서 의승병들이 일어났다. 의승군은 평양성 탈환에 크게 기여했으며 선조는 유정 스님의 승군의 전공을 높이사 선교종 판사를 제수했으며 적을 죽인 승려에게 선과를 제수해 표창하는 뜻을 보였다. 임진왜란으로 불국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찰들이 소실됐다.

1653년 | 명청 교체기로 청나라 순치제가 티벳과 화친하기 위해 달라이라마 5세를 북경으로 초청했다. 달라이라마는 5000 수행원을 거느리고 북경에 도착해 당시 청나라에 대한 소수민족들의 민심을 얻게 한다.

1713년 | 여수 향일암이 마을 주민들의 필탑 헌공으로 본격화돼 2년 뒤인 1715년 중수된다.

1773년 | 청나라 건륭제가 한문대장경을 만주글자로 번역하는 사업을 시작해 18년 만에 완성한 해이다. 당시 대장경의 간행은 만주글자의 보급이 아닌 왕권강화의 목적이 더 컸다.

1833년 |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에 자장율사가 초암을 지었던 자리에 중창된 평창 월정사가 대형 화재로 인해 모두 불탔다.

1893년 | 조선왕실에서 고려시대 행해지던 연등회가 재연됐다. 이와 함께 1893년 시카고 만국불교대회는 동양의 선(禪)이 미국에 처음 전파된 해였다. 일본 임제종의 샤쿠 소우엔(釋宗演, 1859~1919) 스님과 그의 제자들이 선을 전파하는데 힘썼으며 스즈키 다이세쓰, 소케이안, 순류 스즈키 등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53년 | 1953년은 한국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해였다. 불교계는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사찰들이 소실되고 철거됐다. 1953년 불교계에서는 정화운동의 씨앗이 싹튼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25차 국무회의에서 사찰농지반환을 지시하고 토지개력으로 전국사찰 소유의 토지가 반환됐다. 1953년 4월 경주 불국사에서 법규위가 개최되고 비구 수도도량이 18개가 지정됐는데 31개 본산은 전부 제외됐다. 이에 비구승들이 분개해 교단 쇄신을 결의하게 된다. 이에 5월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사찰을 보호·유지하라는 담화를 발표한다. 이 해에는 각 종단이 활발히 일어난 해이기도 하다. 심인불교(心印佛敎)가 8월 대한불교진각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종단 시스템을 정비했다. 또 4월에는 조선불교선리참구원도 선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뱀띠 사부대중의 서원

지난 한해 불교계는 승풍실추와 힐링 열풍으로 극락과 지옥을 오갔다. 올해 계사년(癸巳年) '흑사의 해'는 대한민국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취임하는 등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뱀띠 불교인사들의 한 해 서원을 들어봤다. 신중일 기자

"종단 쇄신 완성위해 최선 다할 터"

조계종 선본사 주지 덕문 스님



"내년에는 33대 집행부의 자성과 쇄신 결사와 주요사업들을 마무리해야할 시기입니다. 34대 총무원장 선거도 있습니다. 종단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965년 을사년(乙巳年) 생인 갓바위 선본사 주지 덕문 스님은 신년을 맞는 소감을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덕문 스님은 총무원장 종책특보, 원로회의 사무처장 등 종단 주요 소임을 맡고 있는 만큼 총무원 주요 사업을 이상 없이 마무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개인적인 서원 역시 종단 직영사찰인 선본사의 발전에 있었다. 스님은 "종단에서 쇄신안을 내놓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재정 투명화 였다"며 "선본사의 사찰 운영위원회가 여법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로회의 사무처장으로서 원로의원 스님들을 잘 시봉해 종단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이것만 실천하면 올해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취임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통합을 주문했다. 또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도 당부했다.

덕문 스님은 "대통령 당선 후에는 여야와 세대가 나눠 반목한다. 이를 통합하는 게 대통령의 가장 큰 덕목"이라며 "전통문화에 대해는 문화적, 종교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밝혔다.

불자들에게 당부하는 경구로는 '조고각하(照顧脚下)'를 꼽았다.

스님은 "자신의 본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행복은 저절로 생겨난다"며 "또한 소욕지족(少欲知足)의 마음으로 산다면 언제나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수행과 학문에 깊이 천착하겠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계환 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계환 스님은 1953년생으로 올해 꼭 환갑을 맞는다. 하지만 신년을 맞는 소감은 담담했다.

"이전에 환갑은 잘 살던 못 살던 살아있었다는 의미로 기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변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스님은 올 한해 서원으로 수행과 학문을 꼽았다. 출가자로서 '수행'과 학자로서의 '연구'라는 기본을 지켜나간다는 의미다.

"출가한지는 꼬박 40년이 넘지만 활동하면서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한 것은 많이 후회가 됩니다. 또한 현재 동국대 학교 평가 순위가 13위인데 교수들의 연구실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자로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내 학교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힐링 열풍으로 불교계의 주목되는 상황에서 계환 스님은 올해 불교가 신비주의를 벗고 대중 속으로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불교가 가지는 장점은 많습니다. 대중들도 이를 알 수 있게끔 불교가 대사회적인 부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불교가 어렵하고 합니다. 내년 불교계가 신비주의를 벗고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자들에게는 〈유마경〉의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경구를 한해 가지고 갈 화두로 꼽았다.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불자들과 국민들 모두 남을 생각하는 이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로 공감대 만들 수 있는 세상 되길

신재순 정토회 자원활동가



정토회 자원활동가로 활동 중인 신재순 씨는 지난 한해를 뜻 깊게 보냈다. 정토회 백일출가 2기생으로 처음 불교를 공부하고 정토불교대 경전반 과정을 공부하며 아집과 법집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신심 높은 불자지만 신 씨는 2013년도 삶의 키워드는 '여유'로 정했다. 지난해 바쁜 한해를 보낸 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싶어서다.

"2012년은 정토회 100일 출가자 법회를 이끌며 바쁘게 산 한 해였습니다. 주마간산처럼 한 해가 지나갔죠. 그래서 올 한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동안 읽고 싶어서 사두었던 책들도 읽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도 만나면서 제 삶의 재충전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신 씨의 올해 소원은 결혼이다. 결혼 적령기를 훌쩍 넘은 그가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를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올해에는 꼭 장가를 가고 싶네요. 이젠 저도 인생에서 함께 하고픈 인연을 만났으면 합니다. 사실 불교공부를 한 동기도 제 자신이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돼야 누구를 만나든 떳떳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올해 불자들이 생각해봐야 할 경구에 대해서는 법성게의 첫 구절인 '法性圓融無二相'이었다. 저마다의 인연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서로 서로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지역, 세대, 계층 간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에 함께 할 수 있고 조화로울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서로 공감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교적 가정관리' 연구 발원

김외숙 한국방송통신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환갑을 맞는 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좀 색다릅니다. 이제는 노년기를 준비해야 할 시기죠. 맡고 있는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동안 바쁘게 살았던 만큼 이제는 여유를 좀 가져보려 합니다."

김외숙 한국방송통신대 가정관리학과 교수는 계사년 신년을 맞는 소감에 대해 이 같이 술회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사)지혜로운여성 이사로도 활동 중인 김 교수는 올해에는 집필과 연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개인적으로 방통대 교수로서 관련 교재를 주로 썼지만 최근 일반 학생들을 위한 교재도 집필 중입니다. 이를 마무리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가정관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해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올해의 가장 큰 서원입니다."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이 갈등의 시대에 더욱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힌 김 교수는 첫 여성 대통령에게도 적지 않은 기대를 표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 당시 어머니같은 마음으로 보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못난 자식이든 잘난 자식이든 모두를 포용합니다. 박 당선인도 이런 모성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또한 박 당선인이 공약이 헛된 약속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불자들이 한해 동안 반추해야 할 부처님 말씀으로는 '자타불이(自他不二)'와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소개했다. 갈등의 시대, 남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화합의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佛紀 2557年 癸巳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산 선암사
주지 원범
원효신도회, 원효봉사단회, 원효불교대학,
원효거사회, 원효합창단, 원효청년회, 원효다도회
사부대중일동
고품격 추모문화를 추구하는 선암사추모관
선암사 직영으로 신뢰 높은 운영관리
천년고찰 선암사와 영구히 존재
매월1회 발복과 극락왕생 기원 합동천도재
설, 추석, 백중 합동 제사
■ 문의 및 접수처 : 051)803-7576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3동 628번지
051)803-7573 / 전송 051)803-7521

대한불교조계종
도갑사
주지 설도
■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번지 전화 061)473-5122
홈페이지 www.dogapsa.org



사라져 가는 팔공산 범음 범패 염불소리를 살리고자 (동현)소승이 교육원을 개원하고
제 1기 수강생 을 모집합니다

교육현황

초급 의식 염불과정		
일반	6개월	(주1회 2시간)
속성	3개월	(주1회 3시간)

▷과 목 : 초발심자경문, 사미율법, 바루공양법, 요령목탁사용법, 천수경, 반야심경, 새벽도량석염불, 팔공산소리새벽종성염불, 각단예불, 각축원편,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중급 의식 염불과정		
일반	12개월	(주1회 2시간)
속성	6개월	(주1회 3시간)

▷과 목 : 시련, 삼신이운, 104위신중작법, 시다림, 49재천도의식, 다비편, 방생편, 각종고사, 각점안식염불, 구병시식, 생전예수재의문

특수 작법	
6개월 과정	(주1회 2시간)
* 작법은 (일반) : 속성이 따로 없음	

▷ 복청게,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사물타법 도량게(나비춤), 오공양작법, 화청

모집인원
● 35명 (선착순) ※ 개강 이후 1기 졸업시까지는 중간에 수강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모집기간
2012년 12월 1일 – 2013년 2월 28일까지 마감
※ 신청하실분은 본원에 직접 나오셔서 접수하시고 교육일정 시간표를 꼭 받아가십시요.
그리고 수강신청 접수하시고자 본원에 오실때는 필히 명함판 사진 2매를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수강일
2013년 1월 22일 오후 3시(초급반 일반부)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원 원장스님과 직접 상담하여 주십시요.
▶ 교육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TEL 053)781-4200, 851-2666 / H·P 010-3424-0108
대구불교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 원장 동현 합장

佛紀 2557年 癸巳年 謹賀新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16 전면광고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울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방탕한 사람은 남의 소만 세고 있는 소몰이꾼일 뿐 참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없다.

대한불교조계종
영 주 암
[부설] 양정청소년수련관
영주암유치원,어린이집
회 주 불국정관
주 지 범산
■ 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 950번지
TEL (051)754-2210
유치원 754-6120/수련관 868-0750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문수불교문화원
회 주 법흥
주 지 지원
신도회장 최묘각심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51-8
TEL 051)624-3754,623-3648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강암
주지 정만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508-4509
FAX 051)051)508-4870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계명암
주지 선재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508-4345

대한불교조계종
운 수 사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사상구 모라3동 산5번지
TEL 051)317-5671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당
진여원·불교대학
회 주 혜 총
주 지 무 성
원 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사부대중일동
■ 부산 광역시 북구 구포2동 930-8
TEL 051)338-1008. 337-1080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지 운암현엽
신도일동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445
TEL 051)271-2774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부산분원 보림사
주지 청봉
신도일동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269-2
TEL 051)721-9500

백화도량 봉화산
길 상 사
주지 자인
신도일동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8번지
TEL 051)973-5224

관음도량
신어산 해경사
주지 지현
■ 경남 김해시 지내동 산 41-1
TEL 055)336-5193, 327-7926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주지대행 상천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6동 843번지
종무소 051)467-3316
팩 스 051)467-3338

재단법인 보현장학회
이 사 장 정여
상임이사 각우
이 사 여현 정현 정만
백대일심 심금윤월
감 사 상현 오미희
사무국장 이욱태
■ 부산 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57
TEL 051)400-2303 FAX 403-9810

새로운 천년 길상의 향기
대한불교조계종
길 상 사
[부설] 삼계선원 · 불교대학
법화경반 · 우담바라합창단
성현덕회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
■ 주소 : 경남 김해시 삼계동 1511-10번지
대명빌딩 201호
TEL 055)333-8202 / FAX 055)333-8203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도
사부대중 일동
www.hanmaum.org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중리 522-1
TEL 051)403-7077 FAX 403-1077

삼천불 봉안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정 토 사
주지 산하덕진
사부대중일동
조계종신도전문교육기관 정토불교대학
정토사 극락원 (납골당)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803-5
TEL 052)258-9944-6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원범
부본부장 자인, 목종, 문수용, 이경순
감 사 심산, 박분희 총무이사 해암, 이동권
기획이사 마나, 이욱태 재무이사 법안, 박계수
홍보이사 성림 자살예방이사 혜산
이사일동
■ 생명나눔부산 자살예방센터 051)442-0429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1동 345-5번지 대성빌딩3층
TEL 051)853-0429 / FAX 051)853-0439
http://www.bslisa.or.kr

부산여성불자회
총 재 혜 총
자문위원 백명숙 이경순 천양자
회 장 왕선자
부 회 장 정정자 이미춘 양외금
총 무 박정림 김명자
재 무 서점례 손하영
이사 · 회원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393-12 (불교회관4층)
TEL 051)817-3166, 3168 (FAX겸용)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불교문화대학원 동림동문회
고 문 유진 자 문 신풍 학산
명예회장 송월 심산 무상
회 장 광진 수석부회장 법안
부 회 장 효신 고담 대광 도암
의호 보당 진각 지원
보원 정오 지엄 안도
이사 회원 스님 일동
■ 사무국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천년 가야의 전설을 간직한
봉화산 정토원
원장 선진규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번지
TEL 055)342-2991~2
www.bonghwasan.org
호미든관음보살상 ▶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실천도량 원오사
꿈나무가꾸기 명정 장학재단
회 주 고원 명정
주 지 정관
신도회장 박대건
신도일동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528번지
TEL 051)542-7949, 545-7949

복짓고 원세우고 전법하는
대한불교청년회부산지구
회장 박경수
30대 임원 일동
53청년구법순례
동참:매월 1,3주 토요일 오후7시
cafe.daum.net/kybabs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330-9 4층
TEL 051)861-5241 / FAX 863-5281

사)부산파라미타
청 소 년 협 회
총 재 수 불
부 총 재 심산, 원허
사무총장 지장
협 회 장 백명숙
중등부지회장 김정락
고등부지회장 김영일
사무국장 최낙현
■ 부산시 연제구 연산 5동 1330-9번지 부산불교신도회관 4층
TEL 051)513-4306 / FAX 513-4307

사회봉사단체
부산불교 보현회 보현정사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전영자 윤점자
감 사 김선언 홍보부장 유기선
회원일동
■ 부산시 동구 좌천동 532-1
TEL 051)636-4531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부산분원 관음사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
■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9-2
TEL 051)294-9300/ FAX 294-9305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다정한어린이집 노인주간보호센타
■ TEL 051)265-9471

밀양 천황산
얼음골 천 황 사
-보물 제1213호 석불좌상-
사부대중 일동
■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7번지
TEL 055)356-2540

수행과 회향 자정과 혁신의 공동체
참여불교 대구·경북재가연대
대표 김주동
■ 대구시 중구 남산2동 536번지 동아빌딩 4층
TEL 053)427-0108 / FAX 053)254-9348

학교법인 동곡학원
선화여자고등학교
이 사 장 운곡 돈관
교 장 장정익
교 감 이희명
행정실장 김인수
법인사무국장 강희중
「새롭게 도약하는 선화여자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육의 가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 경북 영천시 화룡동 산 7번지
TEL 054)333-3431 FAX 054)333-3432

(株)玖峰·鍍金·精工
ISO 9000:2000 인증업체/QS 2000-1998 인증업체
代表理事 金明錫
■ 구봉정공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620-1
TEL 053)351-0009,4856 / FAX 053)352-1717
(주)구봉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905-9
TEL 053)582-0156 / FAX 053)582-0157
구봉도금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100-65
TEL 053)581-0009,8907 FAX 053)582-4173
Hompage : www.goobong.com
E-mail : gnbong@kornet.net

謹賀新年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곳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이사장 향적
중교장 이종서
고교장 양근식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지산동 800)
TEL 053)764-0807

운불련 호출택시
회장 성승길
■ 053)766-7777,053)323-7777
053)566-7777,053)744-8888
053)764-0763~4
FAX 053)764-0766

佛紀 2557年 癸巳年 謹賀新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17 전면광고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대한불교조계종

익산 관음사

주지 덕림

신도 일동

이리 불교대학

학 장 덕 림

부학장 김진수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1-9
전화 063)854-1578, 842-6652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함라산 숭림사

(보물 제 825호 보광전)

주지 지광

신도회 관음회 일동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5번지
전화 063) 862-6394
홈페이지 : http://www.sunglimsa.com/

익산불교신도연합회

명예회장 이의식
고문 김동확 김진수
부회장 고태용 박찬용 김영배 강권술 심송자 최용호 윤광채 모순영 문순복 김한철
사무국장 오창록
감사 송동기 전정순
포교사단 능인회장 고태용
마한거사림회장 오창록
천천마한클럽
장학회 사무국장 김한철
대원회(봉사단)회장 모순영
가릉빈가 합창단 단장 문순복

■ 다음카페 http://cafe.daum.net/익불련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월명산 동국사

주지 종걸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번지
전화 063)462-5366
http://www.dongguksa.or.kr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남 고 사

주지 원혜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전주시 동서학동 2가 724
전화 063)286-9640

지장신앙의 성지를 추구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영 선 사

주지 월공(月空)

(사)사람과 희망
등용(登龍)청소년공부방

■ 전북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산32번지
전화 063)636-2195
http://www.youngsunsa.org/
http://cafe.daum.net/youngsunsa

대한불교조계종

종남산 송광사

회주 도영

주지 법진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번지
전화 063)243-8091
http://www.songkwangsa.org

사회복지 법인 송광 정심원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01번지
전화 063)243-1212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서사

주지 무여

- 문수선원.시민선원
- 불교대학.대학원
- 축서사합창단
- 바라밀합창단

사부대중 일동

축서사 극락원(수목장) 자연과함께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장묘문화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전화 054)672-7579

체질을 알아야 병을 고치는시대

나의 체질이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사람을 보면 64형으로
나누어 알맞는
음식.과일.차를 알려주고
만나는 인연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는 특혜를 드림

■ 무료상담 010-9373-3778

영농법인 풍기정품 인삼제조창 풍삼정

직접 재배 가공하여,
양심을 속이지 않고
100ml×60포(한달분) 홍삼액기스
산삼배양근추출액(레드파워)홀삼편.
홍삼청국장.직접재배하는 수삼

홍삼의 샤포닌은 성분과 향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72시간 이상을 숙성 발효시켜 만든 홍삼액기스 입니다.

■ 영농법인 풍기정품인삼 제조창 풍삼정
전 화 054)636-2174
휴대폰 016-815-2174

정 안 사

주지 정안

신도일동

■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310번지
전화 063)466-6055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단장	주정기
수석부단장	고태용
부단장	김기운
감사	최학성, 구강식
군포교총괄팀장	이성강
사무국장	강석춘

전북포교사 일동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56-5 전북불교회관내
전화 063)252-4940

대한불교조계종

화엄도량 부석사

주지 근일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전화 054)633-3464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말사

영주포교당

주지 도륜

금강불교대학.신도회.
거사림회.연꽃회

■ 경북 영주시 영주2동 411-2
전화 054)632-3767

대한불교 조계종

소백산 비로사

주지 성공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전화 054)638-5033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말사

서 악 사

주지 세관

사부대중 일동

***룸비니유치원**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13
전화 054)655-1001

한국불교 태고종

능 하 사

주지 성련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마포구 공덕1동 105-95 4층
전화 02)701-7488

재단법인 선학원

관 음 사

주지 도기

신도일동

*** 관음유치원운영.군포교.재소자포교활동 ***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원리 739
전화 054)633-1138

佛紀 2557年 癸巳年 謹賀新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18 전면광고

깊은 못은 맑고 고요해 물결에 흐려지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듣고 마음이 저절로 깨끗해진다.



대한불교조계종
행복 나눔 도량

금 선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산 4-1번지
TEL 062)942-3260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광주포교당

길 상 사

주 지 도 제

새벽예불 -매일 오전 5시
초발심자경문 강의 -매일 오전 5시 30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어린이 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목련합창단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5번길 7
전화 062)955-4407
www.kilsang.kr

대한불교조계종

대 광 사

[부설] 사단법인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

주 지 정 선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535번지
TEL 062)222-4613
다음카페 ttp://cafe.daum.net/rs211

대한불교조계종

문 빈 정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화 062)222-2202

대한불교조계종

비 전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489-22번지
TEL 062-951-3562

대한불교 조계종

연 화 사

주 지 명 신

[부설]
연화유치원, 어린이집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 448-2번지
TEL 062)227-7295 /유치원 227-0173

대한불교 조계종

무등산원효사

주 지 현 지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TEL 062)266-0326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절

유 유 암

주지 아 도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 조계종

천 룡 사

주 지 無 等

신 도 회 회 장 : 진여성(김경자)
부 회 장 : 지장원(조금자)
부 회 장 : 연화행(이정순)
용연거사림회 회 장 : 현 장(신덕현)
총 무 : 백 운(전상현)
신행기도회 회 장 : 지혜행(정홍덕)
사 무 장 : 청정심(이현숙)
총 무 : 해인성(김 율)
총 무 : 청량지(김현순)
포 교 : 선혜지(오그린)
좋은인연 산행회 회장 : 성 관(김성일)
총무팀장 : 홍 천(박종옥)
총무담당 : 정혜성(김영아)
산행팀장 : 도 선(정준철)
산행담당 : 금강혜(김경숙)
봉사팀장 : 환희성(조혜영)
선재청소년단 단장 : 묘금련(홍희일)
대표교사 : 선연화(홍록규)
주 임 : 선명화(정연지)
주 임 : 정각성(이연주)
주 임 : 대원행(김수민)

■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240번지(용연길 26-23)
☎ 062)234-1338, 010-8932-1825
다음카페 : 천룡사 - 좋은인연http://cafe.daum.net/chunjoun

현수막 제작 · 인쇄물 기획제작
부다기획

도서출판
수미등

현수막, 도서출판, 사보, 법요집
신문, 달력, 포스터, 카다로그
리플렛, 초대장, 봉투, 상장
상패, 수첩, 수료증, 명함, 스티커

광주시 동구 산수동 570-1
TEL 062)225-8825
FAX 062)225-8826

내 부모님처럼 모십니다

백양실버타운

이사장 원 일

직원 일동

■ 전남 나주시 봉황면 송현리 649-62
TEL 061)333-5622

아 주 미 디 어

대표 오태준

콘서트. 체육대회,
대학축제, 지역축제
음향, 무대, 조명, 의자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42-6
전화 062)381-8052
팩스 062)381-8056
010-3624-2321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광주포교당 성거사

주 지 혜 공

사부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서2동 143-2
전화 062)676-1080

천 불 사

주 지 지 명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77
TEL 053)982-3350

법 륜 사

주 지 시 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2동 871-1
TEL 053)851-2666, 781-4200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1)

제석천이 야간(野干 · 승냥이)에게 법을 받다

법으로 보시하면 공덕이 한량없다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천명하실 때, 천인과 인간뿐만 아니라 용과 귀신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셨다. 해서 재세와 후세의 제자들에 의해 보존된 불전 속에는 비유나 전생담 등 신비한 고사들이 함께 하는데, 감로와 같은 부처님 말씀에 가려 드러나지 않음이 있음이다.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과 부처 사이의 신이한 이야기들을 좇아가 본다. 이야기의 구성은 〈경률이상-동국역경원〉에서 가져왔다.

〈불설미증유경〉 상권에서 전한다. 비마국 종타산에 야간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사자에게 쫓기다 우물에 빠졌는데, 사흘 째 되는 날, 죽을 것을 깨닫고 게송을 남긴다.

"온갖 것이 모두 허망하니 /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못함이 오히려 한스럽구나 / 어찌하여 죄 있고 액난 있는 몸이 / 목숨을 탐내다가 공(功)도 없이 죽는가? // 공 없음도 한스럽거늘 / 도리어 인간의 물을 더럽히는구나 / 시방 부처님께 참회하니 / 원컨대 제 마음을 비추어 주십시오 // 전세에 지은 모든 나쁜 업(業)을 / 현재 받는 몫으로도 모두 다하게 하며 / 이로부터 밝으신 스승을 만나 / 수행이 끝나면 부처되길 바랍니다"

전세에 지은 모든 나쁜 업
현재 몫으로 다하게 하며
밝은 스승을 만나
수행 끝나면 부처 되길 발원

제석이 이를 듣고 8만의 천인과 함께 우물에 빠진 야간을 찾아와 말했다. "성인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여 오랫동안 어두웠고 길잡이가 없었는데, 아까 비범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원컨대 저희들을 위해 가르침을 베풀어주십시오." 천인들이 저마다 보배 옷을 벗어 법석을 마련하니 야간이 우물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법석에 올라 설법했다.

"두 가지의 큰 인연이 있습니다. 첫 째는 설법으로 천인을 깨우쳐 교화하면 복이 한량없음이요. 둘째는 먹을 것을 보시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니, 어찌 설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석이 말했다. "우물에 빠진 액난을 면하게 된 공을 갚음도 마땅히 크다고 해야겠지만, 어떻게 설법하여 갚는 은혜가 이에 미치지 못하겠습니까?"

야간이 대답했다. "살고 죽음의 마땅함은 저마다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남을 모르는지라 부처님 법을 어겨 멀리하고,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여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며, 오로지 옳은 것과 베푸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삶을 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삼보를 받들어 섬기고 밝은 스승을 만나며, 악을 고치고 선을 닦으며 부모에게 효도 봉양하고 스승과 어른을 섬기며 권속끼리 화평하고 아랫사람들에게도 겸양하고 공경합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내생에 천상에 태어납니다."

다시 제석이 말했다. "높으신 이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그 몸과 목숨을 온전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공이 없는 이라 하였습니다. 음식보시와 법보시에 대해 들려주십시오."

야간이 대답했다. "음식을 보시하면 하루의 생명을 건지고, 값진 보물을 보시하면 한 세대가 가난을 구제하지만, 생사만을 더하고 인연에 얽매이게 됩니다. 설법으로 교화함을 법보시라 하는데 중생으로 하여금 세간의 도를 벗어나게 합니다. 첫째는 아라한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벽지불이 되는 것이며, 셋째는 부처님의 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3승(乘)의 사람이야말로 모두가 법을 들어서 말씀대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중생이 3악도를 면하고 인간과 천상의 복락을 누림



삽화 · 강병호

도 다 법을 들어서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법으로 보시하면 공덕이 한량없다' 고 하셨습니다."

제석이 말했다. "스승께서는 지금의 형상이 업보로 된 것입니까? 응화신(應化身)이십니까?"

"이는 죄의 업보이고 응화가 아닙니다." 야간이 대답하자 제석이 다시 물었다.

그 인연을 들려주십시오."

야간이 말했다.

"옛날에 바라내 파두마성의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으나 어릴 적부터 총명하여 특히 배우고 익히기를 좋아했습니다. 열두 살이 되자 밝은 스승을 따라 깊은 산에 살면서 고난을 달게 받으며 받들어 섬기고 매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50년이 지나자 아흔여섯 가지 경서, 참기론, 의방, 주술 등에 통달하지 않은 데가 없었으므로 높은 재주와 지혜는 사방에 멀리 소문이 났습니다. 그 뒤 얼마 되지 않아 국왕이 죽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뒤에 안타라국과 마라바야국은 서로 여러 해 동안 싸움을 했으나 이긴 나라가 없었습니다. 안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라바야국을 이길 수 있겠느냐?'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바라내의 파두마 국왕뿐입니다. 하천한 태생이나 열 가지 계율을 받들어 지니며 외욕을 범하지 않습니다. 비록 궁녀가 있으나 모두 나이가 들었으니, 뛰어난 여인을 가려 뽑아 그에게 바치고, 그로부터 병사를 빌려 싸운다면 마라바야국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고 했습니다. 궁녀를 받은 파두마 국왕은 군사 백만을 보내 그들을 도왔고 안타라국은 마라바야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파두마국의 왕은 본래의 뜻을 잊어버리고 호사하여 오락에만 집착하여 나라의 정사를 다스리지 않았는지라,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으로 났는데, 여러 가지 모진 고통을 받았으나 스스로가 전생 일을 알고 마음으로 뉘우쳐서 다시 목숨을 버리고 아귀계에 났습니다. 다시 더 참회하여 열 가지 선행을 닦고 생각하여 다시 야간의 몸을 받았으나 다시 열 가지 선행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사자를 만나 이 우물 속에 빠져서 죽을 것을 깨닫고, 하늘에 나서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받기를 바랐는데, 당신이 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서원을 잃었으니, '당신이 나의 생명을 구제하였지만 공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야간은 자신의 지금 형상이 죄의 업보임을 말한다. 이 때 제석은 8만의 천인들과 함께 열 가지 착한 법(十善法)을 받고서 먼저 열 가지 방편으로 모든 감관을 조복시키니, 여섯 가지 바라밀과 자(慈) · 비(悲) · 희(喜) · 사(捨)이다. 이때 천인이 물었다. "이제 천궁으로 돌아가실 텐데, 화상께서는 언제 이러한 죄보를 버리고 천상에 태어나게 됩니까?"

야간이 말했다. "7일 뒤면 이 몸을 버리고 도솔천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대들도 그 하늘에 나기를 원해야 할 것이니, 많은 보살들이 계시면서 설법하며 교화하십니다." 그는 7일 만에 생명이 다하여 도솔천에 났는데, 다시 전생 일을 알고 10선도를 행하였다.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일기 ①

사람도 자연만큼 정직하게

사람도 자연만큼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으련만, 결에 있으면서 친히 지내면서도 비밀이 많아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년 만에 한번 볼까말까 하는 사이라도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도 있다.

양파는 벗겨도 또 벗겨도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그대로 임을 보게된다.

그런가 하면 밤송이는 무서운 가시로 온 몸을 감고 있어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그 속의 알밤에도 역시 딱딱한 껍질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단단함 속에 또 한 번 떫은 막으로 싸여있어서 그마저 벗겨 내고서야 밤의 진실을 알게 되고 달콤한 맛을 느끼게 된다.

양파처럼 겉과 속이 한결같아서 더 궁금해 할 것 없는 사람과는 아무런 허물이 없는 순수한 정을 나눌 수 가 있다. 밤송이처럼 겉모습은 까칠하지만 그 속마음을 알면 알수록 진실한 인격과 인품으로 향기로운 삶을 보게 될 때면 그를 스승으로 섬기게 된다.

벚나무는 봄이 되면 언제나 그 투박한 나무 가지에 앙증스런 꽃망울을 힘이 부치도록 터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은 거짓이 없어 해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제각기 자신들의 조상을 이고 나타난다.

내가 아닌 '우리' 로 살아야
정직한 꽃의 종자처럼 살고파

우리 인간들도 다 부모님들의 모습과 성을 이어받아 태어나면서부터 각기 다른 또 하나의 가문을 이루어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으레 그 부모에게로 흉이 돌아가고 부모는 그 욕마저 다 받아들이며 자식의 허물을 덮어준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렇게 가히 없지만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마음은 어찌 부모를 따를 것인가. 자식은 부모의 조그마한 허물에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부모를 외면하고 원망함을 보게 된다.

그러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도 자기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또한 지극하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행복한 우정으로 살아가려면 첫째 나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다. 내가 아닌 우리로 사는 방법이라면 우선 나보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 허물없는 정 나눔일 것이다.

물질의 풍요로움은 전생의 복으로 금생에 누리고 살지만 본시 내 것 없이 태어나 내 것을 만들어 가며 살고 있으니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을 복되게 나누어 살 수 있음이 보살의 서원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 탐내어 말도 아닌 논리로 우기며, 힘으로 빼앗으려 든다면 이것은 자연의 도리에 역행하는 죄를 짓는 행위일 것이다.

오늘도 신문이나 방송은 좋은 소식보다 사회를 어지럽히는 유쾌하지 못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또 무엇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 모두에게 공덕이 될 서로 아끼고 칭찬 할 일들로 가득 했으면 싶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어야 하리라.

많이 가질 만한 사람이 가짐은 지극히 당연하고 분수에 맞지 않은 것을 가지려함은 탐욕이 될 뿐이다.

따라서 사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은 지극히 당연함이나 할 수 없는 일임을 알면서도 아무 일에나 집착을 한다면 필요없는 간섭이며 욕심일 것이다.

우리 모두가 꽃을 심어보자.

내년에도 다시 그 꽃을 만나보자.

자연은 정직하니까 심었던 그 종자의 꽃이 그대로 피게 되리라.

우리의 삶도 그러하며 내생의 행복한 과보를 얻기 위해 미움과 원망을 만들지 말고 맑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해야 할 것이다.

후회하지 않을 삶을 위해

* 보고 싶은 사람 생각날 때면 미루지 말고 만나라.
* 은혜는 꿈에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 주변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축원하고 기도해 주어라.
* 때때로 마음을 비워 홀가분하게 살아라
* 미움은 빨리 비우고 고마움은 오래 가져라
* 빚지지 말아라. 가능하면 빨리 갚으려고 노력하라.
*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라.
* 먼 곳의 벗에게 편지를 쓰라.
*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고 아름다운 가슴을 만들어야 한다.
* 하루에 3번 내 삶을 돌아보자
* 생각해보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자
* 상처 되는 말을 삼가 하자

내가 부르는 축원의 노래

언제나 고마운 마음으로
당신을 생각함은
그건 곧 당신을 위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당신을 잊지 못함도
당신 모습이
이미 내 가슴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당신을
항상 품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당신 위한 기도 중이란 뜻입니다
앉으나 서나 내 속에
잠겨있는 당신이 있기에
거룩한 성전의 축원처럼 행복하답니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큰 은혜의 마음으로
내가 부를 축원의 노래입니다
부디 행복 하시라고.



이정옥(대원성 · 부산 연꽃모임회장)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포교와 수행의 도량 세계일화 화 계 사

계사년 밝아오는 새해에도 각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화계사 사부대중은 서원합니다

조 실 송원 설정 대종사
회 주 성광 대화상
주 지 수암 화상
신도회장 대법성 외

화계사 사부대중 일동

정기법회

초하루 기도	매월 초하루
칠 성 기 도	매월 (음) 7일
산 신 기 도	매월 (음) 16일
지 장 재 일	매월 (음) 18일
관 음 재 일	매월 (음) 24일
철야다라니	매월 둘째주 토요일
철야삼천배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신도교육

기본반(3개월과정)	화요일 / 일요일
교 양 반	토요일 (천수경,예불반야심경, 의식교육)
불교대학(2년과정)	수요일 / 토요일
대학원(1년과정)	화요일 / 일요일
경 전 반	금요일 / 토요일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화계사 Samgaksan Hwagyesa 서울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 ☎ 02)902-2663 전송 02)990-1885 / wwww.hwagyesa.org

佛紀 2557年 · 癸巳年





새해 福 많이 나누세요

문장 진불장 혜성 조실 경하 현성
주지 선묵 혜자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동광

청담문도회, 청담장학문화재단, 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학교법인 청담학원,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관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전화 : (02)993-3161~3 팩스 : (02)993-3164 홈페이지 : www.dosunsa.or.kr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사부대중 일동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금단로 124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1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0-3(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ngukzen.org

謹賀新年 상광사의 풍경소리로 세상은 자비로 워집니다.
2013년 癸巳年
불기2557년 / 단기4346년
계사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불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주 지 류 화 산
• 총 무 유 대 명 • 교 무 손 형 선 • 재 무 김 도 진 • 노 전 김 용 덕
• 고 문 김길두 김동필 전무수 홍영표 이종화 장석근 김형대
• 신도회장 김 석 조
• 신도부회장 홍경표, 조임순 • 총무위원 이천경 • 교무위원 정재위 • 재무위원 김상준, 김영숙, 부학자
• 사업위원 주우현 • 기획위원 윤태용 • 복지위원 김광호 • 홍보위원 최주덕 • 문화위원 이봉영
• 부녀위원 정옥순 • 지도위원 한유성 김성훈 이방자 김복자 사부대중일동 합장

• 정 기 법 회 : 매월 1, 2일 오전 10시
• 어린이·학생회법회 : 2, 3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청 년 회 법 회 : 매월 1일, 3주 일요일
• 철야 관음정진 : 매월 1주일 동안 봉행

삼광사 산하교육기관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
부산금강불교대학 / 삼광한글학교 / 삼광한문학교 / 삼광다도대학

대한불교조계종 삼광사 三光寺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 TEL:(051)808-7111~5 FAX:(051)803~1332 http://www.samkwangsa.or.kr

계사년 한 해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천태종
서울 우면산 관 문 사

주지 김영제



총 무 구성해
교 무 박도선
노 전 장보성
부전거사 정성영
신도회장 장영일

외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번지 전화 : 02)3460-5300 / 팩스 : 02)3460-5200 / www.gwanmunsa.org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전화 : 053)767-3100 / 팩스 : 053)765-1600